

김문자 회장(제주 삼광사 덕희봉사회)
자비나눔 50년 '제주 봉사왕'
봉사자 '명예전당' 1호
16·17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9월 23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14호 2014년 10월 16일 목요일

창간 20주년 커버스토리- 불교, 人文과 通하였는가

불교·인문학 만남 시대사상의 새 가치

'인문학 열풍'이라는 말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낯선 문구가 아니다. 10년 전만에도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나왔지만 지금은 인문학 대중서가 대형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이름을 올리고, 강신주 등과 같은 스타 저자들도 생겨났다. 각 대학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교도소까지 앞 다퉈 인문학 강좌를 열고 있다.

인문학 열풍은 불교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 잠실 불광사 부설 불광연구원과 조계사 등 도심 사찰들도 사찰 불교대학에 인문학 강좌를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으며, 승가교육 과정에서도 인문학 강좌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행성, 정의평화불교연대의 눈부처학교 등 전문 아카데미들도 개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불교와 인문학의 통섭을 위한 연구와 담론들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불교와 서구철학 간의 학제 간 연구 등을 포함한 응용불교학이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불교평론〉 22집에 기고한 '21세기 인문학으로서 불교철학의 가능성과 전망' 제하의 논문에서 포스트모더니즘 · 욕망 이론 등과 같은 서구 철학 등과 불교 철학의 접점을 모색했다. 이 교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선(禪), 욕망이론과 연기론, 정보화 사회와 공(空)이 연결돼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불교는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으로 매우 유용하다"면서 "새로운 시대의 인문학은 수많은 타자와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는 마음, 나보다 더 약한 것들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안내하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통섭을 넘어 '불교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했다. 조 교수는 "불교는 절대자를 믿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인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불교는 단순히 인간 중심이 아닌 모든 만물과의 상호 존재를 중요시 한다"면서 "이제는 불교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불교 인문적 사유를 통해 현대 사회를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 인문학은 시대 언어로 불교를 이야기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여기 나의 눈으로 '불교'를 바라보며, 또한 불교를 통해 '나'를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문학으로서 불교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넘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이 인문학 열풍 중이지만 이면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너무 짙기 때문이다.



그림 · 박구원

'삶의 근본' 성찰하는 불교와 인문학 맞닿아

현실은 '깜깜한 밤길'
연구 인력 · 환경 확충에 종단 · 대학들 지원 필요

불교대학 내 응용불교학 전공이 있고 인문한국(HK)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수주했지만 불교와 인문학의 통섭을 위한 연구 환경 조성이 아직 미흡하다. 특히 HK사업은 10년 한시 사업으로 100%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즉, 대학에 머물 수 있는 연구 인력 정원이 한정적이다보니 전문 인력이 활용될 곳이 적다는 것도 문제다.

조성택 교수는 "동국대를 제외하고 나면 전국에 불교 학자를 필요로 하는 정원이 10곳이 안된다"면서 "불교 종립대와 종단들의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 불교학의 저변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A6·7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 창간 20년 '화엄만다라' 세상 만들겠습니다



화엄만다라의 주인공은 사부대중

문서 포교의 원력을 세우고 전법의 길을 나섰던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20주년을 맞았다.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전하기로 서원했으니 현대불교신문 역시 부처님의 제자가 분명하다.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 부루나 존자는 영민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대중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재주가 부처님의 제자 중 제일이었다. 길 위에 나선지 20년, 현대불교는 신문의 부루나 존자가 되기를 제2의 원력으로 세우고 다시 한 번 점검의 자리를 닦는다. 그 자리는 화엄을 꿈꾸는 자리이고, 만다라를 그리는 자리일 것이다. 사진은 2012년 9월부터 연재되고 있는 '화엄만다라'를 장엄했던 부처님의 제자들이다. 현대불교신문은 앞으로 더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과 함께 문서포교 제일의 부루나 존자가 될 것을 독자 앞에 서원한다.

박재완 기자

동국대, 대학평가 '11위'

중앙일보 대학평가서… 2단계 상승 역대 최고 평점

108주년 기념관 불사 선포식도

동국대가 10월 6일 발표된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하며 역대 최고 성적인 11위를 기록했다.

동국대는 핵심 지표인 국제화 3위(전년 4위), 평판도 15위(전년 17위), 교수 연구 18위(전년 19위), 교육여건 및 재정 23위(전년 26위)로 전 분야에서 고른 순위상승을 이끌어 냈다.

동국대는 2008년 29위에서 매년 꾸준히 순위상승을 이뤄내며 올해 11위까지 상승해 국내대학 중 가장 성공적으로 대학 체질을 변화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동국대는 또 신공학관 · 산학협력관을 준공하는 등 이공계 인프라를 세배 이상 늘려 2005년 44위였던 순위를 2010년 17위, 2012, 2013년 13위로 끌어 올렸다.

이번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국제화 평가로 외국인 학생 수나, 해외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외국인 교수 수, 영어강의 등에서 동국대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국제화를 자랑했다.

그동안 낮은 평가를 받았던 교육여건 및 재정분야도 지난해 26위에서 23위로 올랐다. 불교계의 기부가 이어져 지난해 기부액은 역대 최고인 309억원을 기록했다. 기부자 수도 크게 늘어 6,600여 명이 기부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10월 8일 108주년 기념관 건립불사 선포 및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밀운, 원로의원 종하 스님 등을 비롯해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불교계 주요 내빈과 총동창회, 불교대학원 등 대학 동문 5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졸속 행정'

유은혜 의원 국정감사서 비판

문화재청이 8월 발표한 '문화재 특별종합 점검'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10월 10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별 종합점검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계획 수립단계부터 실제 점검까지 졸속으로 실시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절기에 점검을 진행 한 점과 문화재 과거 이력을 확인해야 함에도 실측보고서, 수리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미리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를 생략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 중 하나로 문화재 부실 관리 근절을 말하자 부랴부랴 실시한 졸속 · 부실 조사"라고 비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 특집- 48면 발행

A 시방세계 · 2014 서울 전통사찰 WEEK 5
특집1 · 불교, 人文과 通하였는가 6·7
20주년 각계 축하메시지 9·10
현대불교신문 20년 발자취 11
현대불교신문 20년 20대 뉴스 12

B 특집2 ·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 1~4
특집3 · 불교언론 방향 5
특집4 · 가족신행공동체 7~9
현대불교와 나 15

현대불교신문사가 창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성원해주신 제방 스님들과 독자 제현에게 감사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앞으로도 불법홍포와 한국불교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주지 성타

관장 종상 재무 종천
학장 덕민 사회 종민
선원장 종우 포교 성요
총무 종천 호법 각천
기획 정문 사서 정빈
교무 정수 회계 성명
신도회장 이영숙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중일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1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불교음악상 후보 공모

조계종, 10월 24일까지 접수

조계종이 '제2회 불교음악상'을 개최한다. 수상자는 추천 공모를 통한 후보 접수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지원 분야는 불교음악 개발(작사, 작곡, 편곡 등) · 보급(연주, 가창 등) · 기타 불교음악 발전에 대한 모든 분야다. 추천 자격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각 부서장 및 교구본사 주지와 조계종 등록 사찰 주지 및 종단 등록 각급 문화 · 포교 · 신도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추천 및 지원 접수 기간은 10월 24일 오후 6시까지이고, 접수 방법은 추천서 및 공적조서(종단 홈페이지 www.buddhism.or.kr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공적사항 증빙서류와 후보자 이력서를 작성 조계종 문화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상식은 12월 19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총무원장 상장과 트로피 및 상금(대상 1명)은 500만원, 공로상(2명, 각 300만원), 원력상(2명, 각 100만원)이 주어진다. 정혜숙 기자

세계 슬로푸드대회서 사찰음식 정수 전한다

문화사업단, 이탈리아 토리노서

한국의 사찰음식이 세계 160여 개국 10만 명이 넘는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슬로푸드운동국제협회(회장 카를로 페트리니)가 개최하는 세계슬로푸드대회에 초청됐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이탈리아 토리노 링고또에서 열리는 세계슬로푸드대회에 참가해 사찰음식의 정수를 전한다.

한국관에서는 사찰음식을 주제로 한 전시, 체험, 강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전시코너에서는 사계절을 대표하는 사찰음식 사진전과 사찰 전통 공양간을 재현한 닥종이 인형전과 함께 홍보영상을 통해 사찰음식의 과거와 오늘은 소개한다. 이와 함께 스님과 함께 사찰공양작법을 체험하고, 음식 만드는 시간도 마련된다. 정관스님과 발우공양을 해 보고, 우관스님으로부터 사찰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는 자리다. 또 행사기간 동안 사찰음식레스토랑을 운영해 점심과 저녁 사찰음식을 판매한다.

워크숍에 참석해 사찰음식의 특성을 알리기도 한다. 선재스님은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맛 워크숍에 참석해 '한국의 전통장맛'을 주제로 발제하며, 대안스님은 한국관 내에서 사찰음식 강연 및 시연을 한다. 신성민 기자

"說法도 종단 지도자의 자격"

조계종 2, 3급 승가고시 시행
2급 고시서 종단 첫 설법시연
고시위 · 재가 평가단 참여 심사
내년 4월, 1급 승가고시 개최



10월 10일 열린 조계종 2급 승가고시에서는 설법 시연이 처음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응시자 스님이 설법 시연을 하는 모습 사진 제공= 조계종 교육원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과 각종 위원회 위원 등 종단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스님들의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이 진행됐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10월 10일 중앙승가대 지혜관에서 2급 승가고시를 개최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은 2급 승가고시에는 기존 '논술고사' 외에 '설법시연' 분야가 신설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설법시연은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직장인, 공무원, 일반불자, 환자 및 임종환자 등 설법 주제와 대상을 선택해 미리 제출한 설법문안을 토대로 10분간 법문을 시연했다.

심사는 고시위원 스님 3명으로 구성된 설법평가위원 외에도 김포불교대학 수강생과 포교사 등 10명으로 이뤄진 청중평가단이 맡았다. 평가위원과 평가단은 응시 스님의 설법을 들으며 △감화력 △설법주제의 부합도와 논리성 △경전 활용도 △표현력 및 설법자세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심사했다.

논술고사는 지혜관 2층에서 진행됐다. 스님들은 수행분야에서 '조사선과 간화선의 차이 및 특성', '자살 · 안락사 · 가축질병에 따른 대량 동물 살처분 문제 등 생명경시사상 극복을 위한 불교적 대안', 포교 · 사찰운영분야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현대인에 대한 포교방안', '종단 공찰에 대한 재정공영화 방안' 등 미리 제시된 여러 주제 가운데 하나를 골라 준비된 답안을 작성했다.

오후에는 응시자들에 대한 면접이 진행됐다. 비구스님들과 비구니스님들은 각각 2개조로 나뉘어 수행이력과 불교관을 점검하는 질문에 답변했다.

이에 앞서 고시위원회는 9일 중앙승가대학교 지혜관에서 3급 승가고시를 시행했다. 필수과목이던 '조계종사'는 올해부터 주관식 단답형 문제풀이로 대체됐다. 2, 3급 승가고시 합격자 발표는 15일 오후 2시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고시위원회는 다음해 4월 중순경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1급 승가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역대 최초로 진행될 1급 승가고시는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해 대덕 · 혜덕 법계를 수지하고 5년 이상 경과한 스님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연간 30점씩 5년, 누적점수 150점 이상 수료한 자에 한해 응시 가능하다.

1급 승가고시 응시자는 2급, 3급과 달리 문제풀이 · 논술 · 설법이 아닌 대덕 · 혜덕 법계품수 이후의 수행 및 교화활동 이력과 향후 활동계획을 점검하는 '갈마'를 통해 평가한다. 선 · 교 · 율 · 종무행정 분야에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종사 이상의 비구 8명, 명덕 이상의 비구니 2명 등 총 10명으로 이루어진 갈마위원회를 구성해 개별 심층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잡음'

제주 관음사, 미입주 말사 9곳
주지 임명… 선거인 확보 논란
비구니 종회의원 선출 마찰
열린 모임 "종법 위배해 무효"

조계종 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곳곳에서 잡음을 낳고 있다. 제주 관음사에서는 선거인단을 확보하기 위한 말사 주지 임명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을 놓고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계종 16대 중앙종회의원 총선거에서 제23교구 관음사 중앙종회 의원에 입후보한 승언 스님이 10월 10일 호법부에 관음사 주지 성효스님과 말사 주지 10명의 부정선거 혐의를 조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9일에는 관음사 교구선관위에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을 했다.

승언 스님은 이의신청서와 고소장을 통해 "관음사는 16대 중앙종회 의원 선거를 불과 3개월 정도 앞두고 12개 말사 주지를 임명하였다"며 "용주사 말사인 여주 반야사와 당진 극락사가 관음사의 말사로 등록돼 본사가 이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지로 임명받은 이후 사찰에 전혀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신도들의 제보가 있다"며 "이는 '종무원법'의 복무지 이탈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선거권을 박탈함은 물론이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을 두고 전국비구니회와 일부 중진 스님이 나눠져 마찰을 빚고 있다. 전국비구니회 현 집행부 측에 반발한 12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은 자체적으로 '열린비구니모임(공동준비위원장 혜운 · 임대 · 정현)'을 구성하고 "대중공의를 외면하고 비구니회 소수 운영진이 제16대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를 독단적으로 선출했다"며 "선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열린비구니모임은 10월 9일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10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은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다"며 후보자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도 "비구니 중앙종회 선출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로 이의 신청서를 접수시킨 진명 스님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비구니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지만 종헌종법의 틀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소수의 전국비구니회 운영진이 종헌종법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종회의원 후보를 선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구니 종회의원은 전국 6000여 명의 비구니를 대표하는 대의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비구니 전체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비구니회가 소수 운영진의 의견에 따라 종회의원을 선출한 것은 결코 동의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성민 기자

"국제불교연맹 한국지부 설립 부탁"

IBC 라마롭상 스님, 8일 자승 스님 예방

국제불교연맹(IBC, International Buddhist Confederation) 사무총장 라마롭상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IBC 한국지부 설립, 인도 불교성지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원을 요청했다.

라마롭상 스님은 10월 8일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지난해 11월, 3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IBC를 창립했다. 현재 인도 정부와 성지사업 위원회를 구성, 부다가야 · 나란다 대학 · 쿠시나가라 등 주요 불교성지의 기반시설 개발 및 보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께서 내년 10월 조계종에서 주최하는 세계평화기원대회에 초청해 주셨다. 마침 10월 말에 IBC 총회도 열릴 예정인 만큼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잘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예방한 키쇼 IBC 상임이사는 IBC 한국지부 신설을 요청했다. 키쇼 이사는 "IBC 회원들이 세계 각지에서 포교를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도 IBC 지부를 설립하고자 자승스님을 찾아뵙게 됐다"며 "지부가 설립되면 조계종과 IBC의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포교 활성화 및 국제 사업 추진 등을 보다 활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BC 사무총장 라마롭상스님은 10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했다.

이에 자승스님은 "한국 방문을 환영하고 IBC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우리 종단도 IBC 발전 및 활성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성민 기자

"종단 발전 이끌 인재 양성해달라"

조계종, 3기 장학위원 위촉… 위원장에 보광 스님

조계종이 종단 인재 양성을 위한 제3기 장학위원회를 구성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 등 제3기 장학위원회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제3기 위원은 위원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 서울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스님, 서울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법진스님, 무애 스님, 대구 선본사 주지 성본스님,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선일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정도 스님 등 11명이다. 임기는 2016년까지 2년 간이다.

자승 스님은 "스님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해오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잘 선정해 종단 발전을 이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광 스님은 "그동안 일회성 지원이 아닌 전체 과정이 끝날 때까지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부는 물론 평소 생활태도까지 평가로 삼는 등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 졸업 후 종단 인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장학위원회는 조계종 장학승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을 심의 · 결정하는 기구로 2010년 6월 처음 구성됐다. 그동안 58명의 스님들에게 3억 4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노덕현 기자



제3기 조계종 장학위원. 왼쪽부터 성본 · 계호 · 원명 · 원학 · 총무원장 자승 스님 · 보관 · 선일 · 정도 스님

창간 20주년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대한불교 선교종

총무원장 삼주 이사장 화 엄

원로의장 용암
원로부의장 명종
원로간사 법운

종회의장 해동
종회부의장 보각
경기남부종회의원 도원. 일성
경기북부종회의원 지산
경북종회의원 법연
전남종회의원 자각. 지산. 지현
충남종회의원 삼규
제주종회의원 동해
부산종회의원 재성
대전종회의원 정원
사무처장 도천

교육원장 보월
포교원장 지현
감사원장 성일
선거관리위원장 재성
총무부원장 상원

총무부장 광은
교무부장 법광
재무부장 정원
포교부장 동해
규정부장 혜명
비구니회회장 보현
비구니회부장 연수
자비실천나눔회장 광명심
봉사위원장 청정심
봉사부장 수연
조직위원장 문상철
문화부장 연화

총무국장 도천
교무국장 송암
포교국장 삼규
사회국장 정수
홍보국장 도화

경기남부종무원장 일성
경기북부종무원장 지산
경북교구종무원장 법연
전남교구종무원장 지현
충남교구종무원장 삼규
충북교구종무원장 도천
제주교구종무원장 동해
대전교구종무원장 정원
부산교구종무원장 재성
대구교구종무원장 보각

■ 총무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세종로 4928번지 2층 전 화 041)566-2277. 566-2278 팩 스 041)566-6141

"온 생명은 부처"… 불교, '생명평화 평창선언'

월정사 등 불교 단체 11일 '생물다양성' 주제 포럼서

"자연에 대한 폭력 줄이고 생명평화 문화 만들어가야" 정념 스님 · 불자 지식인 참여

지구촌 생명올림픽을 지향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UNCBD-COP12, 이하 CBD)' 본회의를 맞아 불교계가 생명평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와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 화쟁아카데미(대표 조성택)는 10월 11일 월정사에서 국제 NGO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 포럼에서 '2014 생명평화를 위한 평창불교선언'(이하 평창선언)을 발표했다.

'생명평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불자들' 명의로 발표된 평창선언에는 월정사, 조계종 환경위원회, 화쟁아카데미, 로터스월드, 불교생명윤리협회 등 불교 사찰?단체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법인 스님, 성전 스님, 태고종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 이중표 전남대 교수, 이병인 부산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이도흠 한양대 교수 등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이들은 평창선언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은 이제까지 생물종의 보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여전히 생명을 이용의 대상이나 경제적 가치로만 보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연에 대한 폭력적 지배를 근간으로 삼아온 생활양식을 종식하고 자연과 인간이 서로 평화 속에서 공존하는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모든 생명은 우주적 존재임을 알고, 인간은 모든 생명에 책임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선언 참가자들은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뭇 생명을 이용해온 삶을 먼저 참회하고 모든 생명들 '덕분에' 자신이 살고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되갚아야 한다"면서 "우리 인간은 자신이 끊어놓은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생명들 사이의 형평성과 권리를 지켜 지속가능한 생태적 순환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선언에 앞서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의 기조발제에 이어 전나무 숲길 걷기, 차담 등 불교의 생명존중 가치를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국제 NGO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월정사와 환경위원회, 화쟁아카데미는 9~10일 월정사에서 '생물 다양성을 바라보는 불교의 생명가치'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법인 스님이 '불교의 생명사상과 생명윤리'를, 환경부 CBD 기획단 이재호 박사가 '생물 다양성논의의 오늘과 내일'을,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이 '불교의 생명사상과 지속가능한사회' 등을 각각 주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병인 부산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임수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10월 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열리는 CBD에는 194개국 당사국 대표단을 비롯해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 대표,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등 2만여 명이 참석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0월, 깊어가는 가을 산사서 행복 에너지 충전하세요

문화사업단 선정 가을 템플스테이 3選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다. 곧 전국 산천은 울긋불긋한 단풍옷으로 갈아입고 사람들을 맞이한다. 깊어가는 가을 한복판에서 찾아가는 산사는 아름다운 풍경과 추억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는 10월 7일 본격적인 단풍 시즌을 맞아 맞춤형 템플스테이를 선정해 발표했다.

지리산의 품에 안겨 생생한 건강 에너지를 채우고 싶다면 **산청 대원사(055-974-1112)**로 떠나자. 대원사에서는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명상상담은 물론, 마음치유, 약초를 통해 체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활용법 등 독특한 체험 프로그램이 특징이다.

특히 '몸 생생'은 지리산 계곡 포행, 약초 찜질, 맹세이골 생태체험 등 건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다. '마음 생생'은 108 애니어그램 마음분석, 명상일지를 통한 삶의 습관 점검 및 다양한 명상법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평소 소홀히 하기 쉬운 마음의 건강 지수를 돌아본다.

온 가족이 함께 '기차게' 노는 템플스테이를 상상해 본 적 있는가. **영암 도갑사(061-473-5122)**에서 웃음 에너지를 채우는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기다리고 있다.

월출산 자락에 안겨 있는 도갑사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노는 게 제일 좋아'는 월출산 홀로 걷기, 스님과 놀기 등, 활기를 불어넣는 놀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달 1회 진행되는 '행복 충전놀이', 연 4회 운영되는 '氣차게 놀자'는 월출산 산행, 행복충전놀이로 자연 속에서 잘 놀고, 일상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색다른 체험을 제공한다.

문득 홀로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에는, 자아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양평 용문사 템플스테이(031-775-5797)**가 제격이다. 새로운 것, 특별한 것만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오래되고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 건강한 '나'의 모습을 챙길 수 있는 힘을 얻어 보자.

'나를 챙기다' 템플스테이로 잘 알려진 용문사에서는 새벽 예불, 건강 챙김 108배, 타종 체험, 스님과의 차담, 뽕잎 밥 체험 등의 상시 운영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이밖에도 전국의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서는 스쳐가는 가을,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성민 기자



아름다운동행은 조계사부터 봉은사를 걷는 '비움과 나눔 108DAY – 2014 아빠와 함께 아름다운 밤길 걷기'를 10월 8일 개최했다. 참가비 10,800원은 전액 탄자니아 학교 건립기금으로 기부됐다. **사진=박재완 기자**

아빠와 함께하는 도심 달빛 산책

동행, 108데이 맞아 비움 · 나눔 걷기 대회

"10월 8일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날이죠?"

"생일이요. 결혼기념일이에요. 새 아파트 열쇠 받은 날이요. 아들과 단둘이 처음으로 외출한 날입니다".

저녁 9시 조계사에 모인 3백여명에게는 10월 8일이 기념일을 넘어 '나눔데이'로 자리잡게 됐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비움과 나눔 108DAY – 2014 아빠와 함께 아름다운 밤길 걷기'를 개최했다. 저녁 10시 조계사를 시작으로 10월 9일 새벽 4시 봉은사까지 14km를 걷는 코스였다.

참가비 10,800원은 모두 아프리카 학교 건립기금으로 기부됐고 참가자들이 가져온 볼펜, 색연필 등의 학용품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전해진다.

10월 8일은 아름다운 동행이 비움과 나무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3년 전부터 '108 DAY'로 지정, 매년 일반인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이 사찰 순례와 함께 도심 속 밤길을 걸으며 가족애를 느낄 수 있도록 걷기행사를 열게됐다. 걷기를 통한 몸의 비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마음을 비우는 행사였다.

최연소 참가자 배종현(6) 군의 어머니 현영주씨는 "아이 생일이 10월 8일이다. 나눌줄 아는 아이로 자라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매년 기부를 해왔는데 얼마 전에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기부라는 말을 배워왔다. 올해는 온 가족이 나눔에 동참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녀 이정린(11)양과 참석한 이석종씨 역시 "딸과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없다. 우리 가족에게 오늘이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행사는 어린이 치어리딩 공연을 시작으로 가족과 나눔 레크리에이션, 몸풀기 체조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손에 야광풍선을 들고 밤길을 밝혀가며 걸었다. 코스 중간마다 기부유형알기, OX퀴즈, 기념촬영 등의 미션을 수행한 참가자들은 봉은사에서 108배로 회향했다. **배현진 기자**

'국가 자행' 폭력 상처 치유와 해법 모색한다

불시넷, 10.27법난 기념사업 개최

1980년 국가에 의해 불교계의 권리와 명예가 유린당한 '10 · 27법난' 34주기를 맞아 그동안 국가에 의해 자행된 차별과 폭력의 사례를 살펴보고 치유와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10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0 · 27법난 기념사업–국가폭력, 성찰과 치유의 길을 찾아'를 진행한다. 기념사업은 서울 조계사 안심당 3층법당에서 진행되는 '릴레이강연'과 국가폭력의 현장과 치유의 현장을 돌아보는 '현장탐방', 국가폭력에 의한 고통에서 벗어날 해법을 모색하는 '치유워크숍' 등으로 구성된다.

'잊혀진 목소리를 다시 듣다'를 주제의 릴레이강연은 10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열린다. 강연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의 '군인정신에 숨겨진 군대 내 폭력' 강연을 비롯해 장경욱 변호사의 '정치적 이념의 다름, 무엇이 문제인가', 박경석 전

10월16일~11월 29일까지

강연 · 탐방 · 워크숍 진행돼

군대 · 노동 폭력 등 조명

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장애인, 죽어야 사람인가', 신영숙 새움터 대표의 '미군위안부 숨겨진 진실', 임지운 반올림 변호사의 '국가를 지배하는 기업의 출현',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대표의 '존재를 지우는 폭력–성적 소수자' 등이 진행된다.

국가폭력에 대한 성찰과 치유의 현장을 돌아보는 현장탐방은 10월 30일~11월 1일 2박3일간 김근태 치유센터와 평택 쌍용차 해고자 치유공간 '와락', 햇살센터, 노근리 평화공원, 광주트라우마센터 등을 돌아본다. 11월 29일 오후 1시에는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드러내고 다시 함께' 주제로 치유워크숍이 열린다.

불시넷은 "국가폭력은 여타의 다른 폭력과 달리, 그 근본주체가 국가라는 하나의 거대한 권력기관인 만큼 그 폭력의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상처를 남긴다"며 "불교적 관점, 즉 연기적 관점에서 볼 때도 뭇 생명과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을 고양해야 할 국가에 의해 자행된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10 · 27법난 기념사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장애인, 군인, 기지촌 성매매 여성, 성적소수자 등이 그동안 국가로부터 어떤 차별과 폭력을 받고 어떤 고통을 겪어왔는지 성찰하고, 그 고통을 극복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창간 20 SINCE 1994 주년

지구촌공생회 Good Hands

세계를 껴안는 자비 실천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깨끗한 물을 만드는 생명의 손

캄보디아, 몽골, 미얀마, 케냐에 총 2,204기의 생명의 우물과 물탱크를 건립해 20만 명의 지구촌 이웃들에게 급수공덕(給水功德)을 실천해 왔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희망의 손

아시아와 아프리카 8개국에 유치원 13개원, 초중고 30개교, 청소년센터 4곳 등 총 47개의 교육시설 건립으로 지구촌 5만 명 아이들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지역을 개발하는 자립의 손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삶이 황폐해진 유목민들과 빈곤국가 주민들에게 5곳의 농장과 공동 작업장에서 소득 증진을 통한 자립과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지원합니다.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는?

너와 나 그리고 세상이 하나임을 깨달아 종교, 민족, 이념의 경계를 넘는 보편적 인류애를 실현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2003년 前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창립한 국제개발협력 NGO입니다.
www.goodhands.or.kr

후원문의 02.3409.0303

후원계좌
국민은행 337101-04-019295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
농 협 100026-55-003657 (사)지구촌공생회
우리은행 1005-501-776078 (사)지구촌공생회

※ (사)지구촌공생회는 공익성 지정기부금 단체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사장 송월주 이사 자승 이사 도영 이사 성타 이사 설송 이사 도원 이사 평상 이사 지홍 이사 선묵 이사 원행 이사 지현 이사 정념 이사 성우

일 주 문



논산 육군훈련소 수계법회

서울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은 9월 20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3658명의 군장병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금산사 개산대재 및 합동수계식

김제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10월 18일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개산 1415주년 대재 및 보살계 합동수계식을 연다.



제6회 청소년UCC공모전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10월 20일까지 제6회 청소년 UCC공모전을 개최한다. (02)3218-4828



'불교와 언어' 학술세미나

중앙승가대 대학원장 보각 스님은 10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와 언어'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10월 정기세미나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도현 스님은 10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10월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화랑오계비 이전 법회

청도 운문사 주지 일진 스님은 11월 2일 화랑오계비 이전법회를 개최한다.



자장면 만발공양

남원 선원사 주지 운천 스님은 10월 22일 의성군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팔순잔치에서 지역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장면 만발공양을 펼친다.



불교호스피스협회 신임회장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이사장 능행스님은 10월 17일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진흥원 화요열린강좌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10월 21일 오후 7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다보원에서 최진석 서강대 교수 초청 화요열린강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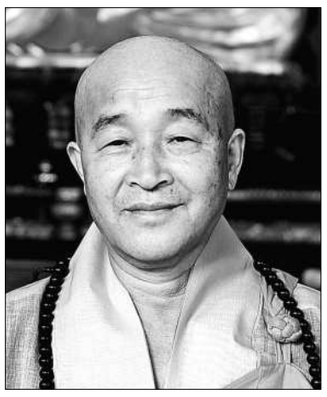


허준 동의보감상 수상

동국대 한의학과 박용기 교수는 10월 8일 경남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동의보감상 학술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중포교 정신 선양할 터"

무진장불교문화연구원 개원한 진관 스님



10월 7일 조계사서 연구원 개원
이사장 법산 스님 등 학자 포진
포교이론 개발, 인재양성 나설 계획

서울 조계사와 탑골공원 등에서 40여년간 시민들에게 무차설법을 펼친 무진장 스님의 사상을 기리는 연구원이 문을 열었다.

무진장 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진관)이 10월 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법회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초대원장에 추대된 진관 스님은 "무진장불교문화연구원 설립은 불법홍포에 일생을 바쳤던 무진장 대종사의 보살행을 선양하기 위함"이라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도선언을 실천으로 옮긴 무진장 스님의 포교정신을 선양하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어갈 전법사와 포교사의 역할을 조명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관 스님은 포교 방법론 연구에 연구원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밝혔다. 스님은 "포교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포교의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포교방법 및 실천운동 등을 연구 · 개발해 현 시대에 걸맞는 포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진장불교연구원은 무진장 스님 선양 및 포교이론 개발, 포교사 및 포교연구자 후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무진장 스님의 사상을 알리기 위해 포교성과를 연구하고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내년 상반기 중 학술세미나를 열고 조명한다. 또 불교사상과 사회제반 학문과의 통섭 · 융합적 연구를 통해 포교이론을 개발하고 이를 정기학술지 발간을 통해 보급한다. 이와 함께 무진장 스님의 포교정신을 실천하는 석 · 박사 연구자를 후원하고 미래에 대응하는 포교사를 양성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진관 스님은 "무진장불교연구원은 대한불교총본산 조계사에서 50여 년간 포교에 진력한 무진장 대종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 발전시키는 장이 될 것"이라고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연구원 개원을 후원한 조계사도 무진장 불교문화연구원과 함께 무진장 스님의 입적 2주기에 맞춰 선양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이날 "스님의 포교 원력을 계승하기 위해 앞으로 연구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상 조명 세미나와 유품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진장 불교문화연구원장은 진관 스님이 맡았다. 이사장에 법산 스님, 명예이사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부이사장에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과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 상임이사에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등이다. **노덕현 기자**

"부처님 밥상으로 탈북대학생 건강 챙겨요"

반찬지원 사업 펼치는 통일바라밀숲 남지심 공동대표



"탈북 청소년 상당수가 부모님 없이 한국으로 건너와요. 학생들에게 일주일 먹을 반찬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부처님 밥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탈북대학생 지원단체 통일바라밀숲(대표 남지심)이 11월부터 반찬지원 사업 '부처님 밥상'을 실시한다. 탈북대학생 장학지원 사업으로 시작해 한국사 교육사업 등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 통일바라밀숲은 '부처님 밥상'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기를 불어넣어주고자 한다.

'부처님 밥상'은 매주 토요일마다 탈북대학생들이 봉사자들과 함께 남북한 음식을 만드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 대표는 "매주 토요일 학생들이 봉사자들과 함께 반찬을 만들어 집으로 가져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학업에 쫓겨 조리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편한 시간에 반찬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학생들이 든든히 밥 먹고 학교 다니며 건강도 챙기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통일바라밀숲은 각종 단체나 후원자들의 후원을 기다린다. "통일바라밀숲 장학생을 중심으로 반찬 지원을 시작하지만 앞으로 더많은 탈북 학생들에게 반찬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통일바라밀숲은 각종 식재료 지원 및 후원금을 보시할 후원자를 모집한다. (후원계좌: 농협 302-0717-2650-01, 예금주 남지심) (070)8880-8202 **정혜숙 기자**

만우장학 해외 연수 프로그램 시행

동국대 38명학생 미국 동부 대학 및 사찰서 연수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10월 6일 백주년기념관에서 2014 만우장학 해외연수 보고회와 이번 2015년 해외 연수를 위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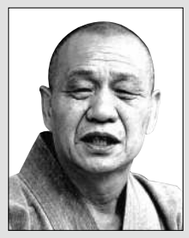
만우장학 프로그램은 조일환 한미 불교진흥재단이사장이 불교종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글로벌 불교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2008년 30만불의 장학금을 출연해 진행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8명의 학생에게 미국 동부일원 대학 및 사찰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이번 2015년 만우장학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환학생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기제 해외학점 이수프로그램으로 시행되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5명의 학생들은 1인당 동국대 경주캠퍼스 만우장학금 3백만원과 미국 현지 만우장학금 8천 5백불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조일환 만우장학회 이사장은 "만우장학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우수 대학에서 어학 연수 및 문화체험 활동으로 외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속에서 한국불교의 현위치를 바로 알고 한국불교인재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물아일체의 경지, 드러나"

오현 스님, 7년 만의 신작시 공개



속초 신흥사 조실 오현 스님〈사진〉이 7년 만에 신작시를 발표했다.

오현 스님은 시 전문월간지 〈유심〉 10월호 유심시단에 '이승훈 시인의 시'라는 제목의 짧은 시를 출품했다. 한국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이승훈(73) 시인을 주제로 오현 스님은 선불교와 모더니즘의 접합점을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했다. 스님의 시 부제는 '〈선과 아방가르드〉를 보고'로 이승훈 시인이 선불교의 관점에서 시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을 치하했다.

오현 스님은 시에서 '이승훈의 시를 읽으면 몸이 우는 울음은 울음 아니다 이승훈의 시를 읽을 때 그 어떤 생각 그 어떤 느낌이 있다면 그 어떤 생각 그 어떤 느낌 아니다 이승훈의 시를 읽지 않으면 이승훈도 없다 이승훈의 시를 읽지 않으면 시인이 된다' 고 표현했다.

이승훈 시인은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는 제18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엔 시가 아닌 '금강경과 만나다' 라는 주제의 평론으로 수상했다. 오현 스님은 지난 2007년 시집 〈아득한 성자〉로 각종 문학상을 탔다.

한편, 이번 〈유심〉 10월호에는 권기호, 문정희, 감태준 등 20여 시인들의 신작시가 실렸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제11대 총학생회 워크숍



금강대(총장 정병조) 총학생회는 10월 2~3일 1박2일 간 천태종 단양 구인사에서 총학생회 2014학년도 구인사 워크숍을 실시했다. 학생 자체적으로 준비한 이번 워크숍은 제11대 총학생회에서 처음 실시한 행사로 지난 6월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총 30여명이 참여하여 관음참의법회, 적멸궁 참배 등을 진행했다. **김주일 기자**

지구촌공생회, 갓바위서 모금



지구촌공생회 서울사무국, 대구지부, 익산지회는 10월 1일, 팔공산 '갓바위'와 선본사 일대에서 지구촌 소외계층 돕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48명의 신규 후원자가 후원을 약속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창간 20주년 SINCE 1994

보조사상연구원 제 24차 국내학술대회

여말선초 보조선의 분화와 확산

일 시 : 10월 18일 10시 ~ 17시 | 장 소 : 서울 법련사 대웅보전

인 사 말

한국불교학을 선도해 온 보조사상연구원이 제24차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펼친 보조선풍이 여말 선초의 선사들과 거사들에게 어떻게 연속되어졌으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국내의 정통한 학자님들을 모시고 학문의 향연을 열고자 하오니,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조사상연구원 원장 이법산 합장

학술대회 일정

식전행사
10:30 ~ 11:00
사회 : 황정일(본원 실장)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대회사 현호 큰스님(본원 이사장)
축 사 무상 스님(송광사 주지)
인사말 법산 스님(본원 원장)

제1부 주제 발표
『한국 간화선의 정통성 문제
-한국의 간화선은 보조선인가 임제선인가』
11:00 ~ 12:00
❶ 고영섭(동국대)
논평 : 최연식(동국대)
사회 : 차차석(동방대)
- 점심공양 : 12:00 ~ 13:00

제2부 주제 발표
『여말선초 보조선(普照禪)의 법통과 법맥』
13:00 ~ 14:00
❷ 오경후(동국대)
논평 : 김경집(위덕대)
사회 : 차차석(동방대)

제3부 주제 발표
『불교 이해에 나타나는 보조의 모순과 종합성 -염불사상을 중심으로』
14:00~15:00
❸ 신규탁(연세대)
논평 : 변희욱(서울대)
사회 : 황인규(동국대)
- 휴식 : 15:00-15:20

제4부 주제 발표
『여말 선초 거사들의 보조선 인식과 계승』
15:20 ~ 16:20
❹ 박해당(서울과기대)
논평 : 박재현(동명대)
사회 : 황인규(동국대)

총평 및 폐회사
16:20 ~ 17:00
❺ 총평 : 강건기(전북대 명예교수)
❻ 사홍서원 및 폐회사
사회 : 황정일(본원 실장)

전 화 : 010-4494-1981 (본원 간사)
E-mail : jataka407@naver.com





10월 10일 조계사에서 열린 2014 서울시 전통사찰 'Week' 선포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팔모등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타악그룹 야단법석의 공연도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조계사에서 진행된 사찰문화체험행사에 참석, 한지거울만들기(사진 왼쪽)와 단청그리기 체험(사진 오른쪽)을 했다.

문화의 寶庫… 서울은 전통사찰 재발견 중

보고

2014 서울시 전통사찰 'Week' 선포식

"전통사찰은 문화를 계승하고 창출하는 시민의 자랑이자 정신적 가치를 모두에게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가 10월 10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2014 전통사찰 주간(Week)' 을 선포했다.

전통사찰 주간은 서울시 전통사찰과 사찰 문화유산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마련된 행사. 사찰을 전통문화 자산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서울시 의지가 담겼다.

선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 내빈들과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1천7백년동안 전국 각지에 건립된 수많은 사찰은 우리 삶에서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며 "고유한 민족문화를 형성하는데 공헌해온 전통사찰의 가치를 국민들이 함께 향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은 세계에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도시다. 2천년의 시간이 깃든 전통을 담아낸 곳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며 전통사찰을 문화의 보고(寶庫)라고 높이 평가했다. 향후 서울시 전통사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사 참가자 대표 십 여명이 전통 팔모등 모양으로 제작된 박을 터뜨리며 행사 시작을 알렸다.

선포식에 맞춰 다양한 사찰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조계사를 찾은 일반인들은 매듭, 전통사찰 지도, 페이퍼토이, 족두리 연등, 한지거울 만들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족두리 연등 만들기에 참가한 이풍남씨는 연신 보랏빛 종이를 곱게 꼬아댔다. 조계사를 찾았다가 우연히 행사에 참여하게 된 이씨는 "초등학교 졸업 후 이런 공작을 처음 해보는 것 같다"며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한것을 아쉬워했다. "절에 오니 마음도 평안해지고 이렇게 재미있는 만들기도 한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10.10~12 전통사찰 58곳서 체험행사
순례 · 템플스테이 · 음악회 진행
'사찰 문화=시민 자산' 인식 확산

선포식 후 이어진 문화공연에서는 공연팀 야단법석의 타악 퍼포먼스가 열렸다.

흥겹게 장단을 맞추던 동대부여고 박새미양은 "나도 모르게 흥이 난다"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박양은 "그동안 불교하면 국사책에서나 접할 수 있어서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불교가 종교를 넘어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한부분이라는 걸 새삼 되새길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매듭만들기 자원봉사를 한 신호승(인천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사무처장)씨는 "참가자들이 만들었던 동심결(同心結) 매듭은 마음을 한데 묶는다는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매듭에 담긴 깊은 뜻에 감탄하곤 한다. 자연스럽게 동심결 매듭을 통해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전통사찰 주간은 조계사 선포식을 시작으로 10월 12일까지 서울시 전통사찰 58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조계사 · 봉은사 · 화계사 · 금선사 · 묘각사 등 서울시내 템플스테이 사찰 5곳에서는 1일 사찰 체험과정인 템플라이프가 무료로 진행됐으며 진관사에서는 국행수륙재와 함께 시민들에게 연잎밥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흥천사에서는 불화장과 함께 불화 및 단청 그리기 체험을 진행했으며 전통사찰 마실길 걷기, 도심사찰 투어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서울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이벤트도 개최됐다. '전통사찰 가Go! 인증샷 찍Go!' 는 전통사찰 주간 동안 전통 사찰 5곳을 방문하고 사진을 찍으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였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 서포터를 대상으로 'I Love Seoul, I Like Temple 스토리 콘테스트' 를 진행, 동영상 사진 등을 SNS에 올리면 차후 심사를 통해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통사찰의 요청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사찰 시설정비, 사찰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연구를 해왔다.

글=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시민 위한 열린공간으로 거듭나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참으로 뜻깊고 유익한 날이다. 민족문화의 산실 전통사찰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전통사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돼 마음까지 풍성하다.

불교는 1천7백여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찰이 건립되고 법등이 이어져 전통사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에서 호흡을 같이하고 있다. 전통사찰은 일상에서부터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민족문화를 형성하는데 공헌해왔다. 때문에 서울시 전통사찰 주간은 서울 곳곳에 살아있는 전통사찰의 가치를 시민과 국민이 함께 향유하고자 하는 일이다. 유구한 역사에서 불교문화가 민족과 함께 했듯, 전통사찰은 현시대를 대표하는 시민의 자랑이자 모두와 정신적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우리 모두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

"전통사찰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할것"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은 세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어느 도시도 가지지 못한 2천년에 달하는 전통이 있고 유서깊은 전통사찰이 있다. 뉴욕, 싱가폴 등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고전적 미가 살아있는 도시가 얼마나 되나.

사찰은 한국의 전통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보고다. 역사는 물론 음악, 미술 모든 분야에서 불교문화를 제외하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에 서울시는 전통사찰과 우수한 사찰문화유산을 보존, 계승하려고 한다. 서울시 문화유산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전승해 나가기 위해 전통사찰 주간을 올해 처음으로 선포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역사문화자원화를 적극 추진, 이 행사가 전통문화대축제로 자리잡도록 서울시에서 꾸준히 지원해 나갈 생각이다. 사찰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법령역시 유연하게 개정할 생각이다.

창간 20 SINCE 1994 주년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계율청정종단

■종 정

총무원장 : 혜인 사서실장 : 대산

율 원 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원 로 원 : 성민,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총무부장: 천산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정덕
문화부장: 지운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지성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해인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상산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태산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법진
포교국장: 무량
국제포교원장: 중산청목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노사나

호계원장: 천불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월성, 서산
규정국장: 영암, 지산
호법부장: 성산, 지호
호법국장: 법성

감찰원장: 정오
감찰부장: 백산지견
감찰1국장: 법산
감찰2국장: 수산
감찰3국장: 인산

비구니 회장: 지성
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총무: 금산
부회장: 해월, 혜산, 월산
재무: 도은, 정해
교무: 본각, 수정
교육: 법신, 성담
문화: 남산, 수옥
포교: 보명, 홍산
강원: 각원, 현타
복지: 향인, 화광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진화
의식: 련성, 지해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상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 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서부종무원장: 지명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부산북구종무원장: 수산
전남광주종무원장: 지각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울산종무원장: 법철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중국청도종무원장: 중산청목

◇ 학교법인 삼화학원 ◇

▣불교조계종대학림

학 장 : 혜일 부학장 : 일봉
교 수 :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불교조계종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멘화 부 학 장 : 정오, 남산
한국총장 : 손혜인 중고등학교장 : 손영진
학생처장 : 손영진 조 교 :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무과장 : 이안산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인
편집기자: 권소라
사회부기자: 이근진, 유현석
문화부장: 태산
문화국장: 용산
사회국장: 법산
이사 : 혜원, 정산, 각원, 덕산, 향인,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종단사업부

대표이사: 노사나

불교조계종
좋은상조: 김호철
H&G: 이영호
금융사업본부

▣전국신도회

고문: 김윤주
회장: 설주성
사무처장: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청년신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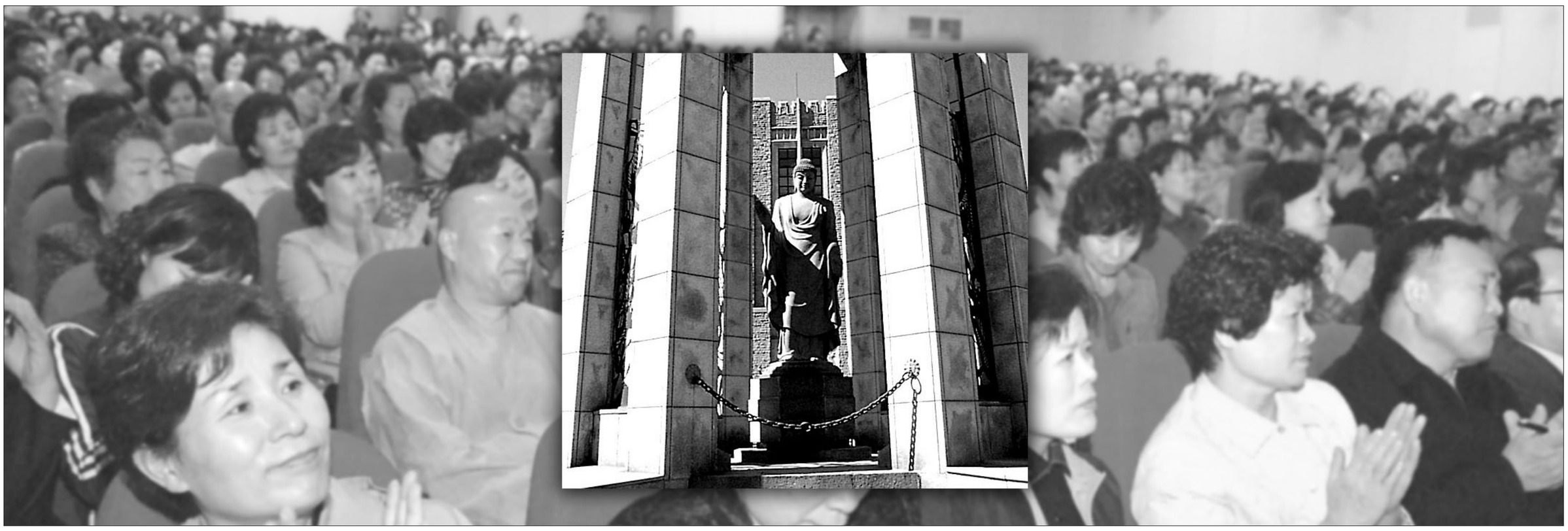
회장: 손영진
홍보처장: 박영실
총무계장: 조일
기획실장: 심원일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135-887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E-mail 주소 :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



불교는 人文의 보고… '인식의 지평' 넓혀야

불교로서 인문학, 인문학으로서 불교

현재 한국사회는 인문학 열풍 중이다. 인문학 대중서가 대형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이름을 올리고, 강신주 등과 같은 스타 저자들도 생겨났다. 각 대학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교도소까지 앞 다퉈 인문학 강좌를 열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초 · 중 · 고교 문 · 이과 통합 과정에서도 인문 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는 기업의 인사 면접에서도 인문학은 평가 지표로 활용된다. 실제 현대자동차는 역사 에세이를 평가 과제로 적용했고, LG 그룹은 인 · 적성 검사에 한자와 한국사를 포함시켰다. 이 같은 인문 평가에 대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나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채로 면접을 준비한다면 행여 어디를 입사 지원을 해도 계속 다른 면접을 봐야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이폰 인문학' 불교에도 영향

사실 기업들의 인문학을 통해 창의적 리더십과 경영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이를 실효성 있게 보여준 것은 애플의 아이폰 신화를 만든 故 스티브 잡스다. 선불교에 심취했던 그는 아이패드를 선보이는 자리에서 "기술과 교양과정, 인문학의 교차로에 애플이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공학과 인문학의 융 · 복합을 통해 신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인문학 열풍은 애플과 같은 기업에서 출발했고, 전문가들은 이를 '아이폰 인문학'이라고 평가한다. 사실 학제 간 통섭은 시대의 흐름이다. 이미 인접학문 간의 통섭에 대한 연구는 10여 년 전부터 진행돼 왔고, 이를 통한 인문학 열풍은 기업들의 관심을 이끌며 개화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인문학 열풍은 불교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 잠실 불광사 부설 불광연구원에서는 지난 2012년에 '동양과 서양의 생각의 차이'라는 주제로 대중 강좌를 진행했고, 조계사 등 도심 사찰들도 사찰 불교대학에 인문학 강좌를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다.

승가교육 과정에서도 인문학 강좌가 이뤄지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이 운영하는 'E-러닝' 동영상 강좌에는 동양철학자 강신주 등이 진행하는 인문학 강좌가 포함돼 있으며, 연수교육프로그램에도 동양철학, 서양철학의 이해 등이 마련돼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20대 청년층에게 출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출가학교에서도 다양한 인문 강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전문 아카데미들도 개원하고 있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를 중심으로 한 설립된 인문학 실천공동체 시민행성은 종교, 철학, 역사, 사회학 등을 아우르는 대중 강좌를 열고 있으며, 정의평화불교연대는 '불교인문학강좌-눈부처학교 1기'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인문학 열풍의 빛과 그림자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이 인문학 열풍 중이지만 이면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너무 짙다. 대학 울타리 너머에서는 인문학 열풍이 불지만, 정작 대학 안에서는 인문학은 고사 상태다. 적지 않는 대학에서 인문 및 예술학과에 취업률을 들이대며 통 · 폐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인문계열 학과는 2011년 1591개에서 2012년 1574개, 2013년 1548개로 3년 사이 43개가 줄었다. 올해도 10개 대학이 인문학과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불교 대표 종립대학인 동국대도 비슷한 사례가 추진돼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5월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지방소재 대학 위기 극복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학제개편 및 학과 조정을 단행한다"는 이유로 종립학교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불교문화대학을 폐지하고 관련 학과들을 인문과학계열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불교계는 즉각 반발했고, 통 · 폐합은 백지화됐다.

인문학 열풍, 불교계에도 영향
출 · 재가교육에 인문학 강좌 도입
시민행성 등 전문 아카데미 설립
'삶의 근본 탐구' 불교 · 인문학 요지
통섭의 여지 많으나 전문성 부족해
전문 학자 양성 · 연구 환경 보완 필요
"불교학, 삶의 영역 전반 관심가져야"

본교에서도 올해 초 불교 관련 교양을 축소하기로 해 본지와 교계 언론에 기사화되는 등 논란이 됐다. 동국대는 결국 '다르마칼리지'를 신설하고 불교교양강좌를 대폭 늘리는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됐다.

대학 내 인문학 홀대 현상에 대해 관련 학자들은 "인문학의 열매만 따먹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불교학계 역시 대학 내 응용불교학 전공이 있고 인문한국(HK)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수주했지만 불교와 인문학의 통섭을 위한 연구 환경 조성이 아직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HK사업은 10년 한시 사업으로 연구인력의 100%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즉, 대학에 머물 수 있는 연구 인력 정원이 한정적이다보니 전문 인력이 활용될 곳이 적다는 것이 문제다.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불교 사상과 철학이 한국 인문학에서 가지는 비중은 유교와 노장사상에 비할 수 없다. 하지만 함께 동양철학으로 분류되면서 그 위치가 적어졌다"면서 "불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 요원들이 적고 불교 인력을 수용할 대학 정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교 종립대학에서 역할이 중요하다"며 "실력있는 교수가 등용되고 이를 따라 좋은 학생들이 들어와 연구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불교학이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교 · 인문학의 근본은 '人本'

불교학자들은 불교와 인문학의 통섭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교가 가지는 인문학적 가치는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고,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불교와 인문학의 통섭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평가했다.

조성택 교수는 "불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인문학과의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개신교 등은 신(神)을 중심으로 한 절대자의 신앙이다. 인문학의 근본은 삶에 대한 성찰이기 때문에 인간을 바탕으로 한다. 인간을 중심에 둔 종교인 불교는 인문학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사회에서의 인문학 수요 증가는 좋은 현상이다. 불교가 사회 저변에 흘러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안주해 있다"고 지적하며 "인문학 소통과 이에 맞춘 글쓰기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문학적 힘을 가지려면 불교는 다양한 고전과 접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자들은 불교가 인문학으로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문학적 울타리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삶에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불교평론〉 22집에 기고한 '21세기 인문학으로서 불교 철학의 가능성과 전망' 제하의 논문에서 "새로운 시대의 인문학이란 무명을 걷어내고 내 밖의 수많은 다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려는 마음, 나보다 더 약한 것들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안내하는 학문이어야 한다"면서 "불교철학은 21세기 사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몸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교와 인문학의 소통은 불교학이 자신만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된다"면서 "불교 자신도 인문학과 만나면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고 인문학도 불교의 넓은 콘텐츠를 받아들여 풍부해질 수 있다"고 평했다.

이어 "무엇보다 불교는 현대 사회의 정치, 사회, 철학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지를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세상과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지평을 넓혀야 불교는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0·27법난 제34주년 기념법회

지난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 사건은 한국 불교 근현대사에 있어 최대의 수난사이자 한편으로는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전 국민적 저항의 불씨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군인과 경찰 등 3만여 명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전국 5천여 개 사찰을 군화발로 짓밟고 2천여 명의 스님과 불교신도들을 연행하여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했던 대표적인 탄압사례였던 '10.27법난'이 벌어진지도 벌써 34년이 흘렀습니다.

이에 '10.27법난'의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불기2558(2014)년 10월 27일(월) 오후 2시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

문의 | 02)2011-1824(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불교, 삶에 답하기 시작하다

'불교 인문학' 대중 강좌 가보셨습니까

"펼치면 팔만이지만 모으면 마음 하나."

지난해 인문학 모임인 크리에이티브살롱이 주최한 '불교-마음의 위생학' 에서 강의를 진행한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불교를 두고 한 말이다.

인문학 붐을 타고 불교가 사찰에서 나와 점점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불교를 논하는가 하면 스님이 청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한다. 고리타분함을 벗고 홀가분한 모습으로 대중과 만나고 있는 불교 인문학 강의를 살펴봤다.

종교 · 인문 · 예술의 통섭- '시민행성'

'시민적 덕성을 자각해 공공적 가치를 복원하고 은하계(공동체)의 일원이 되자' 라는 뜻으로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주축이 돼 지난해 창립된 인문 공동체다. 인문 · 사회 · 예술 강좌가 꾸준히 열리고 있으며 9월부터 개강한 가을 학기에는 '붓다의 행복론:다섯 가지 주제로 만나는 붓다의 가르침' 이라는 주제로 이미령 동국대 역경위원이 강단에 선다. 이외에도 인간의 마음 너머, 장자강독, 꿈의 해석 등의 강의가 열리고 있다. 시민행성의 회원이 되면 모든 강의를 제약없이 들을 수 있다. 한 달에 1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모든 이들을 위한 인문학- '북카페 서재'

따뜻한 커피와 함께 불교 고전을 읽어볼 수 있는 곳이다. 경기 일산에 위치한 북카페 '서재' 에서는 9월부터 〈유마경〉을 주제로 인문학 공부가 열리고 있다. 까페지기 주최로 열리는 인문학 공부에는 지역주민들이 참여가 꾸준히 이어져 벌써 3년째 지속되고 있다. 카페를 운영하는 이는 서강대 종교학 교수로 재직중인 오지섭씨. 세계종교이해, 논어, 한국사상, 금강경, 붓다와 예수에 관한 인문학 강의를 직접 맡는다. 주제는 5~6주마다 바뀐다.

서재의 모토는 모든 이를 위한 인문학. 사람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고민들을 인문학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마련됐다.

〈유마경〉을 강의 주제로 정한 이유로 오 교수는 "불교 · 경전들 중에서도 독특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특히 출가수행자가 아닌 재가(在家)신자인 유마거사의 시각에서 불교 핵심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것. 오 교수는 현세 삶 안에서 초월적 진리를 실현해나가는 길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유마경강의를 추천한다.

한국불교의 대안찾기- '눈부처학교'

정의평화불교연대(공동대표 이도흠)가 마련한 무료 불교인문학 강좌다. 한국불교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총 16강으로 진행된다. 원효의 화쟁사상을 현대에 적용해보는 '불교의 통일관과 평화관' (이병욱 고려대 강사), '한국 불교 문화읽기' (최연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원효와 마르크스의 사상을 비교하며 현대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보는 '인류의 위기와 대안에 대한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 (이도흠 한양대 교수), '선(禪), 유랑의 삶에서 고향의 삶으로'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지속가능한 생태적 대안사회를 위한 불교공동체의 모색' (류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10월부터 11월 19일까지 하루에 두 강좌씩 주 1회 운영된다. 장소는 서울 천태차문화원이다.

종교철학 공부방- '홍익학당'

불교방송에서 〈수심결〉을 강의하기도 한 윤홍식씨가 주축이 돼 운영하는 곳이다. 동서양 철학, 종교철학 등이 주로 다뤄진다. 오프라인 모임도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인문학 1주일 완전정복 시리즈를 들을 수 있다. 홍익학당의 강의를 간략히 모은 강좌다. 불교철학편에서는 〈신심명〉 〈반야심경〉 〈금강경〉 〈벽암록〉 〈선가귀감〉 〈육조단경〉 〈대승기신론〉 〈출입식념경〉등을 순서대로 익힐 수 있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견성콘서트' 를 진행한다. 깨침, 행복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강좌다.

삶의 지혜 구하는 시간- '남산강학원'

인문학공동체인 남산강학원에서는 철학, 고전, 세미나 등이 거의 매일 열리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정화 스님의 열린강좌다. '청춘, 그들의 성과 사랑' '노년, 나이듦에 대하여' 등이 강좌의 주요 주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강좌 예고가 나가면 댓글로 신청하는 이들이 80명을 훌쩍 넘을 만큼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다. 정화 스님의 강의 역시 삶과 유리된 인문학이 아닌 삶을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상황에 대해 불교적 관점으로 설명함으로써 삶의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이다. 격월로 한 차례씩 매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일반인들과 만나고 있으며 〈유마경〉 강의는 매달마다 진행된다.



불교 인문학 강좌

주 최	주 제	장 소	전화번호
시민행성	붓다의 행복론	서울 종로구 사간동	070-8872-2023
남산강학원	열린강좌, 금강경 등	서울 중구 필동	070-4334-1790
북카페 서재	유마경	경기도 일산시	031-902-7773
눈부처학교	인류의 위기와 원효 등	서울 종로구 경운동	010-3275-4846
홍익학당	견성콘서트	서울 은평구 진관동	02-322-2537
서울시민청시민대학	불교미술 등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02-384-8095
경계너머 아하	영어로 읽는 반야심경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02-882-0667

또한 일요일에 열리는 '굿모닝 인문학' 의 10월 주제는 〈금강경〉이다. 남산강학원에서는 〈금강경〉을 '불경이 아닌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귀중한 교양서' 라고 소개하며 수강생들을 모집 중이다. 강사는 우응순 길위의인문학 기획위원이다.

시민 위한 인문학- '서울 시민청 시민대학'

서울시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인문대학이다. 현재 매주 목요일마다 울림이 있는 불교미술을 주제로 손신영(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이 강의를 하고 있다. 불교미술의 시작, 전개와 각 시대에 따른 변화상을 짚어본다. 서울시내 대학 9곳과 연계해 진행하는 시민대학에서는 각 대학별로 특화과정이 지정돼 있다. 동국대는 마음과 인문학이란 주제로 '깨닫는 마음을 추구하는 불타인문학' '깨어있는 마음을 추구하는 시민인문학' 이 12월까지 개설된다.

경전, 영어 강독 해볼까- '경계너머 아하'

비교종교학자 오강남 교수가 10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영어로 읽는 반야심경' 을 강의한다. 반야심경의 배경, 보살 사상의 연원, 초기불교 존재론, 공 사상, 보살의 길, 만트라의 효용성 등 6주에 걸쳐 진행된다.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저명한 학자의 강론을 들을 수 있다. 한글이 아닌 영어 강독을 하는 이유는 영문으로 표현될 때 전해지는 새로운 풍미를 얻기 위함이다. 아하는 열린종교 아카데미로 1년에 두 번씩 종교관련 강좌를 개설한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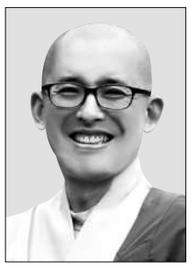
'불교+인문학' 가능성 풍부 다시 '인간의 삶' 을 주목하자



조성택 교수



유승무 교수



문광 스님



고영섭 교수



조은수 교수

불교와 인문학 통섭을 위한 제언

인문학 열풍은 한국 사회 저변에 퍼져 있다. 2000년 초반 인문학의 위기라는 비판과 우려가 무색해질 정도다. 이제는 각종 매체를 통해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불교계 상황도 비슷하다.

사실 불교는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았었다. 새로운 시대의 인문학에서도 불교의 가능성과 입지는 분명하다.

이에 대해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인문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성찰하는 학문이고 불교는 삶의 본질을 알아가는 데 있다"면서 "두 가지 접점에서 불교와 인문학이 만나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더 이상 이원적이거나 서로 다른 지평에 서있지 않다"며 "종교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인간관과 세계관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반면 세속 사회는 우리 삶의 가치와 문화를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종교적 진리에 관심이 많다. 이 둘의 소통은 많이 될수록 좋다"고 설명했다.

탄허기념박물관 연구실장 문광 스님은 한국불교만의 전통인 회통 사상이 현대 인문학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많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현대 사회는 이원론 사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소통하고 회통시킬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하나로 합쳐야 평화가 오는 시대에 회통의 정신을 가진 한국불교가 가지는 인문학적 가치는 확고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가치를 지닌 불교이지만 인문학 내 위치는 부족하다는 관련 학자들의 중론이다. 학자 층이 다른 동양철학 분야보다 얇고, 설사 있더라도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기관도 적다. 또한 인접학문 간의 연구도 부족해 제대로 된 통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동국대를 제외하고 나면 전국에 불교 학자를 필요로 하는 정원이 10곳이 안된다"면서 "세계적인 학문 조류를 봐도 불교의 입지는 확고하다. 예를 들어 미국 내 대학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교수 정원 비율을 100명이라고 하면 유교와 노장 사상은 합쳐 20명 정도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교 종립대들의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 불교학의 저변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교와 인문학의 만남 · 통섭의 현주소는 매우 부족하다"면서 "학제간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통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불교학은 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불교의 전통은 '회통'
인접학문과 합일점 찾아야

자기만족의 현실 타파하고
종단 · 학교서 장기적 지원 필요

불교 근본은 삶에 대한 천착
시대 언어로 불교를 말해야
진정한 '불교 인문학' 완성돼

고영섭 교수는 "불교와 인문학이 제대로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없다. 1차적으로는 학자들의 안일함과 불자들의 직무유기가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불교 바깥 학문과의 접목도 필요하고 불교의 한문 원전을 강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다. 두 가지를 함께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렇다면 불교와 인문학의 통섭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선행돼야 할까.

전문가들은 불교와 인문학이 인간의 근본을 성찰하는 것인 만큼 '인본' 가치의 기본을 지키고, 동시에 한국불교 근본 정신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승무 교수는 "불교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종교"라면서 "불교는 인간의 삶을 떠나 존재하지 않듯이 현대의 불교학은 교학이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와 문화, 철학을 천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광 스님은 "한국불교 전통인 회통 정신의 회복이 중요하다"면서 "이미 불교 안에는 화엄과 선(禪) 등 통섭의 요소들이 많다. 이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공부해 활용해야 한다. 바깥이 아닌 우리 안에서 통섭의 가치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조성택 교수는 '불교 인문학' 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했다. 조 교수는 "불교는 절대자를 믿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인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불교는 단순히 인간 중심이 아닌 모든 만물과의 상호존재를 중요시 한다"면서 "이제는 불교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불교 인문적 사유를 통해 현대사회를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 인문학은 시대 언어로 불교를 이야기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여기 나의 눈으로 '불교' 를 바라보며, 또한 불교를 통해 '나' 를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 배현진 기자

성 명 서

전국비구니회의 투명한 상호소통과 정상적 운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국비구니회의 파행적 운영과
제16대 중앙종회 비구니의원 후보 선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지난 9월 22일 개최된 전국비구니회의 제16대 중앙종회 비구니의원 후보 선출과정과 이를 통해 드러난 **비구니회 운영진 내부의 파행적인 운영**을 목도하며 깊은 우려와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종단의 입법, 대의기구로서 전국 **6천여명의 비구니스님을 대표하는 종회의원 후보를 최소한의 여론 수렴이나 합리적 선출 절차 없이 비구니회 소수 운영진 스님의 독단적 의지에 따라 선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종단 내의 비구니들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비판해온 노력과 진정성조차 의심케 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마치 비구니회가 비구니스님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차별에 억눌려 있는 비구니스님들 위에 군림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비구니스님들은 종단 호계위원의 진출, 종단 집행부 및 중앙종회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비구니스님 스스로의 갈마와 종단의 주요구성원으로서의 위상 정립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을 둘러싼 소통부재와 갈등으로 인해 비구니스님들의 참종권 확대와 권익향상은 점차 요원한 일이 되어가고 있으며, '개혁' 을 외치기 이전에 내부부터 성찰하라는 준엄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비구니회의 중앙종회의원 선출이 비구니스님들의 의지를 오롯이 반영하지 못한 채 집행부 구성원 소수의 전횡으로 이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제도적 미비점**에 있습니다. 종단 최고의 입법/대의기관에 진출해 비구니스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중앙종회의원 후보 선출의 엄중한 절차를 규정하는 명문화된 법규나 시행규칙 등이 부재한 것이 오늘날 전국비구니회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국비구니회가 처한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고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 조성**과 나아가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 확대, 권익 향상 등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절박한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전국비구니회 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지니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정상적 운영 전환을 요구합니다. 특히 현 운영위원장의 선출 과정을 비구니스님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의 문제점이 밝혀질 경우 위원장직 사퇴 등 전국비구니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비구니회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며, 제16대 중앙종회 비구니의원 후보의 파행적 선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각 지회장을 비롯 운영위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채 비구니종회의원 후보를 선정하게 된 이유와 과정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선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는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선출 절차의 투명성, 합리성 제고를 위해 선출공고, 후보선출 절차, 간선직 선출위원 선정기준 등 제반내용을 명시한 세부적인 회칙과 시행규정 등의 제정을 요구합니다.

넷째, 참종권 확대 등 비구니 권익 향상을 위한 전국비구니회의 입장과 발전 방향 제시를 요청합니다.

최근 중앙종회는 비구니 호계위원 진출에 대한 종헌개정안을 부결하는 등 종단 내 양성평등에 관해 보수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해소하고 비구니스님 참종권 확대와 권익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6천여 비구니스님들 앞에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비구니스님 공동체 내부의 투명한 상호소통 부재와 원칙에 역행하는 관행주의에 우리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내부성찰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전국의 비구니 스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전국비구니회의 파행적인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선출이 정상화 되고, 비구니회 내부의 투명한 상호소통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가 정착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열린비구니모임(가칭) 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 : 혜운. 임대. 정현

<동참명단>

견유 경헌 고심 광현 괘현 기형 능륜 능제 능지 능학 능현 다경 다우
대성 대훈 덕화 도각 도림 도운 도행 동선 동성 동조 동참 동천 명연
명오 명은 명행 명현 묘련 묘선 묘혜 무구 문성 백경 범견 법경 법념
법륜 법정 벽공 보경 보문 보민 보운 본각 상능 서암 선경 선관 선애
선주 성각 성수 성진 성호 성찬 수경 숭신 승진 영광 영석 오인 우림
우송 우연 운효 원돈 원영 유광 은일 의성 인성 일법 일양 일연 일장
임대 자경 자도 자명 자문 자연 장하 재마 재범 재성 재운 적인 정견
정관 정도 정본 정수 정엄 정엽 정우 정운 정원 정행 정현 종경 주석
중안 중원 지경 지공 지광 지담 지도 지명 지상 지설 지엄 지완 지은
지인 지중 진명 진묘 진송 철륜 철우 철환 청욱 행관 행련 현성 현수
형구 혜덕 혜욱 혜운 혜조 홍인 효광 효원 효탄 희정 희철 (가나다순)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大韓佛教 天台宗

종 정 **김도용** 대종사

종정사서 실장 **박 덕 수**

총무원
총 무 원 장 **변춘광**
총 무 부 장 **김 월 도**
교 무 부 장 **방 경 혜**
교 육 부 장 **정 장 호**
재 무 부 장 **정 월 중**
사 회 부 장 **지 설 혜**
규 정 부 장 **조 용 문**

원로원
원 로 원 장 **전 운 덕**

감사원
감 사 원 장 **김 용 암**
감 사 위 원 **엄 행 주**

종의회
종의회의장 **이 문 덕**
종의회부의장 김무원 · 김형구

참 의 원 장 **김 학 송**
금강대학교 총장 **정 병 조**

■ 충북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총본산 구인사 / TEL 043)423-7100 FAX 043)420-7399 www.cheontae.org

---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총 인 성 초
통리원장 회 정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3길 17
전화 02)913-0751~4, 팩스 02)913-0755
www.jingak.or.kr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宗 正 **靈山 一空**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704-39호
전 화 : 02)853-0531~2 / 팩스 02)853-0533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사) 대한불교 무량종

종 정 **정혜안** 사서실장 **보인**
원로원장 **양 지 은**

총무원장 **보운** 교육원장 **보산** 감찰원장 **정담** 포교원장 **지관**
중앙종회의장 **법우** 부 의 장 **보월. 보아** 사무총장 **보성**
고 시 위 원 장 **현장** 종책자문위원장 **종성** 선관위원장 **보아**

총무부장 **보공** 재무부장 **보혜** 교무부장 **정은** 사회부장 **보상** 포교부장 **자운**
총무국장 **보림** 재무국장 **보정** 교무국장 **보선** 사회국장 **보경** 포교국장 **정혜**

■ 총 림 : 부산시 사하구 괴정 2동 314-7 은암천불정사 / 전화 051)292-4586
■ 총본산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칠성로 748-8 칠보정사 / 전화 055)883-7771. 7790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사) 대한불교본조계종

원로의원 **용암. 혜암. 지연. 법우**

종 정 **회암** 사서실장 **헌화**

총 무 원 장 **융호** 수석부원장 **산수** 부 원 장 **법전**
고 시 원 장 **혜산** 법 규 원 장 **혜공** 중앙선원장 **보륜** 문 화 원 장 **도인**
감 사 원 장 **효현** 복 지 원 장 **대경** 호 법 원 장 **청암** 교 육 원 장 **중무**
법 사 원 장 **마생** 포 교 원 장 **대안** 감 찰 원 장 **도문**

중앙종회의장 **대호** 부의장 **청오**
중앙종회의원 **혜철. 반야. 현덕. 정주. 인덕. 대공. 천묵. 현덕. 도일. 경담. 무진 불광. 고운. 지현. 천묵. 법향. 지환. 보호. 명진. 해련. 구달. 성무 명덕. 무심. 도인. 청공. 마월. 독견. 덕용. 덕보**

총 무 부 장 **도현** 재 무 부 장 **고운** 교 무 부 장 **경덕** 사 회 부 장 **독성**
복 지 부 장 **덕화** 문 화 부 장 **자은** 조 직 부 장 **무진** 규 정 부 장 **석담**
조 사 부 장 **광덕** 호 법 부 장 **법장** 포 교 부 장 **법묵** 교 육 부 장 **법향**

서울교구원장 **무경** 경기수원교구원장 **진성** 대전교구원장 **법우** 강원교구원장 **정일**
부산교구원장 **도관** 대구교구원장 **대안** 경북교구원장 **무진** 전남교구원장 **법성**
충남교구원장 **여진** 경남교구원장 **경덕** 전북교구원장 **보명** 전주교구원장 **보현**

고 문 변 호 사 **김창규. 이승민** 한국종교예술방송 사장 **산수 스님**

종 도 일 동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서울중랑우체국 사서함 제76호 전화 02)3436-0796~7 팩스 02)2201-1163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종 정 **혜봉**
원로원장 **범준**
위 원 **고산. 경호. 대명. 보현**

총 무 원 장 **송산** 총무부원장 **도현. 보성**
총무부장 **덕광** 교무부장 **무연** 재무부장 **도은** 사회부장 **현무**

중 앙 종 회 의 장 **보장** 부 의 장 **수운. 호경**
중 앙 종 회 의 원 **서봉. 삼자. 혜언. 원철. 혜광. 수진. 법우. 지선. 혜가. 혜공. 연각. 지인. 보련. 이타**

중앙사정원원장 **정화** 부 원 장 **지성** 사 정 부 장 **백파**
중앙포교원원장 **혜일** 부 원 장 **보단** 포 교 부 장 **법공**
중 앙 교 육 원 장 **공덕** 교육부장 **무진** 중 앙 선 원 장 **현법**
중앙복지봉사원장 **무량** 부 원 장 **무봉** 복지봉사부장 **지연**

서울교구종무원장 **서봉** 부산교구종무원장 **삼자** 경기인천교구종무원장 **혜언**
경남동교구종무원장 **원철** 경남서교구종무원장 **혜광** 경북대구교구종무원장 **수진**
전북교구종무원장 **법우** 전남교구종무원장 **혜공**

중 앙 법 사 단 장 **무진** 법 사 단 부 단 장 **혜등** 법 사 단 총 무 **혜련**
비 구 니 회 회 장 **법인** (사)해동자비원장 **덕광** 국 제 교 화 원 장 **공덕**
용인소년의집원장 **무봉** (사)해동자비원부산지사장 **장양숙**

종 도 일 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 1로 211-5 / 전화 031)262-1577 / 팩스 031)263-1353



쌍계총림 방장 고산 스님이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20주년을 축하하며 친필휘호 '言濟蒼生(언제창생)' 을 내렸다. 올바른 말과 글로써 뭇 중생들을 제도하라는 의미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감로수 같은 언론이 되라는 촌철살인의 일갈이다.

올바른 말과 글로 중생 제도 천년 이어가라

나날이 향기로운 소식 전해주시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나누는 것으로 풍요로움이 더하는 계절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렇듯 맑고 향기로운 공덕을 성실한 마음으로 나누어온 현대불교신문에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해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 를 표방하며, 불국토를 위해 진력해온 한줄의 기사마저도 많은 불자들은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이끌고,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생명을 살리는 매체로 발전해온 것은 굳은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천년의 시간을 늘 푸르게 살아가는 나무와 같이 불법홍포의 자리에서 진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처럼 사부대중의 신심과 열정을 오롯이 담아내면서 나날이 행복을 전하는 정론이기를 축원합니다.

20년간 말 그대로 '좋은 신문'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기치로 창간된 현대불교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4년 10월 '하나 더 있어 좋은 신문' 으로 불자들에게 첫선을 보였던 현대불교는 지난 20년간 말 그대로 '좋은 신문' 이라는 평을 받아 왔습니다.

현대불교는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법에 대한 사명감과 의지로 불자들의 신행과 문화를 이끌고 지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매호 종사자들의 고민이 담긴 좋은 기사와 독자를 먼저 생각하고 신행을 바르게 이끌러 주는 기획물들이 현대불교가 지켜 온 정법 신문의 정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도로 발달된 미디어 세상에서 불교계 언론은 적지 않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불교가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년의 역사가 지혜의 등불이 되어 항상 앞서가는 매체로 자리를 지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국민 가치관 정립에 선도 역할 당부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20주년을 기념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의 발전과 더불어 불교도의 지혜와 수행, 그리고 권익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표 불교 신문으로서 현 시대에 부응하여 소통과 화합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격려와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비전은 세계와 인류를 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국가, 그리고 슬기로운 국민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특히, 우리 불교 언론들은 바른 알 권리를 제공하여 불교도와 더불어 온 국민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스스로 확립할 수 있도록 선도의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불교신문을 통하여 우리 불자와 국민들이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자주 국민이 되도록 합시다.

오탁에 물들지 않는 불교 정론지 되길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현대불교신문 창간 20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불교의 외호와 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작금의 시절인연처럼 불교 언론 또한 실시간의 정보와, 급속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처럼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대불교신문이 한국불교 안에서 지속적으로 정론직필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20년 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속에서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바탕이 되고, 창의적 사고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선한 해석이 취재 현장과 데스크에서 발휘 된다면 보다 혁신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오탁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불교 정론지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면 그 자체가 생활법문의 장

BTN불교TV대표이사 성우 스님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 를 사시로 지난 1994년 창간된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20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우리 불교TV도 내년 4월 개국 20주년을 앞두고 있어 더욱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와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돌이켜 보면 불교언론사의 새로운 장을 연 지난 1994년은 불교계 안팎으로 커다란 격랑과 변화의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혼란의 와중에서 탄생한 〈현대불교신문〉이 주창한 '불교의 생활화' 는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현대불교의 가장 절실한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20년간 펼쳐온 〈현대불교신문〉의 지면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활법문의 장' 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불법홍포를 위한 문서포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불사라 할 것입니다.

신뢰와 책임 바탕으로 제 2도약을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년간 한국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들을 신속 · 정확하게 전달하며 불자들의 눈과 귀가 되어 준 현대불교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동안 현대불교는 내실 있는 기사와 심도 깊은 기획물을 연재하며 진정성 있는 불교 전문 매체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또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며 독자와 소통하는 참 언론사로 발전해 왔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생명나눔실천본부로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20년동안 생명나눔과 지혜나눔의 앞길을 열어온 두 기관이 성년을 맞는 순간입니다.

이제 막 20살 청년이 된 현대불교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도약을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행스님 큰 원력서 태동된 정론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



축하 드립니다. 창간 20주년을 감사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볼때마다 늘 기다려지는 불교지입니다. 20년전, 조계종단은 개혁불사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시절, 불교계는 참으로 힘든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한마음선원에서 어렵고 힘든 불교를 위하여 자연스럽게 태동 되어진 언론지 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력의 어머니는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이십니다. 그 원력과 2,000만 불자들의 신심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현대불교신문 입니다.

어느덧 현대불교 신문은 건강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있는 신문으로 성장 하여서 이 시대의 정론지로 횃불이 되시고 앞으로도 세상을 밝히는 언론이 되셔서 부처님의 법음도 함께 전파하는 현대불교신문의 건강한 모습을 그립니다. 다시 한번 창간 20주년을 축하 드립니다.

다양한 기사로 불자 신심 고양을

유민봉 청와대불자회 회장



언론을 통한 불법홍포와 한국불교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1994년 10월 15일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 를 사시로 한마음선원장 故 대행 큰스님이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사는 2000만 불자의 긍지를 대변해왔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가장 먼저 인터넷 뉴스인 '붓다뉴스' 를 만들어 불교 언론의 지평을 넓혔고, 다양한 기획 기사를 통해 불교 신행과 포교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불교계 언론도 지난 10년 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종이 신문의 위기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기반한 새로운 미디어들은 빠른 정보, 쌍방향에는 획기적이지만 풍부한 분석과 다양한 내용을 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 를 사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기획과 풍부한 해설이 담긴 신행 포교 전문지로서 자리매김해주길 바랍니다.

〈화엄경〉에서는 '신심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 라고 했습니다. 창간 20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하는 현대불교신문사가 쏟아낼 다양한 기사들이 불자들의 신심을 고양시켜 부처님의 수승한 법이 세상에 널리 전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불교미디어로 활발한 활동 기대

김희옥 동국대 총장



2만여 동국가족과 함께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1994년 창간 이후 20년간을 한국불교의 정통 포교 신행지로서 끊임없이 달려온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 보면 현대불교신문은 한국불교가 큰 변화를 맞이하던 1994년 창간돼 그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반 불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미디어 포교의 가장 앞에서 일해온 큰 신문입니다.

특히 불교 현대화를 주창하며 창간과 함께 운영했던 불교인터넷 포털인 '부다피아' 사이트를 통해 선도적인 뉴미디어 포교를 펼친 것은 젊은 불교, 미래 불교를 만들기 위한 귀중한 초석이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얼마나 앞서가는 신문이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앞서나가는 불교미디어로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건학 108주년을 맞는 동국대학교는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맞이하여 미디어 빅뱅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귀한 도반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자리 머물지 말고 계속 정진하길

이채원 BBS불교방송 사장



먼저 현대불교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1990년대는 불교계 언론이 이 땅에 씨앗을 뿌리고 웅지를 품고 힘차게 도약하는 시대였습니다. 다양한 교계 언론이 자신의 색깔을 지니고 새로운 목소리를 가다듬던 그 중요한 시기에 현대불교신문의 창간은 불교계에 신선한 바람이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와 현대화, 그리고 불교의 세계화를 기치로 새로운 시각에서 불교를 조명하고 널리 알리며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해온 공덕은 수많은 불자들의 기억 속에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소극적인 신행생활을 적극적인 포교로 바꾸고 안으로만 여미던 불교계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전 세계로 펼칠 수 있도록 날개를 다는 역할을 해 온 것이 바로 이 땅의 불교계 언론들이 아니었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만큼 소중한 것이 앞으로의 시간과 과제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지금까지 불자들의 목탁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불교계 언론으로서 새로운 소임을 모색하는데 주저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항상 발전을 거듭하는, 불자들을 위한 현대불교신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20주년을 지극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처님 법따라 '정론직필' 하기를…

불교계의 나침반 되어주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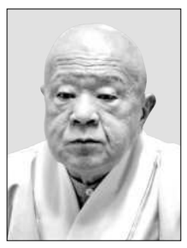
불교조계종 종정 대행 혜인 스님



현대불교신문은 20여년간 한국불교정론과 정법 방향을 제시해주는 언론으로써 불교제일 제자 수보리가 되었습니다. 좋은 친구는 자주 만나야 하고, 산길도 자주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산을 찾지 않으면 길이 없어지 듯 이제는 현대불교를 찾지 않으면 진리를 찾을 수 없는 신문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지향하여 불교계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 불교는 호국불교라는 독특한 전통으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면서도, 나라의 어려움을 단지 수행이라는 명목 하에 도외시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없이 극복해 나갔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불교계의 나침판이 되어 불교계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직 부처님의 법에 따로 올곧이 정론직필하는 신문으로써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리며, 항상 현대불교신문이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언론불사의 그 막중한 사명을 다하자

대한불교원융종 종정 일공 스님



언론불사의 그 막중한 사명을 다하며 창간 20년 그 크나큰 성과를 이루신 현대불교신문에 찬탄의 박수를 보냅니다.

부처님 혜명을 바르게 펴는 불교언론의 역할은 한국불교가 바르게 정진하는 크나큰 힘입니다. 구석구석 두루 살피고,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 불국정토가 구현 되도록 노력해 온 20년의 성과는, 현대불교신문만의 성과가 아닌 한국불교 전체의 큰 성취입니다. 94년 10월 15일 창간하여 한국불교언론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온 현대불교신문은 하나 더 있어 좋은 신문이 아니라,불교언론의 선두주자로서 불교 최초로 정보센터 건립과 책방 여시아문을 운영하는 등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다방면의 포교의 길을 열었습니다.승가는 물론 재가불자들의 신행지로서 재가불자들의 정진을 이끌어냈으며 범종단의 기치로 한국불교의 다양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현대불교신문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정신개혁의 주역에 찬탄의 박수를

(사) 세계불교법왕청 대승정 목탁 스님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봉축합니다. 오늘은 더 없이 기쁘고 감격스런 날입니다. 창간된지 어언 20년 불교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고 새 역사의 횃불 역할을 해온 정론지로써 살아있는 산 증인이요 역사였고 불교인들의 지팡이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한국 불교 최고의 언론지로 우뚝 서 오늘에 이른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사랑과 자애로운 미소를 듬뿍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에 만족하지 마시고 혼탁한 사바세계에 탁마의 붓이 되고 중생들의 고통을 나누는 불교정화, 정신개혁의 주역이 되길 기원하며 찬탄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불교의 발전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한국불교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문서포교의 힘은 무한합니다. 새로운 불국토를 향한 현대불교신문의 큰 걸음에 함께 하겠습니다. 불제자로서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대 이정표 자임하는 포교 매체로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홍산 현블 스님



현대불교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아름다운 화엄의 세계를 연출하며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계절의 풍만함처럼 중생들에게 풍요로운 삶의 좌표를 제시하고 신뢰 가득한 도반 같은 신문입니다. 대행스님의 원력으로 창간된 현대불교신문은 발 빠른 교계의 소식은 물론 부처님의 진리를 전달함으로써 교계의 대표적인 신문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지난 20주년을 주추삼아 백년을 준비하는 자세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심고 긍지와 자부심을 마음껏 드날리며 불자들의 화합과 정보 교류에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윤리와 도덕이 몰락하고 가정이 붕괴되고 불법(불법)마저 희미해 갈피를 잃은 오늘날 현대불교신문이 대행스님의 창간의 뜻을 깊이 새겨서 시대의 이정표를 자임하는 언론이 되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매년 새 기획물로 진일보하길

(사)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 그 큰 공덕을 전 종도와 함께 찬탄합니다. 20여년 이룬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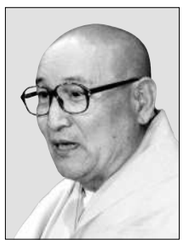
혼탁한 세상을 두루 밝히고 부처님 혜명을 바르게 이어가도록 불교언론의 역할을 계속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존의 관행에 의해 한국불교가 지속되어 오던 혼란의 90년대에 새로운 창간의 기치로 모두를 놀라게 한 현대불교신문이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던 문서포교의 큰 발걸음으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양한 소재와 편집으로 기존 불교언론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책방 운영을 통해 불서운동의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새로운 기획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쉬임없이 달려 온 20년의 불교언론으로 청년 현대불교신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전 종도와 함께 축하드립니다.

휴간없는 노고 이루 말할 수 없어

대한불교본조계종 종정 회암 스님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봉축합니다. 주간신문으로서 20년은 참으로 그 과정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입니다.특히 현대불교신문은 한번도 휴간이 없이 발행하면서 진실된 언론의 역할을 다해오셨습니다. 휴일이 겹치는 주간에도 휴간없이 발행해 온 임직원의 노고는 뭐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범 종단지로서 한국불교의 각 종단을 두루 살피며 상호 발전을 위해 애써 주셨습니다.

한국불교의 많은 종단들은 현대불교와 함께 발전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 종단들을 두루살펴 주었으며 불교행사라면 어디든 동참하여 지면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각 종단은 물론 사회단체, 봉사단체, 신행단체 등 새로운 기사를 발굴하여 다양한 한국불교의 모습을 계속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불교 외호의 큰 대업 이어가시길 기원드립니다.

언론 사명감 투철하게 지키자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신풍 스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변화 속에서 올곧 한길로 부처님법을 전하며 발전해온 현대불교신문사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20년전 불교 언론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질적인 면을 크게 향상시켜왔습니다. 특히 큰스님들의 지상법석, 사부대중들의 마당인 시방세계 등 굵직한 기획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 문화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해 주었습니다.

창간부터 오늘까지 불교계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하고, 잘못한 것은 솔직한 지적도 해주는 정론직필의 언론의 사명도 투철하게 지켜온 현대불교신문입니다. 창간 20돌을 맞이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발행 정신을 잊지말고 불교의 최일선에 서서 우리 불교를 외호해 주기를 진심으로 발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법향이 온 지구 나아가서 우주법계에 두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제1정론지로 위상강화를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 스님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전에는 인간생활이 단순하고 그 변화가 완만하여 여러가지 소식도 개개인의 능력만으로도 주위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어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생활이 확대되고 복잡해져서 한 개인의 힘으로는 이러한 다양하고 신속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입수해서 사회생활에 대처해 나가기가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에서 불교소식을 전달해주는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20년은 아주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생활 신행지로써의 현대불교신문은 우리 불자들이 가야할 길을 다양하면서도 심도있는 기사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계의 제1 정론지로서 불교의 좋은 소식들을 전달하며 발굴해 내는 현대불교신문이 되기를 바라며, 불법홍포의 최 일선에 서 있는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신행 전문지 역할에 충실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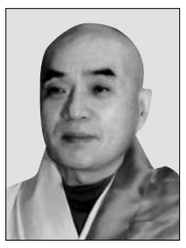
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스님



청년 현대불교신문 그 성취를 봉축합니다. 한국불교를 증명하며 그 역사를 기록해 온 20년. 그 왕성함이 한국불교의 발전과 함께 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론의 기치를 지켜 온 현대불교신문을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기뻐할 따름입니다. 아무리 불교언론이라 하더라도 바르게 한 길만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도 신행 전문지로서 꾸준히 길을 걸어 온 현대불교신문이 불자들의 신행신문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진행해 온 신행수기 공모는 불자들의 신심을 점검하는 큰 계기가 되었고 정기적인 성지순례는 한국불교를 재발견하는 기회였습니다. 승가와 재가가 함께 발전하고 정진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한국불교에 큰 바람을 일으켜 온 20년 현대불교신문이라면 앞으로도 20년, 50년…쉬임없이 발전하여 한국불교의 큰 발전에 그 역할 다하시길 바랍니다.

각 종파 두루 살피는 중도언론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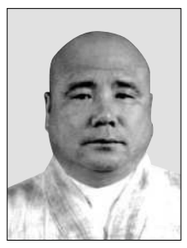
(사)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장 삼주 스님



창간한 이래 불교홍법에 앞장서온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불교 언론으로서 불교계를 화합하고 불자들의 뜻을 모아 이 땅의 불국정토를 이루기 위하여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론직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론의 명분이 되어 있는 이 말을 꾸준히 지켜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때로는 치우치고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언론이라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오롯이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종파나 논리에 휘말린다면 더이상 언론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대불교신문은 신행지라는 지향점으로 각 종파를 두루 살피며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20년을 지켜 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뜻 깊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종단과 함께 상생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 번 창간20주년을 축하드리며 현대불교신문사의 무궁한 발전을 합장발원합니다.

범종단지로 불교현안 담아 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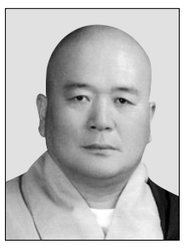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 청파 스님



부처님의 가피로 이루어 내셨습니다. 현대불교신문 20년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열정과 노력, 끊임없는 정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인터넷 시대에 지면신문의 어려움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현대불교신문과 지면 신문을 함께 발전시키며 언론의 역할을 다 해 오셨습니다. 한국불교 구석구석 분별심 없이 종파를 초월하여 담담히 담아내며 살펴 온 현대불교신문은 한국불교 유일의 범 종단지의 위상입니다. 범 종단지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지역의 불교현안들을 고루 담아 내 주었기에 현대불교신문의 위상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방 종파로서의 한계성을 넘어 한국불교의 한 종파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울 중심의 불교가 아닌 지방 산골 암자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들을 담아내 주신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신명나는 환희심 전해주세요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총무원장 혜상 스님



현대불교신문은 창간이래로 언론을 통한 포교에 매진하여 천만 불자들의 긍지를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스님들의 법문, 불교교리, 신앙생활, 각 종단의 소식을 전하는 등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서며 불교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창간 20주년을 맞는 지금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빠른 사회 발전에 발맞추어 새로운 시대의 포교를 펼쳐야 할 때입니다. 구세대, 젊은세대 구분없이 재미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기사로 다가가야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면 신명나고 항상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신심있는 불자님들의 생활상들을 많이 소개하여 누구라도 불법(佛法)을 열심히 공부하면 행복해 진다는 것을 불자 외에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문서 포교를 해야 합니다.지난 20년간의 큰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불교계 제일의 정론지로서 올바름을 제시하는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불교의 등불로 자리매김 하길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스님



불법홍포의 정론으로 20년..찬탄하는 이날이 오기까지 정진의 자세로 본연의 역할을 다해오신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큰 박수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범종단지로서 정법을 수호하며 문서포교와 인터넷포교의 일선에서 앞장서 오셨습니다. 승가는 물론 재가불자들의 신행에 큰 장을 열어주신 그 노력은 한국불교의 등불이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세계화는 한국불교의 지향점입니다. 그 기치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한국불교의 바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두루 살펴주시고 질책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 각계의 심층보도를 통해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조명하는 활발발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큰 박수와 감사를 드리며 더욱 더 성장하는 현대불교신문이 되시길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기원드립니다.

성년맞은 현대불교에 희망메시지를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4년 발걸음을 시작으로 불교계에 첫선을 보인 후 어느새 스무살 성년이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한결같은 불심으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온 관계자 여러분께 큰 박수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은 그동안 불교의 사회참여와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불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원만하게 대변해 왔으며 서로 공존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정보의 전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불자들의 긍지를 대변하는 매체로 현대 한국불교의 아픔과 성장, 발전을 함께 하며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대변해 왔듯이, 앞으로도 불교와 한국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여 더욱더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불자들의 눈과 귀가 되고 입이 되어 사회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신문사가 되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유익한 정보제공, 여성불자에 큰 도움

정경연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불교계 소식을 제공하고, 불교홍포에 힘씀으로써 불교 언론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현대불교신문 임직원을 비롯한 기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은 1994년 10월 15일 창간한 이래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신행과 수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창간 20주년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 생생하고 유익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역시 여성불자들의 구심이 되어 불교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현대불교신문의 창간 2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교계의 대표적 언론으로서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불교문화 견인… 신행의 꽃 피웠네

연중 캠페인 · 기획

1994년 10월 15일 창간된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20주년을 맞았다. 그 동안 불교언론 발전을 선도해온 현대불교신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기획과 연중 캠페인을 이어왔다. 창간 20주년을 맞아 그 동안 현대불교가 펼쳐온 불법홍포의 길을 정리했다.

정리=박재완 기자

1994년 각계 관심 속에 현대불교 창간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현대불교신문사 창립. 10월 15일 창간호 발행(본지16면 특집 8면)

1995년 연중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우리는 불자 가정 스티커를 붙입시다'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차문화 대잔치 개최.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 개설. 제1회 신행수기 공모. 고속철도 경주 통과 백지화 운동 추진회 가입.

1996년 데생용 미륵반가사유상 모형 보급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새싹불자를 키웁시다'라는 연중캠페인과 함께,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사유상 모형을 보급하는 사업을 전개했다. 부다피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1997년 '참회의 삶을 살자' 캠페인

연중 캠페인 '참회의 삶을 살자'를 전개했다. 지상캠페인과 함께 도선사에서 참회의 삼천배하기도 진행했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테마여행을 기획. 불자들과 함께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문화유산이 있는 사찰을 탐방했다.

1998년 '작은 실천 큰 기쁨' 캠페인

깨달음보다는 '실천'을 강조한 '작은 실천 큰 기쁨' 캠페인을 전개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캠페인 '디지털 대장경을 만듭시다'를 후원했으며, IMF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아 국난극복 참회 대법회를 진행했다. 여름방학을 이용한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를 신설했다.

1999년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연중 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와 '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공동(생명나눔실천본부) 캠페인을 전개했다. 근세 100년 고승기념 메달을 제작 보급했다.

2000년 '자기를 바로 봅시다' 캠페인 전개

자아성찰을 통한 이웃 사랑과 바른 삶의 서원을 촉구하는 '자기를 바로 봅시다' 캠페인 전개했다. 인터넷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를 개통했고, 제1회 불교서적 독서 감상문 공모를 진행했다.

2001년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2001년 | 동국역경원이 37년 만에 '한글대장경'을 완역한 해였다.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도난 문화재를 찾읍시다' 캠페인 전개와 함께 도난문화재 실태를 집중 보도했다.

2002년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 밝히기 운동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 밝히기 운동 전개, 신행수기 당선작들을 모은 〈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를 출간했다. 16면+12면, 28면 투섹션으로 지면을 개편했다.

2003년 '그리운 동문 찾기' 캠페인

대불련 총동문회와 함께 '그리운 동문 찾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16면+16면, 32면으로 증면했다. 스리랑카 수재민 돕기 공동 주최했다. 한-인 수교 30주년, 인도에서 부처님 모시기 법회도 진행했다.

2004년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 전개

나눔의 ARS 전화를 개설하고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한국불교 이것부터 달라져야 한다' 캠페인,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법회'를 진행했으며, '2004 사회복지 언론인상'을 수상했다.

2005년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주제 구국법회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주제로 구국법회(안성 도피안사 공동)를 진행했으며,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선사 초청 설선대법회를 진행했다.

2006년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 전개

미래불자 양성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군포교를 위해 조계종 군종교구와 공동으로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을 전개했다. 월정사와 '한암 대종사 수행학림' 공동 주최했으며, '경전 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등을 개최했다.

2007년 '새싹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

종립학교에 신문보내기 운동과 함께 '새싹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을 전개했다. '벽암록, 언어로 언어를 깨부수다' 석지현 스님 초청 강연, 원순 스님 〈원각경〉 특강 동영상을 제작 보급했다.

2008년 '공공기관에 현대불교'를 보냅시다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종교편향과 훼불 행위 감시를 위해 '공공기관에 현대불교'를 보냅시다' 호법캠페인을 전개했다.

2009년 '당신을 공경합니다' 캠페인

연중 캠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지상 캠페인과 라오스 공생 청소년 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 Dream 꿈 드림'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백양사 야단법석 '깨달음의 길을 찾는다'를 개최했다.

2010년 2010 빛고을불교아카데미 개최

2010 빛고을불교아카데미를 개최했으며, 조선불교유신론 100년(전보삼, 김광식 외) 한국불교 승려열전, 조기룡의 사찰경영학, 정찬주의 행복한 선 여행, 법정 스님과 만난 사람들 등 다양한 기획을 선보였다.

2011년 연중 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연중 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와 '108염주 만들기' 수행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붓다뉴스'를 '현불뉴스'로 개편 오픈했다.

2012년 '나의 서원 나의 신행' 연중기획

사찰조경연구소와 공동으로 '도량을 아름답게 꾸미자'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연중기획 '함께 행복합시다' '나의 서원 나의 신행'(제20회 불교언론문화상 우수상 수상)을 진행했다.

2013년 '어린이에게 불서를 선물합시다'

조계종 포교원과 함께 '어린이에게 불서를 선물합시다' 캠페인을 전개, 어린이불서 1,932권 일선 사찰 및 불자에게 법공양했다. '필리핀 태풍피해 주민에게 자비의 손길을' 캠페인, 〈나의 서원 나의 삶〉(연재 '나의 서원 나의 신행') 단행본 발간.

2014년 '행복으로 가는 길-탐진치 줄이기'

불자답게 살기 연중기획으로, '탐진치' 줄이기를 들어보는 '행복으로 가는 길-탐진치 줄이기'를 진행했다.



1996년에 인기리에 펼쳐진 반가사유상 모형 보급 캠페인



2004년에 개최된 '나눔의 손잡기' 장학금 전달식



2005년 하와이서 개최한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현대불교가 만든 책들

창간 이후 20년 간 쉬지 않고 이어져 온 연재물은 각각의 의미와 재미를 가지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20여 개의 인기 연재물은 연재 후 단행본으로 탄생됐다. 대표적 단행본들을 소개한다.

정리=박재완 기자

▲소설 수미산(전 2권-고은/대원정사)

현대불교신문 제 2호부터 연재된 고은 선생의 대하소설이다. 한국문학의 큰 산맥인 고은 선생이 매주 심혈을 기울려 쓴 이 소설은 작은 섬에 모인 수행자들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우주의 전체를 무대로 펼쳐지는 중생의 윤회 과정을 그리고 있다.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김홍근/여시아문)

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1899~1986)의 대표작들에는 불교의 영향이 짙게 배어 있다. 그가 작품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는 자아 정체성의 문제다. 이러한 그의 의문점들을 불교의 핵심인 사성제와 윤회, 무아, 열반의 의미에서 풀어내고 있다. 1998년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펴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첫 번째 책이다.



▲법수로 배우는불교(이제열/여시아문)

1999년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펴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두 번째 책으로, 불교에서 사용하는 숫자-법수를 통하여 불교의 진리와 깨달음의 방법을 설명한 책으로, 일념, 일단일체단, 이장 등 44개 법수를 불교일화와 함께 해설했다.

▲스님 이야기(지묵-여시아문)

'현대불교' 2001년 1월 1일자부터 2003년 8월 6일지까지 연재했던 것으로, 15명의 스님들에 의해 모두 140명 스님들의 수행일화를 소개됐는데, 그 중 85명의 이야기를 모았다.

▲잊혀진 가람 탐험(장지현 / 여시아문)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됐던 내용을 묶은 이 책에는 양양 진전사지, 여주 고달사지 등 저자 장지현 시인이 4년간 발품을 팔아가며 전국 35곳의 폐사지를 찾아다닌 기록이다.

▲법정 나를 물들이다 · 가슴이 부르는 만남 (변택주-불광출판사)

책 〈법정 나를…〉과 〈가슴이…〉는 2010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연재되었던 '법정 스님과 만난 사람들'을 2회에 걸쳐 출판 한 것으로, 장익 주교, 원택 스님, 이해인 수녀 등 법정 스님과 만난 37명이 말하는 법정 스님과의 인연담이다.

▲선심으로 보는 세상(현각/한걸음더)

2011년 연재했던 내용 중에서 가려 뽑아 엮은 것으로, 현각 스님의 불교 철학을 담았다. 호젓한 산길에서의 산책 한번으로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발견해 내는 저자의 깨달음을 엿볼 수 있다.

▲미술관에 간 붓다(명법/나무를 심는 사람들)

2013년에 연재한 '불교와 미학'을 묶은 것으로, 수행자이자 미학자인 명법 스님이 '반가사유상' 이나 '서산마애삼존불' 처럼 누구나 한번쯤 접해 본 불교예술을 통해 미학을 새롭게 해석한 책이다.

▲생태사회와 녹색불교(유정길/아름다운 인연)

2012년 연재 '생태사회와 불교'를 엮을 것이다. 저자의 생태적 세계관과 녹색적 세계관으로 과연 사회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생명평화, 생태의 관점에서 이제까지의 사회적 의제를 낱낱이 새롭게 해석한다.

▲붓다의 물리학(위오기/공주대학교 출판부)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현대불교신문에 연재했던 것으로, 위오기 공주대 경영학과 교수가 선정을 체험하고 물질과 마음의 궁극적 실재에 대해 깨닫고 난 후 '물질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는 니나 판 고르콤의 저서 〈물질현상에 대한 불교적 가르침〉을 번역한 것이다. 니르바나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나의 서원 나의 삶 (현대불교 편집부/우리출판사)

2012년 현대불교신문사 연중기획 '함께 행복합시다-나의 서원 나의 신행'에 연재된 스님과 재가불자 25명의 인터뷰를 묶은 것이다. 이 기획은 제 20회 불교언론문화상 우수상을 받았다.

▲흔적 없이 나는 새(수불/김영사)

2013년 연재한 것으로, 황벽 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전심법요〉를 수불 스님이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새로 풀어 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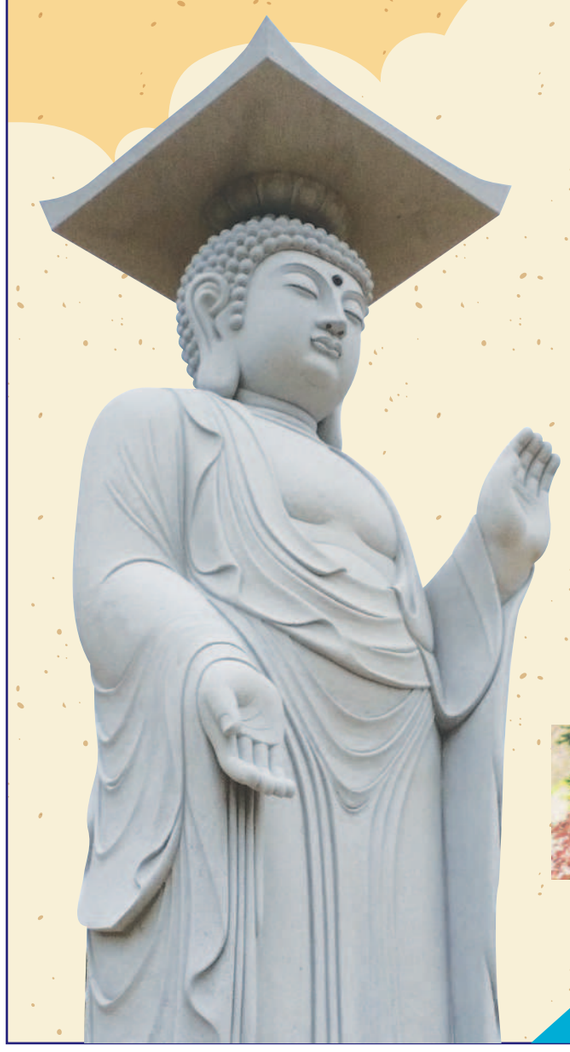
▲활빨빨한 금강경(고준환/본각선교)

책의 3부에 해당하는 '금강경과 생활철학' 부분을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16회에 걸쳐 연재했으며, 본각선교원의 '생활속의 금강경' 강좌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출간 예정)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연재로, 추사가 초의 선사와 주고 받은 편지글을 소개했다. 인간의 아름다운 우정, 사람냄새가 나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한다.

창간 20주년 SINCE 1994



금강산 화암사 미륵 대불 봉안 및
금강산 풍악제 (산사음악회)

금강산 최남단,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화암사에서 야외 미륵대불 봉안법회를 봉행하고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풍악제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무루 동참하시어 함께 나누는 넉넉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일 시 : 2014년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부터

■ 식 순 : (1) 어산범패 점안식 (10시 ~ 11시)
(2) 미륵 대불 봉안법회 (11시 ~ 12시)
(3) 화합한마당 (12시 ~ 13시 30분)
(4) 산사음악회 (13시 30분 부터)

■ 주최 : 금강산 화암사 ■ 주관 : 춘천불교방송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신흥사, 고성군청

■ 풍악제 (산사음악회) : 사회 김종석

· 출연진 : 니나노난다, 김진묵과 트로트밴드, 레이디티(5인조 그룹), 도신스님, 허윤아,
조기량, 한설민, 김태곤





금 강 산 화 암 사

주소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화암사길 100 / 전화 : 033)633-0090

한국불교의 개혁·전법 현장을 담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20주년을 맞았다. 본격적인 신행포교전문지를 표방하며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세계화를 위해 20년을 달려왔다. 부처님의 말씀을 정론을 통해 전하고 모든 이들이 부처님 말씀에 함께 하기를 서원하며 불자들에게는 더없는 자부심으로, 나아가 '정론직필' 로 거듭 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지난 20년 동안 현대불교가 전한 뉴스 중 20대 뉴스를 연도별로 선정했다.

정리=박재완 기자

1994년 | 현대불교신문 창간 · 조계종 종단사태, 종단개혁

1994년은 현대불교신문의 창간으로 인해 불교 언론의 저변이 또 한 번 확장되는 한 해였다. 한편, 조계종사에서는 큰 시련의 한 해였다. 3월 23일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 가 출범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공권력이 투입으로 유혈충돌이 발생했다. 본지 창간 전의 사태로 본지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1995년 | 송광사 16국사 진영 도난

1995년 교계는 송광사 국사전 16국사 진영 중 13국사 진영이 도난당하는 불운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 불교문화재 관리에 대한 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1996년 | 환경의 해…사찰환경 훼손 심각

해인사골프장 건립, 봉은사 아셈행사장 건립, 선암사 앞 아파트 건립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로 전국의 사찰 환경이 훼손됐다. 조계종은 환경보존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전국 본 · 말사 결의대회' 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사찰환경보존위원회를 구성했다.

1997년 | 잇따른 사찰 방화, 성보 도난

사찰방화 사건과 성보 도난 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고, 종교편향 사건도 계속됐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육군특수전 학교가 법회에 참가하는 사병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법당 주변에 인분을 뿌리는 등 상상도 못할 훼불사건을 일으켰으며, 북한산 일대의 사찰들이 연쇄적인 방화공포에 떨었다.

1998년 | 국난 극복 · 조계종 종단사태

IMF경제난과 관련하여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는 국난극복기원 참회대법회가 전국8곳에서 개최됐다.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불거져 나온 월주 스님의 3선 문제가 11월 11일의 승려대회와 정화개혁회의 출범으로 이어지며 조계종 사태가 발생했다.

1999년 | 〈가산불교대사림〉 출간

가산불교문화원이 세계 최대 불교사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산불교대사림〉 1, 2권을 편찬했다. 출간은 전 15권을 예정으로 1982년부터 시작된 불사의 첫 성과물이다.

2000년 | 디지털 고려대장경 완성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려대장경 전산화 작업이 결실을 맺었다. 12월 6일 고려대장경연구소가 고려대장경 전체를 목판 인경본 12장, 유니코드 전환용 3장 등 모두 15장의 CD에 담아내는 '고려대장경 2000' 을 발간했다.

2001년 | 한글대장경 318권이 완간

동국역경원(원장 월운)이 37년간 진행해 온 대규모 역경불사의 결과물인 한글대장경 318권이 완간됐다. 동국역경원이 1964년 설립되면서 〈장아함경〉을 첫 권을 펴낸 이후 37년 만인 9월 5일 장충체육관에서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 를 봉행했다. 〈사진1〉

2002년 | 동국대 불교병원 개원 · 천태종립 금강대학교 개교

양 · 한방 1000병상 규모인 동국대 불교병원이 9월 27일 불자들의 관심 속에 준공됐다. 11월 7일에는 불교계 네 번째 정규대학인 천태종립 금강대학교가 개교했다.

2003년 | 수경 스님 새만금 삼보일배 · 지율 스님 38일 단식

2003년 불교계는 '환경 수호' 를 위해 쉼 없이 정진했다. 수경 스님 등 4개 종교 성직자들이 두 달여간, 해창 갯벌에서 서울까지 진행한 삼보일배는 가장 불교적인 방법으로 국민적 감동을 만들어냈다. 〈사진2〉 한편, 고속철 금정산 천성산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지율스님이 38일간의 단식 정진과 38일간의 삼천배 정진, 45일간의 단식 정진으로 도롱뇽 소송 원고 10만인 모집에 성공했다.

2004년 | '나눔' 운동 확산 · '서울시 봉헌' 물의

창간 10주년을 맞아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과 조계종 '나눔의 하나 되는 세상' 태고종 '1사찰 1선행하기 운동' 천태종 '나누며 하나 되기운동' 진각종 '행복 릴레이 만월회' 생명나눔실천회 '골수기증운동' 을 진행했다. 한편 이명박 서울시장이 5월 한 개신교 종교대회에서 '서울시 봉헌' 발언으로 이웃종교인들의 분노를 샀다.

2005년 | 낙산사 화재 · 영통사 복원

4월 5일 산불로 천년고찰 양양 낙산사 전각 37채 중 22채가 전소됐다. 처참했던 화재당시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자들은 물론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원통보전을 비롯한 주요전각과 인근 소나무 숲이 잿더미로 변했고 동종(보물 제479호)이 녹아내리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사진3〉 천태종은 10월 31일 종조인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출가 사찰인 개성 영통사 낙성식을 거행했다.

2006년 | 도난성보 회수 · 동국대 100주년

'성보 문화재 회수 원년의 해' 라고 기록될 만큼 도난 성보를 회수하는 성과를 냈다. 그 첫 단초는 6월 백양사 아미타극락회상도를 반환받았고, 10월에는 불화, 석탑 등 전국의 사찰과 서원 등지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를 취득 · 은닉해 온 사설박물관 등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해 적발됐다.

2007년 | 신정아 학력 위조

동국대 신정아 교수의 석 박사 학위가 모두 허위로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6월 초 동국대 前 이사 장윤 스님이 처음으로 신씨의 예일대 박사 학위가 가짜라는 의혹을 제기한 후, 신씨의 학위가 전부 허위로 드러났다.

2008년 | 8.27 법불교도대회 개최 · 10.27법난 특별법 제정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빈번하게 발생한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행위로 인해 불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논란과 혼란이 야기됐다. 결국 8월 27일 범불교도대회 봉행위원회가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27개 종단 스님과 신도 등 20만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범불교도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사진5〉

한편, '10.27법난' 이 발생한 지 28년 만인 2월에는 특별법이 제정됐다.

2009년 | 양양 낙산사 복원 불사 회향

지난 2005년 4월 5일 강원도 일대를 휩쓴 산불로 인해 소실됐던 양양 낙산사가 4년여에 걸친 복원 불사 끝에 10월 12일 옛 가람의 모습을 되찾았다.

2010년 | '무소유' 법정 스님 원적

'무소유' 로 한 시대의 큰 스승이었던 법정 스님이 3월 11일 세수 79세, 법랍 56세로 송광사 서울 분원 길상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번거롭고 부질없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만 끼치는 일체의 장례의식을 행하지 말고, 관과 수의를 따로 마련하지 말라" 는 남겼다. 〈사진4〉

2011년 | 초조대장경 조성 천 년의 해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을 맞은 해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다. 특히 경상남도와 해인사가 9월 23~11월 6일 개최한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은 불교문화의 저력을 통해 불교 위상을 드높인 성과를 거뒀다. 〈사진6〉

2012년 | 스님들 도박, 몰카 사건

4월 터진 백양사 승려 도박 · 몰카 사건은 불교를 넘어 사회로까지 확산됐다.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의 49재가 열린 4월 23일부터 24일 백양사 인근 호텔에서 8명의 스님들이 도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TV 영상이 공개됐다. 스님들의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영상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왔다.

2013년 | 주요 종단 수장 교체

올해 불교계의 가장 큰 이슈는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누가 당선될 것인가' 였다. 이번 조계종 선거는 총 5명의 스님이 출마해 추대가 아닌 경선 체재로 진행돼 10월 10일 열린 선거에서 자승 스님이 당선됐다. 진각종은 올해 가장 먼저 수장이 교체됐다. 진각종 종의회는 4월 18일 열린 정기종의회에서 제29대 통리원장에 명륜심인당 주교 회정 정사를 선출했다. 태고종 제25대 총무원장에는 개혁적 인물로 평가받는 前 중앙종회의장 도산 스님이 당선됐다.

2014년

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인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재단법인 법보선원 이사장)이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이 요구하는 법인 등록을 거부하고 조계종 탈종을 선언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사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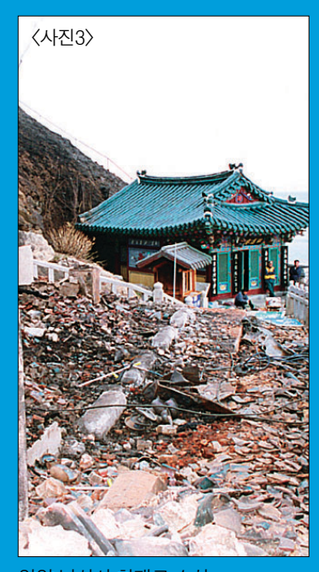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

〈사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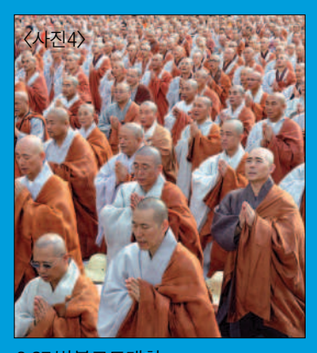
수경 스님 새만금 삼보일배

〈사진3〉



양양 낙산사 화재로 소실

〈사진4〉



8.27 범불교도대회

〈사진5〉



법정 스님 원적

〈사진6〉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고불총림 백양사

학봉 선석원 개원기념 오백 나한상 특별전

고불총림 백양사 수석박물관인 학봉선석원鶴峰禪石園이 일반인과 불자들에게 수석 '오백 나한상'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전국사찰 박물관 중에서 자연이 빚은 오백 나한석을 전시하는 유일한 박물관이고, 세계에서도 최초의 자연석 오백나한상 전시를 처음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학봉선석원으로 개원한 수석박물관은 백양사 방장 지선큰스님이 40여년 간 10여개 국가에서 수집한 아름다운 돌 1천여 점의 달마석과 사유석 등을 '오백 나한상' 을 테마로 약 550여 점을 일반에 첫 선을 보입니다.

특별 전시기간 : 10월 17일 ~ 11월 30일 / 문의 : 종무소 061)392-7502



"수석은 위대한 자연이 만든 예술입니다. 풍마우세(風磨雨洗)를 겪은 수석은 유달리 달마, 관음상 등 우리 불교와 관련된 것이 많지요. 수석 채집에 앞서 강가의 바위에 앉아 참선에 들면 수많은 돌들이 모두 저에게는 선승으로 보입니다. 제가 나지막히 염불 하면 돌들도 따라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달마석을 만나고 부처석도 친견하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법을 청해듣습니다. 바로 달마석 삼매경에서 이어지는 '선석일여(禪石一如)의 경지' 이지요.

– 지선스님 설명중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고불총림 백양사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www.baekyangsa.or.kr

탑의 진화

⑳ 중국의 불탑(7)

화탑, 라마식탑, 금강보좌식탑, 가과식탑

다양한 형태의 불탑… 연화장 세계 표현

중국의 불탑 마지막 편으로 화탑, 라마식탑, 금강보좌식탑, 가과식탑에 대해 알아본다.

화탑(花塔)

화탑이란 상반부에 꽃을 상징하는 장식으로 이루어져 화식탑 또는 화탑이라고 부른다. 장식은 연꽃, 불감(佛龕), 불상 및 다양한 종교적 상징성이 있는 동식물 등을 소재로 하며, 층수는 다양하다. 이러한 화탑은 정각식탑의 탑찰과 누각식탑, 밀첨식탑의 탑신을 장식하는 데서 발전하여 왔으며, 불교의 연화장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 수량은 비록 많지 않지만, 북위(北魏)시기부터 시작되어 송(宋)나라 때까지 꾸준히 조성되어 왔다.

하북성 정정(正定)에 소재한 광혜사화탑(廣惠寺花塔)**〈사진1〉**은 일명 다보탑(多寶塔)으로 불리는데 당(唐) 정관연간(627-649)에 조성되었다. 높이는 40.5m이며, 3층으로 이루어진 8각의 누각식 화탑이다. 1층의 탑신은 8각을 이루는데 4면에 다시 6각형의 정각이 있고 아치형의 감실이 각각 하나씩 조성되어 있다. 2층의 탑신 역시 8각인데 각 면마다 3칸으로 분할되고 1층 탑신의 아치형과는 방향을 엇갈리게 하여 4방으로 개방할 수 있는 네 개의 출입문이 있다. 3층 탑신 위와 탑찰부 사이에는 화탑의 상징인 용, 사자, 코끼리 등의 화려한 조각상**〈사진2〉**이 있다.

하북성 보정(保定)에 있는 경화사화탑(慶化寺花塔)**〈사진3〉**은 요(遼)나라 시기에 조성된 8층 전탑으로 13m의 높이이다.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으나 120개의 불감과 복숭아 모양의 과일 장식이 한 송이의 연꽃을 연상하게 하여 화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라마식탑(œª †)

라마식탑은 원래 인도의 전통 불탑 형식이며 중국에서는 불교가 전래된 이후의 이른 시기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조성된 시기는 원대(元代) 이후이다. 이 라마식탑의 기본 구조는 수미좌, 탑신, 상륜, 탑찰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미좌는 기단부에 해당되는데 원형, 사각형, 8각형 등 다양하며, 탑신은 대부분이 원형으로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나오게 하였다. 상륜은 13층이 일반적이므로 십삼천(十三天)이라고 부른다. 불교에서 13의 의미는 시간개념과 공간개념을 아우르는 숫자이다. 평면적 방위를 표현하는 8방과 하늘과 땅인 천지의 2를 더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3을 더한 숫자가 13이 되는 것이다. 즉, 시방삼세(十方三世)를 표현한 숫자이며, 원대에 조성된 탑의 층수가 유난히 13층이 많은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상륜부 위의 탑찰은 부처님의 머리 부분을 상징하고 있어서 해와 달, 보주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중국에서 현존하고 있는 라마식 불탑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북경에 있는 묘응사백탑(妙應寺白塔)**〈사진4〉**이다.

이 탑은 원대 지원(至元) 8년(1271)에 조성되었고, 높이는 50.9m이다. 탑좌는 방형의 수미좌를 이루고, 위로 갈수록 둘레가 좁아지는 상륜의 13개 원형 층은 가장 직경이 넓은 것이 9.9m이다. 작은 소탑 형식의 탑찰부는 높이가 5m이며, 재료는 청동을 사용하였다.

서장자치구의 일객칙지구(日喀則地區)에 있는 백거사탑(白居寺塔)**〈사진5〉**은 조형상으로는 라마식탑의 대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다운 종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탑안에 10만불이 조성되어 있어서 일명 '십만불탑' 이라고도 부르는 이 탑은 명나라 선종 때인 1427년부터 10년간에 걸쳐 조성되었다. 탑신 기단부의 면적이 2,200㎡나 되며, 높이는 34m의 13층 탑으로 구조와 조형면에서 독특하며, 인도, 네팔 등 서역의 불교와 티베트 예술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화탑, 종교상징 동식물 소재
탑신 장식하는데서 발전 지속

라마식탑, 인도전통 불탑 형식
기본구조는 네 부분으로 구성

과가탑, 길거리 위에 조성
원나라때부터 만들어져
교통 요지에 주로 많이 세워

금강보좌식탑(金剛寶座式塔)

금강보좌식탑은 그 기본적 특징이 탑좌는 높고 크며 탑 위로 5개의 탑이 놓여있다. 그 중에 중간에 있는 탑은 비교적 높고 크게 조성하며, 사각의 4개 탑은 중앙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고 낮다. 탑좌 위의 5개 탑의 형상 구조는 일정한 규정은 없고 누각식, 밀첨식, 복발식 등이 다양하게 조성된다. 이 탑의 도상적 근거는 밀교(密教)의 금강계5부(金剛界五部)이다. 이것은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에서 다섯 부류로 나눈 불부(佛部)·금강부(金剛部)·보부(寶部)·연화부(蓮華部)·갈마부(wæ磨部)를 통칭한다. 각 부에는 한분씩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중앙의 대일여래를 비롯하여 아촉불, 보생불, 아미타불, 불공성취불이 주인공이다. 금강보좌식탑은 이 다섯분의 부처님을 상징한 불탑으로 명대(明代) 이후에 유행하였다.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의 금강보좌사리탑(金剛寶座舍利塔)**〈사진6〉**은 자등사(慈燈寺)에 있다. 자등사는 청나라 옹정 5년(1727)에 시작되어 1732년에 완성된 대 규모의 가람이었으나, 1960년대에 완전히 폐사되어 현재는 오직 탑만이 남아 있게 되었다. 최근에 복원불사가 한참이며, 탑은 16.5m의 전탑으로 수미좌의 부조는 매우 정교하여 참배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금강좌는 7층으로 1층에는 몽고어,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의 3개의 문자로 금강경을 새겨두었고, 2층에서 7층까지는 모두 1119개의 감실을 두고 감실 안에는 형상이 각기 다른 불상을 봉안하여 불탑신앙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북경시 해정구(海淀區)에 있는 묘고사(妙高寺)경내의 묘고탑**〈사진7〉**은 청나라 건륭 36년(1771)에 조성되었다. 건륭황제는 티베트불교의 연구에 많은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자금성 주변에 3개의 금강보좌식탑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묘고사탑을 조성 할 때는 수차례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찰하였으며, 영취지봉(榮鷲支峰)이라는 절의 현판을 친히 쓰기도 하였다. 근래에 지진과 낙뢰로 탑이 훼손되자 1983년부터 중국 정부에서 대대적인 복원불사를 실시하여 원래의 모습을 하고 있다.

과가탑(過街塔)

과가탑은 길거리 혹은 대로 위에 지어진 탑이며 아래쪽에는 마차, 자동차와 행인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있다. 일반적으로 행인은 지나기 쉽지만 자동차와 마차 등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것은 불탑은 부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탑 아래로 지나는 행인은 자연스럽게 부처님께 귀의하며 정례의 예를 갖추지만 차마(車馬)에게는 불경(不敬)의 예가 되기 때문이다. 마치 절이나 사당 앞에 있는 하마비(下馬碑)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 과가탑은 원(元)대에 조성되기 시작했으며, 일반적으로 라마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 유목생활을 하며 일정한 주거지가 없었던 몽고족들이 이동 중에 탑을 보고 예경할 수 있도록 교통의 요지에 이러한 과가식탑을 많이 조성하였으나 현대에 들어와 도로 건설 등의 이유로 폐탑 되어 현존하는 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강소성(江蘇省)의 소관탑(昭關塔)**〈사진8〉**과 북경의 광지사과가탑, 법해사과가탑, 광서 계림의 만수사사리탑 등이 현존한다.

소관탑은 원대에 조성되었으며, 탑 상부에 '소관(昭關)' 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탑의 명칭이 되었다. 이 탑은 청석을 재료로 하였으며, 십삼천이 있는 라마식 형식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과가식불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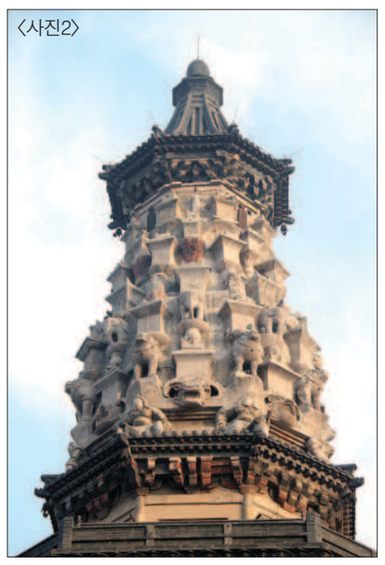
지금까지 7종류의 조형적 특색에 따른 중국 불탑의 변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물론, 7종류 외에도 여러 가지의 형식구조가 있다. 예를 들어 정각식탑 꼭대기에 9개의 작은 석탑을 만들면 구정탑(九亭塔)이 되고, 한족(漢族) 전통의 문궐(門闕) 건축형식의 궐식탑(闕式塔) 원통 모양의 원통탑(圓通塔) 외에도 종형탑(鐘形塔), 구형탑(球形塔), 경당식탑(經幢式塔) 등이 있다. 다음 호에는 일본의 불탑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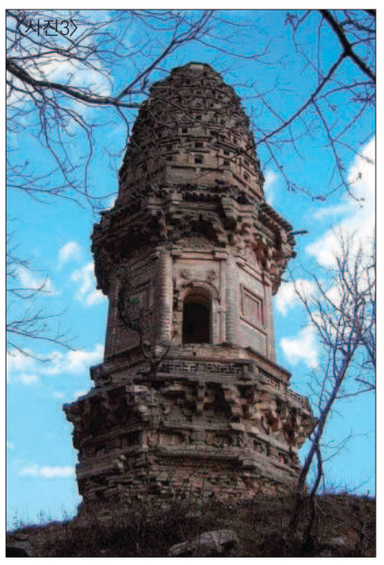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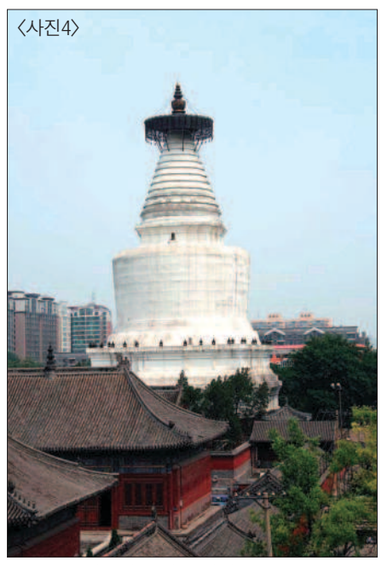
글 · 우인보
〈불교문화예술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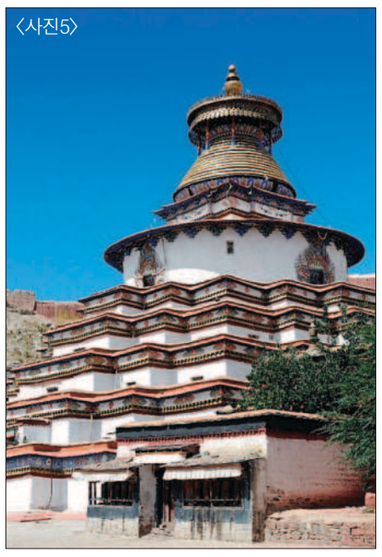
〈사진1〉

광혜사화탑은 일명 다보탑으로 불리는데 당(唐) 정관연간(627-649)에 조성되었다.

〈사진2〉

광혜사화탑 3층 탑신 위와 탑찰부 사이에는 화탑의 상징인 용, 사자 등의 조각상이 있다.

〈사진3〉

경화사화탑은 요나라 시기에 조성된 8층 전탑으로 13m의 높이다.

〈사진4〉

중국에서 현존하고 있는 라마식 불탑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묘응사백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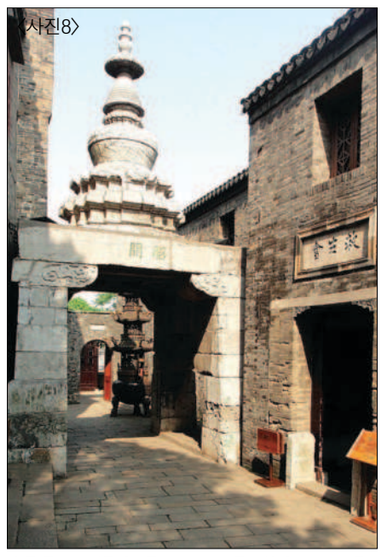
〈사진5〉

백거사탑은 조형상으로 라마식탑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종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진6〉

금강보좌사리탑은 자등사(慈燈寺)에 있다.

〈사진7〉

묘고사(妙高寺)경내의 묘고탑은 청나라 건륭 36년(1771)에 조성됐다.

〈사진8〉

소관탑과 북경의 광지사과가탑, 법해사과가탑, 광서 계림의 만수사사리탑 등이 현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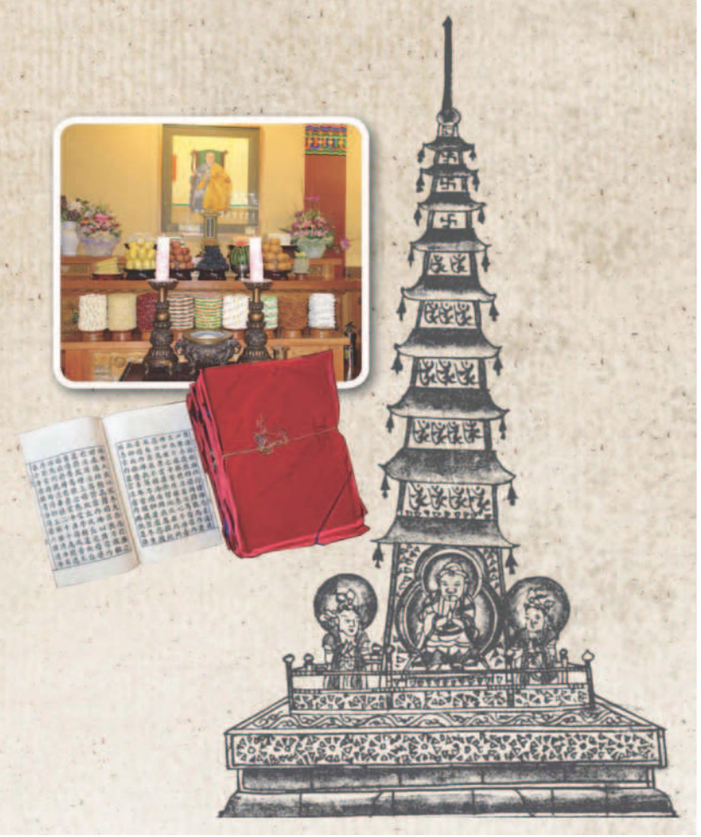
창간 20 SINCE 1994 주년

대한불교관음종 창종 50주년 즈음 행사안내

태허조사 사리 친견법회 · 학술대회 · 탑비 및 부도 봉안법회

대한불교관음종이 명년(2015년) 창종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소의경전의 연구를 통한 학술발표대회와 조사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개산조 태허당 홍선 조사스님의 출가 본사인 조계산 선암사에 탑비와 부도를 봉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탑비와 부도를 봉안하기에 앞서 태허 조사 사리 친견 법회도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종도 사부대중은 물론 불자 여러분들을 법석에 초대합니다.

1. 태허조사 사리 친견법회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27일 오후 1시 서울 낙산 묘각사 원통보전
2. 학술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낙산 묘각사 대불보전
3. 탑비 부도 봉안법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1일 오후 2시 전남 순천 조계산 선암사



문의 : 대한불교관음종 02)763-0054 /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8-3

화엄의 꽃 절집 천정
〈13〉 논산 쌍계사 대웅전

반복과 대칭, 회전 연속… 洋洋한 법계

양양



대웅전 내진영역의 우물천정. 총 108칸의 우물반자에 넝쿨형 영기문을 베풀었다. 천정의 봉황조형은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에도 나타난다.



사진 왼쪽부터 아미타여래, 석가여래, 약사여래세계의 천정과 닫집, 후불탱의 모습. 보궁의 이름을 차례로 칠보궁, 적멸궁, 만월궁으로 밝히고 있다. 전등사 약사전에서도 그 사례가 보인다.

불전 장식화… 자유와 다채로움 추구

논산 쌍계사 대웅전은 영조 14년(1738년)에 중건된 조선후기 건물이다. 1970년대 대웅전 보수공사 때, 1738년의 상량문 기록인 〈은진쌍계사중창기〉가 발견 되었다. "사방 산이 헐벗어 민둥산이다. 대웅전은 본시 2층이었으나, 지금은 높은 기둥이 될만한 목재가 없어 단층으로 고쳐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주(高柱)로 삼을 재목이 없어 2층 건물을 단층으로 고쳐 지었다는 것이다. 건물의 칸 수와 평면규모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17, 18세기 조선중후기 불전양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낭만주의적 장식화가 고스란히 수용되었다.

불전건물의 장식화의 경향은 원당사찰 등에서 나타나는 절제와 규범보다는 자유분방하고 명랑하며 다채로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서남해안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서민의 경제력이 사찰조영에 유입되었으며, 수륙재, 천도재, 기복신앙 등 민중적 토착요소가 불교에 수용되었다. 건축내부의 변화도 그에 상응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불공간으로 전환되었다. 변화의 중심은 예불공간의 확대와 유용성 확보, 그리고 장식화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다. 후불벽은 뒤로 밀려나고, 내부바닥은 전돌에서 마루바닥으로 바뀌었다. 작은 불탁은 여러 공양물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높고 길다란 불단으로 나타났으며, 창호는 내부를 보다 밝게 하기위해 섬세한 장식물을 갖춘 전면 창호의 분합문으로 변화했다.

중심불전에 건축역량 집중

사회전반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은 사찰의 중심불전에 여러 불보살의 세계를 통합시켰고,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 관음전 등이 횡으로, 종으로 한 불전에 결합되어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 중심불전에 건축역량을 쏟아 부었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이 이

17,18세기 낭만주의적 장식화 경향
대흥사, 직지사 등 불전양식 비슷

루어졌다. 불전의 내부는 회화와 조형 등으로 빈틈없이 섬세하고 거룩하게 장엄된 보궁의 형태로 탄생되었다.

쇠멸하는 '중세의 가을'에서,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의 더미에서 불국토의 염원이 한 떨기 종교예술의 꽃으로 피어난 것이다. 핍박받는 민중에게서 불전은 극락정토였고, 연화장세계 였다. 내소사 대웅보전, 미황사 대웅보전, 대흥사 대웅보전, 선운사 대웅보전, 논산 쌍계사 대웅전 등에서 그 시대의 불전 전형양식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속에는 시대정신과 한 시대의 질은 고뇌가 담겨있다. 17,18세기 조선시대 불전건축은 시대의 고통을 뛰어넘은 '정화된' 건축물들이다. 한 시대 마음의 자내증으로 구현되었다.

쌍계사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계 양식으로 내5출목을 갖추었다. 첫 시선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색과 형태의 아름다움을 두루 갖춘 창호의 꽃살문이다. 10분합문에 6가지 꽃문양을 경영한 무궁무진한 화엄의 꽃이다. 연속과 반복, 대칭으로 불국토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모란, 연꽃, 국화라 하지만 실상은 분별 밖의 마음의 꽃이다. 그것은 법의 진리를 드러낸 묘법연화이며, 영산회의 환희심의 꽃이며, 지심귀명례로 공양한 세세생생의 헌화다. 꽃이 아니라, 진리의 묘법이고, 마음이다. 꽃 너머에 부처께서 상주하신다.

어칸과 양협칸은 내진주 영역이고, 좌우 끝자락의 양퇴칸은 외진주 영역이다. 3칸의 내진주 영역에 고주를 세우고, 길다란 불단을 마련해서 후불벽 세 칸 칸칸에 석가여래, 아미타여래, 약사여래의 세 부처님을 모셨다. 세 부처님은 각각의 칸에 독립된 후불탱화와 아(亞)자형 보궁의 중층닫집을 갖추었다. 이렇게 삼존불에 독립된 닫집을 따로 갖춘 형식은 구례 화엄사 대웅전과 김천 직지사 대웅전,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쌍계사의 경우 독립된 보궁의 세계를 별칭으로 밝혀두어 주목을 끈다. 향좌측에서부터, 아미타여래-아미타불회도-칠보궁, 석가여래-영산회상도-적멸궁, 약사여래-약사불회도-만월궁의 형식을 갖춰 한 중심불전에 세 불보살의 세계를 통합하고 있다. 불상과 후불탱화, 불보살의 세계를 일치시킨 분명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한 불전에 대웅전, 극락전, 약사전을 통합경영한 셈이다. 이것은 선(禪)과 현재, 내세의 기복이 결합된, 조선후기 시대상을 반영한 대승불교적 부응이라 할 것이다. 저마다의 불보살의 세계에는 신령의 기운을 내뿜는 용이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태세고, 천계에는 봉황과 극락조가 상서의 서기를 북돋우고 있다. 현대적 건축오브제의 모빌양식까지 구사되었다. 불보살의 집단성에 웅장하고도 드라마틱한 건축장치를 결합해서 종교적 엄숙함과 거룩함을 극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이것은 언어예술이 표현할 수 없는 건축조형예술의 힘이다.

내5출목 중중의 연꽃 봉오리, 연화장

내5출목의 자유로운 변주는 내부공간의 거대한 운궁형태로의 조영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한다. 기둥은 나무이자, 숲이다. 나무에서 줄기가 뻗치고 꽃이 피듯 건축의 가구구조에서도 생명력을 경영한다. 서양건축의 기둥에 나타나는 코린트 양식과 같은 이치다. 우리나라 목조건축에서 특히 발달한 공포(栱包)구조는 위에서 누르는 힘을 분산시키는 역학적인 구조체임과 동시에 생명력의 숲이자, 우주목의 덕목을 갖추고 있다. 내5출목의 풍부한 뼈대를 통하여 생명력은 넝쿨처럼 중중(重重)으로 툐아오르고 확산되어 생명력의 숲, 곧 자비가 충만한 운궁을 이룬다. 살미의 끝자락엔 온통 붉은 연꽃 봉우리가 맺혔다. 천계에 장엄된 연화의 숲, 연화장세계다. 그 연봉오리는 자연의 연꽃이 아니다. 정화된 불성이자, 자비이다.

포작의 제공이 끝나는 곳에 빗반자 천정이 가설되었다. 검은 바탕의 천공에서 노란 빛을 띈 신령의 기운들이 용의 기세로 꿈틀대고 있다. 넝쿨의 모티브로 엉킨 영기문의 곡선들이 이슬람 미술의 아라베스크 문양과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텅 비어 있는데 생명력의 기운으로 가득하다. 미묘하고 불가사의의 힘으로 충만하다. 현묘한 동양적 우주법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사실 언어와 문자는 이분법적이다. 언어로 대상을 드러내는 순간, 대상은 둘로 나누어진다. 분별하고 차별한다. 궁극은 문자와 언어의 경계 밖이다. 불교범자와 조형언어는 그 상징성으로 인해 침묵한 내면의 힘을 지닌다. 빗반자에 법계의 적멸이 깃들

독립된 아(亞)자형 보궁의 중층닫집
연판 둘레 여섯 곳에서 여의보주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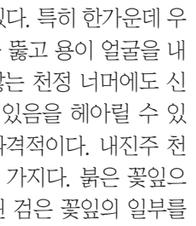
어 있다. 블랙홀의 어둠처럼 불가사의하고 아스라한 깊이의 세계다.

내진주 영역의 우물천정은 어칸과 좌우 협칸 세 칸, 좌우 퇴칸 일부에 경영했다. 이 세계는 증득된 자내증의 세계다. 퇴칸의 우물반자에 베푼 문양은 씨방부분에 범자종자(梵字種字) '옴'과 '니' 등의 한 자(字)를 새겨넣은 연화문이다. 그 범자들은 천수경의 육자대명왕진언의 부분들이다. 한 자 한 자가 불보살의 세계이고 미묘본심이다. 그런데 연판 둘레의 여섯 곳에서 여의보주가 나와 연화에 담긴 관념적 깊이를 심화시키고 있다. 청정마음에서 무위의 침묵으로 홀연히 드러낸 진리,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연기법계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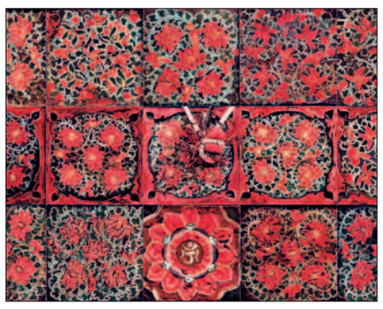
천정뚫고 나오는 용, 파격적 표현

내진주영역의 우물천정은 밀교적 오대오불(五大五佛)의 세계를 영기문넝쿨로 표현하고 있다. 오대오불은 금강계만다라의 세계다. 방위에 따른 불보살의 공덕이 총섭된 세계다. 중앙과 사방위에 불보살을 상징하는 연화문이 배치되어 있다. 양협칸의 연화문은 정사각형 우물반자틀 안에 그렸지만, 중앙칸의 연화문은 우물반자 안에 다시 원형의 소란반자를 가설한 후, 문양을 베풀어 조영의 중심을 밝히고 있다. 채색원리는 붉은색과 청색계열의 보색효과를 견지하였다. 문양의 세계는 세 곳에 각각 36칸씩, 108칸에 반복과 대칭, 회전을 거듭하면서 막힘없이 양양(洋洋)하다. 에너지로 충만한 넝쿨 영기문이 불보살의 불국토에 신성과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한가운데 우물반자에서는 천정을 뚫고 용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보이지 않는 천정 너머에도 신령의 기운이 충만해 있음을 헤아릴 수 있다. 그 표현방식이 파격적이다. 내진주 천정에 베푼 문양은 두 가지다. 붉은 꽃잎으로 만개한 것과 덜 핀 검은 꽃잎의 일부를 가진 두 형태다. 대위법(對位法)적인 표현이 눈에 띈다. 한 틀에 대비되는 색과 형태를 동시에 구현하여 표현의 풍부함과 생동감을 갖추게 했다.

문양은 고도로 세련되었으며 놀라울만큼 현대적이다. 〈중국의 산수화〉의 저자 마이클 설리반이 한국미술을 평가하면서 한국미술에 깃든 '현대성'의 인상을 강력히 피력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은 현대조형미술이 지향하는 원초적 생명력의 묘사에 부합하는 까닭이다. 비정형적이며 자유로운 정신, 내면에의 관조와 잘 맞아떨어진다. 사실 엄격히 따지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낼 뿐이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새로운 것은 가장 오래된 것이다. 조형예술에서도 '오래된 미래'의 가치는 유효하다. 10분합의 꽃살문에서, 우물천정의 영기문 넝쿨에서 오래된 고전이 간직한 미래의 길과 지혜를 관(觀)한다. 백낙천이 〈노자〉라는 시에서,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 법"이라 하였으니, 논산 쌍계사 꽃살문 앞에서 언어도단의 벙어리 신세다.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내진주 영역 세 곳에 조영된 천정장엄 세부



좌우퇴칸 천정의 빗반자 영기문과 범자연화문



대웅전 내부장엄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현대불교신문 창간 20 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도현)
(사)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원로위원 석무념
원로위원 석보행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관오
의전부장 석명오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강원원장 석법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부산 제2 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 6
부산지부 제2 총무원 혜광사

대원불교조계종 종립교육원
교 육 원 051)893-3346
학장(직) 010-3564-6604 현우 법오
부산시 진구 당감 1동 232-3 현우정사
(백양대로 50-1호)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마음자리의 이름을 '부처'라 한다

업의 당처가 빈줄 알아야한다 ③

안 찾으면 그만이라. 내가 마음을 쓰기 때문에. 물건을 사려면 물건을 사.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해. 이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사십구 년 동안 설법하신 거라.

왜 그러냐. 너무나 지나치게 내 마음하고는 친해. 바로 그 자리라. 허공이 그렇게 내가 친해. 친하기 때문에 허공에 관심이 없어. 내 마음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마음이다, 바른 마음이라. 바른 마음은 어디 있으며 삿된 마음은 어디 있겠나요. 그러나 경계에 달질려서 분별을 일으키는 것을 삿되다 이래 하는데, 그렇게 말마디를 만들어 놓으니 아 삿된 마음만 있고 참마음은 어디 따로 있을 거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자리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

마음자리는 이름을 지어서 부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거든요. 눈이 있는 그 소식을 본 문제로 들어가서 찾기 시작하는데, 있거든. 있는데 너무나 내 부처는 너무나 친해. 너무나 가까워. 서로 체면 차릴 것도 없고. 그러니 무시해. 허공을 우리가 무시하듯이 무시해. 그러하기 때문에 무엇이 있겠다 싶어서 인연관계로서 좋은 인연 관계면 좋은 몸을 받게 되고 나쁜 인연 관계면 나쁜 몸을 받게 되는데, 차별현상에 일어나는 거기에 딱 달질려서 무엇이 따로 있지 하고 무엇을 구한다 말이에요.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구할 거요?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하기 때문에 허공은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고 지도리가 하나니 목숨이 하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땅의 임자라 말이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당장의 마음. 요것이 하늘땅의 임자거든. 왜 임자라 하느냐. 거기에는 슬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멍청한 사람들은 엉뚱한 짓을 해. 바로 여러분이 당장의 마음 그 자리라. 그 자리가 바로 하늘땅의 임자인데 말이지 딴 데 뭣이 있는가 싶어서 다른 데 찾아서 헤매인다 말이죠. 천년만년 헤매고 찾아봤든... 왜 그러느냐. 허공 속에서 백주(괜히) 자기 생각을 잘못 가져서 버리겠다 걷어잡겠다 이러한 꼴이나 꼭 한가지거든. 물속에 있으면서 물 찾는 거나 한가지에요.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갖다 버릴려고 하는 거나 꼭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란 어리석은가.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요 문제에 있어서 마음의 있는 곳, 이것부터 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긴요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내가 이 말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할 때 여러분 미리 또 아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문젯거리가 안 돼. 마음이 어디 있다는 것이 문젯거리도 안 돼. 마음이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과 몸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도 내가 많이 했거든요. 하니까 어디에 있다. 여러분들 아는 분 몇 있는데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은 마음이 어디

> **분별은 진심이 아니다**
> **마음은 있지도 없지도 않고**
> **참도 거짓도 없는 것이다**
> **진심을 찾고자 한다면**
> **내 마음과 타협해야 한다**

에 있다, 이거 어디에 있다고 말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어디 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솔직한 말로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뱃속에 있다 머릿속에 있다 뭐 어디에 있다. 이거 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말이죠. 이거 참 불가사의한 겁니다. 이런 몸뚱이를 나퉈서 이래서 사람인 양해서 사업도 하고 인생놀이도 하니까 이거 참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탁 들어앉아서 이것이 인생의 전부다 싶어서 말이지 여기서 설혹 우리가 그거 하고는 있지만 말이지, 거 참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자리란 거는 말이지 사실이 몸에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러나 이 몸을 여읜 것도 아니요, 이 몸 밖에 없는 것도 아니요, 그러나 이 몸 밖에 있다 해서 찾아도 없어. 왜 그러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놈을 어떻게 찾으란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나 저러나 있긴 있거든.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요 자릴 알겠습니까. 있긴 있어. 이상하단 말이지. 물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마음이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다 하면 말이지 어디 있는 곳을 찾아내질 못해. 또 없다 하면 말이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고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을 하니 이놈이 마음자리거든. 그러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말이지 내의 마음을 찾아낼까, 누구하고 타협을 하면 될까요. 할 수 없어. 어떻게 하면 내의 진심, 진심이라 해야 좀 실감이 나거든요. 마음에 진이니 거짓이니가 어디 있어요. 사실. 참도 거짓도 없는 겁니다. 참마음 거짓마음 이렇게 해야 실감이 나거든요. 이 자리는 내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고. 어떻게 하면 내의 진심을, 참마음을 찾아낼까.

누구하고 타협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기 보살님 말씀해 보세요. 누구하고 타협을 해야 되겠어요? 타협할 자리가 하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도 있을 거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음하고 타협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하면 내 진심을 찾아낼고 하는 고놈하고 타협을 해야 되요. 그렇지요. 마음은 하나거든요. 둘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 어떻게 하면 내가 진심을 찾아낼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공부할고 그 말 아니에요? 진심을 찾아낼고. 타협할 데가 아무데도 없어. 어떻게 하면 내 진심을 찾아낼고 고거하고 의논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하나지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에요.

그런데 이 마음자리가, 사실로 이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인연이 멀어졌어. 공연히 멀어졌다 해서 지 생각에 그렇지. 멀긴 뭘 멀어. 인연이 멀어졌다 하는 것도 그 자린데, 또 그 다음에 가서는 제일 첫째 경계에 달질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진심으로 알기 때문에 그만 저절로 멀어진 거와 같이 생각할 따름이여. 사실로 경계에 달질려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심의 한 가닥 여김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경계에 달질려서 분별 사량 분별한다 해서 그것이 진심 아닌 거 아니거든요. 꼭 그와 마찬가지에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무아미타불' 하며 업장 소멸

14-3 십념(十念)

이래서 우리는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것이다. 또 다음 얘기는 원효대사께서 하신 말씀으로 유심안락도(遊心安樂道)라고 하는 극락세계, 아미타불을 설명하는 데서와 원왕생(願往生)을 해설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다.

여러 억만년 동안 캄캄한 동굴 속에 있다. 그런데 어찌 나무아미타불로서 업장을 소멸 할 수 있느냐.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 억만년이 지나고 몇 억겁이 흐르고 캄캄한 동굴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불 한번 번쩍 켠다면 단박에 이 굴 안은 광명으로 환해질 것이다. 한 찰나에 환해진다.

우리가 별별 짓을 저지르고 모든 업장을 지었다손 치더라도 일념(一念) 나무아미타불할 때, 그 업장이 모두 말끔히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단박에 반박을 한다. 여러 수십년 동안 많은 일을 저질렀는데 아미타불 한번 부른다고 그것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우습지 않느냐 그런 것이다. 우리가 사회에서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특히 불교는 인과(因果)를 들먹여, 원인에는 결과가 따르게 마련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법적으로 죄에 대한 해당 형량(形量)을 무기, 10년 5년 또는 벌금형 따위로 매기는 것처럼 도덕을 어긴 죄악도 역시 제가끔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르거니와 전연 아무 가책도 안 받고 그대로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니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야말로 인과의 법칙을 무시한 얘기가 아니냐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

사회의 인과법칙은 정량적(定量的)인 것이다. 원인의 지은 양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정량인과적(定量因果的)인 것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본다면 번번히 부정량인과적(不定量因果的)인 것이 있다. 원인의 양과 결과의 양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때로는 반비례하는 일조차 있다. 많이 노력한다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나무를 깎아 대패질을 하며는 나무의 무늬가 드러나고 매끌매끌해진다.

그래서 대패질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무작정 자꾸 밀어댄다면 어떻게 될까. 나중엔 다 달아버리고 대패밥 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노력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노력한 대로 되어진다고 보는 것을 정량인과라 하고, 노력하는 것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같지 못할 때, 이것을 부정량인과라고 한다. 정량이 아닌 인과가 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묘관찰지(妙觀察知)라고 한다. 정량인과는 성소작지(成所作智)라고 한다. 지혜와 노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도 안 되는 예술의 지경, 천안(天眼)이 관여하는 바를 묘관찰지라고 한다.

이들 둘, 성소작지나 교관찰지는 우리

> **죄악은 저울대에 달듯이**
> **인과의 잣대로 평가 어렵다**
> **수승한 인연 따라 업장 사라지고**
> **극락의 안태한 세계로 간다.**

가 현실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화선지에 묵화를 치는데 의제(毅齊)선생 같은 이가 운필하는 것을 보면 붓을 이리 돌리고 저리 긋고나면 대와 국화와 바위가 절로 되어진다.

한번 붓을 놀릴 때마다 이런 것이 척척 나와 어우러진다. 그렇다고 자꾸 먹을 칠하고 그어대기만 하면 더 훌륭한 그림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또 먹을 덜 칠하고 그리다 말아 버려도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술의 지경이다.

음악도 마찬가지다. 소리를 내는데 템포를 급히 하거나 천천히 하거나 음정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또는 소프라노라든지 테너라든지, 거기에 따라 율동적인 선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리를 높이어야만 되는 데도 있고 낮추어야 하는 데도 있다. 이런 것은 정량적인 것이 아니고 높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낮추어서 될 일도 아니다. 이런 지경을 부정량인과라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과 저지른 일을 저울대에 달면, 중량이 무거운 것은 저울추가 썩 올라가고 가벼울 때는 처진다고 하는, 그런 정량적인 저울대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러한 저울대로 모든 인과의 형상을 함부로 달든지 비평할 수는 없다.

여기에는 우리가 믿음으로서 얻을 수 있는, 부처님의 자재(自在)로운 신통력(神通力)과 같은 부정량적인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를 승연(勝緣)이라고 한다. 수승한 인연에 따라서 업장이 없어지고, 극락의 안태한 세계로 가서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이다. 위의 얘기는 원효대사가 말씀함 바다.

무량수경(無量壽經)에는 또 이런 말이 있다. "만일 사람들이 누구나 다 정당한 원을 세워 서방(西方) 극락세계에 계시는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고 생각하면 제가끔 닦은 바 선근(善根)에 따라 그 원을 성취한다"고. 원을 성취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세계에 가서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이며 또 생활이란 일만덕이 구비한 아미타불을 항상 친히 뵈옵는다는 그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어느 때까지라도 퇴굴(退屈)하지 않고 그리고 부처님을 뵈옵고, 참된 진리를 깨쳐 항상 닦고 수습(修習)하고 필경에는 정정(正定)에 든다" 정정은 바로 삼매경(三昧境)이다. 그러니까 보은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서 우리가 아미타불의 품안에 포섭되어 있는 그런 생활이다.

정정에 든다는 데는 세 가지 설이 있다. 정정에 드는 것은 견도(見道) 이상이라야 된다. 견도란 '옳게 봤다', 자기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그런 자리다. 이것은 수도(修道) 견도 등으로부터 구경도(究竟道)까지 오도(五道)라는 것 가운데 둘째 지경이다. 이 자리는 퇴타(退惰)함이 없는 불퇴전(不退轉)의, 아비발치의 지경이며, 또한 신심이 십신에서 십주(十住)에 까지 올라온 단계에 있어야 한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창간 20 SINCE 1994 주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고(告) 합니다

- 우봉스님의 중창주 인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불법승 삼보에 귀의 하옵니다.

저희들은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소재 수덕사 말사인 다보사(多寶寺, 2007년 사찰 명을 동사(桐寺)로 변경했으나 편의상 이하 다보사로 표기함)의 불자들로 2002년 구성된 법당이전불사추진위 소임자 들입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수덕사 주지스님께서 우봉(佑峯)스님을 다보사 창건주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다보사 중창주로 지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혹감을 금할 길 없어서 그 연유를 규명해야 한다는 결의의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덕숭총림 방장 원담스님과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열반하시기 이전 우봉스님이 같은 사안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고, 결국에는 우봉스님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공식판결에 의해 우봉스님이 다보사를 하차한 일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당시의 정암(총무국장)스님, 효성(재무국장)스님 등이 증인이기도 합니다.

다보사 이전불사가 완료된 2003년 당시에도 주지대행인 우봉스님이 다보사를 수덕사 말사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스님이 다보사를 창건 했다면서 사설사암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이에 신도들과의 내홍을 치른 뒤 다시 공찰로 돌려놨습니다. 또한 2003년 초 이전불사 당시 2억원을 대출 받았으나 우봉스님이 떠난 다음 신도들이 심혈을 기울여 정재를 마련해 이 대출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 같은 엄연한 사실을 도외시하고 우봉스님에 대해 취한 조치는 중대한 실책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우봉스님의 중창주 지정취소를 총무원장 스님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보사의 창건주는 현 법주사 주지인 현조스님입니다. 저희들은 1998년 현조스님을 모시고 서울 영등포 포교당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마하연에서 신행활동을 하던 중 수행공간이 협소해 서울 강동구 성내동 다보사(현 동사)를 창건했습니다.

그 후 현조스님이 2001년 7월경 다보사를 홀연히 떠난 후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왔고, 그러던 중 현조스님께서 수덕사 스님을 모시라는 부촉에 따라 신도들이 수덕사를 방문했고, 2002년 3월경에 수덕사 서울 포교원으로 등록한 후 스님을 보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수덕사는 우봉스님을 다보사에 보냈습니다.

이에 신도들은 다보사가 협소하고, 임대를 내 준 건물 주인이 비워달라는 요구마저 있어 사찰이전을 위한 불사추진위를 구성했습니다. 이 당시 사찰이전불사추진위는 우봉스님과 어떤 스님에게도, 사찰에서도 보시를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불자들 스스로 원력을 세우고 기도를 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의 동사(구 다보사)를 매입했고, 수덕사에 공찰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봉스님은 이러한 불자들의 열망과는 달리 자신이 창건주로 등록하려다 안 되니깐 또 다시 중창주로 등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스님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지, 스님이 떠나실 때 전별금 2천만원까지 챙겨 가신 분이 무슨 미련이 남아서 10년 전의 잘못된 일을 또 다시 되풀이 하고자 하는지 우리 불자들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시 한번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간청 드립니다. 다보사(현 동사)의 우봉스님 중창주 지위를 취소해 주실 것과 향후 공개적 절차 없이 중창주로 변경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기 2558(2014)년 10월 13일

다보사(동사) 불사추진위원회 소임자 일동

자비나눔 50년 '제주 봉사왕' …

김문자 회장 (제주 삼광사 덕희봉사회)



김문자 회장은 … △1992년부터 98년까지 제주불교사회봉사회 초대 단장 및 제 1 · 2회 회장 역임 △2011~현재=조계종 제주 삼광사 신도회장 △2005~현재=김만덕 기념사업회 공동대표 △2009~현재=제주도 한일친선협회 부회장 △2010~현재=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 △수상경력=대표적으로는 2000년 분다대상(사회봉사부문), 2003년 제24회 만덕봉사상을 꼽을 수 있다. △ 2012년에는 제주도내 최초로 제 1회 제주시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1호에 등재됐다.

故 임덕희 보살 잇는 제주 불교계 '大母'

제주는 여인의 섬이다. '여자가 많다' 는 낭만적인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제주서 여성의 존재는 척박한 삶을 일궈야 했던 일상의 멍에를 짊어진 고단한 존재였다.

제주 여성들은 그 고초를 딛고 강인해진 것일까. 조선시대 흉년에 전 재산을 털어 제주도민을 먹여 살린 거상 김만덕이 강인함의 대표적 상징이다. 불교계에도 있다. 1702년 이형상 목사에 의해 훼철됐던 제주불교를 200년 만에 다시 일으킨 제주불교의 중흥조 안봉려관 스님도 여성이다. 불교의 불모지였던 제주땅에 100여 년 만에 뿌리 깊은 부처님 법이 굳건할 수 있었던 것은 수행자 곁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묵묵히 소임을 다했던 여성 불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故 대원각 보살, 故 임덕희 보살 등을 제주불자들이 '제주불교계 대모(大母)' 라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 떠났다. 하지만 그 정신은 살아 숨쉬며 지금에도 면면히 이어진다. 그 명맥을 잇는 김문자(76 · 제주 삼광사 덕희봉사회장) 대보살에 의해서다. 50여년 동안 봉사행을 평생의 업으로 삼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 회장은 제주불자들에게 정신적 지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봉사는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란 말을 흔히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봉사를 하다보니 조금씩 깨닫게 됐어요. 봉사를 통해 타인이 즐겁고 행복해 하면 그 기쁨과 보람으로 내 자신이 몇 배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주도 보시바라밀의 대부인 김 회장은 처음부터 불자는 아니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된 어려운 시절인 1950년대, 김 회장은 교회서 나눠준 맛난 눈깔사탕 때문에 인연이 돼 교회에 발을 들였다. 이후 중 · 고등학교 시절 계속해서 교회 문턱을 넘나들던 김 회장은 성탄절이면 교회서 하는 연극 주인공인 '성모마리아' 역을 맡을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 "제주도 최초 불자봉사회 회장 맡아
> 한센병 목욕 봉사 가장 기억에 남아
> "봉사는 자신 발견하는 수행 방편"
>
> 2004년 덕희봉사회 초대 회장
> 김장김치 소외 이웃에게 나눔 실천
> "나눔은 행복 두배, 봉사는 기쁨 두배"

하지만 교회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 까지였다.

"여자친구들은 화장실도 같이 가잖아요. 고교 졸업 후 교회 친구들이 하나 둘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교회에 대한 열정도 자연스럽게 식더군요."

그 무렵 인생 도반인 남편을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였다. 더욱이 홀로된 몸으로 외동아들인 남편을 키우던 시어머니의 불심은 남달랐다.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다. 1924년 현 제주시 중심에 있는 관음사 포교당을 시작으로, 1948년 4 · 3사건으로 전소된 관음사 중건불사에 앞장설 정도로 불심들이 깊었다.

어릴적부터 교회에 나간 김 회장이었지만 사찰 문화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던 것은 어릴적 친정어머니를 따라 자주 사찰을 찾았던 기억 때문이다.

"어머니는 교회에 빠진 딸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신 것 같아요. 저를 지켜보면서도 마지막 노선인 '세례' 만큼은 받지 않길 바라셨거든요."

적십자 제주지사 입회가 봉사 시발점

김 회장도 그 마음을 알았을까.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초심자로서 기도 중심으로 신행 생활을 해오던 김 회장이 봉사에 눈뜬 것은 30세인 1968년 경이다. 김 회장은 지인 소개로 적십자제주지사 부녀봉사회원으로 입회한다. 무슨일이든지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성격 탓에 봉사행도 남들보다 열심히 임했다. 그래서였을까. 입회한지 4년 만에 적십자 부녀봉사회 11대 회장을 맡은 후 15대까지 연이어 역임했다.

김 회장은 "돌이켜 보면 그 시절에 가장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 열정 덕에 지금까지 수많은 감투(?)를 맡을 수밖에 없었구요(웃음). 그래도 주변서 계속 회장을 맡으라는 권유가 많았지만 독주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그때마다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몇 년 후 회원들의 요청을 다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다시 손잡고 해보겠다는 의지들이 워낙 강해 꺾을 수가 없었지요."

지난 1986년부터 현재까지 적십자 제주지사 여성봉사특별 자문위원을 맡아 후배들과 지역 봉사활동에 진력한다. 남을 위한 일만 해오던 김 회장에게도 시련이 닥쳤다. 적십자 부녀봉사회 회장 재직시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이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기도했던 시어머니였다. 김 회장은 기꺼이 거동이 불편했던 시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 드렸다.

김 회장은 "집안일엔 소홀하면서, 밖에서만 남들한테 잘한다는 소리는 더욱 듣기 싫었다"며 "특히 커가는 자식들에겐 바로 산교육이었기에 더욱 시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했다"고 회고한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이 맡은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김 회장에 대한 평판은 제주 불교계에서도 자자했다. 그러던중 김 회장은 불교계에서 본격적으로 봉사행을 펼칠 기회를 맞는다. 제주도의 유일한 교구본사인 관음사에서는 제주불교계의 중심축이 될 봉사단체가 필요했는데, 그 적임자를 김 회장이라고 생각했다.

1992년 제주불교사회 봉사회장 취임

1992년 11월 도내 최초의 불교봉사단체인 '제주불교사회봉사회' 는 초대회장으로 김 문자 회장을 추대하면서 창립식을 가졌다. 김 회장은 봉사회 활동을 불교계에만 국한 한 것이 아니라 적십자 봉사 프로그램과 연계해 폭을 넓혔다. 그때까지 봉사라야 기껏 복지시설에 물품전달하는 정도에 머물던 불자들의 봉사 활동에도 새로운 변화의 물꼬가 트기 시작한다. 김 회장은 그동안 수많은 봉사활동중 도내 한센병(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욕봉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털어놨다.

"자원봉사자들은 비록 음성으로 판정받았지만 한센병(나병) 환자들의 목욕 봉사 만큼은 무척 꺼렸어요. 당시만 해도 큰마음을 내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이해는 갔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회원들을 일일이 설득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자비광명의 정신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라고 하셨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들려주면서 설득하자 한 두명씩 마음을 내기 시작했죠. 지금이야 한센병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자리잡아 별 어려움이 없지만 당시엔 봉사회원을 모집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가장 큰 보람이 있었죠. 그 봉사는 지금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제 가슴에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김 회장은 한마디 더 덧붙인다. "봉사란 타인이란 매개체를 통해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걸 깨달아야 하는데 봉사하는 이들 중 가끔은 오히려 나보다 부족한 이들을 도와준다는 아상(我相)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좋은 일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인격을 더 격하시키니까 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만이 봉사가 진정한 수행이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봉사는 참선이나 기도 못지 않게 우리 불자들에게 필요하고 좋은 수행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회장이 속한 제주불교사회봉사회는 혼자사는 노인들의 목욕봉사, 장애인 후원금 전달 등 일일이 손에 꼽기 힘들 정도로 수없이 많은 봉사 활동을 펼친다. 이중 매주 수요일마다 제주시노인복지관서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는 점심공양 봉사는 22년 동안 한번도 빼놓지 않은 대표적 활동이다. 김 회장 역시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한국어린이재단(現 어린이재단-초록우산) 제주지부 주부후원 회장을 1983년부터 1996년까지 13년 동안 역임했다. 부모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가슴으로 낳은 어머니가 돼주었다. 김 회장의 기억 속에 지금도 오롯이 남은 아이가 있다.

"보육원에 봉사 가면 모든 아이들이 안아달라고 살갑게 달려들지요. 그 가운데도 늘 가슴에 파고 들며 안기는 여자아이가 있었죠. 몇 년 동안 딸처럼 챙겨줬는데 18살이 되자 보육원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지만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여자아이는 우리 집에서 갈 곳이 있을 때까지만 머물 수 없겠냐고 간청하길래 때마침 2층 방이 비어서 그러라고 했죠. 그 말을 들은 보육원장이 귓속말로 '아이들을 쉽게 들이지 말라' 고 충고하더군요. 순간 잘못된 결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그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는 걸 알았죠. 함께 지낸 2년 동안 저를 '어머니' 라 부르며 친딸처럼 따랐어요. 그리고 시집가기전 남편 될 사람을 데리고 다시 찾아와서는 자신

현대불교신문 창간 20 주년을 축하합니다

社團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社團法人 정통불교 조계종

종정 정허당 신풍 총무원장 비상 대광

원로원장 정봉 부원장 청량 범왕
원로위원 법교 대경 지성 대원
연수원장 민재 부원장 범수
감찰원장 청량 범왕 부원장 법조
포교원장 도암 부원장 원효
호법원장 법경 부원장 대원
교육원장 원효 부원장 연아
불교예술원원장 소연 부원장 도이
비구니회장 대광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학장 신풍 부학장 민재 대광
사무처장 성원 종정사서실장 법수 종정큰스님시봉 소원 법수

중앙종회의장 법조 부의장 대경
중앙종회의원 대광 민재 연아 도하 법조 원효 도이 성화 법경 범수 혜인 혜조 혜성 도각 영암
총무부장 법조
규정부장 혜정 교육부장 정법 재무부장 도하
사회부장 성화 홍보부장 우연 기획실장 대각

부산교구종무원장 민재 경북교구종무원장 혜정
대구교구종무원장 대각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포항교구종무원장 목포교구종무원장 법주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법정 인천교구종무원장
충남교구종무원장 거제교구종무원장 도언
강원교구종무원장 각오 경남동부교구부원장 도각
대원종법사단장 수안 대원종전국신도회장 신우연
신풍사 신도회장 이정민(청암)



▸신규사암 등록하실 스님 항상 환영합니다. 행자승 모집합니다.
무료 숙식제공, 역학(철학, 사주관상, 성명학, 풍수지리)
대원승가(불교)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합니다.
▸지역교구 종무원장 하실 분 초빙 환영합니다.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
▸신규사찰 등록 환영 사찰이나 포교당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94 대한불교대원종 총무원 신풍사 (원적사) / 사단법인정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신풍사
한국 역술철학 협회 회장 시인 철학박사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총무원 055)346-2908 / 무료전화 080-3030-5959 /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直 010-8548-8608
휴대폰 011-869-8608 / 대한불교 대원종 홈페이지 DW108.com / E메일 asp8990@naver.com

※본 종단은 승려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려제명 및 종단에서 발행한 제반증서 무효처리(폐기소각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0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종 정 혜강당 능인대종사
총무원장 혜송

종도일동
신도총연합회

■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 5길 197 각황사 / ☎053)325-0400

봉사자 '명예전당' 1호



2011년 12월 김문자 회장(사진 왼쪽)이 독거노인들에게 연탄배달을 하고있다.



2011년 5월 보건복지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는 김문자 회장(맨 오른쪽)이 활짝 웃고 있다.



김문자 회장(맨 오른쪽)은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덕희봉사 회원들과 김장나눔 행사를 펼친다.

의 '어머니' 라고 인사를 시키는데 눈물이 납디다. 그땐 정말 참 뿌듯하고 행복했죠. 오히려 잊지 않고 찾아와 준 게 너무 고맙더라구요."

김 회장의 봉사행은 지금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삼광사 덕희봉사회로 이어진다. 30여년 동안 인연을 맺고 있는 현명 스님이 주지로 있는 제주시 삼광사는 당시 제주 불자들에게 무주상 보시행으로 깊은 존경을 받던 임덕희 대화주 보살이 봉사회를 이끌고 있었다. 그런데 2004년 임덕희 보살이 입적하면서 그 역할이 주지 스님과의 인연으로 김 회장에게 맡겨졌다. 2004년 '임덕희 보살' 의 자비행을 잇자는데 뜻을 모아 '삼광사 덕희봉사회' 가 창립되고 김 문자 회장은 현재까지 리더를 맡으며 회원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2004년 '덕희봉사회' 창립에 견인 역할

덕희봉사회는 창립 초창기 제주지역에는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김장김치 자비나눔' 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350포기에서 시작한 김장 나눔은 10년이 흐른 지난 2013년에는 10배에 달하는 3천여 포기 규모로 늘어날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나눔을 펼치고 있다.

수혜 단체들도 점차 늘어, 도내 각 복지시설을 비롯해 다문화가정, 백혈병 · 소아암협회 등 다양해졌다. 행사 날은 수천명의 인파로 북적인다. 이제는 명실공히 삼광사 단위 사찰 행사를 넘어서 지역축제, 불교계의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김장김치 자비나눔은 해를 거듭할수록 소외된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는 축제로 승화시키면서 오히려 우리 봉사 회원들이 더욱 환희심으로 넘쳐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회원들의 마음 가짐이 이러니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모두 축제날 처럼 얼굴마다 웃음을 머금습니다. 모두가 공덕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하기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덕희봉사회는 어느덧 10년 째를 맞으면서 새 변화를 모색중이다. 이제는 불교계 뿐 아니라 제주도 전체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봉사단체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이제 덕희봉사회는 봉사의 양보다 질을 고민할 시기"라며 "유명세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매년 삼광사서 김장김치 나눔 행사 펼쳐

덕희봉사회가 김장김치 나눔 이외에도 그동안 삼광사 도량에 직접 파종한 콩을 수확, 메주를 쑨 간장과 된장 일부를 소외된 이웃에게 전하는 한편 일부는 판매해 수익금을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기부해 온 것도 바로 이런 고민의 결과물이다. 또한 덕희봉사회는 지난 2009년부터 직접 만든 음식으로 도시락을 싸 매주 수요일마다 혼자사는 노인들에게 '자비의 도시락' 이란 이름으로 배달하고 있으며, 한길정보통신학교(제주소년원) 봉사, 삼광사 주변 6개 마을 경로당 점심 공양 등 덕희봉사회의 자비행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끊이질 않는다.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봉사행을 계속하고 싶다는 김 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껴안고 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며, 이 사회에서 불교가 제 역할을 못하면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도 강조한다.

덕희봉사회가 지난 2004년 창립 후 10여년 남짓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100여 회원과 50여 후원자들이 활동하는 등 탄탄한 재정구조를 토대로 다양한 봉사를 펼 수 있는 밑거름도 깊은 불심은 물론 김 회장이 오랜 적십자 봉사활동의 경험을 살려 체계적인 봉사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받은 표창장만 20개가 넘을 정도인 포상경력은 그냥 이뤄진게 아니었다.

인터뷰 끝무렵,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덕희봉사회원 한분이 한마디 거든다. "우리 김 회장님은 봉사를 통해 늘 자신을 비우고, 회원들에겐 원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참불자의 길을 묵묵히 실천하며 일평생 봉사하며 자비행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지요"라며 존경을 표한다. **글 · 사진=김주일 · 이병철(제주불교신문) 기자**

전법일기

어린이 불교합창단 오디션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면 참 기분이 좋다. 열심히 기도한 후면 소원이 이루어지면 감사한 마음까지 생겨나 더없이 기쁘다.

6년쯤 전이다. 어린이법회를 하고 있었지만 어린불자들을 강하게 결속해줄 무엇인가가 있어야 했다. 그래서 서귀포지역에 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하였다.

창단했지만 어린이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합창단을 만들어야 한다던 사람들마저 아이들이 가지 않겠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다며 참여조차 하지 않기도 했다. 당시 초등학교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면서까지 단원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해야만 했다. 겨우 18명이 모아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때 단원모집에 힘들어하는 자모들에게 언젠가 우리합창단에 들어오려면 오디션을 통과하는 사람들만 입단로 하였다.

부처님오신 날 서귀포시연합합창제는 리틀붇다어린이합창단를 위한 공연 같았다는 격려의 말까지 들었다. 연합공연이후 또 입단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9월에 새로운 단원 입단은 정말 행복한 고민에 빠져야 했다. 현실적으로 50명 내외로 합창단을 유지 할 수밖에 없어서 십여명을 입단시켜야 하였는데 곱절이 넘는 어린이들이 신청하였던 것이다.

오디션을 통해 입단시키자는 치기어린 말들도 있었지만 차마 그러기에는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저학년은 내년 봄에 입단시키는 것으로 무마시켰지만, 꼭 입단시키고자 열망하는 학부모들로부터 서운한 말들을 전



그림 · 박구원

할 수 있는 날도 오리라며 위로했었다.

어린불자들의 열의와 지휘자의 열정에 힘을 입어 스무 명 겨우 넘는 단원으로 창단공연을 하였다. 언젠가 스스로 음치인 것 같다면 한사코 입단을 거부하다 입단한 학생의 자모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학교에서 장래의 꿈을 주제로 글짓기 대회가 있었는데 합창단에 입단하여 연습하는 내용과 자신은 크면 꼭 합창단 지휘자가 되고 싶다는 주제로 글을 써서 상을 받았다고 했다. 어린불자들에 대한 애정과 교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힘들고 어렵지만 합창단에 더욱 열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올해 정기공연을 2월로 옮겨 '스토리가 있는 합창 · 오세암 가는 길' 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하여 그야 말로 큰 성황을 이루었다. 합창과 우리들에게 익숙한 애니메이션 영상이 절묘하게 어울러졌다.

한 번의 성공적인 공연은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열 명이 넘는 단원들이 자발적으로 입단하였다. 그래서 입단 규정도 바꾸게 되었다. 그때까지 수시로 단원을 입단시켰는데 올해부터는 년 2회 학기 시작 때만 입단받기로 하였다.

부처님오신 날 서귀포시연합합창제는 리틀붇다어린이합창단를 위한 공연 같았다는 격려의 말까지 들었다. 연합공연이후 또 입단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9월에 새로운 단원 입단은 정말 행복한 고민에 빠져야 했다. 현실적으로 50명 내외로 합창단을 유지 할 수밖에 없어서 십여명을 입단시켜야 하였는데 곱절이 넘는 어린이들이 신청하였던 것이다.

오디션을 통해 입단시키자는 치기어린 말들도 있었지만 차마 그러기에는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저학년은 내년 봄에 입단시키는 것으로 무마시켰지만, 꼭 입단시키고자 열망하는 학부모들로부터 서운한 말들을 전해 받아야 했다.

사람들은 한 가지 고민이 있으면 그것이 세상의 모든 고민인 냥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그 고민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는 고민이라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또다시 고민으로 닿아오기 마련이다. 모든 사람들이 리틀붇다합창단은 행복한 고민을 한다고 하겠지만 고민의 현실 앞에서 괴로움은 똑 같았다. 자칫 입단시비가 자모단의 분열을 초래 할 뻔도 했기 때문이다.

몇 일전 지역의 관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너무나 잘하여 실패한 정책이라며 우리나라 산아제한 활동에 관해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다. 사실 몇 년 전에 복지부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출산장려 프로그램을 진행하자는 제의를 받고 스스로 한참을 웃은 적이 있었다.

하나의 바람이 이토록 빨리 이루어지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많은 숨은 공로자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 든다. 우리 리틀붇다들에게 또 얼마나 많은 행복한 고민이 밀려올까? 벌써 내년 봄이 무서워진다.



성원 스님 (제주 약천사 주지)

창간 20 SINCE 1994 주년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서원하며 수행 정진하는 먹물 옷에 취하지 않은 스님다운 스님,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암자, 포교당 스님(원장)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 대승정 목탁스님.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아까(AGGA)라는 뜻은 맨위, 첫 번째, 최고의 뜻을 가진 승려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없는 최고의 품수라는 뜻.
마하(MAHA)는 큰, 크다의 뜻이고 사다함마 다(하)자(Saddhamma Jotikadhaia)는 봉사및 인간방생에 많은일을 하신 성스런 승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푼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표현한다.

종 정 목탁혜은 부종정 불원혜정 원로원장 보각 기획원장 법성
총무원장서리 지암 부 원 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운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종회의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종단부장 : 현관, 법산, 자명, 휴암, 종암, 금산, 여송,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송운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 011-229-6061

“학인 스님, 본분납자로 용맹 정진하길”

조계종 기본선원, 8일 인제 백담사에 신축학사 개원



조계종 기본선원 학사가 새롭게 마련됐다. 기본선원은 10월 8일 인제 백담사 무금선원에서 기본선원 학사 봉헌식 및 교과안거 입재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기본선원은 행자교육을 마치고 사미 사미니계를 받은 학인스님들이 간화선을 배우고 익히는 곳으로 조계종 기본교육기관 가운데 한 곳이다.

기본선원은 1994년 제도 창설 이후 20년 동안 지정 장소가 없었다. 이번 신축 학사 개원으로 1학년부터 4학년 학인스님들 모두 백담사 무금선원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에 이어 제2대 기본선원 조실로 추대된 무산 스님은 백담사 무금선원과 신흥사 향성선원을 개원했으며, 기본선원 도량을 백담사로 일원화하는 등 선풍진작에 앞장서 왔다.

이날 무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생사를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출가”라고 강조하며 일념정진을 당부했다.

행사는 현판식 및 테이프커팅식,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법문, 사홍서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조계종 선원수좌복지회 대표이사 의정스님, 전 기본선원장 지환스님, 양양 낙산사 주지 도후스님, 백담사 무금선원 유나 영진스님, 서울 흥천사 주지 정념스님, 불학연구소장 혜명스님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고창군사회복지시설, 제7회 복운 경로축제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 실버 백일장 시상, 위풍당당 OX 퀴즈 등



선운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은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10월 8일 복운 경로축제를 개최했다.

800여 지역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복운경로축제는 박우정 고창군수, 이상호 고창군의장, 김춘진 국회의원등 지역 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해 어르신들과 축제를 즐겼다.

1부 기념식에 이어 위풍당당 OX 퀴즈, 난타공연, 에어로빅 공연, 사물놀이, 동백꽃 생화체조팀의 공연, 레크레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복운경로축제는 노인에 대한 공경 의식을 높이고 어르신에게 즐거움과 흥겨움을 드리고자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권익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써 온 박균수 어르신, 전성근 어르신, 박래민 어르신이 수상하였고 실버 백일장 시상은 서경금 어르신과 이수자 어르신이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고창군 박우정 군수, 이상호 군의회 의장, 김춘진 국회의원, 장명식 · 이호근 도의원, 황기석 소방서장, 김형희 보건소장, 유덕근 고창농협장과 지역주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으며, 1부 기념식 및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 백일장 수상자 시상과 2부 위풍당당 OX 퀴즈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가을 산사 정취 만끽한 ‘야단법석’

10월 4일 부안 내소사 괘불재 및 산사음악회



괘불재와 함께 열린 합창단의 음성공양 장면. 1000여 대중의 환희심을 자아냈다.

가을 단풍이 농익어가는 능가산 내소사에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커다란 야단법석이 열렸다.

천년향기를 간직한 부안 내소사(주지 진학)는 10월 4일 대웅보전 앞마당에 영산회상괘불탱화(보물 1268호)를 내걸고 괘불재와 열두번째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세번째 열린 내소사 괘불재는 부처님께 괘불이운을 고하는 의식과 범종 33타에 이어 스님들과 마을 청년들에 의해 괘불을 괘불대에 내걸면서 시작됐다.

입에 재갈을 문 괘불이운단이 괘불을 대웅보전에서 철 당간에 봉안하자 불자들과 관광객들은 높이 10.5m, 폭 8.17m의 초대형 괘불의 위용과 장엄한 모습에 합장경배하며 환희로움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어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염원하는 괘불재의 시작을 부처님께 알리고 법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청정한 마음을 다지며 고물문 낭독이 이어졌다.

범패와 영산작법, 육법공양, 행복한 마음을 담은 기도의 시간인 통천, 합창단의 음성공양, 괘불을 다시 법당으로 모시는 괘불봉안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괘불재에는 1000여 사부대중이 운집해 성대하게 봉행됐다.

괘불재에서 내소사 사부대중은 고불문을 통해 “내소사 괘불 부처님께서 나투신 것은 평등사상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대중들은 탐욕과 미움을 돌려 차별없는 평등과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자”며 “일상생활에서의 행이 순수한 마음의 삼매가 되어 환희 묘약이 될 수 있도록 가피를 달라”고 발원했다.

내소사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아 일본에서 전시하기 위해 방문한 일본 사진가 무라카미 고메이시는 “내소사는 불교의 정신이 잘 살아있는 사찰이고 괘불을 처음 받을 때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고 세계누구라도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고 감탄하며 “우연이지만 연간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기회를 얻는 것에 대해 매우 감동했다”고 즐거워 했다.

산사에 땅거미가 내려앉자 가수 현진우의 사회로 열 두번째 산사음악회가 개최됐다.

노래하는 스님으로 널리 알려진 심진스님을 비롯해 3인조 통키타 그룹 프롤로그, 가수 박강수, 성악중창단 노래사랑 앙상블, 들국화 패밀리, 추가열 등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도 열려 참석 대중들은 가을밤 산사의 정취에 흠뻑 젖어들었다.

괘불, 1년에 한번 대중에 공개
1천여 대중 감탄사 ‘연발’
산사음악회, 심진 스님 등 출연

진학 스님은 “내소사 괘불재가 지역민들에게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산사에서 음악회를 즐기며 깊어가는 가을을 마음껏 즐기기 바란다”며 “이 가을을 여는 10월 첫째주 세 번째 괘불대재와 열두번째 산사음악회에 함께 해준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길 기원한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보물 1268호 내소사 괘불은 높이 10.5m, 폭 8.17m로 조선 숙종 26년(1700년)에 제작됐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대중들에게 설법하는 모습을 담은 영산회상도이며 석가모니불을 비롯해 다보여래, 아미타불,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의 명호가 낱낱이 기록되어 불교미술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양사 불교수석전시관 개관전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수석 550여점 공개



장성 백양사(주지 진우)는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성보박물관 내 ‘백양사 학봉선석원’ 개관 기념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학봉선석원은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이 40여 년 간 수집한 수석 550여점을 모아 지난 4월 개관했다. 학봉은 지선스님의 법호 에서 이름을 땄다.

학봉선석원은 100여 평 규모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으며, 특별 전시 기간 동안 ‘오백 나한상’ 을 일반에 공개한다.

노덕현 기자

증심사, 명사 초청 릴레이 강연 ‘화제’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연광)는 10월 8일 경내 취백루에서 조계종 교수아사리 자현 스님 초청 법회를 개최했다. ‘2014 명사초청법회-무등(無等)에서 길을 묻다’ 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자현 스님은 ‘생활 속에 행복한 삶’ 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조계종 교수아사리를 역임하고 있는 자현스님은 일반인을 위한 불교문화에 대한 다양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증심사 명사초청법회는 이날 자현 스님 초청강연에 이어 11월 명법 스님(조계종교수아사리), 12월 혜민 스님(미국햄프셔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초청강연에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와 증심사 대원장학회는 불자체육인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행사에는 박재현 광주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체육인불자연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볼링 선수 백종윤(첨단고등학교 3학년), 펜싱 선수 임진서(전남여자고등학교 1학년), 소프트볼 선수 김다원(봉산중학교 3학년)에 250만원 장학금을 지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순 도원사, 소년소녀가장 위한 음악회

소년소녀 가장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화순 모후산 도원사(주지 진철)는 지난 10월 5일 도원사 야회음악단에서 ‘도원사 개원 10주년 기념, 소년소녀 가장돕기 제5회 산사음악회’ 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봉갑사 도윤 스님,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 선각종 원로의원 자공 스님을 비롯한 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도원사는 사찰과 신도들이 마련한 장학금을 소년소녀가장 20여 명에게 전달했다. 행사는 모후산 풍물단 지심밟기 시전공연에 이어 1부 법요식, 장학금 전달식, 2부 문화공연과 노래자랑, 경품추첨, 3부 초청공연이 진행됐다. 초청공연에는 가수 현진우, 신동, 정주호, 현주, 허승자, 김자운, 박동운, 이진숙, 광주난타 등이 출연해 행사의 흥을 돋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지역 불교대학 연합체육대회 개최

불교대학간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고 전북불교의 새로운 도약과 화합을 다지는 전북지역의 5개불교대학 연합체육대회가 10월 3일 전북 무주국민체육관에서 열렸다.

화엄, 전북, 이리, 남원, 무주불교대학의 재학생과 동문 3백여명이 동참한 이 날 체육대회는 배구, 탁구, 터치볼, 2인3각 달리기, 릴레이,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등의 단체경기 위주로 진행됐다.

전북사암승가회(회장 성우, 금산사 주지) 주최로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전북지역 불교대학 체육대회는 전북불교대학 학장 도원스님, 남원불교대학 학장 응묵스님, 무주불교대학 부학장 보산스님을 각 지역의 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등 각 지역 불교를 이끌어 가는 불교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격려하고 성원했다.

이날 종합우승은 대회를 주관한 무주불교대학이 차지했으며 지난대회 우승팀인 이리불교대학은 준우승을 전북불교대학은 응원상을 차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승가회

총재 무공

회원일동

■ 주소 : 경남 사천시 곤명면 경서대로 2821-46길 신해사 ■ 전화 : 055)855-1772

담 화 문

종단의 선거는 자유로운 의사와 승가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종단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제16대 중앙종회를 구성하는 중앙종회의원 선거도 선거법에 근거하여 여법하게 진행되어야하며,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단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법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종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2.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및 공표 행위 및 사생활 비방 행위
3.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4.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댓가를 제공키로한 행위
5. 선거인 · 후보자를 폭행 · 협박하는 행위
6. 투 · 개표상 각종 불법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는 최고 ‘공권정지 10년’의 징계에 해당하는 중한 불법행위이며, 당선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총무원 호법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하고 조치할 것입니다. 지위나 당선 여부를 떠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자 및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종단 선거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관련 불법행위 제보(익명 제보도 가능함)
■ 전화 : 02-2011-1838 ■ 전송 : 02-735-0613 ■ 메일 : 1998060801@buddhism.or.kr

2014년 10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세 영

"팔관재계 일상서 적용이 중요"

부불연, 2014팔관회 율사스님 초청 토론회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가 2014팔관회 봉행에 앞서 팔관재계의 의미를 짚어보는 학술 토론회가 마련됐다. 10월 9일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팔관재계의 의미와 현대적 해석' 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4 팔관회 율사스님 초청 토론회' 가 그것. 이 자리에는 발표자 지현 스님(송광사 율주)을 비롯한 토론장 수진 스님(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장), 토론자 서봉 스님(해인사 율학승가대학원장), 사회자인 원허 스님(쌍계사 율원장) 등이 토론회를 이끌었다. 또한 해인사 율원 스님 17명,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 스님 13명 등 학인 스님들을 포함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2014 팔관회 율사스님 초청 토론회' 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학술행사로 지금까지 봉행됐었던 팔관회가 전통의식 재현에 중점을 둬 팔관회와 팔관재계의 본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은 토론회에 앞서 "팔관회 의식 재현뿐만 아니라 학술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학술 토론회로 사회에 팔관재계의 의미가 재조명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사회자인 원허 스님은 "하루라도 계를 지키는 팔관재계 의식을 통해 불교가 자연스럽게 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4팔관회는 계율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있는 신행을 포교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이어서 토론장 수진 스님은 "팔관회가 무형문화재 지정도 중요하지만 팔관재계를 통해 하루라도 스님처럼 계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팔관회이다. 현대 삶 속에서 우리



부산불교연합회가 주최한 2014팔관회 율사 스님 초청 토론회가 10월 9일 부산 안국선원교육관서 열렸다.

팔관재계 현대적 계율로 재조명
10월 9일 부산 안국선원교육관서

는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을 도태시킨다. 오늘 토론으로 지켜야 할 8계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모두가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길 바란다" 고 전했다.

발표자로 나선 지현 스님은 서론에서 계율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덕과 청정함에 대해 강조하고 본론에서는 불자가 지켜야 할 8가지 계율을 현대적으로 소개했다. 5계율은 틱낫한 스님의 다섯 가지 마음다함 훈련법을 인용해 삶에 대한 경외심, 관대함, 올바른 성생활, 주의 깊게 듣고 상냥하게 말하기, 올바른 소비가 소개됐고 지현 스님은 소박하고 정결한 생활, 침실 소박하게 꾸미기, 식사 때 지키기 등 3가지 항목을 추가하여 8계율을 완성했다.

지현 스님은 "팔관재계를 받는 대상은 보살계와 달리 제약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하지만 축생외오로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의미있는 계이기도 하다. 불자 · 비불자 구분하지 않고 이 계를 모두 따른다면 평소 생활에서 변화를 얻을 수 있다. 더럽혀진 의복을 세탁하여 깨끗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며 8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인 서봉 스님은 "팔관회를 통해 지적인 것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생활 속에 진정한 가치를 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템플 스테이, 법회 등에서 팔관재계를 포함시켜 8가지 계율을 알려야 한다. 또한 이슬람의 라마단 의식과 같이 하루라도 청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조성되는 것도 필요하다. 사찰에서도 창건일 등 각각 특별한 날을 선정하여 팔관재계를 지키게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며 팔관재계의 보편화를 당부했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는 오는 10월 18일 팔관회에서 국왕친영행렬 재현, 호국영령위령대재 등 전통의식을 재현하고 10월 19일에는 범어사 문화광장에서 팔관재계수계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성주사-범어사 3개월 만에 합의점 찾아

무관 스님 실사로
1년 6개월 주지 소임 맡아


성주사 신도회가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에게 참회의 삼배를 올리고 있다.

부산 범어사(주지 수불)와 서해문도회가 창원 성주사 주지 임명 건으로 갈등이 장기화된 가운데 3개월 만에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서해문도회는 지난 7월 횡령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前 주지 원일 스님이 급작스럽게 주지직을 사퇴한 후 범어사가 이를 자세히 조사하지 않은 채 신임 주지로 범어사 재무국장인 무관 스님을 성급하게 품신했다며 이에 반발해왔다.

반면 범어사는 종헌 · 종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고 무관 스님의 주지 소임 이행이 당연하다는 이견을 내놓아 양측 간의 갈등이 심화된 상태였다.

무관 스님의 성주사 진입 시도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범어사와 서해문도회는 10월 6일 범어사에서 회동하고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이날 회동에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성주사 前 주지 원정 스님, 서해문도회 대표 원측 스님 등을 비롯한 서해문도회 스님들이 참석했다.

수불 스님은 서해문도회에게 "금정총림 범어사 발전과 범어문중의 화합을 위해 본사 재무국장을 맡고 있는 무관 스님으로 하여금 공영사찰의 수범사찰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성주사 주지 소임을 맡아 약 1년 6개월 동안 실사를 시행하며 또한 차기 성주사 주지는 본인의 임기 안에 서해문도 대표 스님과 협의해서 임명 품신한다" 고 서해문도회에게 밝혔다.

원정 스님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교구본장이신 수불 스님께 참회하겠다. 앞으로는 문중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큰 스님을 잘 모시겠다" 고 전했다. 또한 원정 스님은 종회의원 출마를 철회하며 범어사와의 원만한 관계 회복에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회동 후에는 성주사 신임 주지 무관 스님과 서해문도회 대표 원측 스님이 자세한 협의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무관 스님은 "실사를 진행함에 서해 큰스님인 흥교 스님을 잘 따르고 서해문도 스님들에게도 성주사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배려한다" 고 밝혔다. 이어 무관 스님은 차기 주지 임명 건에 대해서도 서해문도 대표와 본사 주지 스님의 협의에 따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원측 스님도 "서해문도회와 신도회는 성주사 사태에 대해 사부대중 및 교구장 수불 스님을 대상으로 참회문을 발표하고 성주사가 정상화 되도록 협력한다" 며 협의 사항을 전했다.

범어사와 서해문도회 및 신도회는 이번 합의점을 찾은 것을 계기로 지난 3개월 동안 진행했었던 양측 간의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했다. 하지만 성주사 前 주지 원일 스님의 횡령 혐의는 이번 사태와는 별개로 검찰의 조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성주사 신도회측은 "성주사의 안정화와 불교발전을 위해 이번 합의를 믿어보겠다. 무관 스님의 실사기간이 단축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김나영 객원기자

청암사승가대학 산사에서 염불 한마당

천년고찰 청암사(주지 상덕)가 10월 5일 제8회 산사한마당을 개최했다. '가을 속에 진리 속에 마음을 열고 환희롭게' 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지역 학생들에 장학금 전달 후, 조계종 제1회 조계종 학인염불 시연대회에 참여해 최우상을 받은 학인스님들의 연주가 이어졌다. 수상작 '불러요 다라니' '21세기 우리들과 2600년전의 부처님의 대화' 등을 연주해 무대를 뜨겁게 달구었다.

청암승가대학장 지형 스님은 법문을 통해 "염불수행으로 생각을 비우고 오로지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며 생활 속 수행을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고운사 명부전 시왕탱화 점안식

회주 혜승 스님 법문 통해 지장보살 원력 강조



고운사는 10월 7일 명부전서 10대시왕 탱화 및 문수보살 점안식을 봉행했다.

고운사(주지 호성)는 10월 7일 경내 명부전에서 10대시왕 탱화 및 문수보살 점안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여했다. 고운사 회주 혜승 스님은 법문을 통해 "지장경 사상의 핵심은 중생 구제를 위해 지장보살이 스스로의 성불까지도 포기했다는 것이다. 지장보살은 중생을 일불승의 기르침으로 이끌어 성불에 이르게 한다. 모든 악은 짓지 말며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해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니 말보다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해인사 원당암 중양절 천도대법회

해인사 원당암 감원 원각 스님은 10월 2일 중양절 행사인 무명영가 천도대법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문도스님들과, 사부대중 3천여 명이 동참했다.

원당암 경내 보광전에서 축원예불을 마치고 원당에서 감원 원각 스님은 "모든 행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무상하니 본래 우리가 경계에서 벗어나면 부처이니 무엇하나 걸림없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불국정토를 이루어가자" 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원광법사에 대한 재해석 필요하다"

운문사 원광화랑연구소
제 2회 학술세미나


운문사는 '제2회 운문사 원광화랑연구소 학술세미나' 를 10월 5일 개최했다.

운문사가 10월 5일 경내 선열당에서 '제2회 운문사 원광화랑연구소 학술세미나' 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회주 명성 스님과 주지 일진스님을 비롯해 영남대 김성규 교수, 대구한의대 장호경 교수, 운문승가대 강사 영덕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화랑세속오계의 현대적 해석' 을 주제로 행사가 열렸다.

회주 명성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원광법사의 불교사상에 근거한 화랑오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부처님의 자비와 보시사상에 바탕을 둔 사회적 실천력은 21세기 불교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정신의 패러다임을 창출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주지 일진스님은 개회사에서 "원광법사의 경이로운 혜안과 지혜를 재해석하여 이 새대 우리 청년들의 혼을 일깨워 새로운 지표가 설정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영덕 스님(운문사 강원의 강사)은 '원광법사 연구에 대한 현황과 전망' 주제 발표를 통해 "기존의 원광법사에 관한 연구가 화랑오계와 관련한 연구로 편중되어 있어 스님의 사상과 관념의 불교적 해석이 미진하다" 면서 "시대정신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한국을 대표하는 비구니 수행도량 운문사는 2013년 원광화랑연구소를 개소한 이래 '원광법사의 불교사상' 과 세속오계정신에 대한 연구와 신라화랑 정신문화의 전반을 연구하고 있다. 운문사 원광화랑연구소는 다음 달 초에 운문사 외곽의 화랑오계비를 경내로 옮겨 새로운 청년운동의 중심지로 널리 알릴 계획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창간 20 SINCE 1994 주년

단, 1번의 기도로
당신의 사주를 확 바꿀 수도 있다

NAVER DaUm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약사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중생제도하실 분
모든 기술 전수. 서울, 경기지역 포교원 원장님 모십니다.
최면술 / 퇴마술 / 기공술 / 자극요법술 전수생 모집 중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퇴마 최면연합회본부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음달길 19

대한불교 약사불종 약천암
자연치유원
천혜의 자연환경
토곡산의 정기로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부산역 상담센터
상담 / 문의 1899-8108. 010-9229-3801

대장경 판각 강화? 남해?

“대장경 판각 남해가 확실, 복원 서둘러야”

국회서 세미나, 유적 발굴 이어 관광자원화까지 모색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고려 팔만대장경. 흔히 우리들은 교과서를 통해 팔만대장경이 전란 중 남해에서 벌목한 나무를 뗏목 형식으로 수송해 강화에서 판각됐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전면 수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해에서 대장경이 판각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고산문화재단(이사장 영담 스님)과 남해군(군수 박영일)은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해 고려대장경 판각유적지 원형복원을 위한 정책개발’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3년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일대에서 고려대장경 판각과 관련된 건물지와 유물들이 대거 발굴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책 세미나다.

“강화와 남해에서 나눠 판각”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화 선원사 판각설을 최초로 주장한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주장을 수정해 남해 판각설을 인정했으며, 그동안 남해판각설을 꾸준히 주장해 온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이 남해 판각의 근거를 다양하게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미영 남해군 조사연구팀장과 이원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이 발굴조사의 과제와 관광자원화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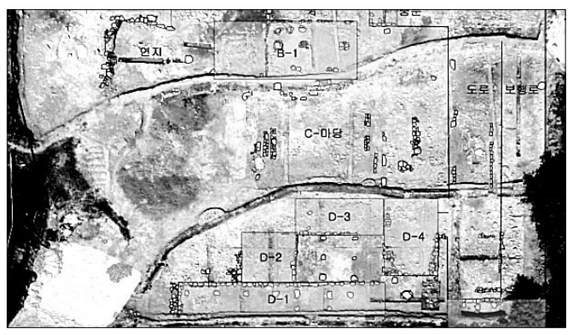
학계 강화 판각 통설 뒤집어
2013 발굴조사 이어 복원
남해 관광 요소 가치도 부각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먼저 “40년 전 고려대장경 강화 선원사 판각설을 최초 주장했지만 이후 밝혀진 연구성과를 수용해 가설을 수정했다”며 “강화와 남해에서 나눠 대장경을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 명예교수는 가설의 근거로 당시 무신정권이 강화에 고려대장도감, 남해에 분사대장도감의 기구를 설치한 점을 들었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시발굴 조사가 진행된 남해 선원사지 항공사진 모습

문 명예교수는 “남해 분사대장도감 운영은 정안에게 일임됐으며 전기(前期)는 강화에서, 후기(後期)는 정안이 남해에서 고려대장경을 판각했다”고 밝혔다.

“아니다, 남해에서 모두 판각”

여기에 대해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원장은 “고려대장도감이 설치됐던 곳이 남해이며, 모든 판각이 남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대장경판을 조사한 결과 대장도감 간행본과 분사대장도감 간행본이 섞여있을 뿐만 아니라 대장도감, 분사대장도감 간행본 모두 같은 사람이 새긴 것이 있다”며 “대장도감과 분사대장도감이 동일한 장소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분사대장도감에서 찍어낸 〈종경록〉 권27 ‘고려국 분사 남해대장도감’을 근거로 “남해에 설치된 것은 분사대장도감이 아닌 지방관아를 통솔하는 고려국 분사가 설치된 곳으로, 대장도감 또한 이곳에 위치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또 “진주 일대는 무신정권 최충헌 이래 최씨들의 식읍지였으며 최이의 뜻에 따라 그의 처남인 정안이 남해로 내려가 판각작업을 주도했다”며 “조선 태조가 ‘강화 선원사에서 옮겨온 대장경을 보러 용산강에 행차했다’는 기록으로 선원사 판각설이 잘못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유적 복원 및 관광자원화 나서야”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장경 판각지 복원에 대한 필요성과 관광자원화 가능성도 논의됐다.

김미영 조사연구팀장은 “남해 선원사지에서 출토된 막새기와 등 유구의 연대를 보면 대장경 판각기인 13세기 전 · 중반”이라며 “남해에서 판각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원태 연구기획조정실장은 “고려대장경 판각지와 삼별초 주둔지 등의 연장선에 국란극복기념관과 호국평화 공원을 조성하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며 “남해 판각지를 남해의 금산, 상주해수욕장, 첨망대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하며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관한 고산문화재단 이사장 영담 스님은 “정부와 여야 모두에게 남해 고려대장경 판각유적지 원형 복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남해군 고려대장경 판각유적지의 조속한 원형 복원으로 결실을 맺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호 스님(남해 화방사 주지)은 “1994년 영담 스님이 최초 발굴을 진행한 이래, 고려대장경 판각지 유적을 찾기 위한 정밀시굴조사와 발굴사업을 이어왔다. 고려대장경 판각 남해유적지 복원사업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선무도’ 진면목 펼친다

경주 골굴사, 25일 학술세미나 · 26일 시연 및 산사음악회

불교의 대표적인 전통무예인 선무도(禪武道)의 가치를 되짚어보고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선무도 총본산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는 10월 25일 오후 2시 경주 골굴사에서 선무도 세속포교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허익구 경남과학기술대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쌍계사승가대학 강사 지광 스님, 장성재 동국대 인문대 교수, 오경후 동국대 겸임교수, 강석근 동국대 파라미타칼라지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서 불교전통무예로서의 선무도의 위상과 골굴사와 선무도의 관계 등을 다각도로 조명할 예정이다.

26일에는 제12회 ‘화랑과 승군의 후예’ 전통무예대회와 골굴사 중창불사 25주년 기념 원효성사 화엄종 타종식도 잇따라 열린다.

전통무예대회는 국내외 무예가들이 참여하는 화려한 무대로 꾸며진다. 선무도 택견 기천 24반무예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무술이 소개되며,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등 해외 무술인들도 시연에 동참한다. 또 LMB싱어즈 등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도 진행된다.

한편, 불교금강영관 선무도 전수자인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은 선무도를 활용한 템플스테이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1985년 서울에 ‘선무도 대금강문’ 포교당을 열고 선무도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다.



골굴사 스님들의 선무도 시연 장면

선무도 또는 불무도로 알려진 불교금강영관(佛敎金剛靈觀)은 한국불교 전통무예이자 수행법으로 신라시대 화랑들이 심신단련법으로 활용한 것이다.

호국불교사상과 결합해 불교금강영관은 임진왜란 당시 승군(僧軍)의 기본 무술로도 채택됐다.

조선시대 맥이 끊키다 시피했으나 부산 범어사 청련암 양익 스님(1934~2006)이 복원했으며 제자 중 한명인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이 맥을 잇고 있다. **노덕현 기자**

승단 최고직, ‘국통’ 상징 비석 발굴

삼척 흥전리사지 시굴조사 결과, 대규모 건물지 확인

신라시대 승단 최고직인 ‘국통(國統)’이란 글자가 새겨진 비석 조각이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발견됐다. 또 이 절터가 고려시대까지 번성했음을 보여주는 흔적도 드러났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는 10월 7일 삼척 흥전리사지 현장에서 현장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전국 중요 폐사지 시발굴조사사업’의 일환으로 8월부터 흥전리사지 석탑 복원과 사역 확인 등 시굴조사를 시행했다.

흥전리사지에는 그동안 통일신라석탑 양식을 띄지만 규모가 큰 3중 기단의 삼층석탑재(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27호)가 흩어져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5동 이상의 건물지가 새롭게 확인됐다. 중심 사역인 서원에서는 좌우 건물지가 연이어 붙은 금당(金堂, 본존불을 안치하는 가람의 중심건물)과 큰 돌을 5단 이상 채워 넣은 깊이 1.7m 정도의 방형탑지가 확인됐다. 이 절이 탑 하나를 중심으로 금당과 그 좌우에 부속 건물을 거느린 구조임을 밝혀냈다.

주요 유물로는 국통명 비석편을 비롯해 꽃무늬가 선으로 새겨진 청동제 장식, 당초문 · 연화문 등이 새겨진 다량의 암 · 수막새, 일반건물에서는 보기 힘든 귀면와(鬼面瓦, 도깨비 얼굴을 새긴 기와)와 곱새기와 등의 특수기와를 비롯해 철제 초두(斗, 다리가 세 개 달린 긴 자루의 작은 솥)와 쇠항아리 등이 출토됐다.



‘국통’ 명문 비석 조각

조사단은 흥전리에 있었던 사찰은 통일신라시대 국통이 머물렀으며, 화려한 기와로 장식한 건물이 대규모로 들어설 정도로 사세가 컸을 것으로 추정했다. 비석 받침돌인 귀부는 이번 시굴 조사에서 모습을 드러냈지만 현재 위치가 원래 자리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연구소는 “석탑복원을 시작으로 사지가 정비된다면 삼척 지역 불교문화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고려시대 간화선이 걸어온 길은?

보조사상硏, 10월 18일 간화선 계승 학술대회

고려시대 간화선 수행의 흐름과 계승과정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선사상 연구단체인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10월 18일 서울 법련사 대웅보전에서 고려시대 간화선 수행의 흐름을 짚어보는 제24차 국내 학술대회를 연다.

‘여말선초 보조선의 분화와 확산’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한국 간화선의 정통성 문제’ △신규탁 연세대 교수가 ‘보조 지눌의 정토 부정의 진위’ 발표를 진행한다.

이날 자리는 고려 중기 보조선(普照禪)이 고려 후기 임제선과 같은지 다른지를 고찰하는 한편, 조선 후기 본격화된 법통설의 타당성도 따져보는 자리다.

고영섭 교수는 주체성을 강조한 선사상의 입장에서 보조선과 임제선이 다르지 않음을 밝히며 오경후 교수는 보조 지눌 스님과 나옹 혜근 스님의 위상과 가치가 청허 휴정 스님의 제자들이 조선초 불교사를 재구성하며 평가절하됐음을 주장한다.

박해당 박사는 조선초 거사들이 보조선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과 계승문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펼치며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지눌 스님이 정토를 부정했다는 통설에 대한 사실 여부를 고찰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 종전연구원, ‘전통불탑’ 학술대회

천태종 종전연구원(원장 이봉춘)은 11월 8일 오후 1시 서울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한국 전통불탑의 양식과 신앙적 계승’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관문사 10층 옥불대보탑 조성을 기념해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의 ‘경천사 10층석탑의 불교사적 의의’ △정영호 단국대 교수의 ‘원각사지 10층석탑과의 비교 연구-조형을 중심으로’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의 ‘경천사 10층석탑 16불회도(佛會圖) 도상연구’ △권기현 위덕대 교수의 ‘불탑신앙의 성립과 전개’ 등이 발표된다.

이어 권탄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장을 사회로 종합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02)3460-5227 **노덕현 기자**

창간 20 SINCE 1994 주년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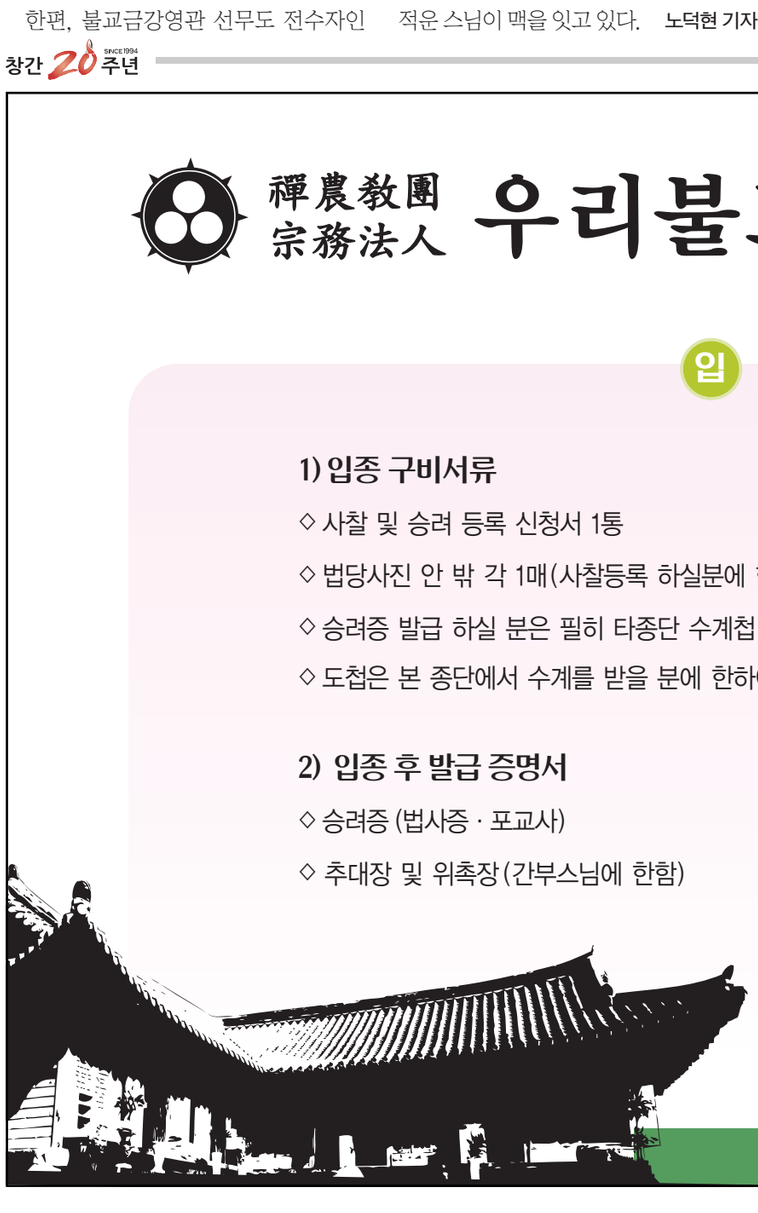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현대불교신문 창간 20 주년을 축하합니다

축 시

부처님(父天任)의 공덕
세세 생생 법다이 살아지이다
한때 절망 속에 전진 하며
무주상 인연 대중과
동방의 불(佛)이 되어
불(火)이 되어
강산이 돌고 돌아
무명의 어둠 낱낱이 깨어 지이다

신비한 불광(佛光) 법음(法音) 울려
희망의 닻을 올리고
탁세만행(濁世卍行)의 풍랑 헤치고
영혼의 물까지 목마름 채워주는
위대한 불꽃같은 행원(行願)
불(火)이 되어 지이다
나 그대 생명이라 부르렵니다.

불기 255년 10월 2일

선농교단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弘山 玄佛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사)대한신불교 천우종

총본산 천우사 낙성을 계기로 중생구제의 큰 발걸음을 내딛다



法 語

종정 **미안 일강** 법왕

법, 법은 본래 법이라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나니
어찌 한 법 가운데 법이 있고 법 아님이 있으리.

法법法법本본來래法법無무法법無무非비法법이요
何하於어一일法법中중有유不불 법이라.

천지대도 무량무변 둥근 원법의 삼매요.
신명과 정각은 묘한 조화의 一宗이로다.
구름이 上乘(상승)의 반쯤만 다했으니 神佛天宇宗이요.
큰 연꽃이 법계에 솟음은 일체의 여래(如來)로다.

보리도 원래 나무가 없고 거울도 본래 거울이 없네.
본래 한 물건도 있을 것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를 일으켜 때가 끼게 되리오.

信念大希强力 : 굳게 믿는 마음은 큰 희망과 강한 신념 대희강력 힘을 얻게 하고
人重初志一貫 : 사람에게 끝까지 중요한 것은 처음 먹은 인중초지일관 : 마음을 끝까지 관철시켜 이루어 내는 것이며
和合團結成就 : 화동하여 합하는 것을 이름이니 이념이나 화합단결성취 : 사상이나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1996년 6월 1일 창종을 선포한 (사)대한신불교천우종은 갑오년(2014년) 5월 25일 오늘에 이르러 전 종도의 숙원사업인 총본산 천우사를 건립하고 한국불교의 중추종단으로서 중생구제와 생활불교 전법의 새 길을 열어나가고자 지면을 통해 제방에 알리고 그동안 지난한 불사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애써주신 모든 불보살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대한신불교천우종 종정 미안당 석일강 법왕 예하께서는 신법(神法)과 불법(佛法)에 대한 정법과 정도로 45여 년 간 오직 한길을 걸어오시면서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를 거듭하여 설법은 물론 많은 작품과 저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행복과 지혜를 열어주셨으며 종교개혁에 따른 문제를 자나 깨나 고심하던 끝에 대한신불교 천우종을 창종하여 온 천하에 선포한 후 지금의 중추종단으로 발전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월 16일 낙성식 및 부처님 점안대법회를 성료하였다.

세계에서 단 하나의 신,불 종단 총본산이 창건된 셈이다.

산과 물이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이곳은 바로 앞 저수지나 건너다보이는 자연 와불이 걸작이다.

천우종이 들어서면서 지어진 천우산은 신의 터로서 하늘과 땅의 선신들이 불보살과 어우러져서 인간들에게 지혜와 복을 준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벌써부터 왔다간 불자들이 가지로 소원성취를 하여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특히 환자들이 왔다 가면 묘한 효험을 본다는 대한신불교 천우종 총본산은 소원성취기도도량으로서 종단등록이 되어 있는 종도들에게는 언제든지 무료로 입산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또 방생지로서 최적인 이곳은 전국 어디서든지 인원 관계없이 미리 연락만 하면 점심공양을 준비함은 물론 원하면 방생염불의식이나 큰스님 법어 및 축원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곳은 신불교의 특징으로 삼성각이 다른 곳 작은 대웅전만큼이나 큼직한 것이 눈에 확 뜨인다.

대한신불교 천우종은 다른 종단보다 무속인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 신,불 종단이다.

대한신불교 천우종 총본산 천우산 천우사 소원성취 기도도량

본 종단에 등록된 종도들에게 언제든지 무료 입산기도 개방

본 종단의 종정 일강대종사는 45여 년 간 오직 한길을 걸어오면서 종단 창종 18년 만에 총본산 불사건립을 원만성취 하였다.

본 종단은 신불보살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과 선망조상영가님들을 영구위패로 모시고 조상숭조사상과 효친사상을 근본으로 하여 국가와 국민은 물론 남북통일을 기원하고 불교의 자비를 실천하여 중생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누구나 인연따라 입종하여 정신과 육신을 편히 쉬고 기도할 수 있는 도량으로 특히 본 종단에 입문한 신불자들에게 절대 없어서는 않되는 소원성취 기도도량으로 가꾸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본 종단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애서도 끊임없는 법계고시를 실시하여 많은 승려들을 배출시켰고 앞으로도 부처님의 뜻에 따라 지속적으로 법계고시 교육을 실시하여 사바세계에서 힘들어 하는 중생들을 진정으로 구제하는 참 종교지도자들을 영원히 배출시킬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이들에게 이득을 주는 종교 중에 종교로서 부처님의 참 진리를 실천하는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해보였다.

종단 연혁

1996년 6월 1일	대한신불교천우종 창종 선포
1996년 8월 30일	종정 취임법요식
1996년 11월 7일	천우종보 창간호 발행
1997년 8월 15일	한국무속교본산 창립선포
1998년 4월 17일	천우종보를 천우종교 신문으로 승격
1998년 8월 10일	본 종단 법계고시 위원회 발족
1998년 8월 19일	본종 법계고시 제1회 선덕 승려과정 수계식 봉행
1999년 4월 26일	본종 종정 세계승왕 추대
2003년 11월 6일	초대 총무원장, 종회의장 취임법요식 봉행
2004년 8월 8일	제1회 백두산 재수발원 기원제 봉행
2004년 11월 17일	한 중 신라불교문화교류 및 자매결연
2007년 3월 7일	한국 티벳 국제 대법회 (마정수기 수계식)
2007년 5월 1일	한국 네팔 문화교류증서 수여 (문화부장관)
2007년 5월 15일	한국 네팔 국제문화행사 봉행
2009년 6월 21일	수계법회 봉행 (티벳 팟상잠보 린포체 초청)
2012년 6월 4일	본종 법계고시 제37회 선덕승려 수계식 봉행
2012년 3월 5일	총본산 불사건립 착수 (상주)
2014년 5월 25일	본 종단 총본산 완공
2014년 8월 16일	종단 총본산 낙성식 및 부처님 점안 대법회 봉행

■ 총본산 천우사 소개

대한신불교 천우종 총본산 천우사는 경북 상주시 화동면 판곡리 산 136번지로 서기 2011년 7월 당시 임야 5,170평을 종단 명으로 매입하였고, 2011년~2014년 5월, 3년만에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등 총본산 70여 평을 창건하여 2014년 8

총본산 : 경북 상주시 화동면 판곡리 산 136번지
총무원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80길 32 (신길1동 92-74)
전화 : 02)2233-5286 / 054)536-9331

■ 대웅전

서기 2014년 5월 20일 완공된 대웅전은 약 30평으로 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약사부처님, 지장보살님이 모셔져 있고 우측은 신중단, 좌측은 영단이 자리하고 있으며, 부처님 좌우로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 소불단이 있다.

그리고 한쪽에는 관음보살 인등이 설치되어 있다.





■ 삼성각

신의 터에 자리한 삼성각은 정8평이고 쉽게 볼 수 없는 크기로 본 종단 종정 일강대종사 작품이며, 산신, 칠성, 독성이 모셔져 있어 우리 한국의 고유 전통신앙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무속인들이 기도와 치성올리기에 아주 적합하다.

■ 요사채

요사채(생활관)는 약 32평 정도로 큰방 2개, 중간방 2개 작은방 1개 주방, 욕실 등이 있다.

위쪽은 삼성각, 대웅전이 보이는데 앞쪽은 저수지가 보여 마음이 포근하고 시원하며 모든 근심걱정이 확 사라진다.

■ 천우사 앞 판곡저수지

원래 이 저수지는 낙화담(樂和潭)으로 인간을 즐겁고 화목하게 하여 행복하게 해준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지금은 판곡 저수지로 불린다.

수시로 방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천우종의 영험한 방생지로 적합하기에 앞으로 전국 어디서 오던 편리하게 방생의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 와불 형상의 앞산

요사채에서 건너다 보면 반듯이 누워있는 부처님상이 보는 사람에 따라 석가모니부처님, 미륵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등 여러 가지 부처님 형상으로 보이고 있다.

총본산 천우사 건립불사 시주자

김태수. 여명심. 김선희. 김순애. 조영숙. 강재수. 최미정. 강경선. 류순정. 이정숙. 박영화. 박순희. 김혜숙. 김수복. 김순례. 박순득. 강미란. 정점순. 이미경. 김순금. 류은환 그 외
(시주 보살님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언제나 기원드립니다)

日江스님 저서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법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편집인 日江 합장



예경 · 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순서대로 되어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9,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 靈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값 : 12,000원 | 사찰 다량주문 환영



고사와 치성

고사와 치성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의식 순서대로 되어있으며 상차림, 준비물, 방법까지도 알기 쉽게 쓰여있어 초보자들도 한번 읽어보면 바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자신감도 생기고 사암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46배판 | 144쪽 | 값 13,000원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 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집
(2010신간)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의식 집, 승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입적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인기 판매 중!

■ **구입문의** : 일강 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종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1 ~ 10/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1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3	이것이 깨달음이다	백창우	김영사
4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5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6	흔적 없이 나는 새(전심법요)	수불	김영사
7	사랑이 온다(화해와 치유의 힐링 그림편지)	이영철	해조음
8	트라우마 사용설명서	마크 엡스타인	불광출판사
8	불교 인식론과 논리학	카츠라 쇼류	운주사
10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법보신문 연재 카툰)	김재일	책앤



"이 한마음이 바로 부처일 뿐…"

흔적 없이 나는 새– 전심법요 수불선사 선해

수불 스님 선해 | 김영사 펴냄 | 2만5천원



"허공을 나는 새의 흔적이 없듯이, 붉은 화로에 떨어지는 흰 눈의 자취가 없는 것처럼, 일도청류(一道淸流)가 황벽 스님의 자비에 대한 후학의 도리일 것이다." 황벽 스님(?~850)은 당대(唐代) 육조-남악-마조-백장-황벽-임제로 이어지는 조사선의 황금기를 함께 했다. 책은 황벽 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전심법요(傳心法要)〉를 부산 범어사 주지이자, 안국선원과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의 선원장인 수불 스님이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새로 풀어 쓴 것이다. 이 책의 '선해(禪解)'는 수불 스님이 2010년 서울 안국선원에서 법문한 내용이며, 2013년 현대불교 신문이 연재한 바 있다.

황벽 스님은 마조, 백장, 임제와 더불어 돈오선법을 철저하게 펼쳐 조사선의 전성기를 열었다. 〈전심법요〉는 당대 지성인 배휴 거사가 황벽 선사에게 법을 묻고 이에 황벽 선사가 답한 내용을 배휴가 기록해 두었다가 황벽 선사 열반 후에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규봉종밀의 여러 책에 서문을 쓸 정도로 도연이 깊었던 배휴는 황벽 스님과의 첫 만남에서 바로 깨달음의 기연을 얻게 되었다. 황벽 선사의 말끝에서 대의를 보았지만, 상대적 이분법의 입장에서의 의문을 넘지 못한 배휴는 진리에 대한 자신의 공부를 완성하기 위해 황벽 스님에게 법문을 청하고 또 청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전심법요〉이다.

조사어록의 백미로 불리는 〈전심법요〉는 조사선이 표방한 돈오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어떻게 돈수를 이어갈 것인가를 인내심 있게 보여준다. 종릉에서의 어록을 '전심법요'라 하고 완릉에서의 어록을 '완릉록'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둘을 통칭하여 〈전심법요〉라고 한다. 황벽 스님의 어록은 보리달마의 일심법(一心法 · '마음이 곧 부처다')과 육조혜능의 '돈교법문(頓敎法門)'을 투철하게 설파했다고 평가될 만큼 선문의 귀한 자료로서, 달마대사가 전한 '일심법'을 가장 논리적으로 드러낸 조사어록이며, 중국 조사선의 핵심대의를 잘 표현한 선어록이다. 이는 절대진리를 상대언어로 쉽게 풀어낸 모범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선의 황금기를 계승한 육조부터 임제까지의 조사들은 "평상심이 곧 도다"고 할 만큼 일상생활 가운데서 간단명료하게 불법을 실천해 보임으로써, 선의 대중화를 이루었다. 이 가풍은 임제 스님이 스승인 황벽 스님의 불법을 "간단하구나." 하고 평한데서 잘 드러난다. 황벽 선사 역시 〈전심법요〉에서 어려운 게송이 아니라 듣는 즉시 곧이곧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명적절하게 대답하고 있다.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 곧장 가르침을 일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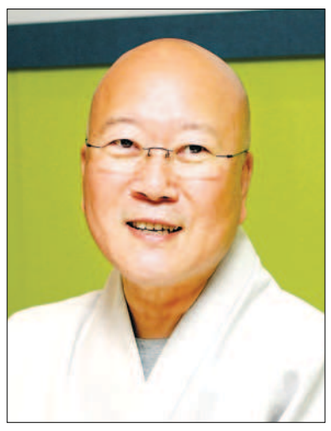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공민왕 때 문헌으로 남겨진 이래 1908년 부산 범어사에서 간행된 〈선문촬요(禪門撮要)〉에도 실려 있다.

〈전심법요〉는 배휴 자신이 묻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직접 집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완릉록'은 "배상공이 물었다."하고 삼인칭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황벽 스님의 어느 제자가 후에 편집한 것으로 추측된다. 두 책의 내용 중 일부가 중복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완릉록'의 17장부터는 원래 본에는 없던 행록(行錄)으로서, 11세기에 임제종에서 종지종통을 확고히 하기 위해 펴낸 〈사가어록〉을 펴낼 때 추가된 것이다.

〈흔적 없이 나는 새〉는 '전심법요'와 '완릉록', '행록' 까지 총 44개의 꼭지로 구성되어 있다. 뜻에 따라 원문을 나누고 번역을 하고 해설을 함께 배치하여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문장의 뜻과 깊은 선의 종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황벽 스님의 〈전심법요〉가 간명적절한 언어로 설법하고 있으나 1200년 전의 언어인 만큼 수불 스님의 〈흔적 없이 나는 새〉는 또 한 번 이 시대의 또 다른 '배휴'를 위해 어려운 불교 용어를 최소화하고 일반 대중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황벽 스님의 법문을 또 한 번 풀어준다.

〈전심법요〉에서 황벽 선사는 '이 한마음 그대로 부처일 뿐, 부처와 중생이 새삼 다를 바 없음(43쪽)'을 거듭 설하고 있다. 〈전심법요〉는 단순히 스승과 제자 사이의 문답을 넘어서, 한 번 절대를 맛보았지만 아직 상대세계의 분별적 습관으로 절대를 헤아리는 제자에게 눈밝은 스승이 향상일로의 지침을 제시한 기록이기도 하다. '돈오'를 체험했지만 아직 '점수'의 입장에 처한 수행자에게 돈수의 길을 제시하는 대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돈오'를 체험했으나 아직 '점수'의 입장에 있는 수행자라면 〈전심법요〉을 통해 많은 의혹을 해소하고 '이 한마음이 바로 부처일 뿐, 부처와 중생이 새삼 다를 바 없다'는 황벽 선사의 가르침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간화선 지도와 대중화에 매진해 온 수불 스님이 조사어록인 〈전심법요〉를 선해한 까닭은 무엇일까. 수불 스님은 "〈전심법요〉가 간명적절한 쉬운 언어로 독자의 폭을 넓힌 선어록이기 때문이며, 또한 선 수행의 어려움에 처한 많은 수행자들이 선대의 선택을 믿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라는 볼 수 있게 하자는 게 출간의 취지이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수불 스님

'일심법' 가장 논리적으로 설한
조사어록의 백미 〈전심법요〉
현대인 알기 쉽게 풀어내
'돈오' 후 '완성'으로 가는 길 안내
"선대의 선택 믿고 포기하지 말 것"

수불 스님은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계사년에 출생하여, 이십대 초반에 지명 스님을 은사로 부산 범어사로 출가했다. 1975년에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지유 스님에게 사미계를, 1977년 고암 스님에게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8년 범어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뒤, 1979년부터 1989년까지 노스님 시봉 및 제방 선원에서 수선안거(修禪安居)를 성만했다. 1989년 이래 부산, 서울, 창원의 안국선원에서 7박 8일의 '간화선 집중수행'을 250회 이상 개설하여, 출 · 재가를 막론하고 이만 명 이상의 공부인에게 간화선을 체험케 했다. 이를 통해 간화선이 정확하고, 빠르며, 쉽고, 효과적인 수행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간화선 대중화'를 실천하고 있다. 현재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안국선원 선원장,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 선원장,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통합심리학책

삶, 종교, 우주에 관한 통합적 접근 제시

통합심리학 분야의 세계적 대가이자 '의식 연구 분야의 아인슈타인'으로 평가받는 켄 윌버. 이 책은 그의 핵심 사상을 100여 개의 올 컬러 이미지와 도표, 간결한 설명을 통해 알기 쉽게 정리한 최고의 입문서라 할 만하다. '자아실현의 욕구'로 유명한 매슬로, 문화적 발달 단계를 제시한 장 겝서, '스파이럴 다이내믹스'를 주창한 클레어 그레이브스 등의 다양한 인간 발달 모델과 방대한 지식 시스템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며 공통적인 5가지 요소(AQAL)를 뽑아 제시하면서, 인류가 지닌 자원과 능력의 다양한 범위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 이러한 통합적 관점을 건강 비즈니스 생태학 영성 등의 분야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몸 마음 그림자 영을 위한 다양한 '1분 모듈'까지 제공함으로써 일상에서도 간단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통합적이고 구체적 비전을 제안한다.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나 우연한 기회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은 그 경험으로 자신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과연 그러할까? 저명한 학자이자 실천적 영성 지도자인 저자는 다양한 이론과 체험을 바탕으로 종교나 뉴에이지 등 소위 '영성' 분야에 오래 묵은 갖가지 미신들을 단순 명쾌하게 타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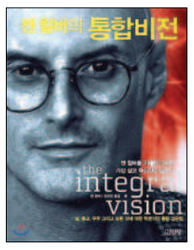
저자는 이 책에서 " '통합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은 모든 영역의 지능이 뛰어나게 된다는, 또는 모든 발달 라인이 최고 단계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심리특성도 있는 그대로 잘 이해함으로써 보다 더 통합적인 자기 이미지를 갖고 미래의 발달을 계획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잠재력 일깨울 수 있는 비결은 통합비전
'차이'의 분별 통해 공통의 근원점 발견
5개 핵심 열쇠인 'AQAL' 독창적 패턴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라인(line)'이라는 개념과 함께 소개하는 내용에서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이 흔히 빠져드는 오류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의식의 '상태(state)'와 '단계(stage)'가 서로 다르다는 설명을 통해서는 세계의 모든 '영원의 철학'들이 강조해온 '수행'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긴다. 의식의 다양한 '상태'는 일시적이지만, 의식의 '단계'는 올바른 노력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켄 윌버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전/초 오류'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프로이트와 융의 오래된 착각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를 통해 잘못 형성된 '영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저자는 "전(前)이성적인 영성과 초(超)이성적인 영성은 둘 다 '비(非)이성적'이기 때문에 아주 비슷해 보인다. 훈련 받지 않은 눈에는 심지어 똑같아 보이기까지 한다. 그래서 전/초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 두 영성이 실제로는 극과 극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둘을 혼동하는 것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길과 인류가 겪은 대부분의 비참함을 빚어낸 원인을 혼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도망가려는 시도가 실제로는 구원의 길을 등지고 다시 고통의 원인 속으로 들어가는 꼴이 되고 만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통합이론과 훈련을 연구하는 두뇌집단인 통합연구소(Integral Institute)를 설립해 다방면의 전문가들과 30년 이상 공동 연구한 결과를 이 책 속에 담았다. 그의 통합적 관점은 동서양의 종교는 물론 심리학과 철학, 사회학, 인류학, 생태학, 비즈니스,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이 책은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 모든 자료를 연결한 'AQAL'이라는 독창적인 패턴을 제시한다. '모든 4분면(quadrants), 모든 수준(levels), 모든 라인(lines), 모든 상태(states), 모든 타입(types)'이라는 5가지 핵심 요소를 뜻하는 'AQAL(아큐얼)'은 신화와 종교, 문화, 철학, 과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다각도로 해석하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실용적 도구이다. 'AQAL'의 각 요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금껏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묘사해 온 여러 학문과 인간의 의식에 관련된 자료들을 통합적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으며, 인간의 다양한 활동 영역들을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공통의 언어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김주일 기자**



켄 윌버의 통합비전
켄 윌버 지음 · 정창영 옮김
김영사 펴냄 · 1만 3500원

창간 20 SINCE 1994 주년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이 살아있는 도량 '영산불교 현지사', 오탁악세에 준엄한 계율정신의 횃불을 들다

출가자는 음계(淫戒)를 생명처럼 지키고 재가불자들은 오계십선 인륜도덕을 실천해야


대적광전에서 경전을 읽는 스님들

■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물질만능주의 사회

물질적 풍요가 넘실대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도덕적 가치와 진리 대신에 감각적 쾌락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의 파괴, 이혼율과 범죄율의 급증,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겪는 스트레스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할 수 없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과 같은 현대사회를 오탁악세(五濁惡世)라고 했습니다. 이 오탁악세에서 행복을 구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특히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을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을 예방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첩경입니다.

■ 현대사회에서 계율의 중요성

불법은 출가 재가를 떠나서 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출가자는 비구(니)계를 수지함으로써 비구(니)가 되고 재가자 또한 삼귀의의 서원과 5계를 수지해야 참다운 불자가 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자가 되는 길은 계문(戒門)을 통해서입니다. 계의 1차적인 목적은 방비지악(防非止惡-그릇된 행위를 막아 악을 그치게 함)입니다.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현대인이게 부처님의 계율은 개인과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입니다.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은 누구나가 다 지켜야 할 우주의 이법(理法)입니다. "부처님의 계율은 모든 선법(善法-좋은 과보를 불러오는 모든 행위)의 으뜸이고 이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을 악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마침내 해탈하게 한다."고 했습니다.(청정도론)

■ 계율이란 -계율은 방편인 동시에 목표

계율이란 신 · 구 · 의(身口意) 삼업으로 불선(不善) 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고, 출가자든 재가자든 불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규범의 총체를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결심의 측면에서는 계(sila)라 하고, 불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무의 측면에서는 율(vinaya)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불자에게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양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파티목카(patimokkha-바라제목차pratimoksha)라고 하셨는데 이 말에는 첫문(初門), 얼굴의 뜻이 있습니다. 팔리율 포살건도에서 '계율은 모든 선법(善法)의 상수(上首-우두머리)'라고 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이 '모든 경전 중에서 으뜸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계율은 모든 불자들에게 불선법을 막고 선법을 증장시키는, 행복한 삶과 해탈열반으로 인도하는 가장 유력한 방편이자 동시에 불법의 목표 자체이기도 합니다.

■ 출가자의 계율에 대해 - '청정'의 계율정신 회복해야

"아난다여, 내가 가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유언이고 명령입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은 스스로의 수행을 위해서도 불법을 오래도록 머물게 하기 위해서도 출가수행자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출가자들은 무엇보다도 음계(淫戒)를 생명처럼 수지해야 합니다.
비구계의 첫바라이계가 바로 음계이고 승잔이나 바일제 항목의 가장 많은 계목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음행과 관련된 계입니다.
한국의 출가수행자에게는 음주식육(飮酒食肉)이 만연되어 있는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개인 소유물에 있어서 자가용이나 토굴 등 분에 넘치는 소유물을 추구해서도 안됩니다. 계목(戒目)에 없다고 하더라도 수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언행은 부처님의 계율을 어기는 것입니다.

■ 재가자 - 오계 · 십선계를 지키고 불효오역과 훼욕삼보의 죄를 짓지 말아야


영산불교대학에서의 계율 수업

가장 기본이 되고 모든 계율의 토대가 되는 계가 바로 5계입니다. 불자들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의 오계를 잘 알고 지켜야 합니다. 부처님의 계율은 금생과 내생의 행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생활지침이며 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정화되고 향상될 수 있는 윤리규범입니다. 오계의 목적은 악행을 그치게 하는 것이지만 불자라면 여기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0선계(신구의 3업으로 선행을 하게 하는 계)입니다. 이 5계10선을 잘 행하는 불자는 당연히 인륜도덕을 잘 지키게 됩니다. 부모님께 신구의로 10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최선의 효도이고 나라에 대해 10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충성입니다. 인륜도덕은 유교적 덕목이기 이전에 부처님의 계율정신의 자연스런 결과입니다. 또한 불자들은 이타의 보살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고 특히 불효오역죄를 짓지 말고 절대 삼보(三寶)를 훼욕(毁辱-파괴하고 비방하는 행위)하는 죄업을 범해서는 안됩니다.


현지사 정기법회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춘천본사 정기법회
10월 19일(일) 오전 9시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52회째)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1795

영산불교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춘천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243-1787

수행의 텃밭서 일군 30년 포교행

새벽을 깨우는 소리

무위 현진 지음 | 사유수 펴냄 | 1만5천원



서울 여의도 포교원장이자 언론인불자연합회 지도법사인 현진 스님이 최근 책을 펴냈다.

제목은 〈새벽을 깨우는 법고소리〉이다.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수행 여정과 그동안의 도심 포교 활동 등을 총정리 했다.

현진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지난 30여년 동안 대중과 나누었던 강의 내용과 경전 속의 아름다운 이야기, 도심 포교 활동 과정 등 그동안 수행자로서 걸어온 길을 상세히 소개한다.

현진 스님은 머릿말에서 "부처님 품 안에서 50여년을 살아온 마음의 그림자와 업력이 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수행의 텃밭을 함께 일구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읽어주기를 바란다"고 출간 취지를 피력했다.

이 책에서 스님은 특히 포교사로 살면서 평소 불자들에게 강조한 부처님 10대 제자 이야기를 제 4장에 수록했다. 그중 두타행 제일이라 불리는 '마하가섭'의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을 전해준다. '두타'란 의식주에 대한 집착의 마음을 떨쳐내려는 수행 실천을 말하는데, 두타의 실천 항목은 대체로 12가지로 분류돼 그것을 12두타행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저자인 현진 스님은 이 책에서 "마하가섭은 이와같은 두타 수행을 했는데 이것은 모든 욕망을 버린 금욕의 성자상이요, 청빈한 생활을 의미한다. 붓다의 제자들 가운데 마하가섭이 뛰어난 것은 소유지족하며 오로지 수도에 전념했다는 사실"이라고 소개한다.

가섭 존자는 사리불과 목련 존자에 비해 조금도 손색없는 수행과 덕망 그리고 지혜를 겸비해 충분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끌 수 있는 자격을 갖췄지만, 스스로 도를 즐길 뿐 설법 교화를 일과로 하지 않았다고 저자는 덧붙인다.

저자는 또한 출가담과 함께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대중도심포교 운동에 첫걸음을 띤 계기도 소개했다. 1980년 10월 27일 새벽에 일어난 이른바 '10.27 법난'이 계기였다. 한국 불교계에 큰 수모와 상처를 안긴 이 사건 당시 저자는 일본 명월사에 머물며 대정대학서 수학중이어서 TV뉴스를 통해 접했다. 분노와 충격으로 가득찬 저자는 한국에 나오자마자 유린당한 불교의 현장을 둘러 보았다. 이후 다시 불학 공부를 위해 일본에 가려 했지만 조계종 승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때문에 결국 꿈을 접어야 했다.


무위 현진 스님

대중포교 법문 정리해 수록
부처님 제자 이야기도 실어
도심포교 첫 계기는 '10.27법난'
일본유학 법난 때문에 좌절

저자는 "그 일로 실의에 빠졌지만 오히려 희망이 사라진 불교를 되살려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게 생겨났다"며 "나락으로 떨어진 불법과 승가를 살리려면 불교를 억압하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참불자들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껴 대중포교를 시작하게 됐다"고 당시의 상황을 술회했다.

한편 현진 스님은 1966년 양평 용문사에서 입산 출가해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했으며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교육원 교육부장, 포교원 포교부장, 불교문화사업단장 등을 지냈다. 특히 일본 유학서 돌아와 1980년대 포반 여의도에 포교원을 세우고 도심 포교에 앞장서왔다. 또한 사단법인 월드머시 코리아 대표이사도 맡아 아시아 국가들의 학교와 화장실 건립, 식수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책 속의 밑줄 긋기

▲집착의 불꽃이 사라질 때가 평화의 시발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종교가들이 이단이라하며 심판의 칼을 세울 때도 붓다는 인간을 품어 길을 가르쳤을 뿐 이단에 대한 심판의 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붓다의 역사는 오직 사람에 대한 사랑이요, 중생에 대한 연민입니다. (붓다의 품에 안겨라 中에서)

▲주는 자와 받는 자, 그리고 물건이 일체의 요구와 편견없이 하는 보시를 청정 보시라 합니다. 청정보시야말로 최상의 보시요, 피안의 언덕에 도달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멈춰 생각하면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는 걸 압니다. 한 물건도 가질 수 없음을 압니다. (청정한 보시를 행하라 中에서)

▲붓다는 말씀하셨다. 사랑과 연민의 자비실천이야말로 삶을 사는 생명의 가치라고 하신다. 자비의 실천은 대결이나 투쟁이 아닌 자타의 합일 정신이다. 합일 정신은 열린 지견의 비약 없이는 불가능하다. 스스로를 정화하며 타인을 받아들이고 이해와 용서가 있는 곳에 우리들의 삶은 아름답다. (아름답게 산다는 것은 中에서)

▲삶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이란…, 항상 무엇인가를 주려고 배우려고 희망하려고 하는 마음이요, 서원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다.

그는 삶이 행복한 사람이다. 삶이 건강한 사람,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 中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본 금강경 … 새로운 방식으로 뜻 풀이 '신선'

활빨빨한 금강경

고준환 박사 편저 | 본각선교 펴냄 | 1만 4800원



〈금강경〉은 원래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한다. 금강석과 같이 모든 번뇌를 능히 끊는 다는 의미가 담긴 광명의 대승경이다.

인도 사위국을 배경으로 한 이 경전은 제자 수보리를 위해 설한 경전으로, 한곳에 집착해 마음 내지 말고 항상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양으로 부처를 보지 말고 진리로서 존경하며, 모든 모습은 모양이 없으며 이렇게 본다면 곧 진리인 여래를 보게 된다는게 핵심이다. 이 경은 산스크리트 원본도 현존하며 한역 6가지 외에 서장역도 있으며 최근에는 영어 · 독일어 · 프랑스어 등으로도 번역돼 서양학계에도 가장 널리 알려진 경전이다. 또한 이 경에 대한 주석서는 인도 · 중국 · 한국 · 티베트 등에 걸쳐 800여 가지가 넘으며 불교의 모든 학파를 막론하고 이 경에 대한 관심은 크다. 그것은 바로 이 〈금강경〉이 적절한 분량으로 읽기도 쉬우면서 깊은 대승불교의 진수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정각한 이후 47년간 자비와 선교일치로 설한 법중 가장 오랜기간인 21년간 펼치신 법이 반야부(지혜부)이고, 그 가운데 깨달음과 실천의 핵심 경전이 쌍둥이 금강경인 〈금강반야경〉과 〈금강삼매경〉이다. 이외에도 밀교의 3부 경전중 하나로 〈금강정경〉도 있다.

최근 〈활빨빨한 금강경〉을 펴낸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는 "불자로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금강경을 공부하고 선정 등을 실천해 금강정에 들어 마음살림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금강경의 뜻을 일목요연하게 풀이하고, 한국 현대 대선사 7분(경허 한암 탄허 만공 원담 동산 성철 등)의 활빨빨한 선적 삶을 살피며 선교 접점을 통해 활기있고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책 제목인 '활빨빨한'은 바다에서 물고기가 뛰어오르듯 살아 숨쉰다는 선어이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금강반야경을 한글과 한문, 영어 등 세 언어로 옮겼다. 이어 2부에서는 〈금강삼매경〉과 현대의 7대 선사들에 이어 3부는 김선형 정천구 유종민 정재락 정대구 최동락 교수 등이 쓴 '금강경과 생활철학'에 대해 실었다. 2부인 '금강삼매경과 현대의 대선사들'은 금강삼매경과 원효 스님의 금강삼매경론의 중복을 피해 약술하고, 7대 선사에 관한 글을 차례로 기술했다.

한국 현대 7대선사 선수행 소개
생활속 금강경 강좌 내용 요약도

또한 제 3부인 '금강경과 생활철학'은 본각선교원의 인기강좌인 '생활속의 금강경 강좌'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된 것을 상재한 것이다. 특히 제 3부는 정치, 문화, 경제, 경영, 법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금강경과 각 분야에 나타난 관련성을 전문가적 식견으로 풀어내 자못 흥미롭다.

김주일 기자

새로나온 책

"암자 뒷산을 오르는 고갯길 언덕에 혼자서 매일 천년 기도하는 돌부처
돌부처 앉은 둥근 방석 위에는 가슴 속에 실같은 숨소리 푸르다

〈시가 자라는 바다〉 中
최만조의 '돌부처'

불심으로 빚어낸 '시어'



◇시가 자라는 바다=한국불교아동문학회가 펴낸 연간시집이다. 회원 58명의 동시 108편과 단편동화 22편을 한 권에 묶었다. 책 속에는 불교아동문학가들 답게 '꼬마스님' '돌부처' '목탁소리' '축서사 물이끼' 등 불교 소재 시들이 많이 들어 있다. 또한 책 끝머리에는 한국불교아동문학회의 창립에서 오늘까지란 부제로 30회의 어린이 글짓기 시상 내용과 〈본생경 개작 동화집〉 등을 간행해 온 약사를 곁들이고 있다.(불교아동문학회 엮음/대양미디어 펴냄/254쪽/1만원)

주역과 정역으로 풀어낸 역경



◇역경철학=그동안 역학은 〈주역〉을 중심으로 연구돼 왔다. 내용의 측면에서 괘효사와 십익을 구분해 점서(占書)와 철학서로 보거나 형식에 따라서 상수역학과 의리역학으로 구분해 어느 일면을 부각한 것이었다. 오랫동안 역학을 연구하면서 〈주역〉은 물론 조선 말기 유학자인 일부(一夫) 김항이 저술한 〈정역〉에 역학의 근본원리가 담겨 있음을 파악하고 두 권의 전적을 바탕으로 새롭게 역학 사상을 조명했다. (이현중 지음/문예출판사 펴냄/488쪽/3만원)

올바른 믿음 만드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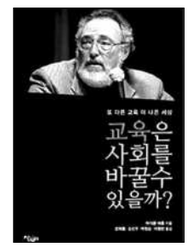
◇종교가 된 사적인 고민들=이 책이 이야기하고 싶은 큰 줄기는 종교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올바른 믿음과 영성은 '건강한 생각'과 '가치관'을 이끌어내며 이는 삶의 태도와 직결된다. 저자 마르흐레이트 데 헤이르는 말한다. "인생에 깊이 참여해야 한다"고. 이는 곧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 무조건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탐색하고, 발견하고, 포용하고, 의문을 갖고, 또 거부하는' 과정이다.(마르흐레이트 데 헤이르 지음/원더박스 펴냄/128쪽/1만 3천원)

만화로 쉽게 풀어낸 논어



◇도올만화논어4=이 책은 도올 김용옥의 〈논어한글역주〉를 저본으로 삼아 만화작가 보현이 그려낸 만화다. 시대를 초월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경전인 〈논어〉의 499장 전체를 쉽게 풀어냈으며 원문을 낱낱이 번역하고 한글 발음과 함께 실었다. 이 책은 〈논어〉가 쓰인 시대상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고, 아울러 정제된 언어와 감각적인 구성으로 전달되는 공자와 그 제자들의 인간적인 면모도 엿볼 수 있다.(도올 역주/보현 만화/통나무 펴냄/243쪽/1만 2900원)

교육은 사회 변화시키는 무기



◇교육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실천 교육학의 세계적 석학 마이클 애플이 들려주는 더 나은 교육에 관한 이야기다. 세월호 참사는 왜 내가 제기한 주장들이 한국적 맥락에서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이 참사는 우리가 더욱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반헤게모니 운동들을 조직하고 지키는 일을 반드시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운다. 교육은 그러한 운동을 조직하고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저자의 메시지다.(마이클 애플 지음/살림터 펴냄/352쪽/1만 6천원)

창간 20 SINCE 1994 주년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 한 불 교 원 효 종

종 정 설 재 정 광

원로원장 창해 종회의장 태일 총무원장 우석

규정원장 일륜 총무부원장 보원

원로위원 진덕. 수진. 수경. 각운. 성호. 혜담

종회부의장 자안. 보광
종 회 의 원 법진. 무상. 혜성. 자광. 상도

재산심의위원장 자언 법규위원장 무상 고시위원장 자광
종 학 원 장 옥천 포 교 원 장 선운 의 전 실 장 석해

부산교구원장 석불 경북교구원장 법진 대구교구원장 서응 경남교구원장 월함
제주교구원장 법원 경기교구원장 해인 전남교구원장 마명 충남대전원장 자성
전북교구원장 경오 경북북구원장 성죽 강원교구원장 성암

사 회 부 장 능관 재 무 부 장 천수 교 육 부 장 유상 문 화 부 장 대호
복 지 부 장 원해 포 교 부 장 성우 규 정 국 장 남주 조 사 국 장 최석주

대한불교 원효종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모든 종도 여러분은 이제 대한불교 원효종을 참칭하고 있는 단체에 현혹 되지 말고 원효종의 종지 종헌을 개승하고 있는 우리 종단을 위하여 모두다 일심하여 종단을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합시다.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 총무원 : 경북 경주시 서라벌대로 322-10 (탑동 344-2)
전화 054)743-0700 / 팩스 054)741-9002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총무원장 혜 상

종 도 일 동

입종 안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 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장 혜상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총무원 054)632-2799. 010-5228-7813

동기부여 통한 자기회복… 인본주의 심리학 태동시켜

불교로 읽는 古典

매슬로의 〈동기유발과 개인의 성격〉



위오기
공주대 경영학과 교수

아브라함 매슬로는 1950년대 인본주의 심리학을 주도한 후기 인간관계학파에 속하는 학자로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을 제창한 학자이다. 매슬로는 1943년에 욕구단계설을 제안해 유명해졌으며, 동기이론과 자아실현에 대한 그의 사상이 집대성된 1954년 〈동기유발과 개인의 성격〉에서 이를 상세하게 다뤘다. 그가 작고한 해인 1970년에 출간된 개정판에서는 이에 더해 심리학의 다양한 측면과 새로운 과제들을 2개의 부록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매슬로는 욕구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수많은 논문을 통해 현대 심리학의 양대 주류라 할 수 있는 행동주의적 실험심리학과 프로이트식 정신분석학의 단편적 분석방법을 비판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슬로는 자아실현 욕구의 중요성과 긍정적 관점으로 인간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자아실현의 욕구를 중시함으로써 인간을 선천적으로 선하게 보고 개인적 자아의 한계를 벗어나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우주적 자아와 합일하려는 자아 초월의 경향성을 타고났다고 보는 새로운 심리학 조류인 트랜스 퍼스널 심리학의 토대를 열었다.

매슬로의 욕구단계설과 트랜스 퍼스널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매슬로가 그의 심리학적 이론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불교 등의 동양 종교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가 있다. 그의 사후에 출판된 그의 미완성 논문집 〈Father Reaches of Humman Nature〉에서 매슬로는 인본주의 심리학은 보다 심오한 인간의 마음의 영역을 설명하는 심리학의 제4세력인 트랜스 퍼스널 심리학의 준비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매슬로는 당시 주로 병리적이고 불건강한 면들을 논의하는 종래의 병리적인 자아와 치유라는 정신분석의 전통과 한계를 넘어서 인간의 자아실현과 성장 그리고 자아초월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동기유발과 정신치료 영역을 확대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하여 자아치유-자아실현-자아초월이라고 하는 인간 성장의 대로를 열어 서양 심리학이 불교심리학을 흡수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동기유발과 개인의 성격〉의 내용

행동과학이 태동하면서 세상에 소개된 책 들 중 하나인 매슬로의 〈동기유발과 개인의 성격〉은 총 16개의 장과 두 개의 부록으로 구성된 방대한 심리학적 연구서적으로 여기에는 행동과학의 주요개념과 인간심리의 동태성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다. 매슬로의 연구를 집대성한 책으로 볼 수 있는 이 책의 1,2장과 '부록 B' 는 과학에 대한 인본주의적 심리학의 중요성과 총체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전통적 뉴튼식 분석기법을 비판하고 있다. 후에 욕구단계설로 널리 알려지게 된 이 개념은 주로 3장에서부터 7장까지 다뤄지고 있다.

3장에는 프로이트, 아들러, 레비, 프롬, 호니, 골트슈타인 등의 논지를 통합적 차원에서 정리하고 비판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러한 논지들이 실험적 검증과 지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4장에서는 인간의 타성과 게으름, 감각적 쾌락과 자극, 공포와 불안 등의 문제를 임상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최상의 가치, 즉 미와 진리의 추구, 우수성과 성취성, 정의와 질서 및 일관성과 조화성 등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장에서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특히 욕구충족이 이뤄진 후 방심하는 사이에 비극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욕구만족이 반드시 행복의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매슬로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장 본질적인 욕구로 제시한다.

6장은 기본 욕구의 본성에 대한 내용은 초판에서와는 달리 유전공학에 대한 최근의 이론을 통해 인간의 본능은 동물의 본능보다 강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9장에서 '파괴적 성향이 과연 본능적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문화와 환경의 유전적 잠재력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7장에서는 상위욕구와 하위욕구를 구분해 비교 설명함으로써 상위 욕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8장에서는 인간 욕구의 좌절 현상 및 갈등 문제를 다뤘으며, 9장에서는 동물과 아동에 대한 최근 이론과 임상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0장에서는 인간의 행동 표현 요인, 11장과 12장에서는 자아실현의 욕구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13장에서 16장까지는 개인의 인지활동, 동기와 반응, 정신치료 및 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심리적 연구 결과를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



에이브리햄 매슬로우(Abraham H. Maslow, 1908~1970)의 모습. 그는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사랑, 존중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실현에 이르기까지 충족되어야 할 욕구에 위계가 있다는 '욕구 5단계설' 을 주장했다.

행동주의·프로이드 심리학 비판
긍정적 관점서 동기 이해 강조
자아실현 욕구의 중요성 역설도

'트랜스 퍼스널' 모델 치료에 도입
자아 정체성 찾기… 人本적 접근
서구적 분석으로 불교 '담마' 이해

매슬로의 욕구단계설

매슬로는 자신의 욕구단계설을 듀이의 기능주의, 베르트하이머와 골트슈타인의 전체주의, 그리고 프로이트, 호니, 라이시, 융, 아들러의 역동주의를 결합한 '총체적·역동적 이론' 이라 칭했다.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에서 자아실현과 자아초월의 욕구에 이르는 일종의 계층적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슬로의 욕구단계설에서는 인간은 일단 어느 정도까지 기본적인 욕구가 적당하게 충족되면 거기에 만족하여 정체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한층 더 고차원적인 욕구로 이동하면서 성장한다.

1. 생리적 욕구 : 피로, 졸음, 모성애적 반응, 식욕, 성욕, 갈증 등 인간의 욕구 중 가장 강한 욕구로서 유기체가 생리적 욕구의 지배를 받게 되면 다른 모든 욕구는 존재하지 않거나 뒤로 밀려나게 된다.

2. 안전 욕구 :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성, 의지나 보호, 공포 및 불안, 법 질서, 안전장치 등과 같은 일련의 안전장치 등과 같은 일련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새롭게 생겨나게 된다. 건강한 사회에서 고용안정이나 예금 및 사회보장이 강화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3. 소속 및 애정 욕구 :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만족되면 애정과 호의 및 소속감이 나타나면 친구나 애인, 아내와 자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애정은 성욕과 다르며 상호 간에 주고받는 사랑으로 해석된다.

4. 자기존중의 욕구 : 자기존중의 한 부류는 강인함과 성취감, 타당성, 전문성과 적성, 자신감, 독립성과 자유 등으로 구성되며, 또 다른 부류는 명망, 존경, 신분, 명성과 명예, 우월감, 인정, 관심과 중요성, 존엄 및 진가의 인정 등으로 구성되는 욕구다. 자기존중이 부족할 경우에는 열등감, 나약함,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5. 자아실현의 욕구 : 위와 같은 욕구가 모두 충족되더라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일을 하지 않으면 불만과 불안이 새롭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흔히 알고 있듯이 욕구의 단계가 실제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서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을 매슬로도 강조하고 있다. 즉, 실제로 정상인이라면 다섯 가지 기본 욕구에 대해 부분적으로 만족하는 동시에 불만족도 느낀다는 것이다. 예컨대 보통 사람들은 생리적 욕구에 85%, 안전의 욕구에 70%, 소속 및 애정의 욕구에 50%, 자기존중의 욕구에 40%,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에 10% 정도의 만족도를 보인다고 한다. 즉, 우선적인 욕구 A가 10%만 충족될 경우에는 욕구 B가 나타나지 않지만 욕구 A가 75% 만족되면 욕구 B가 50%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만이 아니라 자아실현이나 자아초월에 대한 욕구 또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성 이해와 연구에 그 폭을 한층 더 넓혀주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보다 긍정적 태도를 가능하게 해준다. 생리적 욕구와 충동만을 인간의 본능적 측면으로 강조하던 종래의 이론은 인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매슬로의 계층적 욕구구조론은 '물질이냐' '정신이냐' 하는 이원론적 극단적 논쟁을 극복하고 인간은 물질에서부터 마음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불교와 트랜스 퍼스널 심리학

매슬로는 뒤에 자신의 욕구단계설을 삼단계 모델로 수정했다. 즉, 개인을 욕구위계배열에서 생리적 욕구로부터 승인의 욕구까지에 의해서 동기화되는 결핍 유형, 자아발견과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적으로 동기화된 유형, 그리고 자아초월을 향해서 나아가는 초자아 수준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기 개인의 수준에 맞는 정신치료와 병리적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트랜스 퍼스널 심리학은 인간의 잠재성 개발과 자아실현의 욕구를 넘어서서 자아초월의 영적 정신적 측면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로 보았다.

서양의 정신치료는 이상 범부의 마음병을 치유하는 일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범부에서 출세간의 길로 가는 것을 모색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하였다. 특히 켄 윌버(Ken Wilber)가 말하는 트랜스 퍼스널 단계나 매슬로가 말하는 자아초월의 단계가 바로 세간의 범부에서 출세간의 열반으로 가는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아를 전제함으로 인해 무상, 고, 무아의 삼법인의 진리를 순간 생멸하는 마음과 물질의 관찰을 통해 통찰지혜를 얻어 욕구라는 모든 번뇌의 원인인 갈애와 탐욕을 영원히 근절해 버리는 깨달음의 단계와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불교와 서양심리정신치료는 모두 그 출발점을 고통으로 본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 최초로 하신 설법이 사성제이고 사성제의 첫 번째가 고제이다. 즉, '고통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을 설하시고 그 고통은 치료될 수 있으며 치료하는 방법으로 팔정도를 설하셨다.

불교에서 보는 인간관의 부정적인 시각은 범부들의 윤회의 원인인 무명이며 이로 인해 범부들은 탐진치라는 삼독에 기반된 마음을 조건으로 생노병사를 이어 나간다. 그러나 흐름에 든 출세간의 성자들은 종성이 바뀌어 고통을 유발하는 삼독을 비롯한 오염원이 제거되어 나간다.

인간의 본성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든지 관계없이 고통은 우리가 뭔가에 집착해 있는 정신적 족쇄에서 비롯된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는 그 속박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불교와 정신치료는 상통한다.

매슬로는 트랜스 퍼스널 모델을 정신치료에 적용하였다. 첫 단계인 생리적 욕구, 안전, 소속, 승인욕구 충족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결핍 수준의 개인을 위하여 행해지는 정신치료는 전형적인 의학모델의 방식으로서 치료자는 환자를 권위적으로 지시하고 환자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단계인 인본주의적 수준에서 행해지는 정신치료는 개인이 자신의 정체감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 치료자는 주로 개인이 당면한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도움을 주며 대인관계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불교의 요체는 계정혜 삼학이다. 계를 지켜 선한 마음을 많이 내고 불편한 마음을 줄여 나가면 악업이 줄어들고 선업이 많게 되어 그 결과로 마음이 점차 수승해 진다.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 져야만 선정을 닦을 수 있다. 선정에 들 수 있는 바른 집중이 있어야만 오장애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변화를 통찰하는 지혜를 닦을 수 있다.

이렇게 지혜를 얻어야 지혜의 예리한 칼날로 번뇌들을 뿌리째 뽑을 수 있다. 번뇌를 없애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무명에서 벗어난다. 무명에서 벗어나야 생로병사의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 날 수가 있다.

매슬로의 결핍단계의 존재들에게는 지계가 중요하다. 계를 지켜 바라밀을 쌓아야 바른 법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결핍으로 인해 감각적 욕망 등의 탐욕과 성냄이 많으므로 불선한 신의구업을 짓지 않으려 노력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계율을 지키려 노력해야 하며 법을 많이 보고 들으려 노력해야 한다.

또 매슬로의 인본주의 단계에 있는 자아실현 욕구자들에게는 정학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바른 집중으로 일상에서나 수행에서나 집중력을 키워나가면 일의 성취가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수행에서는 선정과 삼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의 초자아 수준의 존재들에게는 혜학 즉 알아차림 통찰지혜 수행이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깨달음은 알아차림이라는 사띠로부터 여러 가지 통찰지혜가 나오고 종내에는 열반이라는 소멸의 경지를 체험하여 원인결과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붓다가 되기 때문이다.

매슬로는 마치 부처님이 당시 신본주의의 세계에서 인본주의 정법을 제창하신 것처럼 환자 중신의 서양정신치료의 영역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문제인 욕구와 동기 차원에서 출발하여 인본주의 심리학을 태동시켜 서구의 분석적 시각으로 동양의 담마를 정교하게 들여다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창간 20 SINCE 1994 주년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등록번호 206-82-65359〕

사단법인 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대 표 회 장 회 암 (대한불교본조계종 정토불교 종정)
수석부회장 향 운 (대한불교조승종 종정)
운영위원장 산 수 (대현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운영부위원장 월 광 (대한불교국제중도선 총무원장)

이 사 고 산 (세계불교법사종 총무원장) 남 혜 (대한불교법보종 총무원장) 상 호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법 광 (세계불교법륜종 총무원장) 일 원 (대한불교법화여래종 총무원장) 정 산 (세계불교해동원효종 총무원장)
탄 공 (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혜 남 (법화종 종정) 도 선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청 호 (대한불교연화종 총무원장) 윤 식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 철 (대한불교대승연화종 총무원장)
법 성 (대한미타조계종 총무원장) 윤 서 (정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 장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장)
태 춘 (대한불교용화종 총무원장) 허 범 (대한불교교화선종 총무원장) 회 례 (대한불교불승종 총무원장)
법 전 (대한불교미타조계종 총무원장) 혜 종 (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장) 동 범 (대한불교약사여래종 총무원장)
춘 서 (세계불교평화종 총무원장) 학 량 (불교영산법화종 총무원장) 숙 회 (불교용화세계미륵종 총무원장)
영 국 (대한불교일광종 총무원장) 청 열 (대한불교조계선종 총무원장) 대 월 (대한불교지음종 총무원장)
성 기 (대한불교해동평화종 총무원장) 우 열 (한국불교세계종 총무원장) 청 암 (호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관 봉 (불교도솔천유마종 총무원장) 묘 일 (불교실상연화종 총무원장) 혜 각 (세계불교복지종 총무원장)
한 영 (세계불교달마종 총무원장) 황 정 (세계불교일화종 총무원장) 중 규 (일체불교유법종 총무원장)
총 태 (진언불교지송종 총무원장) 정 자 (한국불교달마종 총무원장) 지 일 (한국불교대승법사종 총무원장)
용 환 (한국불교법성종 총무원장) 법 민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영 호 (한국불교조동선종 총무원장)
동 암 (한국무교교단 총무원장) 혜 상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총무원장)

감 사 영 도 (한국불교천일종 총무원장) 법 우 (대한불교조계종정토교 총무원장)
정 민 (한국신불교정토진종 총무원장)

고문변호사 김창규. 이승민 한국종교예술방송국 사장 산 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서울중랑우체국 사서함 76호 / 전화 02)3436-0796 / 팩스 02)2201-1163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사) 대한불교 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청송 청파 고문 법성 혜암
총무원장

감찰원장 동일 학봉 기획실장 영산 동우 종 회 의 장 대공 동곡
문화원장 원효 동암 총무부장 선법 태산 종회부의장 도진 동영
교육원장 백천 동담 종 회 의 원 일동
포교원장 혜각 동성 부산교구 동암 원효
사회원장 덕진 도광 충남교구 도진
복지원장 무관 도원 경남교구 대비
사서실장 동판 경기교구 덕진 도광

종도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3통, 사진(3×4)3장, 이력서3통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459-2번지 시례마을
전화 055)336-0108, 323-0108 / 핸드폰 011-595-6522 / 010-8939-6522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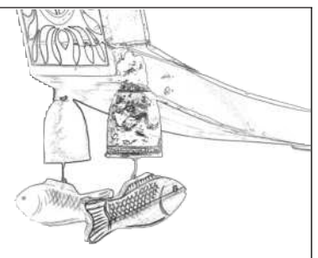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겸허하게 지내고 스스로를 낮추며 만족을 알고
은혜를 생각하며 때때로 법을 듣는 것,
이것이 최상의 좋은 일이다.

- 숫타니파타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 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正通 四柱命理學 개인지도

강의시간 : 주 3회 (월수금 또는 화목토 중 택일)
강 사 : 정법사주 저자 : 원각 김구현
강의 방법 : 기초에서 실전 통변, (1:1)
장 소 : 시흥시 장곡동 806, 원각역리연구원
전 화 : (031)404-3852, 010-6581-4709
준비물 : 필기도구. 敎 材 代 : 3만원(강의록)
기타 상세한것은 전화로 문의 하세요.

최 면 공 부

주1-2회, 3시간씩,
총 5회, 55만원.
단체환영, 시간,
돈이 없는 분 상담환영
프로최면 강태현 합장
010-9609-1919

지리산 청학동 산신봉 줄기
도량에 빈집 독채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참선 수행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무보시 수행 공부하실
보살님을 함께 찾습니다)
055)883-7385
011-759-0183

관혼상례, 화환, 케이크
유능한 지점장
시,군,구 지역별 차등 등록
비. 5년계약, 성실한 분
등본,이력서,사진부착,종교
기입,신분증,건강진단서
070-8849-3011
사회적상부상조 협업

범음범패 학인모집

범음,범패,바라,나비춤,천도재,49재,점안식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방편술 : 단기완성, 무공역학, 최면, 성명학
무상합장 : 010-4611-3738
정봉합장 : 010-3283-3658

천 기 누 설

사주를 바꾸는
기도법을
전수합니다
010-9229-3801

무료 공개 강좌

<매주토요일 오후2시~4시>
* 묘심 기공 1시간
건강. 의료 치료 기공사. 손빛 氣치료.
* 역학 강좌 1시간
성명학. 운기 명리학.
까페 : 네이버 : 묘심기공
다음 : 일묘심 약사 선원
전화 : 02-766-1296 / 010-8477-7952
1호선 신설동역11번출구직진100m

부전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50대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명리,기문둔갑,천기대요
3개월 무료강습
부산.울산.경남.경북지역
비구니스님에한함
<10명선착순>
언양읍 대웅사
052)254-4135
010-3423-4136

불교의식전문

천도재 49재회향
법주1인 범음범패
학인 범패 의식교육
목포인근사찰만 행사 합니다
010-2011-1020

관상 수강생 모집

마의상법
유장상법
상법정화
010-6743-4860 서울 정릉
다음카페 (관상과 수상이야기)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수원시내)
비구니 혼자 계시는 도량
010-6604-9027

불가사의한 기적이
일어난 절입니다
절을 지을 명당 땅을
갖고 있습니다
새절 새법당에 부처님
모셔 줄 인연을 찾습니다
010-9583-3959
010-5327-7793
기도중에는 문자연락 바랍니다

부전자리 구합니다 비구승 입니다

010-8955-9485

천둥 · 번개 · 벼락

- 천둥번개를 부리는 무서운 기도법을 스님께 전수
- 면접 후에 결정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명상 기초부터 지도자과정 안내

1. 무료 명상 체험하기 (서울,광주,파주)
2. 붓다의 가피명상 기본과정 & 지도자과정
3. 태교명상 & 좋은 부모 되는 예술
4. 가족세우기, 강력한 삶의 변화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부전스님 초빙

신심으로 함께 수행 정진하실
천일기도스님을 우대하여 모십니다
연락처 051)853-5486~7
범어사부산포교원 여여선원
부산불교회관(부산시청 옆)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비염으로 고생
하시는 분
특효 처방해
드립니다
경남 양산 무량사 동호스님
010-9798-1091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등)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사고 없는 軍 생활
군 입대 병사, 부모, 장교, 부대장
특별상담과 기도
- 부모님의 역할, 자녀들의 교육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건전한 군복무
010-6789-5008
꿈바위불교교육원

사 찰 행 사

조상천도재, 49재,
각종점안식, 바라,
나비작법, 살풀이, 지전무,
극락연등무, 축원무 등
영남범음범패[통범소리]로
여법하게 집전해드립니다
010-9909-0602

진본 태을신수 기문둔갑

번역본 최초 출간
천문지리 통달의 신 기술수!
추길피흉의 역학도 필독서!
구입문의 010-2507-1042
편저자스님 직강 : 명리, 중국기문, 태을신수
기초반 : 왕초보자, 수강즉시 상담가능
실전반 스님, 철학관, 영업하실분
(인연영가 찾는 천도재비법전수)
사업,취업,진학,전공,결혼,건강,빙의 등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스토리텔링 힐링약손 치유요법 강좌

- 일시 : 2014년 10월 16일(목요일) ~ 12월 11일 매주 목요일 저녁 6시~8시까지 총 9강
- 장소 : 사단법인 녹색연 /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대구, 수성구 동원로 91 / 3층)
- 모집인원 : 선착순 9명
- 주간 개인지도 : 부처골 지장선원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 2길 136
- 입금 : 농협 703088-51-013554 / 메일 : jijangsw@naver.com
- 강의 : 대체의학 초능력심령치료의 대가 혜봉스님 www.jijangsw.com
- 전수비 : 35만원. 회향하는 지식나눔의 재능기부로 (특별 70% 할인 교육 강좌비)

010-8585-4908 / 054)383-8553
2급 스토리텔링 힐링약손 자격증 취득 가능 / 중점강좌 : 복부, 어깨, 목허리, 오십견, 독소 빼기 / 우울증, 불면증, 빙의, 영적질병, 영동 수기, 족기 치유요법 / 장수 주천도수법 / 영동신기술 (단기 속서지도 가능)

천도재의 빅뉴스

정체불명의 심신장애 등
각종 신기(神氣), 빙의령,
천도재를 본인의 기도로써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말하며
직접 천도를 하게 지도해 드립니다.
051-802-5087 대각스님

지리산에서 수만평
약초 재배로
자급자족하는 조용한
선사에 기도정진하며
생활 할 비구니 스님 2분,
처사님을 모십니다
010-4924-3722

부산 동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불교학 야간반 모집

모집대상 : 남녀노소 누구나
담임교수 : 민지효 스님

◆ 개강일시 : 2014년 10월 29일 오후 7시
◆ 수 강 료 : 1기분 5만원
◆ 수강내용 : 사찰의 구조와 기본예절,
불교란 무엇인가,
스님들과 같이 하는 불경(동음창화)
기본염불 : 천수경, 반야심경, 종송,
칠정례, 향수해례, 사성례, 법성게,
약찬게, 발원문 등
염불하면서 내몸 치료하기 : 힐링치료
수행과 기도 위빠사나 천도재 등

◆ 접 수 처 : 부산 동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전화 051)200-3244 / 팩스 051)200-3420
이메일 : ysm7487@lycos.co.kr
민지효 스님 : 010-4466-3575
주소 : 부산 사하구 사리로 55번길 16 (괴정동)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화제의 신간
명당발복의 이천년 신비를 과학이 밝혀냈다
명당발복의 신비

★ 대통령과 재벌을 원한다면 대명당인 천조명당天造明堂을 구求하라!
★ 가문의 영광과 부귀영화를 바란다면 지조명당地造明堂을 구求하라!
★ 소문난 맛집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면 인조명당人造明堂을 구求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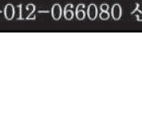
● 풍수지리(風水地理) 이천년 역사상 최초로 명당(明堂)의 땅 속 형상(形象)이 과학기술(科學技術)에 의해 밝혀짐에 따라 명당의 실체(實體)와 명당의 크고 작음(명당자리의 大小)을 판단(判斷)할 수 있는 방법(方法)을 처음으로 이 책을 통해서 만천하(滿天下)에 공개한다.
● 명당이 명당을 불러들이는 신비한 현상(現象) 즉, 음택명당(陰宅明堂)이 양택명당(陽宅明堂)을 불러들여 명당발복(明堂發福)의 시너지 효과(效果)를 만들어 내는 명당발복의 신비(神秘)한 베일이 드디어 이 책을 통해서 적나라(赤裸裸)하게 벗겨지게 되었다.

전국 서점 판매중!

■ 동선호 지음 / 신국판 / 516쪽 / 정가 25,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법수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사주를 보는 안목이 한순간 확트일 것이다.
수십년 공부하여 포기하고 싶었던 고민이 한순간 해결된다.
명리학의 핵심은 용신이며 희신과 기신의 작용이다.
용신이란 부,귀,빈,천과 운세를 보는 열쇠사 된다.
가장쉬운 용신을 모르고 사주의 병과 약을 모르고 있다.
자평명리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준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진실은 참된 불멸의 말이며 영원한 법칙이니,
착한 사람은 늘 진실의 이치에 머물러 평안을 얻는다"

- 숫타니파타 -

사 찰 안 내

사찰부지 및 토굴
- 위치 : 양산 물금(국도접)
- 총부지 : 자연녹지 10,000평
- 낙동강변 전망 최고위치
- 가액 : 6억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양도세. 취 · 등록세 전문상담(무료)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오래된 사찰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 대지 : 239평 • 주차장 51평
- 건물 : 법당(목조) 21평, 요사채(대형)98평
- 최고위치(뒤에는 산)
- 가액 : 12억 5천

※ 전국 사찰 30년 역사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17번길(만덕동 다산타워505호)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 863-6622

사찰(급)안내

- 지리산줄기 토굴 양도
- 한옥주택75㎡. 토지6,500㎡
- 황토차방등.남향 청정계곡접.뒷산임
- 양도금액 : 3억2천만(조정가능함)

010-4904-3988 (건물주)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 2동
- 3층 건물 3층 30평
- 아담한 법당
  포교도량으로 최적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포교도량으로 최적
- 시설비 2천만원

010-7740-6004

대형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황매산
  합천댐인근 해발 400m 남향
- 임야 52,000평(실사용평수 2만평이상)
- 기암괴석, 자연석 기도처 돌산
  이동가능한 일급자연석
- 수백억원 가치 용바위,거북바위,
  입석바위 등 기암괴석 다양
- 도로 전기 수도, 순환산책로 공사완료
- 노인복지,연수원,요양원,선원,기도처
- 관광사찰 최적장소 울산함양고속도로 개통시
  합천호 IC에서 5분거리 위치
- 가액:평당7만원. 답사상담후 절충가능

010-8677-093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 조용하고 포교하기 좋은 인법당
- 남향의 따뜻하고 밝은 사찰, 마당약간
- 비구니 스님 수행 전진하기 좋은곳
- 대지 188㎡, 건평 76㎡
- 가액 : 2억 5천만원

금호부동산 연산가-13-1645(이찬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배로 153번길18
051)861-2233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수도권
◎ 부지 : 18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양도 : 4억 8천

◎ 위치 : 대전
◎ 부지 : 6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공원 옆
◎ 양도 : 3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용인 양지IC 부근 토굴 양도
* 요사채건물 85㎡, 법당은 임시법당
* 토지800㎡ 도로에서 보이며 조용한토굴
* 양도금액 : 토지값 정도로 3억원(융자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104평, 법당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9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사찰안내(국유지)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 대지 734평, 인법당10평 정도
- 방 8개, 화장실 3개, 시설완벽
- 주차 : 마당에 10대가능
-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절충가능)

010-4918-25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백마산 줄기의 계곡이 흐르는 아늑한 사찰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9평, 공양간 45평
  총평수 1,000평
- 가액 : 6억 9천만원
- 주지스님 법인 임명관계로 10억이상되는 절 불사금보다 낮게 양도합니다.

010-2772-7210

사 찰 안 내

- 위치 : 안동시 소재 시내에서 20분거리
- 대지 및 종교용지 약 590평 건평 약 80평, 단청기와법당 15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동 약 60평
- 요사채1동 : 방3개, 거실, 주방, 화장실 2층 황토원룸 방1, 화장실
- 요사채1동 : 방1 거실, 다용도실, 화장실
- 가액 : 3억 (법당 집기 및 요사채 집기 일체 포함)

010-4320-8842
010-5114-0172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200만원 (조절불가)

010-5173-3355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찰토굴(급)안내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 대지 : 400평. 건평 70평
  (인법당 20평, 방 6)
- 뒤에산, 전철, 버스, 온천인접
- 텃밭, 주차완비, 즉시법회
- 가액: 전세1억, 월세가능,
  시설비없음. 양도 협의

010-6559-0913

청주시내 사찰 안내

- 대지 60평, 건물2동, 요사채, 대웅전
- 주지실, 방4, 대불190㎡ 3불
  후불탱화, 지장, 신중탱화
- 등500등, 2층1m동16나한전,
  심야전기, 차고
- 최고 음향시설, 방송실
- 꼭 하실분만 연락하세요
- 가액 : 3억. 절충가능

010-9546-225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팔도시장 부근
- 3층 건물 중 2층 42평
- 삼존불(동불), 아미타, 약사, 소불100여불
- 집기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소임관계로 급 양도
- 가액: 보증금 1,500만 월 60만
  시설비 1,500만

010-2656-7775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경주 톨게이트 근처
  시내 7분거리 신경주역 10분거리
- 평수 : 대지 252평, 본체4칸집, 한옥인법당
- 방 2칸, 다용도실, 화장실, 뒤쪽요사채,
  방3칸, 공양간 별도, 바깥화장실, 마당잔디,
  연못, 정자3평, 산신각, 마을맨 윗집, 바위에서
  물 내려옴, 심야보일러, 방 따뜻하고 온수 따로 나옴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음
- 가액 : 2억 7천 8백만원

054)232-4853/010-8518-551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신림동
- 3층 건물 중 2층
- 석가모니, 관음, 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 봉안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 외 방 1, 주방 1, 화장실 1
  약 30평, 도심속의 포교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77만원
  시설비 2,700만원(답사후 절충 가능)

011-309-3535

사찰 및 전원주택 부지

- 위치: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쑥골) 동남향
- 지목 : 임야
  (계획관리지역+보존임야)
- 평당 10만원 약 2,200평
-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인직접)

010-2215-365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 평수 183평, 인법당 18평,
  요사채 60평
- 큰방 4개, 큰거실 2개,
  화장실 2개
- 건강상 부득이 급양도
- 가액 : 2억 6천만원

011-9330-586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가액 : 2억 5천만원
  (대출 1억 포함) 교환도 가능

010-8725-3196

포교원 선원

- 위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강남역 인접 역삼역 3분
- 4층 중 4층. 15평
- 보증금 1000만원,월세70만원
  (관리비, 부가세 없음)
  시설비 5백만원(절충가능)

010-9019-3816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 대지 : 302평
- 법당 20평, 주방 10평
- 요사채 2동, 창고 1동
  목욕실, 화장실 1동
- 교통편리하고 주차공간 많음
  텃밭도 있음
- 가액 : 3억 2천만원

011-882-2897

사 찰 안 내

- 춘천 3,600평 3억 6천 주변시세 반값
  요양원 사찰건축 가능
- 경북 영주 2,500평 18억 복지원 요양원
  현재사찰운영중 모든조건 완비
- 서울상계30평 2층 포교원 8천만원
  35년운영중
- 수락산역 200M

010-4880-78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화성
- 대지 740평, 건물 150평
- 가액 : 양도는 8억
- 세는 1억에 100만원
  전세도 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031)358-6701

토굴(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영주
- 토굴(포교원)앞 전망이 아주좋음
- 단독주택, 대지 52평
- 인법당1, 작은방, 상담실1,
  별채방1, 시내 10분거리
- 가액 : 4,500만원
  전세도 가능함

010-5538-5570

전원주택(한옥)

- 땅을 알고 터를 잡으시고
- 좋은환경,좋은이웃 찾아오세요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 대지 167평, 건평 30평, 목조, 기와집
- 황토방, 정자(이민관계로 양도)
- 가액 : 2억 7천 5백만원(절충가능)

010-3703-5879

사 찰 안 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2,103㎡
- 건평(법당,요사) 329.4㎡
- 창고, 기타 약 15평
  약 25평은 기초공사 완료
- 석등 외 조형물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답사후 절충 요함

010-7582-0098

청평 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3,욕실2,거실,주방,패치카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작은방 2개중 1개는 구들방임
- 가액 : 2억 7천 5백만원

010-9411-5302 (주인직)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지 : 157평
- 법당 : 25평
- 시설 완비
- 가액 : 3억

010-3508-7710

명당터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신축
- 보은 IC에서 10분 속리산 20분거리
- 탁트인전망 뒤에는 산, 땅모양 좋음
- 귀농 귀촌 하실분, 사찰 암자, 휴양지 적지
  아주좋은 명당터, 조경석, 잔듸마당
- 총면적 1025평, 대지285평
- 신축 건평30평 20평 10평 차고 창고 보일러 기름 화목 겸용
- CCTV설치 150미터 암반약수
- 속리산 물줄기가 건물 (주변) 앞,뒤로 물줄기 흐름
- 가액: 3억8천만원

010-5458-2258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 장유 신도시 위치 최상
- 3층건물 중 2층 전체 40평
- 주불 아미,관음,지장,소불,인등설치
- 법당, 친견실, 스님방, 공양실,
  실내화장실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세 22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비품 및
  시설비 1천7백만원. 약간 절충

010-2553-8827

포교원 안내

- 위치:서울동대문구전농동미주상가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두산동 2층
- 법당 삼존불 35평
- 시설 : 쑥뜸훈증침대 6대 옷 20벌
  추출기 2대, 포장기 1대
- 약초 : 200여가지
  기공 교정모든 것 전수
- 보증금 :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573-4438

사찰(전원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마산합포구 자동차 전용도로옆
  창원 마산시내 5-7분거리
- 대지 160평, 건평 80평, 1-2층
  양옥기와집
- 법당 20평 아미타삼존불 주차장완비
- 1층 근린생활시설용도, 방 5, 욕실 1,
  화장실 5, 철학최적
- 요사채 40평, 공양간 20평,
  별도 다용도실 30평
- 가액 : 3억4천(융자1억8천포함) 가액 절충

010-8008-7913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사당동 (이수역 부근)
- 1층 30평, 삼존불(석가모니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왕, 조왕탱화,
- 인등, 연등 500개정도
  시설 완비, 주차장있음
- 가액:보증금 3천만원 월 140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10-7173-669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포교원 안내

- 위치: 울산시 남구 달동 874-4번지 3층
  (교보생명 빌딩 뒷쪽)
- 평수 50평, 법당, 방3, 주방, 화장실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세 100만원

010-8928-9494
010-7132-9157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주군 울주군 두동면 부근 부근
- 대지 180평, 대웅전 25평, 지장전,
  삼성각, 대중방 8개 예쁜 용왕당
- 연못 및 청정지하암반수 있음
- 가액 : 보증금 4,000만원에
  월 30만원(절충가능)
  시설비 2000만원

010-4855-7205
010-3036-7678

포교원 선원

- 위치 : 부산시 동구 수정동 (버스정류장)
  전철역 1분거리
- 상가 건물 5층 40평
- 법당시설 일체(무량수전, 지장전 등)
- 공양간, 방 3개 등 생활시설 일체
  몸만오시면 됨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2천만원(답사후 절충가능)

010-6413-0463

포교원 안내

- 위치 : 마산 합포구
- 면적 : 총 55평
- 법당구조 : 삼존불, 신중, 산신,
  영단, 소불
- 음향시설, 방2개, 거실, 공양간
  시설은 A급. 몸만 오세요
- 가액 : 보증금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시설 및 집기일체 2,500만원

010-2610-9997

포교원 선원

- 위치 : 광주 운암동 위치 최고 큰도로변
- 3층 건물중 2층 32평
- 법당,삼존불,후불,칠성,신중탱화
  불단원목, 연등, 영가등
- 인등전기, LED전체리모델링
  인터버 냉난방기 2대, 방3개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000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62)513-0391

포교원 선원 안내

- 위치 : 서울 잠실, 자연선원 4층
- 건물 2층 약 45평
- 방2, 화장실2, 선방과 거실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20만원
- 시설비 저렴함 협의사항,
  모든 주거시설 완비, 몸만 들어와 운영됨
- ※ 인수시 모든 주거시설 양도함

010-8714-3922
070-7761-6616

포교원 안내

- 위치 : 양산시 평산동
- 1층 건물 100평
- 시설일체 특
- 주차시설완비, 온천수 펑펑
- 시설비 답사후 결정
- 가액 : 전세 3,000만원
  월세 30만원

010-3574-3303 스님
010-3577-9947 보살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시청 부근
- 대지 78평(건물 70) 3층 전체, 옥상전체사용
- 4존불, 보물급후불탱, 삼성각 별도 위치,
  음향시설, 에어컨 4개, 방3개, 종무실1, 후원,
  다실1, 옥상창고25평. 몸만오시면 됨
- 현 불교대학 명상센터 방편 있으신 분 유리
- 가액 : 전세금 2,000만원, 월 40만원
- 집기 및 시설비 상호절충
  시설 최고(개인용품 제외)

010-8737-4583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로변
- 평수 : 60평(조명, 냉난방 완비)
-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108소불
- 실내 화장실, 주차장 완비
- 가액 : 보증금 8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

010-5685-222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산성동
  수십년된 위치 좋은 사찰
- 대지 : 약 420평
- 법당1동, 요사채 1동
- 공찰 소임 관계로 조건 맞는
  스님께 협의 양도코져 함

010-4263-0801

선원(암자)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 조건 : 양방향 대로변 1층
- 법당1,방3,주방1,실내화장실2,욕실3
- 울창한 정원 10평있고, 마당화단 유
- 도심 속 산중같은 암자(약 55평)
- 보증금 1500만원, 월2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800만원대 건강기구 포함)

011-505-9509

토굴 암자 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 대지 173평, 법당 20평
- 법당 20평, 3존불, 후불탱화
- 산신각, 용왕당 갖춰져 있음
- 요사채 40평, 방 4개, 주방
- 가액 : 6700만원

010-5308-0876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사거리
  지하철역 도보 10분거리
- 아파트, 상가 밀집 지역
- 4층 중 3층, 50평, 옥상사용가능
- 전세 6500만원,
  보증금2000만,월65만원 / 시설비 무
- 법당 외 방 2개, 즉시법회가능
- 시설, 탱화, 불상, 종

010-3221-0476

사찰(급)안내

- 위치 : 북진천IC에서 2㎞ 2분거리
- 평수 : 202평
- 층구조 : 2층 건물
  (아래채 요사채, 윗층 법당)
- 수도 : 지하수
- 난방구조 : 심야전기
- 가액 : 2억 5천만원

010-8841-5694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주안
  1~2분사이 가정법원, 1분거리내 아파트 대단지,
  2분거리내 카페 골목, 시장 복지관사이 위치
- 시설 : 단독 2층 • 대지 : 건평 5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원목 조각)
- 가액 : 3억 8천(조정가능)
- 철학도 적합

010-8941-1484

생각사용 설명서

전현수 박사 (정신과 전문의)

〈5〉 정신이 건강한 사람

“지금 현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하라”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갈등 없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며
사랑과 일에 장애가 없다

후회하는 사람은 욕심이 많기 때문
타인의 장점을 내것으로 만들자

여유와 지혜가 정신 건강하게 만든다

정신 건강에는 여유만큼 좋은 것이 없다. 물론 여유를 갖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현대인 앞에 놓인 ‘경쟁’은 이제 내가 남보다 낫고 싶다는 차원을 넘어 ‘생존’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빠야 하고 바쁘다 보면 여유를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여유가 있어야 힘들 때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때론 경쟁이나 갈등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자신을 바로 볼 수도 있다.

정신 건강에 또 하나 빼 놓을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지혜다. 지혜는 지식과는 명백히 다르다. 책이나 문서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도 않는다.

여유와 지혜를 얘기했지만 일반인들을 위해 교과서처럼 좀 더 자세하고 명쾌한 정의가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정신과 의사가 보는 ‘정신이 건강한 사람’에 대한 정의가 있어 소개한다. 다음 여덟 가지의 정의를 모두 갖춘 사람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1.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고**
2.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3. **현실을 그대로 보고, 혹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고**
4. **자신의 처지에 맞는 행동을 하고**
5.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며**
6. **맡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이고 인내심이 있으며**
7. **인생의 즐거움을 여러 가지로부터 얻을 수 있고**
8.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언뜻 보기에 좋은 말만 다 모아놓은 것 같아도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 하나하나 중요한 요소고 이정표들이다. 위에 나열된 정의들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 체득되었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과거에 대한 갈등이 없는 사람

정신 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사랑하고 일하는데 장애가 없는 상태가 바로 정신 건강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했다. 사실 사랑하고 일하는데 장애가 없으려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해야 하고, 현실적이어야 하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꾸준히 추구해야 한다. 물론 자기 자신도 잘 알아야 한다. 앞의 여덟 가지 정의와 그 맥락이 다르지 않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이런 기준을 만족하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물론 붓다나 예수 혹은 공자 같은 성인을 꼽을 수도 있다. 최고의 정신 건강을 가진 분들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인물들이긴 하지만 현실 속에서 모델로 삼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냥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세 분을 소개해 볼까 한다. 물론 이분들의 모든 부분이 다 정신 건강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부분에서 정신 건강의 요소를 잘 찾아볼 수 있어 제시한다.

첫 번째로 소개할 분은 내가 잘 아는 분의 할아버지로, 지금은 생존해 계시지 않는다. 이분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이분이 남긴 한 일화에서 정신 건강의 진면목을 볼 수 있어 소개한다. 다소 엉뚱하게 들릴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노름을 즐겼다. 한 번은 하룻밤에 노름으로 거의 집 한 채 값에 해당하는 돈을 잃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똥장군을 지고 밭에 나가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어젯밤에 그런 거금을 잃고 일할 기분이 나느냐고 묻자 “일을 해서 벌어야지 또 노름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대답하더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놀라움과 함께 이분이야 말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의 대표적인 실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했던 일이나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갈등이 없다. 말하자면 ‘내가 왜 노름을 했던가, 그 돈으로 노름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했더라면…’ 따위의 후회와 갈등이 없다. 여기서는 극단적으로 노름이라는 예를 들었지만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실 노름이 옳거나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취약한 부분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사람의 본모습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다.

노름을 하고 난 뒤 후회하는 사람은 대개 양손에 떡을 다 쥐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노름도 하고 돈도 따야 하는데 그것이 맘대로 안 되니 후회도 되고 갈등도 생기는 것이다.

이 할아버지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비록 그것이 노름일지언정 열심히 하고,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면 그것이 바로 건강한 정신이다.

다음으로 소개할 분은 나와 가까운 분이다. 지금은 돌아가셨다. 이분은 사업을 하셨던 분이다. 보통 사업에는 항상 부침이 있는데 이분은 별 실패 없이 평생을 사업을 해 와서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해 직접 물어본 적이 있었다. 이분은 내 물음에 장황한 설명 없이 다음의 이야기만 간단히 했다.

이분은 한국전쟁이 있기 전에 충청도 어느 도시에서 장사를 했다. 그런데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야 했다. 이때 이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거였다. 그 후에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

이 간단한 대답 속에 이분의 비밀이 있었다. 이분은 평소 신용이 없는 사람이 다니면 ‘시체가 다니는 것 같다’는 말을 자주했다. 이 말과도 연관이 있다. 보통 사람은 전쟁이 나서 피난 간다고 하면 돈을 떼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할 수 있다. 누구에게든 돈은 참으로 소중하고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 소중한 것을 나를 믿고 사람들이 빌려 준 것이다.

그것을 갚는 것은 사람의 도리다. 돈을 안 갚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자신을 믿는 사람을 얻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특히 사업은 더욱 그러하다. 그것을 생각하면 안 갚을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돈을 갚고 전쟁이 끝나고 사업을 하던 곳으로 돌아오면 ‘누구누구는 보증수표’라고 소문이 쫙 날 것이다.

이분은 학교는 별로 못 다녔지만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가 많아 같이 이야기 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내가 20여년 전에 개원을 했을 때 “찾아가는 장사는 어렵다. 찾아오는 장사를 해야지.” 했다. 내가 정신과 의원을 개원했으니 이제 사람들이 간판을 보고 찾아올 것이니 괜찮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이분이 찾아가는 장사도 경험하고 찾아오는 장사도 경험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장사 초창기에 행상을 하며 이곳저곳을 물건을 팔러 다니다가 자금을 마련해 가게를 열어보니 힘이 덜 들고 장사가 잘 되는 것을 경험한 데서 나온 지혜일 것이다.

이분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옷을 화려하게 입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야반도주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다. 물론 그런 사람은 장사가 잘되니 그렇게 했겠지만 자신이 있는 자리와 하는 일에 충실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왔을 것이다. 이분은 사람들의 겉모습보다는 실제와 실상을 보았다. 이처럼 이분의 말은 다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실제 현실에서 다 적용이 되는 것이었다. 이분에게는 진정한 힘이 있었다. 현실에 맞게 할 뿐 의존심이 없었다.

정신이 건강해지려면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은 소설 속 주인공이다. 일본소설 〈불모지대〉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그렇다고 가공의 인물도 아니다. 1900년대 초에 태어나 전쟁을 겪었던 실존인물이다. 〈불모지대〉는 일본 여류 작가 야마자끼 도요꼬가 쓴 소설인데 이 작가는 우리에게 〈하얀거탑〉이라는 의료계를 무대로 한 소설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불모지대는 시베리아를 뜻하는데, 작가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시베리아를 자주 방문했다고 했다.

소설 속의 주인공은 일본 육사, 육대를 수석 졸업하고 태평양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대본영(참모본부)에 배치를 받아 태평양 전쟁에 참여했다. 하지만 일본이 패전하면서 시베리아에 포로로 끌려갔다. 시베리아에서 11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일본으로 귀국했다. 귀국하고 난 뒤에 한 행동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람의 입장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일본 육사, 육대를 수석 졸업하고 대본영에서 근무했으면 아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했지만 지배층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했다. 그러면 아는 사람 중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을 찾아 다닐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했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일을 한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일본에 없었던 11년 동안 일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이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들고 매일 국회 도서관에 가서 축쇄판 신문을 계속 봤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다.

이 사람이 지난 11년치의 신문을 다 읽었을 무렵에 어떤 사람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전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 사람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같이 일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다 듣고 나더니 같이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찾아 온 사람이 ‘직책을 뭐를 주면 되겠냐’ 고 물으니 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직책은 회사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달라고 했다. 아마 대리 정도를 준 것으로 기억한다. 이 대목에서도 이 사람의 정신 건강의 일면을 보았다. 인정받고 대접 받으려는 마음이 없다. 일을 하다 보면 능력에 맞는 자리에 앉게 된다. 그 뒤에 이 사람은 이 회사의 설립자 다음의 자리에 오른다. 실제 이 사람은 삼성 그룹이 재벌이 되는데 자문 역할도 하고 우리나라도 방문해 신문 기사에도 났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럴 때 그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위협을 느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진다. 정신 건강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춘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최소한 어느 한 요소는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요소를 가진 사람을 보면 그것을 그 사람이 언제부터 어떻게 됐는지 들어 내 것으로 한다면 내 정신이 점점 건강해질 수 있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전현수 박사의 〈생각사용 설명서〉(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창간 20 SINCE 1994 주년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 산세수려하고 소나무 경관 멋진도량
- 마을 앞 4차선 확정 5분거리 면 소재지 IC 확정
- 지적4,460평 종교부지838평, 전70평
- 법당 30평(조립식) 산신각 9평(목조) 구돌방 1개, 요사채 22평 외 토목공사
- 가액 : 2억8천

010-8484-3917
010-2757-2342

포교원안내
- 위치 : 양산시 평산동
- 1층 건물 100평
- 시설일체 특
- 주차시설완비, 온천수 펑펑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 가액: 전세 3,000만원 월세 30만원

010-3574-3303 스님
010-2864-1951 보살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양 4거리
- 2층 시장 인접 교통편리 포교하기 좋음
- 법당, 주방, 방2개 모든 조건 완벽함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 월세 35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2230-357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010-4725-5907

토 굴 안 내
- 위치 : 강릉 경포대 옆 사천해수욕장 뒤(낮은동산) 최고의 위치
- 큰불사 할수 있는 명당터임
- 사용대지 : 야채 밭 포함 약 300평 (1년 도지 20만원) 법당 외
- 방4, 화장실2, 목욕탕1,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산신탱, 종, 집기일체
- 가액 : 3,850만원(건물 법당양도)

010-2461-3014

사 찰 (급)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사찰로 가능함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 30평(삼존불)
- 법당,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입구 500년된 뜰밤나무도 있음
- 기도하실 스님이나 보살님 대환영
- 가액 : 8,500만원(조절)

010-3321-6831

다용도 촌집
- 위치 : 경북 영양 한적한 곳
- 대지 : 96평, 답 : 110평
- 본채건물 30평, 별채 9평, 남향
- 집 수리 된 건물
- 가액 : 7천 9백만원

010-8899-8899

임 법 당 안 내
- 위치 : 대구
- 대지 200평, 건물 40평
- 요사채, 방 4개, 거실
- 약사여래불, 좌우보처일광,월광, 변조 보살 모셔져 있음
- 가액 : 보증금 600만원,1년사글세 300만원(1년치 완불) 비품대 1,000만원

010-5152-0480
010-9958-9289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함안면
- 대지 167평(깨끗하고 예쁜절)
- 법당 1동, 요사채 1동, 창고1동
- 방 4, 입식 부엌, 공양간 따로
- 비구니스님 적합
-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
- 가액 : 1억 5천

010-4439-4499

사찰 암자 기도터 부지 안내
- 위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곡2길 484-3
- 면적 2,000평, 법당, 요사채
- 산신각, 용왕전, 미륵전, 기도방 2동
- 뒷산 밤나무 100주(매년 수확)
- 소나무와 산 계곡물이 평생 마르지 않고 돌과 미륵 바위 자연석이 많이 있습니다
- 지상물 일체포함
- 천하에 명당자리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 가액 : 3억

011-278-9449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평원동
- 평수 35평, 3층 건물의 3층 외 방1개, 옥상 30평 이용가능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 칠성탱화, 영가단, 앰프 및 최신시설 완비
- 냉장고, TV, 컴퓨터, 에어컨 등, 주방집기 일체
- 몸만 오시면 됨
- 인수시 모든 주거시설 양도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6403-37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구포동 구포시장 내
- 삼존불, 지장전, 신중단, 소불 200불
- 2층 건물 2층전체 75평
- 교통편리, 역세권 공항 15분, 기차역 5분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8248-356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 한옥 : 40평
- 아미타 삼존불 소불(옥불) 73불
- 보증금 5백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3381-0800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서구청뒤 대평리 시장
- 3층 건물중 2층 약 40평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시설 갖춤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 월 35만원 시설비1천 5백만원 (조절가능)

010-9363-229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감만동
- 평수: 약 90평. 2층 공양간, 3층 법당 4층 스님 친견실
- 전체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삼존불을 비롯한 완벽한 법당 시설, 주방기구 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2856-10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두 반송 2동
- 평수 : 50평, 4층건물중 4층... 정원이 있음
- 삼존불을 비롯한 완벽한 법당 시설
- 전세: 3,000만원 .. 월 20만원 또는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10-2575-987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 평수 : 70평, 2층
- 법당, 간사 3동 응접실, 공양간, 엘레베이터, 도시가스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3050-505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사천시내 중심지
- 평수 : 6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엘레베이터, 도시가스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616-5733

절터,요양원,전원주택지 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 거창읍 15분, 함양읍 20분거리
- 전,답 1300평, 보전관리지역
- 진입로, 지방도(25m)접한 구획정리된 정남향, 소나무숲속 3면
- 자연경관 수려함, 자연암반우물
- 가액 : 9천7백만원

010-3848-2452

절터자리로 좋은 곳
- 팔공산 갓바위 뒷편
- 사계절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음
- 토성작업이 완성된 곳
-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3천여평 외
- 가액 : 4억(현세에 맞지않음)

010-6253-3107

별장지 및 사찰터 최적지
- 경북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
- 백두대간 예천테라피 자연 치유공원내
- 별장,사찰 최적지
- 사철계곡에 물이흐르는 자연경관 최적지(도로접)
- 답 1800평(평당가 33만원)
- 답 1900평(평당가 18만원) (당가 절충가능,주인직접)

010-2608-7277

갤러리 색즉시공



월인천강(月印千江)

月落千家境自孤 (월락천가경자고)
水流萬折心無競 (수류만절심무경)
萬里中秋月色新 (만리중추월색신)
物物皆圓本燦然 (물물개원본찬연)

달빛이 온 세상을 비추니 경계는 스스로 고적하고
물결은 만 구비를 흘러가더라도 마음은 전혀 내달리지 않는다
만리에 가을 달빛은 너무나 깨끗하고 밝은데
두두물물마다 다 원만 구족하여 본래부터 찬연한 모습일세.

그림 · 글=선진 스님

'스스로 그러하게 살라' 는 소통의 메시지

Buddha in Comic & Ani

⑱ 미야자키 하야오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모노노케 히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사진 왼쪽)' 과 '모노노케 히메(사진 오른쪽)' 의 포스터와 스틸컷. 두 작품을 통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인간의 탐욕으로 상처받은 자연과 이를 치유하는 모성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인간이 문명이라는 것을 발생시키고 살아오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개발' 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19세기 서구 유럽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인간에게 풍족함을 전해 줬지만, 자연에게는 수많은 상처를 내왔다.

일본 애니매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 같은 산업 문명에 대한 적확한 비판을 작품에 담아내왔다. 특히 그가 다카하시 이사오와 함께 설립한 스튜디오 지브리의 첫 작품이 '바람계곡의 나우시카(1984)' 라는 것과 은퇴를 선언하며 선보인 작품이 '모노노케 히메(1997)' 라는 것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지 알 수 있다. 그에게 두 작품은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로서의 알파이며 오메가인 셈이다.

스튜디오 지브리의 초기작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자연관에 대해 여실하게 보여준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거대 산업 문명이 붕괴하고, 천년의 세월이 지난 후 지구는 황폐해진 대지와 썩은 바다로 뒤덮혀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부해(腐海)라고 불리는 유독한 독기를 내뿜는 균류의 숲이 확장되면서 인류 제2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지구상에 남은 건 독성의 균사를 내뿜는 곰팡이들과 '오무(왕충)' 와 같이 거대하게 변질된 곤충류들, 그리고 독을 품은 자연과 맞서 바람계곡에서처럼 여기저기 살아가는 극소수의 인간들뿐이다.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더불어 자연을 지배하려 들지 않고, 자연과 교감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나우시카와 마을 사람들은 퍼져가는 부해의 숲에 위협을 느끼면서도 나름대로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악명 높은 군사국인 토르메키아 대형 비행선이 거대한 곤충들에게 습격을 당한 채 바람계곡에 추락하게 되고, 불타버린 비행선에는 불의 7일동안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태워버린 무시무시한 거신병의 알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신병' 의 알을 되찾으려는 '토르메키아' 함대가 바람계곡으로 들이닥치고 이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순식간에 바람 계곡을 점령하게 된다.

인간의 탐욕과 갈등때문에 상처받은 자연의 아픔 그려 결국 '대지의 母性' 이 치유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는 자연과 세계의 근본적인 진리를 이야기한다. 자연은 인간이 파괴한 대지를 스스로 치유한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독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정화이자 재생의 메카니즘인 것이다. 마치 인간의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면역 항체가 생겨나 병균을 이겨내는 것과 흡사하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독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포자식물들이 오염된 지구를 정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 중심의 사고가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많은 평론가들은 주인공 나우시카가 체제와 맞서 싸우는 주체적 여성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에코 페미니즘(Eco-Feminism)' 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에코 페미니즘은 자연생태계와 인간을 하나로 보고, 지금까지 남성중심 · 서구중심 · 이성중심의 가치와 삶의 방식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황폐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뒤바꾸려는 사상이다.

실제로 일본의 생명윤리 과학자인 모리오카 마사히로는 대담집 〈남성은 세계를 구원할 수 있을까〉에서 "나우시카는 자신의 의지와 판단력으로 행동하는 자립한 소녀"라며 "그녀는 성적으로 미성숙하지만 자신의 발로 자립해 일어나고 순진하고 과감하면서도 사랑스럽고 그윽한 에로스를 지니고 있다"고 평한바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스스로 '자신의 역작' 이라고 자평했던 '모노노케 히메' 에서의 여주인공은 자연의 편에 서서 인간문명과 대립하는 여전사의 모습을 담고 있다. 나우시카와는 정반대로 '모노노케 히메' 의 주인공 '산' 은 귀면상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모노노케 히메' 의 이야기는 아시타카가 살고 있는 에미시 일족의 마을에 타타리가미(재앙신)가 나타나면서 시작된다. 인간에 대한 증오와 원망이 가득찬 타타리가미는 마을로 돌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시타카는 활을 날려 그를 쓰러뜨리고 그 대가로 오른팔에 죽음의 각인을 받게된다. 아시타카는 자신의 몸을 치료하기 위해 서쪽의 시시가미(사슴신)의 숲으로 떠나게 된다. 서쪽의 시시가미의 숲에서는 타타라바(철을 만드는 마을)의 지도자 에보시와 들개신 모로 · 그의 딸 모노노케 히메 '산' 이 대립 중이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불과 물의 이미지의 상충은 '모노노케 히메' 에서도 이뤄진다. 에보시가 이끄는 타타라바는 철을 제련 · 생산해 마을 경제를 이끌어 나간다. 또한 이들을 이 철로 화승총을 만들어 동물신들을 몰아내고 있었다. 아시타카의 마을에 난입한 멧돼지 신이 재앙신이 됐던 이유도 화승총 탄알이 몸에 박혀 썩어 들어갔기 때문이다. 시시가미의 숲에서 시시가미가 기거하는 곳은 숲의 중심에 있는 호수이다. 에보시의 마을에서 총상을 입은 아시타카는 이 호수에서 상처를 치유한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보다 '모노노케 히메' 는 각 캐릭터 간의 관계가 좀 더 중첩적이고 디테일하다. 산을 망치는 인간들을 증오해 없애려고 하는 짐승신들 · 이에 맞서 싸우며 여자와 병자들이 잘사는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에보시 · 타타라바 마을의 철을 뺏기 위해 시시때때로 공격하는 막부 · 이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아시타카 등 이들은 작품 내에서 각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다.

불교에서 자연관은 법성을 본성의 원리로 하고 법계를 전체의 범위로 하고 있다. 결국 천지와 나는 한 뿌리이고, 정신과 물질은 둘이 아니니, 만물과 나는 한 몸인 것이다. 땅의 인연으로 나타난 생명은 결국 땅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는다. 이는 유정 · 무정 만물에는 불성이 있다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과도 맞닿는다.

〈조당집〉에서 중국의 고승 조주선사는 나무에게 불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긍정한다. 초목이 법신이라고 했으니 초목에도 불성이 내재돼 있다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것이다.

'모노노케 히메' 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는 이 같은 불교적 자연관이 자연과 인간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라고 역설한다. 관음보살의 현현처럼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나우시카나 자연과 인간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주도하는 아시타카는 자연 순환의 진리를 안 선각자이다. 이 둘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는 명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실천한다.

그 안에서 '스스로 그러하게' 사는 것,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놔두고 사는 것. 이것이 두 작품에서 던져주는 자연과 소통하는 해답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창간 20주년 SINCE 1994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고을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네 껍데기를 보지 말고 네 알맹이, 진짜 너를 찾아보아라

한결같은 믿음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문)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 자신에 대한 믿음이 많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확실히 믿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없어지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결같은 믿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는지요.

답) 우리는 생각하는 데에 이게 금방 믿었다가도 다른 큰 일이 생기면은 금방 그 믿었던 마음이 변하죠. 변할 때 그 지장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거 모르실 거예요. 핏줄이 이렇게 돌다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고 또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고 그러면 그 몸뚱이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와 같이 믿었다 안 믿었다 이렇게 그냥…. 이것이 그냥 뿌리가 있으니깐 있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건데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못 믿는 거죠. 그리고 큰 일이 생기면은 자기 생각에 그런 거죠. '이런 거는 정말 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또 되거든요. 이런 거는, 될 수가 없다 이런 거는 자기 생각에 그런 거지 딴 사람 생각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뜻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그 간약한 마음이 나오는 거를 그 간약하지 않게끔 하려면은 자꾸 관해서 너만이 그렇게 가냘프고 마음이 약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지 마라 하는 조항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 스님네들한테 말 듣는 것만 가지고 깨친다 이러지 마세요. 너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금은 금 있는 데 들어가서 녹이지 딴 거 넣습니까. 무쇠는 무쇠대로 무쇠 있는 데 무쇠가 들어가서 녹고 물건이 되지 딴 거 들어갑니까. 구리에는 구리가 들어가고 별의별 문제, 별의별 천차만별의 문제들이 그렇게 차원에 따라서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죠. 사람들도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고요. 사람을 생산해서 자식을 낳는데도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깨치고 보면 한 나절을 울어도 시원치 않고 한 나절을 쳐다보고 웃어도 시원치 않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얼마나 가르치기가 어려우면 자기 제자들하고 같이 순행을 돌다가,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갖다가 그 관에 담아서 놓기도 하고 거적으로 말아서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서 새들이 모두 쪼아 먹기도 하고, 외려 골을 빨리 쪼아 먹으라고 터뜨려서 놓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 시대에 부처님께서 그 뼈다귀 놓인 거 보고서 그렇게 진실하게 절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갔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분은 참 모자라니까 저렇구나.' 하는 생각도 했을 거고, '저렇게 지덕이 있고 저렇게 깨치신 분이, 사생자부이신 분이 어떻게 저 뼈다귀에다 절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모르니깐.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걸 '우리 할머니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다.' 이 말 한 마디로서 이 세상의 일대사, 즉 말하자면 미생물에서부터 수없는 겁을 거쳐 나오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지탱을 한 그 이치를 다 아시고 그걸로다가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눈뜨고 이게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얼른 '아, 이거는 이런 거구나.' 하고 빨리 깨닫지만 그 눈을 뜨고 귀를 뜨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를 듣고도 그냥 그런가보다 이렇게 했고, 지금으로 치면 '저 스님 돌았잖아. 저거, 저거 어떻게 잘못 된 거 아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말이 그렇지,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느니라. 이거는 사람뿐이 아니라 이 흙속에 있는 생물도 다 생명이 있고 나무가 서 있는 것도 다 생명이 있고 돌이 서 있는 것도 다 생명이 있느니라. 그러니 어느 거 하나 빼놓은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 이 이치를 어찌 그 말로만 듣고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엔 깨치는 거를 그렇게 제일로 쳤죠. 너는 껍데기니까 네 알맹이를, 말로 막하자면은 네 껍데기를 보고 너라고 생각지 말고 네 알맹이를 찾아서 진짜 너를 찾아보아라. 너를 찾아야 이 물질세계와 이 무의 세계가 같이 혼합이 돼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진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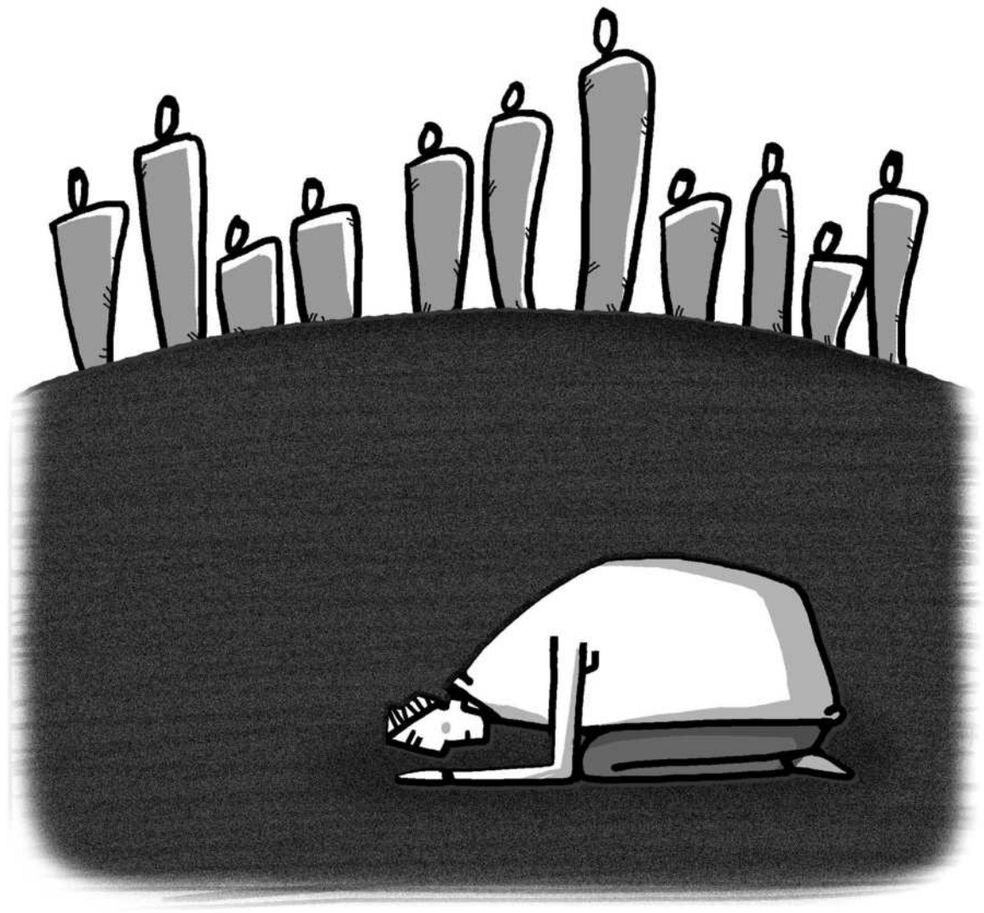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천차만별의 물질들이 전부 그냥 차원에 따라서 인연이 돼서 만납니다. 그런데 생각들 해보세요. 어른들은 자식들을 자식들은 어른들을 이렇게 해 가면서 원망을 하면서 살죠. 때로는 원망을 하고 때로는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고 살죠. 환경에 좇아서 말이에요. 그런데 끼리끼리 무쇠는 무쇠대로 들어가서 만남이 있었다 이런다면 무쇠끼린데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미워하고 예뻐하겠어요. 서로서로에 똑같은 인연들인데. 자기 부모가 금이라야 금이 돼서 들어가고, 금 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만이 금이 금으로 들어가고, 무쇠는 무쇠로 돼 있으니까 무쇠로 된 것이 나한테 오는 거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깐 천차만별로 돼 있는데다가 사람뿐이 아니니라. 사람은 사람의 모습만 사람이 됐지 진짜 사람으로 된 게 아니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은 들어갔어도 아직 사람이 못 돼서, 그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되고 짐승이 다시 또 도로 된다 이거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움죽거리고 사니깐 이게 사는 건가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나가지만 이게 적지 않은 인생이 살아나가는 숙제입니다.

인생 한 철 보람 있게 살고 싶어요

문) 인간 되기도 어렵다는데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무의미하게 살다 가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어놓은 인연이 많아서인지 저를 그냥 편하게 내버려두질 않네요. 어떻게 하면 인생 한 철 보람 있게 살다 갈 수 있을는지요.

답) 사람이라는 게 어느 집의 가정으로서 이렇게 한 모임을 가지고 한 식구라고 사는데요, 언제 적에 한 식구로 살았습니까? 영원합니까, 그게? 한 철 사는 겁니다, 한 철. 우리 스님네들이 한 철 나가서 살고 한 철 또 들어오고 이러는 거와 마찬가집니다. 한 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철 이 집에서 모여서 살다가 또 헤어졌다가 다른 데 가서 또 한 철 삽니다. 그러니 네 부모 내 부모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통틀어 본다면 네 부모 내 부모, 내 자식 네 자

☞ A30면으로 계속

창간 20 SINCE 1994 주년

선·무·도·세·속·포·교·30·주·년

산사예술제

학술대회 • 전통무예대회

2014년 10월 25일(토) ~ 26일(일) 골굴사

선무도는 불교의 근본수행인 지관수행을 바탕으로 심신의 조화를 이루는 수행법입니다. 한국불교 승군의 전통무예를 계승한 불교금강영관 선무도가 세속포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불교금강영관 선무도의 역사와 철학,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더불어 한국전통무예대회와 산사예술제도 함께 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25일(토)
09시 – 선무도 승단 심사
14시 – 선무도 학술대회
18시 – 30주년 축하연
장소 – 선무도대학(골굴사 경내)



10월 26일(일)
11시 – 범종 타종식
13시 – 전통무예대회 및 산사예술제
– 택견, 기천문, 24반 무예 등 10여개 단체, 일본 가라데 시연단, 선무도 해외지부 시연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재) 선무도 대금강문 • 사) 세계선무도총연맹 총재 설적운

골·굴·사·중·창·불·사·25·주·년

원효성사 화엄종 타종식

2014년(2558년) 10월 26일 11시(윤달 9월 3일)

증명법사 성타 큰스님(불국사 회주)



1500년 마애아미타불의 온화한 미소가 깃든 국내 유일 12처 석굴사원. 원효성사의 성지 혈사로 알려진 신라 천년고찰. 골굴사 중창불사 25주년을 기념하여 원효성사의 진영과 사상을 담은 범종을 주조하여 타종식을 갖고자 하오니 사부대중께서는 많은 성원과 축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칭 – 원효성사 화엄종
제원 – 1천관 양각(제작사: 종종사)
개요 – 보물 581호 골굴사 마애여래좌상 원효성사 진영과 사상, 선무도 동작 등을 양각으로 조성
문의 – 054. 744. 1689 www.sunmudo.com

윤달 삼사순례는 원효성지 골굴사로 오시어 범종을 타종하고 소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타종식 당일 점심제공)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주지 설적운

자기가 이 세상에 나서 살면서 왜 자기를 의심합니까

☞ A29면에서 계속

식이 따로 없어요. 더 크게 본다면 사생이 따로 없단 얘기에요. 너무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돼서 화해서 자꾸자꾸 돌아가니까요. 그러니 내가 위대하고 잘나고 아, 참 조건 좋고, 내 이렇게 사니까 '이만하면 만족해.' 이러지마는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것도 한 철이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한 철. 인생은 나그네의 길. 이것을 한 철이라고 보죠. 한 철이라고 하는 데서 볼 때는 여러분이 전부 나그네의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 무슨 어디 내 남편 내 자식 이거 착 두지 마세요. 착을 두면요, 외려 더 걸려서, 법망에 걸리고 레이더망에 걸리면 가지 못하죠, 자꾸. 그렇듯이 유의 세계 무의 세계를 넘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옴치고 뛰지도 못하고 자꾸 걸려 가지고 되는 노릇이 없거든요.

그러니 모든 자손들과 남편과 아내, 형제, 모두 어떠한 일이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인공밖에는 해결 못한다.' 주인공이 다 같거든요. '주인공 운전수가 다 끌고 다니는데 내 어찌 그것을 맘대로 하랴. 주인공밖에는 해결 못한다.' 하고 믿으면서 딱 놔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발이 묶이지 않아요. 이 마음 자체가 체가 없으니까 발이 묶이지 않는 거죠. 그 마음으로다가 육신을 잘 끌고 다니는 거다.

잘못되는 것도 마음으로 지어서 잘못되거든요. 내가 꼭 저걸 괜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가지고는 돈을 왕창, 돈 쪼끔 탄 거 가지곤 왕창 들여 가지곤 홀딱 집어먹고선 또 죽겠네 살겠네 하거든요. 그것도 자기 마음이에요. 그것이 너그럽게 볼 수 없는 그런 눈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육안으로만 봤기 때문에. 심안을 통해서 봤더라면 그것이 그렇지 않을 건데, 그게 그렇게…. 아니, 가난한 것도 그렇고 모두가 전부 보면 자기 탓입니다. 그 억지로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내 마음에 놓는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다섯 가지가 계발이 된다. 그 다섯 가지가 계발이 돼서 오신통을 그대로 여여하게 할 수 있는 자유권을 얻을 때 그때 다시 체험을 하면서 또 보임을 한다.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우주 법계가 다 공통점이 될 수 있어요. 우주 법계가 다 우리네 몸뚱이에 그 법계가 있는 거와 같이, 법망이 있고 법계가 있고 그렇듯이 그냥 전부 통해요. 즉 말하자면 그 통신망을 넘나든다는 얘기죠. 통신, 이 천체 통신. 통신이 잘되니까 심안으로도 밝게 볼 수 있고, 또 그게 통신이 되면 모습 없는 모습들이 즉, 천이, 신족, 타심, 숙명 이런 것이 다 발로가 돼서 동시에 용도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미리미리 그냥 이렇게 한생각이 나면 그냥 그 즉시 찰나의 살림살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바깥으로 나오는 현실이에요. 불법은 생동력 있는 현실이지 죽은 게 부처님 법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심성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건 천체물리학이에요. 그러니 어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도리를 모르고 갈 수 있겠습니까.

좋은 반려자를 만나려면…

문) 결혼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면 차라리 그냥 계속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은데 부모님께서 워낙 걱정하시는지라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 공부도반으로 지낼 수 있는 반려자가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마음내야 되겠는지요.

답) 그거는 마음을 내고 안 내고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아주 친근하게 생각이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아주 냉랭하고 그냥 담담하게 생각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그러죠? 그랬을 때에, 또 어떤 사람을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못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집안 환경 때문에 아주 곤궁하게 불쌍한 사람이 있고, 시시때때로 각각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그 보이는 거를 지혜로운 마음이라면, 불쌍하면 불쌍치 않게 모든 과거 미래 현재를 한데 싸서 주인공에다 놓으면은 그냥 삼세가 통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마음 한 번 탁 내 주면은 그쪽도 좋아지고 보는 나도 좋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짢다, 좋다, 밉다, 예쁘다 이런 거를, 모든 거를 놔라 하는 말이 그런 데서 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공부를 못하던 사람도 내 마음을 진정으로 내 줬을 때 다시 바뀌지죠.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해서 얽힌 것이 풀어지니까 그게 잘되는 겁니다. 또 나한테 아주 밉게 하는 사람, 나를 아주 귀찮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볼 때도 '나를 귀찮게 안 하게 하는 것도 너뿐이야.'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관한다면은 거기까지 불이 들어가서 그 다음서부터는 성가시게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아주 착해지죠. 그런데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자는 대로 되는데 왜 걱정이에요? 왜 그렇게 의심들을 하고 왜 자기가 이 세상에 나서 살면서 자기를 의심하느냔 말입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모두가 자기 할 탓이라고 생각돼요. 편안하게 살고 편안치 못하게 사는 거는 자기 마음의 견해에 의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을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나는 항상 그렇게 실천을 하고 나가는 사람이니깐 어떤 때는 내가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뜻을 모르지만 통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인공과 자기와 통하는 사람들은 죄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것이 댁에서 모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억겁을 진화돼서 형성되고 형성되면서 살아온 그 장본인이 자기 몸을 자기가 형성시켜 놓고 이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이름도 좋지만 그 자기 자불 주인공이 자기 이름을 자기가 해 놓고 이렇게 가거든요, 모두. 근데 사람이 이름 지어 주는 사람도 그렇고 이끌어 주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이끌려서 이름을 짓고 그렇게 자꾸 가면은 거기에 물이 들고 그래서 잘못되는 거죠.

하여튼 이 공부 할 때는 한눈팔지 말고 꼭 열심히, 죽을 때 죽고 살 때 살더라도 아이, 죽는 것은 누구나가 다 있지만 이 세상에 나온 곳도 없고 나온 곳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곳도 없고 이 자리도 공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니 그 또 마저 없더라. 한 발짝 한 발짝 떼어 놓은 사이도 없더라. 이렇게 알게 되면은 얼마나 흥락하고 좋겠습니까? 이 세상이 모두 밝고 자유스럽고 텔레비전에서 뭐, 은비 까비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 정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해결을 못해야, 은비 까비가 그걸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아주 괴로운 세상을 살겠죠. 그러나 은비 까비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괴롭지 않은 세상이죠. 어디나 억울한 사람 보면 억울한 대로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한 대로 여러분도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공부시키는 거거든요.

모습 없는 일체 영령들도 물질과…

문) 『뜻으로 푼 천수경』 가운데서 '모습 없는 일체 영령들도 물질과 둘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라는 말이 있는데 알 듯도 하면서도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모습 없는 의식이라면 스무 개, 백 개, 천 개, 이 허공에 꽉 찼다 하더라도 내가 한 번 마음을 쓰면 그게 한 마음이지 두 마음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음 되게 하소서.'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은 '한마음 되게 하소서.' 하면 보는 사람이 그거를 퍼뜩 알아채서 '너가 그렇게 해라.' 이 소리거든요. 그렇게 부처님한테다 비교해서 '내 마음을 빨리 지혜롭게 하게 하소서.' 할 때도 자기가 그렇게 해라 이 소리지, 상대방에다가 기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이사를 가 가지고 영계가 있다고 해서 그냥 모두 야단들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하고 난리들을 벌이고 뭐, 사람이 자꾸 죽어 나간다 뭐 어쩐다 이러는데, 그거는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한생각이면 그냥 없어질 걸. 아이, 생각해 보세요, 글쎄. 그거를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의식들을 전부 그냥, 악한 거든지 선한 거든지 다 내가 된다면 내 마음의 주인공에 한데 넣는다면 그냥 내가 돼 버리는 거죠. 내가 되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돼 버리니까.

그런 데서 스스로서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여기서 나가도 여기가 줄지 않는단 얘기에요. 마찬가지로 이건 마음, 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이 영한테 들어왔다가 영이 영대로 또 나가서 재생이 돼서 싹이 된다 하면은 그것 참 좋은 일이고, 재생을 시키니 좋은 일이요, 그 집에 그런 우환이 없어지게 하니 좋은 일이요, 그 도리를 아니까. 떳떳하니까. 이 세상에 주인이 되니 좋은 일이요, 진짜 부처가 되니 좋은 일이요.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온 가정이 그냥 뭐 죽을둥 살둥 하거든요. 그러니 이 공부 하나 잘한다면,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잘한다면은 그 가정은 아주 편안하게 나갈 수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한다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일이 닥치면 "나는 주인공을 찾았는데도 그래요."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르치는 대로, 이끌어 가는 대로만이 똑 부러지게 잘들 한다면 정말 이 세상에 더없는 으뜸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것은

문) 참나를 찾기 위해 관하는 방법 외에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것은 어떤지요.

답) 아니, 화두가 또 따로 있나요? 이 수박을 내 몸뚱이라고 합시다. 수박을 놓고 요놈이, 이 주인공이라는 놈이, 요놈이 뭘꼬 한다면, 이게 물론 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참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요놈의 게 뭘꼬?' 하고 평생을 돌아봐야 이건 맛을 못 봐요. 맛을 몰라요. 수박을 놓고 그냥 무조건 넘어서야 된다 이 소립니다.

무조건 이 마음의 칼로 쪼개서 맛을 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아예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수박 속으로. 수박을 놓고 '이게 뭣고.' 하기 이전에 그냥 수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은 훌떡 넘어서야 할 세상이에요. 그렇게 빨라요. 우물쭈물하다가는 자전거에 치이듯이, 우물쭈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잘라 먹고 넘어가라 이겁니다. 부처님이 앞에 있어도 그냥 먹고 넘어가라 이 소리에요. 일체 만법을 다 거기다가 맡겨 놓고 넘어가는데, 고놈만은 왜 놓질 못하고 고놈만, '고놈이 뭘꼬?' 하느냐 이 소립니다. '고놈 뭘꼬?' 하기 이전에 그냥 그놈도 집어삼키고, 꿀떡 삼키고 넘어서라 이겁니다. 그럼 맛을 알게 될 거다 이거예요. 고놈 맛을. 고놈이 뭘꼬 하고 아무리 그래 봤자야 그냥 울타리 밑에서 맴도는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놈을 꿀떡 집어삼켜서 먹고 넘어서서 길을 걸어라 이겁니다.

지금은 훌떡 넘어서야 할 세상입니다.
수박을 놓고 '이게 뭣고.' 하기 이전에
그냥 무조건 수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자전거에 치이듯이
우물쭈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잘라 먹고 넘어가라 이겁니다.

창간 20 SINCE 1994 주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삼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동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동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동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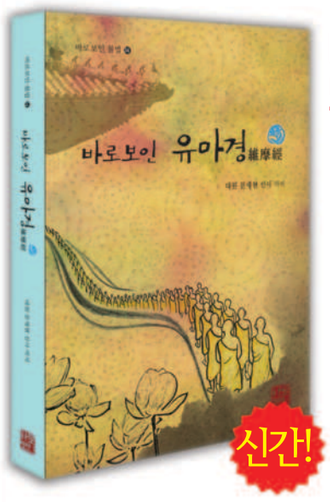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거 운전만큼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자브레이크 장착으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 · 하차 시 유용합니다.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납 베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대원 문재현 선사님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67권째 저서 출간!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불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 대원선사 토끼뿔 〉로 이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신간!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바로보인
www.zenparadise.com 참조

‘인천성화’ 평화의 불씨로 살리자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북한 실세 3인방의 깜짝 방문으로 부풀었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는 지난 7일 북한경비정의 NLL침범사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나마 2차 고위급 접촉을 10월말과 11월초 사이에 갖기로 한 양측의 약속이 있어 남북대화를 살려낼 불씨가 남아있는 셈이다. 여기서 대화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남북관계를 전망해 본다.

쑨쯔(孫子)는 승리하는 용병술의 요체를 “상대방이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출격(出其不意)”하며, “상대방이 전혀 준비하지 못한 곳을 공격(攻其無備)”하고 “군대는 신속함을 귀하게 여긴다(兵者貴速)“고 썼다. 북한의 외교방식이 바로 이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상업거래 방식으로 외교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전체주의국가들이 썼던 전사(戰士)방식의 외교를 한다. 외교를 전쟁의 연장이라고 보는 것이다.

북한 3인방의 한국 방문도 한국 측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과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정부, 정당, 언론 할 것 없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너나없이 허둥대고 상황에 맞지 않는 반응을 연출했던 것이다.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가를 명분으로 한국을 전격 방문한 북한의 목적은 3인방의 면면과 북한의 행태에서 가능해 볼 수 있다. 우선 김정은이 제일위원장으로 있는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군 총정치국장인 황병서는 김정은을 사실상 대행했다. 김정은의 유고설을 잠재우고 북한군의 존재감을 과시하여 겁을 주려는 낡은 수법의 심리전을 수행한 것 같다.

노동당비서이며 국가체육위원회의 위원장인 최용해는 김정은의 체육정책 성과를 홍보하는데 필수적인 인물이다. 북한의 그 후 행태를 보면 이번 방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자축구에서 한국에 이겨 우승을 하고 아시안게임 전체 성적 7위를 기록한 북한 선수단의 성과를 체제선전에 활용하려는 것이었다. 평양귀환 후 승전소식을 알리면서 북한매체는 한국에게 진 남자축구 이야기는 빼고 한국에게 이긴 북한의 여자축구 승리와 아시안게임 성과만을 대대적으로 선선했다.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노동당 대남당당 비서인 김양건 통일전선사업부장의 등장을 통해 나타났다. 그가 한국의 대화재개 요구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응을 위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의 대화의지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적 상황과 국제적 고립이라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북한은 남북대화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대화의 진전여부는 유고설이 계속 나돌아 불안정해 보이는 김정은 체제가 언제 안정을 되찾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북한매체가 남북대화에 대해 일언반구도 안하고 있는 것을 대화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속임수가 기본인 병법(兵法)의 사고방식에 비추어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 다만 최근 NLL 사건과 대북삐라살포 중지협박에 비추어볼 때 북한은 대화에서 특기인 벼랑끝 전술로 자신의 의지를 관찰하려고 시도할 것 같다.

지난 40년 이상 수많은 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뚜렷한 결실을 못 거둔 이유는 원칙 없이 대화를 위한 대화만을 했기 때문이다.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는 서로 이익을 주고받으며 거래 실적과 신뢰가 쌓이면서 누적적(累積的)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남북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역대 정부는 원칙 없이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면서 남북대화에 목을 매 왔다. 남북대화는 곧 통일이라는 잘못된 가정에 기초했던 것이다. 남북대화는 통일의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남북관계만 잘 된다고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남북관계 발전은 북한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분단을 고착화시킨다. 지난 시기 요란하게 진행되었던 남북대화와 원칙 없는 대북지원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니었던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부는 북한동포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통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단호히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동포를 곤경에서 구출하고 통일에 도움이 되는 사안은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투자해야 한다. 이런 대원칙을 가지고 대화와 통일문제에 접근할 때만이 통일은 우리에게 대박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산대재, 이젠 지역축제

개산대재가 변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축제로 지역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심 속 국화축제, 자연을 벗삼은 산사음악회 등이 그 것이다. 개산대재가 지역축제로 거듭나는 의미와 방향에 대해 이를 주도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입장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대중의 눈높이 맞추는 사찰문화 기대”



진응 스님
통도사 교무국장

영축총림 통도사는 지난 10월 2일 1396주년을 기념하는 개산대재와 함께 영축문화축제를 봉행했다. 지난해부터 개산대재를 문화축제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통도사는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중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에는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만발공양 및 위로공연 등으로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들의 포교에 진력했다면 올해는 어린이 포교에 중점을 맞추어 축제를 꾸몄다. 5세~13세 어린이를 위한 수계식,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다문화 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은 사찰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사찰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불교가 노령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절에 어린이들이 오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조용하고 고요한 이미지를 표방하던 사찰은 이제 대중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절에 오게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가령, 통도사가 20년 넘게 사생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지만 이제는 사생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유인 즉은 요즘 학생들은 사생 그리기보다는 캐리커처 등을 그리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찰도 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중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사찰에 오는 대중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 사찰이 가진 숙명일 것이다.

“문화콘텐츠 활용 지역민 거부감 없애자”



위영란
봉은사 홍보실장

최근 개산대재는 자연스럽게 지역주민과 직장인, 외국인들이 함께 사찰에서 어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불교계에는 문화 콘텐츠가 많다. 이중 사찰이 창건된 날을 기념하고, 역대 큰 스님들을 추모하는 개산대재를 문화행사로 승화시키는 것은 일반인들의 불교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울 봉은사는 강남에 위치한 전통사찰로, 불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들도 찾는 문화 · 휴식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 봉은사에서는 이번 개산대재에 맞춰 국화축제와 산사음악회를 함께 준비했다. 특히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사음악회 가수선정에서 대중성을 고려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사중 신도들뿐만 아니라 가수들의 팬클럽, 지역주민들이 찾아와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사찰 측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많다. 평소 불교를 접하지 못한 이들이 개산대재 축제를 계기로 접하고 신도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비나눔 음악회, 바자회 등을 통해 불교가 단순한 기도를 하는 신앙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실천운동이란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불교계에서는 이런 개산대재 행사를 문화축제를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기관과의 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도심에 위치하지 않은 사찰의 경우 지역 기관과의 협조체제와 함께 SNS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SNS를 통한 홍보는 지역의 한계를 뛰어 넘기 때문이다. 특히 축제 전 홍보 뿐만 아니라 축제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SNS를 통해 알려 다음 회 축제에 참여하는 이들을 관심을 끄는 것도 중요하다.

社說

현대불교 창간 20주년을 맞으며…

佛法으로 ‘세상치유’ 거듭 다짐

1994년 10월 15일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표방하며 출발한 현대불교 신문이 어느덧 20주년을 맞았다. 흔히 강산이 두 번 변한다는 촌각인 20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동안 세상도 변해갔다. 불교계 언론 환경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IT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뉴스의 양과 속도가 몰라보게 빨라졌다. 모든게 빠른것만 원하고 그것만 통하는 세상이 됐다.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 폐해도 심각하다. 이런 빠름의 중독을 중화시켜 주는 역할을 불교가 해야 한다.

특히 이는 불교 언론의 몫이자 사명이다. 요즘 흔히 종이 신문의 위기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회자된다.

하지만 인터넷에 기반한 새로운 미디어들은 정치적이고 빠른 정보, 쌍방향에는 정통하지만 풍부한 읽을 거리와 아나로그식 감성을 전달하기엔 역부족이다.

현대불교는 이런 사회변화에 맞춰 지난해에는 마음산업을 주제로 한 기획을 실어 한국불교기자협회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3년전부터는 마음 · 명상 페이지를 신설해 독자들에게 마음 공부하는 법도 자세히 일러주고 있다. 마음공부를 통해 내면의 자신과 조우하고 집착서 벗어나 참 행복을 찾는 지혜를 일러주는 대행 스님의 법문 '길을 묻는이에게' 역시 창간호부터 계속 이어오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하나 더 있어 좋은 신문'을 표방하며 출발한 현대불교는 지난 20년간 불교계 사부대중의 큰 사랑에 힘입어 마음이 아프거나 지친 이들에게 힐링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행포교매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는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살지만 그로 인해 병들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큰 힘이 돼주는 문서포교 힐링 매체로 거듭 날 것을 독자 제현들에게 다짐한다. 힘차게 달려갈 새로운 20년, 아니 50년, 100년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것이 현대불교가 존재하는 큰 이유다.

동국대 ‘제2의 도약’에 박수를

동국대는 최초의 불교종립대학으로 한국에서 얼마 안되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사학이다.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한 선각자들의 출연으로 만들어진 동국대는 몇 년 전만 해도 적지 않은 부침이 있었다. 동국대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으로 위상이 큰 손상을 입었고,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대학 구조개편과 교수 평가제 등이 도입되면서 체질개선을 단행했다.

10월 6일 발표된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그간 동국대의 노력이 그대로 보이는 결과다. 이번 평가에서 동국대는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하며 역대 최고 성적인 11위를 기록했다. 동국대는 핵심 지표인 국제화 3위(전년 4위), 평판도 15위(전년 17위), 교수 연구 18위(전년 19위), 교육여건 및 재정 23위(전년 26위)로 전 분야에서 고른 순위 상승을 이끌어 냈다. 그동안 낮은 평가를 받았던 교육여건 및 재정분야도 지난해 26위에서 23위로 올랐다. 불교계의 기부가 이어져 지난해 기부액은 역대 최고인 309억원을 기록했다. 기부자 수도 크게 늘어 6,600여 명이 기부에 참여했다.

동국대는 2008년 29위에서 매년 꾸준히 순위상승을 이뤄내며 올해 11위까지 상승해 국내대학 중 가장 성공적으로 대학 체질을 변화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동국대는 108주년을 맞아 지역 랜드마크 기념관 건립 등 ‘제2의 도약’을 준비중이다. 10월 8일에는 기념관 건립불사 선포 및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인재 양성과 교육은 한 집단의 미래를 결정한다. 동국대의 노력과 발전은 불교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은 명약관하한 사실이다. 동국대의 ‘제2의 도약’에 불자 모두 성원을 보내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창간 20 SINCE 1994 주년

사과문

존경하는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큰스님을 비롯한
회원종단 대표스님들께 고두 삼배를 올립니다.

먼저 저의 미망으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점 사죄드립니다.
석가모니부처님도 많은 제자들을 받아들이시고, 수행의 길로 인도 하실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 한 것이 승가의 화합이었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불교에는 대중공사라는 빛나는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납의 어리석음으로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종단 대표 스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오니 너그러운 처분을 바랍니다.
또한 불교의 발전과 더불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힘을 쏟을 것을 다짐합니다.
부디 소납의 미망을 용서해 주시고, 성불의 그날까지 수행에 전념할수 있도록 견책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불기 2558년 10월 10일

대한불교 진언종 총무원장 **혜천** 합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20 주년을 축하합니다

스마트한 웹을 생각합니다

단순히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 기획부터 개발까지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Methodology와 Know-How를 바탕으로
고객의 e-Business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주 | 엘스위버

ELS WIVER

www.elswiver.com Tel. 070-4060-7460 Fax. 0505-507-7460

佛法 실천·저변 확대… 한국불교 화두

'불교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현 주소는



그림 · 박구원

한국불교가 현대적 형태의 종단을 형성하고 수행과 포교, 나눔 등의 사업을 추진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정화운동과 불교 내 분규와 개혁 등 적지 않은 질곡이 있었지만 반세기의 시간동안 불교는 꾸준한 발전을 이뤘다.

한국불교의 발전 양상을 분류하면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로 나눌 수 있다. 일상 생활 속에서 부처님 법을 실천하려 했고, 전근대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뜻 있는 출 · 재가자들은 노력했다. 숭산 스님과 같은 선각자들은 일찍이 해외 포교를 나서기도 했다.

현대불교신문사 역시 이 같은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훈으로 불교 교리와 신행 정보 전달, 불교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했다.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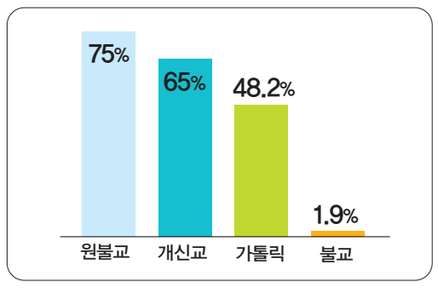
한국불교 발전 기조인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불교의 생활화는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 법을 실천하고 이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철저한 수행과 남을 이롭게하는 동체대비의 자비 나눔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생활화의 경우 인터넷 시대를 맞아 다양한 수행단체들이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며 이를 통해 불교 수행 저변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비 나눔 역시 종단 차원에서 복지 · 구호 사업에 역량을 집중시켜 왔다.

현대화의 정의는 '불교를 어떻게 시대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이다. 현대화는 세 가지 분야 중 가장 활발하고 폭 넓게 발전해왔다. 산중불교에 머물렀던 불교가 도심으로 내려와 대형 도심사찰들이 지역 포교를 선도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안국선원, 대구의 한국불교 대관음사, 서울 잠실 불광사, 서울 강남의 봉은사, 구룡사, 능인선원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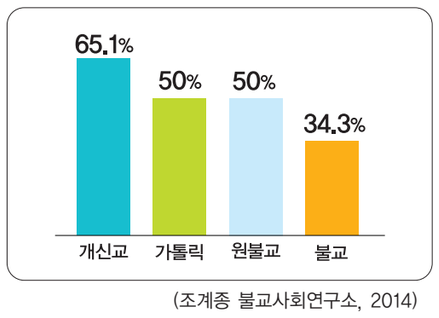
한국의 대표 전통문화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템플스테이의 경우 10년 동안 그 외연을 꾸준히 확대했고, 웰빙 · 힐링 트랜드의 한 축으로 발전했다. 한글 대장경 역경불사와 천수경 · 반야심경 등 한글 의례 보급, 현대적 찬불가의 도입과 SNS 시대에 맞는 포교 방법론의 대두 등도 불교의 현대화의 성과이다.

'한국불교의 수행과 문화를 세계에 전하기 위한' 세계화는 아직 많은 실효적 성과를 내지 못한 과제다. 숭산 스님을 비롯한 선지식들이 해외 포교의 중요성을 알고 오래 전부터 미국 등으로 건너가 전법을 시작했다. 가장 크게 성과를 보인 것은 숭산 스님이

〈표1〉 종교행사 참석도 (주1회 이상)



〈표2〉 신앙생활의 만족도(만족한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4)

부처님 법을 일상 속 실천하고
시대 맞게 대중들에게 전하며
세계 속 韓불교 우수성 알리기
'量' 성장 이뤘지만 '質'은 미흡
불교 인구 정체… 30~40대 감소
지계 · 경학 않고 만족도 '최하' 수준
'3化' 다시 점검해 변화 이끌어야

지만 한국불교에 대한 세계적 인식은 일본, 티베트 불교에 비하면 아직 미약하다. 재외 한인 포교도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에서 개신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나마 스님들의 국제화 감각과 어학능력을 기르기 위한 조계종 국제불교학교가 용인 화운사에 개교하고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해외 특별교구가 신설되는 등 부족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전통 불교 문화재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전통 산사와 연등회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추진 중이다.

질적 성장은 없는 '반쪽의 성공'

세계화 뿐만 아니라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가 원만하게 성공을 한 것은 아니다. 분명 양적인 성장은 눈에 띠는 수준이지만 이 부분이 질적 성장을 함께 담보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대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종교생활 및 종교경험에 대한 인식' 부문의 종교의 계율 · 계명 준수 정도를 묻는 질문에 34.9%가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49.2%는 '그저 그렇다'로 답했다. 하지만 계율과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종교신자 중 대부분이 개신교(49.5%)였고, 가톨릭(40.9%)과 불교(21%)가 뒤를 이었다.

평소 종교 경전을 얼마나 자주 읽냐는 질문에 22.8%가 '자주 읽는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44.5%는 '종교집회에 참석할 때만 읽는다'고 말했다. 경전을 자주 읽는다고 응답한 종교 신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개신교(37.8%)였다. 불교 신자 응답률은 7.9%에 그쳤다.

예배나 전례, 법회 등 종교행사 참석도를 묻는 질문에도 주 1회 이상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는 1.9%에 그쳤다. 개신교 65.8%, 가톨릭 48.2%와 비교할 때 턱 없이 낮은 수치다. 불자 대다수(70.3%)는 1년에 1~6회 정도 법회에 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님 오신날이나 천도재, 각종 재일 등 주요행사 때만 절에 가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앙생활의 만족도도 불교가 최하위였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개신교가 65.1%로 가장 높았으며, 가톨릭은 50%, 불교는 34.3%였다. 이는 2011년 불교사회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의 같은 질문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신앙생활의 만족도를 질문에 불자의 38.5%만이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가톨릭은 53.5%, 개신교는 58.1%가 만족함을 나타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불교 생활화와 현대화의 단면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현대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일요법회를 강화하고 경전 공부의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이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서 양적 인프라는 확보됐으나 체계적인 수행프로그램이나 신도관리 등 질적인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조사결과 총평에서 "불교는 멤버십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도조직이 취약하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도조직이 움직일 수 있도록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제 다시 신발끈을 묶을 때

전문가들은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 전반에 걸쳐 현실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계종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은 "체계적으로 잘 교육받은 대중이 있다면 일부는 후원자로, 일부는 봉사자로, 또 일부는 출가자로 불교를 지탱하게 된다"면서 "한국불교 또한 지금부터라도 현실에 입각한 수행과 마음공부를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진실한 불자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화에 대해 태고종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불교 종단에서 전문가들의 힘을 빌어 각 분야에 포교발전방향을 수립해 모든 사찰이 함께 진행해야만 현대화를 이끌 수 있다"면서 "다시 세가지 분야의 변화에 대한 제대로 된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광식 前 국제포교사회장은 "1,600년을 성장해 온 한국불교의 뿌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깊이 한국인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다. 불교가 새롭게 싹트고 번져갈 바탕은 이뤄졌다"며 "필요한 것은 빛나는 얼음을 얼게 하는 씨앗들에 해당하는 기시점이다. 많은 사람이 다른 곳에 씨앗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그 씨앗이 되고자 한다면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통도사 요양병원 건립불사에 많은 동참 서원합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1300년 전통의 수행가풍을 이어온 수행도량입니다. 영축산의 위용과 함께 수행풍토를 이어가고 있는 통도사에서는 승가의 수행 외호와 함께 재가불자를 위한 전문 요양병원 건립불사에 뜻을 모으고 지난 6월 21일 기공식을 봉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비와 수행, 자선의 마음을 함축한 노인요양병원을 계획, 첫 삽을 뜨게 된 것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과 불교 노인인구의 증가는 다름 아닌, 자비문중이라 불리우는 우리 불교 집안에서 함께 해야 할 과제이자 책무라는 취지에 이렇듯 불교 요양병원 건립을 착수하게 되었사오니 여러 불자님들의 수희동참을 바라겠습니다. 신앙심 고취와 더불어 향기어린 봉양의 의미를 지닌 이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통도사 요양병원 법당
약사여래 삼천불 봉안불사



영축통림 통도사에서는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요양병원 건립불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약사여래 삼천불전을 건립하여 약사여래 삼천 부처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불자님들의 가정 가정 무루 동참하시어 가족불들의 무병장수와 병고쾌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동참 내역 :** 원불조성 소불, 대불
- **불사 문의 :**
  화엄전 055-381-1288
  팩 스 055-372-7010
- **삼천불 동참 계좌번호 :**
  새마을금고 9002-1662-8624-1 (예금주 : 통도사)

■ **병원불사** (불사금은 분납하셔도 됩니다)
① 일병동 동참 ② 특실 동참
③ 진료실 동참 ④ 일병상 동참
⑤ 의료기기 동참 ⑥ 휠체어 기증

■ **불사문의**
· 회계실 TEL 055-382-7187
· 종무소 TEL 055-382-7182
· 화엄전 TEL 055-381-1288
FAX 055-372-7010

■ **병원불사 계좌번호**
농협 351-0655-3958-23
(예금주 : 통도사)

영축총림 통 도 사 주지 원산 도명 합장

‘나’ 비우는 수행… 이웃과 동체대비



종교적 지향을 공유하는 이들끼리 신행 실천의 약속을 맺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수행을 함께 하는 수행공동체가 10년 새 급증했다. 지난 9월 창립 10주년을 맞은 아비라 카페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매월 전국서 4~500명의 불자들이 3천배 정진을 하기 위해 해인사 백련암에 모여 신심을 증장시키고 있다.

불교의 생활화

불교의 생활화는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다. 부처님 법대로 일상생활 가운데 불법을 실천하고 사회가 가르침의 실천 도량이 되게 하는 것이다. 즉 가르침이 곧 생활도리이고 생활도리가 곧 가르침이 되게 하는 것이다. 불교의 생활화를 이렇게 정의 내린다면 우리는 지속적인 수행과 신행활동을 통해 나를 비우고 이웃과 나눔으로써 동체대비를 실현해야 한다.

하지만 불자들의 수행 · 나눔활동은 저조한 편이라 볼 수 있다. 한국불교의 수행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불자는 적고, 대부분 기복신앙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봉사도 일부 열성 신도 층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최근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2014년 한국의 사회 · 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종교 경전을 얼마나 자주 읽느냐는 질문에 불자응답률은 7.9%에 그치는 수준을 보였다. 동체대비를 위한 봉사활동 실천 역시 불교가 가장 낮게 집계됐다. ‘봉사활동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불교는 54.5%에 달했으며, 가톨릭은 37.2%, 개신교는 34.2%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은 정토회나 초기불교 수행 공동체와 같은 수행단체가 10년 사이 급증했고, 다방면에서 동체대비를 실천하기 위한 국제 구호단체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신행 패턴 ‘수행공동체’

종교적 지향을 공유하는 이들끼리 신행 실천의 약속을 맺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수행을 함께 하는 수행공동체가 10년 새 급증했다. 수행단체들은 참선, 간경 · 독경, 염불, 주력, 절 등을 통해 생활 속 실천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재가불자들은 이른바 ‘결사(結社)’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 하면서 도반들과 수행담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한다. 결사에 동참하고 있는 사찰과 재가단체들은 일반적으로 100일, 1000일 단위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정진을 하고 있다.

정토회(지도법사 법륜)와 금강선원(원장 혜거)은 신도들과 만일결사를 이어오고 있다. 정토회 도반들은 매일 참회문 독송-108배기도-10분명상-경전읽기를 하고 하루 1천원 이상 보시해 자비나눔도 실천한다. 만일결사

염불 · 절 · 참선 등 정진하는
수행공동체 10년 새 급증
사회복지 · 자원봉사분야도 성장
‘저변화’ 부족… 대책 마련해야

수행을 다짐한 금강선원 신도들은 개별적으로 금강경독송을 하면서, 5명이 한 팀이 돼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수행을 함께 하며 수행담을 공유한다.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의장 만초)는 2011년부터 재가신도들이 동 · 하안거에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왔다. 현재 홍법사, 미황사, 봉은사 등 10여개 사찰이 대중결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안거에 동참한 인원만 6000명이 넘는다. 이밖에 덕양선원은 2004년부터 ‘10년 결사’를 입재하고 신도들과 천수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 다라니 정근을 해오고 있다.

결사를 맺고 염불수행을 정진해온 단체도 있다. 전국염불만일회(회장 안동일)와 만일염불결사회(회주 보광)가 가장 대표적인 염불수행단체다. 이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동안 아미타불 정근을 한다.

이처럼 결사와 같은 신행활동은 불자라고 하면서도 수행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는 불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수행공동체를 지향하는 모임도 있다. 바로 인터넷 수행카페 ‘금강불교입문에서 성불까지(이하 금강)’와 ‘아비라 카페’다. 다음과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인원만 1만2천명이 넘는 금강카페는 2006년부터 매월 둘째 화요일에 모여 경전을 독송하고 불교서적을 읽는 ‘금강강독회’와 매월 넷째 주 토 · 일요일 전국사찰을 순례하며 철야정진을 하는 ‘금강정진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창립 10주년을 맞은 아비라 카페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매월 전국서 4~500명의 불자들이 3천배 정진을 하기 위해 해인사 백련암에 모여 신심을 증장시키고 있다.

소외이웃과 함께하는 12만 불교 봉사자

불교사회복지는 1990년대 이후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비록 불교의 사회참여가 이웃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2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헌신해온 사회복지 실천가들 덕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냈다.

2010년 대한불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불교계 사회복지 법인이 123개소, 사회복지시설이 958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1995년 95개소로 파악되던 불교사회복지시설이 1999년 312개소를 거쳐 2005년에 477개소로 증가한데 이어 무려 2배에 가까운 수직상승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전체의 43.4%가 노인복지 분야에 편중돼 있고, 영유아복지, 정신보건, 여성 복지는 상대적으로 미진해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사업 영역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불교자원봉사자수도 급격히 늘었다. 1990년대 초 1천명 미만이었던 불교 자원봉사자수는 현재 대략 12만명에 달한다. 가장 대표적인 불교자원봉사단체는 대한불교조계종자원봉사단과 연꽃마을, 사단법인 천수천안불교자원봉사단, 일산노인종합복지관 봉사단, 불국사 · 월정사 · 수덕사 봉사단 등으로 봉사단원들은 사회복지시설, 병원,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 및 수요는 계속해 늘고 있는 반면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 · 교육하고 활용하는 구조는 상당히 취약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동남아 · 아프리카로 구호손길 뻗어

글로벌 시대라 말하는 요즘 불교의 자비나눔도 제 3세계 국가의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을 뻗치고 있다. 10여년 안팎의 시간이지만 불교계 국제구호 사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현재 교계 대표적인 국제구호 단체로는 JTS(이사장 법륜),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 더프라미스(이사장 법등)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인도, 미얀마, 캄보디아 등 불교 국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교계 국제구호 단체는 전체의 5%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기독교 등 이웃종교에 비해 후발주자로 시작한 교계 국제구호단체는 빈약한 인력과 재정 문제, 홍보 부족 등으로 고심하고 있다. 또한 온정만 가지고 무작정 국제구호 사업을 전개하는 관행도 자제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기도 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의 생활화를 위한 제언

“체계적 불교수행 자비나눔 근간 이뤄”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은 한국사회의 불자들은 다수의 기복신앙인과 극소수의 참선수행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월호 스님은 “불교 사찰은 대부분 산중에 머물다보니 정기적인 교육보다는 일시적인 기도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며 “따라서 계율이 무엇인지 계율을 지키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월호 스님은 수행이 자비나눔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소수의 참선수행인 또한 현실을 떠난 수행에 집중하다보니 독경과 봉사활동에는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웃종교에 비해 수행과 봉사활동을 적게 하는 불교계 현상에 대해서 배광식 국제포교사회 명예회장은 “한국불교라는 돌밭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천덕꾸러기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다. 이웃종교에서 마음대로 이를 가져다가 갈고 닦아 쓰고 있다”며 “이웃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둘이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시던 부처님의 간절한 말씀과 숨결을 이 시대에 새로운 생명력으로 살려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행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불교수행의 체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월호 스님은 “현실을 떠나 산중에서 하는 수행이 아닌,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수행을 가르쳐야한다. 불교수행은 마음공부로 정의되지만, 마음공부에도 단계가 있다”며 “하심, 일심, 무심, 발심의 순서로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수행을 마음공부



월호 스님(행불선원장)

“현실에 입각한 수행해야 진실한 불자 거듭나”



배광식 회장(국제포교사)

“부처님 가르침 온전히 이해하면 자비심 생겨”

와 연관 지어 체계화해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생활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쉽고 명쾌하고 합리적이며, 실천가능하고 지금 여기에 행복과 이익을 가져다주는 가르침이다. 불자들의 불교상식을 짚어보는 면접과정에서 경험한 바로는, 현재 한국불교에 오래 몸담아온 불자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애매모호하게 받아들이고 방향을 잃은 불자들이 많음을 발견했다”며 “부처님의 쉽고 위대한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몸소 이를 체현함을 보이는 선지식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불교가 수행과 봉사의 종교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만의 자제공덕회의 예를 든 월호 스님은 “대만불교의 성공이유는 체계적으로 잘 교육받은 대중의 일부가 후원자로, 일부는 봉사자로, 또 일부는 출가자로 대만불교를 지탱해나가고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한국불교 또한 지금부터라도 현실에 입각한 수행과 마음공부를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진실한 불자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불자를 꾸준히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광식 회장은 “고요한 물과 같은 부동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온전히 믿고 이해한 후, 실천 수행으로 스스로 맑아져 안심과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씨앗들이 이곳저곳에 생기도록 한다면, 그 빛이 자비로 퍼져 이 땅을 맑고 행복한 땅으로 만들 수 있다”며 “내가 그 씨앗이 되고자 한다면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삼광사 신도회 창립 45주년 기념 대법회에 초청합니다.

힐링사찰 삼광사가
중생들의 마음행복을 위해 정진합니다.

36만명 신도가 수행하는 한국불교의 자랑 대한불교천태종 힐링사찰 삼광사.
영험이 충만한 도량 삼광사에 기도수행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신도회 창립 45주년 기념 대법회
일 시 : 2014년 11월 1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삼광사 불교문화회관 (지관전)

소통과 공감 문화예술한마당
일 시 : 2014년 11월 1일(토) 오후 2시
장 소 : 부산 시민공원 일대

• 주 지 김 무 원 스님
• 총 무 박도선 스님 • 재 무 손형선 스님 • 노 전 김탄성 스님
• 신도회장 이 헌 승 • 신도부회장 최주덕 • 총무위원 권길용 • 교무위원 정일태
• 재무위원 윤태용, 안승진, 신명옥 • 사업위원 김성춘 • 복지위원 이정복
• 홍보위원 김규옥 • 문화위원 김영수 • 부녀위원 정옥순 • 교육위원 정재위
• 고문 · 지도위원 · 지회 · 신행단체 간부 및 사부대중일동 합장

• 정 기 법 회 : 매월 1·2일 오전 10시
• 힐링어린이합창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청 소 년 법 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청 년 회 법 회 : 1주 일요일 오전 11시
• 새 신 도 법 회 : 2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힐링대자비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 철야관음정진 : 3주 일요일~토요일
• 행복·동행길 걷기 힐링명상수행 : 매일 오전 8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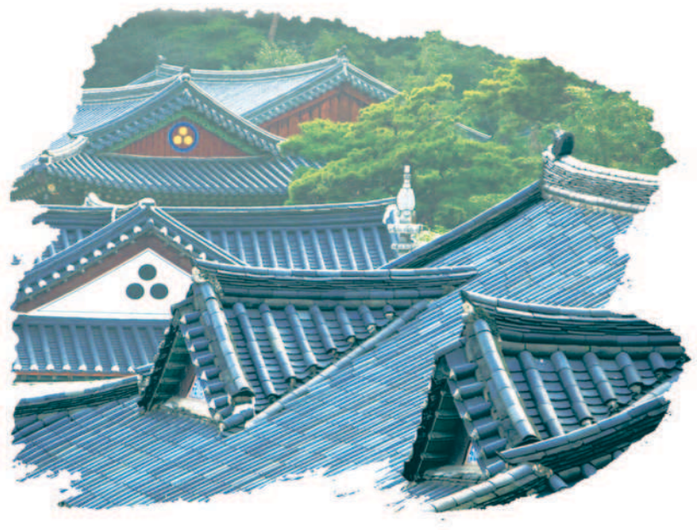


대한불교 천태종 힐링사찰 삼광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43번길 77
TEL.(051)808-7111~6 FAX.(051)803-1332
홈페이지 http://www.samkwangsa.or.kr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奉恩寺

회주 덕민 주지 원학



기획국장 정문
교무국장 혜찬
재무국장 성륜
포교국장 정진
교육국장 일진
원주국장 상법
노전국장 선행

신도회 회장 최정수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奉恩寺 |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 www.bongeunsa.org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

1700년 불교, '현대'의 옷을 입다

불교의 현대화

요즘 시대는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울 정도가 됐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시시각각 고정됨 없이 변화하고 있다. 불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보 · 통신 ·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의 압력을 받아왔다. 불교에 '현대화'라는 개념이 도입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교의 현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불교의 '현대화'를 '불교를 어떻게 시대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로 정의 내린다 했을 때 불교는 활발하고 폭 넓은 발전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산중불교에 머물렀던 불교가 도심으로 내려와 대형 도심사찰들이 지역 포교를 선도했으며, 한국의 대표 전통문화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템플스테이의 경우 10년 동안 그 외연을 꾸준히 확대했고, 웰빙 · 힐링 트렌드의 한 축으로 발전했다. 한글 의례(한글 대장경 역경불사), 현대적 찬불가의 도입과 SNS 시대에 맞는 포교 방법론의 대두 등도 불교의 현대화의 성과다. 이나은 기자



1970년대 중반 이후 도심포교의 원력을 가진 스님들이 개별적으로 포교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도심포교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광덕 스님을 따르는 불광사 신도들은 최근 신축 법당을 준공하고 제2 불광운동을 펼치고 있다.

도심 포교로 산중불교 이미지 탈피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불교는 산중사찰을 고집하면서 과거의 전통을 유지하는 데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도심포교의 원력을 가진 스님들이 개별적으로 포교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도심포교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광덕 스님(1927~1999)은 1974년 불광회를 시작으로 대중 포교지인 월간 〈불광〉을 창간해 정법 불교에 목마른 대학생들과 불교학자, 직장인들에게 감로수 역할을 해왔다. 〈불광〉 독자들의 열망은 잠실 불광사를 탄생시켰고, 최근 신축법당을 준공한 불광사는 제2 불광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대구 · 경북지역을 대표하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는 1992년에 월세 50만원 건물에서 한국불교대학 제1기생 120명을 배출하면서 포교활동을 시작해, 현재는 불교교양 대학을 중심으로 건평 2000평 7층 규모에 재적신도 8만명이 넘는 대형 사찰로 거듭났다.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도 1985년 종로구 가회동에서 천막법당과 가건물법당을 짓고 어렵게 포교를 시작했다. 이후 양재동으로 옮겨 건평 2200평 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 15개 지원과 해외 4개 지원에서 10만 명이 넘는 신도가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1984년 서울 서초동 상가에 있는 28평 작은 공간에서 포교를 시작한 능인선원은 지상 3층, 지하 5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을 갖추고 연건평 4천평에 달하는 현대식 복합건물로 사회복지시설도 갖춘 도량으로 성장했다. 1천여개가 넘는 가정법회와 25만 여명의 신도는 능인선원의 성장 동력 기반이 됐다.

안양 한마음선원도 1972년 경기도 안양시에 본원을 창건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해와 1991년부터 현재 15개 국내지원과 10개 해외 지원을 개원한 대형 사찰로 거듭났다.

안국선원 또한 1989년부터 약 20여년 동안 선원장 수불 스님이 부살, 서울, 창원 등에 안국선원을 열어 2만여 제자를 지도하면서 대중포교에 성공한 사찰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도심사찰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산중사찰로 인식되던 불교의 이미지를 벗고

도심포교 문화·복지 불사
한글의례 · 템플스테이 등 성과
찬불가로 누구나 부처님 예찬
SNS 시대 맞은 포교론 대두도

스님들이 직접 도시로 내려와 전력을 다해 포교를 했기 때문이다. 스님들은 신도들을 교육시키고 신도들은 주체적으로 신행단체에 소속돼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또한 사찰들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 · 사회복지활동을 펼침으로써 도심사찰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의식 · 경전 한글화로 현대화 이정표 세워

과거 한문이 중심이 됐던 시대를 거쳐 오며 대부분의 경전과 불서가 한문으로 만들어져 있어 한국불교는 현대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동국역경원은 2001년 해인사 대장경의 한문 틀을 벗기고 317권의 한글경전으로 대장경을 탈바꿈시켰다. 모든 경전을 한글로 옮긴 한글완역본 완간은 한국불교 현대화에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한글대장경의 전산화도 이루어져 일반 대중이 인터넷을 통해 한국불교전적을 더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994년 종단개혁이 일어나면서 불교의례의식 한글화 작업도 본격 추진됐다. 〈통일법요집〉과 〈한글법요집〉 등을 편찬한 조계종은 최근 표준의례로 공포한 한글의례문 〈천수경〉과 한글반야심경, 칠정례를 책과 CD로 제작해 전국 사찰 및 타종단 사찰에 보급해 불교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 그 결과 일상 법회에서 삼귀의와 사홍서원에 이어 〈반야심경〉까지 한글화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찰과 단체들이 아직도 한문투의 불교의식, 경전 독송을 진행하고 있어 한글 의례가 100% 대중화 됐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부처님 말씀 쉽게 노래로

1920년대 초 사찰령이 내려진 뒤 용성 스님과 만해 스님은 조선불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불교개혁운동에 나섰다.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복잡한 전통예불의식을 과감하게 고쳤다. 이 과정에서 누구나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의 필요성을 느껴 용성 스님은 직접 찬불가를 작사 · 작곡을 했다. 그렇게 해서 1927년 찬불가 운동이 시작됐고, 1960년대 운문 스님이 서울 조계사에 어린이 법회를 창립해 가사를 짓고 작곡가에게 작품을 의뢰하면서 찬불가는 급성장했다. 1970년대는 찬불가의 용어가 일반화되면서 조계종이 주최한 찬불가 공모를 통해 최영철의 '삼귀의'와 '사홍서원'이 탄생하면서 찬불가가 활성화 된다. 그러나 찬불가가 발전된 것에 비해 소화해줄만한 전문합창단이나 연주단이 부족한 것은 찬불가 발전의 취약점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아있다.

OECD 세계 문화관광 상품 선정

2002년 김천 직지사에서 주한외교사절단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찰체험은 현재 2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체험한 '템플스테이'의 첫 행사였다. 2002년 한 · 일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도입된 템플스테이는 매년 참가자가 30% 이상 증가하며 성장, 200만 명에 달하는 내 · 외국인이 체험했다. 2009년 OECD는 '성공적인 5대 세계 문화 관광 상품' 중 하나로 템플스테이를 선정하기도 했다.

2002년 당시 10여개 뿐이던 참여사찰은 현재 120여 사찰이 한국전통문화를 알리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 9월 UN WTO 관광과 성지순례 국제회의에 종교관광의 우수 사례로 참가해 템플스테이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스마트폰으로 스님과 소통

스마트폰의 상용화는 자연스레 불교의 현대화를 가져왔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포교방편으로 활용하는 스님과 불교계 단체들이 늘게 된 것이다. 스님들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로 신도들에게 맞춤형 법문을 펼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법륜 · 혜민 스님이다. 혜민 스님은 트위터를 통해 종교와 인종, 가치관을 뛰어넘어 인생의 잠언을 들려주었고, 법륜 스님은 '법륜 스님의 희망편지'란 이름으로 125만명이 넘는 카카오스토리 구독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국민 멘토'로 자리잡게 됐다.

부산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은 밴드와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아침마다 경전이나 어록, 사진을 올린다. 2000여 명에 달하는 신도들은 스님의 '아침편지'를 보고 감사의 댓글을 올린다. 세월호 참사로 최근까지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서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해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도 SNS를 통해 현지 소식을 알려주며 불교계의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불교의 현대화를 위한 제언

"불교 현대화…스님 · 사찰이 함께해야"

도심 불교 및 템플스테이가 폭 넓게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명암도 반드시 있다.

도심의 대형 사찰을 제외하고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사찰 활성화가 저조한 상황이며, 신도시 포교는 기독교에 잠식돼 거의 손을 놓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신도시 지역에 거점사찰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이고 효과적인 포교방법이다. 그러나 거점 사찰 건립에는 많은 돈이 투입 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교문화원 등과 같은 소규모 시설을 바탕으로 지역조직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단 차원에서 포교발전방향을 수립해 모든 사찰이 도심 포교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대형 사찰의 신도수 확보는 작은 사찰의 신도들이 옮겨간 것일 뿐 무신자나 타종교인들이 옮겨간 것이 아니라는 데서 별 의미가 없다"며 "대신 어린이, 학생, 청년, 가족법회, 문화예술법회 등 계층과 직능법회의 활성화를 목표로 모든 사찰이 법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는 불교 전통문화 컨텐츠를 잘 활용한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템플스테이를 제외하고는 불교문화를 대중에게 쉽게 알릴만한 방법이 마땅히 있는 것도 아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불교 전통문화 프로그램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법현 스님은 "우선 스님들이 불교전통문화를 이해하는 교육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청규와 의례집을 중심으로 하고 근래에 나온 불교문화 책자를 중심으로 공통의 교재를 마련하고 교육과정을 통해 기본교육을 실시한 뒤에 보수교육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개신교와 천주교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종교교육의 과반 이상의 퍼센트를 의식과 문화 프로그램이 차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생통과의례와 불교의 통과의례를 세분화해서 사찰법회를 중심으로 정착,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현 스님(열린선원장)

"스님들 불교전통문화 이해 하는 교육과정 도입해야"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불교문화원 등 시설 건립 도심공동화 막을 수 있어"

김응철 교수는 "문화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불교전통 문화는 확산될 수 있다. 전통문화 교육에 필요한 민간자격증제 도입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글 의례의 대중화 · 저변화 속도가 더딘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한문으로 다 외우고 있는 불자들은 굳이 한글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스님부터 숙지하고 의례 봉행 때 지속하면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법현 스님은 "정립한 의식문과 음성 및 동영상 자료를 사찰과 각급 신행단체에 널리 보급해서 활동하도록 도와주고, 각급 보수교육에서 활용법을 지도해야 한다"며 "법요집에 구분된 역할을 수록해 누구나 법회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불교텔레비전과 불교방송 등 각 매체들의 활용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법현 스님과 김응철 교수는 법회의 의식을 현대화해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창간 20주년



한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시는

禪本寺

선본사 갓바위 부처님

하시는 모든 일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빛과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조용히 멀리 울려
퍼집니다.

≪ 주지 성본 합장 ≫

기도 및 불사안내

◈ 수능고득점기원 철야정진기도 :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 철야정진기도 : 매주 토요일 밤 10시 ~ 03시 (신묘장구대다라니)
◈ 선본사 극락전 개금. 복장 불사 : 동참금 1인 30만원
대구은행 504-10-181303-0 (대한불교조계종선본사)

갓바위는 스님들이 24시간을 신도와 같이 정진하는 기도처 입니다.

주소 : 경상북도 와촌면 갓바위로 699 / 전화 : 053)851-1868~9

대한불교조계종 직영사찰 선본사(갓바위)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 1동 522-1 ☎ 051)403-7077

준비된 원력과 실천이 세계화의 지름길


숭산 스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세계일화대회. 한국불교 세계화의 모범 중 하나다.


2011년 10월 프랑스를 순방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파리 7대학을 둘어보고 있다.



올해 8월 6일 열린 전통산사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 발족모습.

불교의 세계화

불교의 세계화는 '한국불교를 세계에 어떻게 알려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과제다. 세계화(Globalization)으로 대변되는 21세기의 화두는 한국불교에 당장 직면해 있다.

당장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의 선교사 파송 보고에 따르면 이들이 파견한 선교사는 169개국 2만 3331명에 달한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세계화 시대에서 세계 속의 주력 종교로 남지 못한다면 도태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노력은 꾸준히 있어왔다. 현대 선지식인 구산 스님은 미국 LA 고려사(1979년), 스위스 불승사(1982년)와 미국 카멜 대각사를 창건했으며, 1973년에는 조계총림 불일국제선원의 문을 열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구산 스님에게 간화선을 지도받았던 외국인 제자 중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로버트 버스웰 교수를 비롯해 에콰도르 키토대학의 르노 네우바우 교수 같은 지식인들도 포함돼 있다.

한국불교 세계화 불사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선지식은 바로 숭산 스님이다. 한·일수교 직후인 1966년 일본 신주쿠에 홍법원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40년 넘게 전 세계를 돌며 한국 선불교 해외 전파에 앞장섰다. 외국인 스님 가운데 숭산 스님의 직계제자만 해도 50명이 훨씬 넘는다. 이와 함께 법안 스님과 경암 스님도 미주 해외 포교사에 한 획을 그었다.

이런 노력으로 한국불교는 27개국에 160여 곳의 사찰을 건립하고 포교를 하고 있다. 조계종 해외 소속 사찰은 146곳이며, 태고종은 12곳, 천태종 사찰 2곳, 진각종 심인당 2곳이며, 이중 조계종 한마음선원 해외지원은 10곳으로 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사찰들은 현지인과 재외 한인에 대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으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사업을 꼽을 수 있다. 현재 불교계가 중점적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통 산사와 연등회, 발우공양 등이다.

숭산 스님 등 해외포교 선구자 다수
세계 26개국에 韓 사찰 설립·운영
전통산사 등 세계유산 등재 추진

많은 노력에도 개신교 공세에 고전
한국불교 알리기와 재외 한인 포교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세계화 완성
在獨 한인 포교, 세계화의 모범 사례

전통산사의 경우 지난 8월 6일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가 발족해 조계종과 문화재청을 비롯한 14개 기관과 세계유산 등재 대상 전통산사인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봉정사, 부석사, 통도사 등 7곳 사찰이 등재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협약을 맺었다.

연등회와 발우공양은 서울시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해 뛰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연등회는 우리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선정됐으며, 불교의 식사 의례인 발우공양은 평등, 절제, 공동체, 생명존중사상을 담고 있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외에서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불교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는 티베트 불교나 일본 불교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선(禪)불교의 정수를 자랑하는 한국불교는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넓지 않는 것이다.

재외 한인 포교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가장 많은 교민을 가진 미국의 경우 개신교는 압도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가운데 기독교 신자의 비율은 71%였다. 이는 한인 10명 중 7명이 교회나 성당에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61%는 개신교이고 10%가 가톨릭 신자였다. 불교는 6%로 무종교인(23%)보다도 작았다. 단순 수치로만 보면 개신교는 불교보다 10배 높은 신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권 미주불교신문 편집장(조계종 국제포교사)는 "이민자 불교로서 불자들의 현실과 필요에 맞는 불교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과 배려가 타종교에 비하여 부족했다"면서 "현장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조계종이 특별교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교민 포교는 해외 교민 전법에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유럽에서 독일 교민은 영국 다음으로 많다.

만프레드 후터(Manfred Hutter) 독일 본대학 아시아연구소 학장이 〈불교평론〉 가을호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3만2000여명에 달하는 독일 교민 가운데 불자 인구가 1만명으로 다른 종교에 비해 가장 많았으며 개신교 8000여명, 가톨릭 4000여명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만여 명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후터 교수는 독일 내 한국불교가 짧은 기간 동안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한마음선원과 베를린 국제선원, 독일 관음선종 3곳의 한국사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은 매해 가을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 참여하며 방문자에게 한국불교를 알리고 있는 사업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후터 박사는 "국제적인 행사에서 정기적으로 불교 서적을 소개하고 설법을 함으로서 한마음선원의 신도들은 많은 방문자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리고 있다"고 "독일 불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베를린 국제선원에서 진행되는 용맹정진과 참선수행은 선 수행을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故 숭산 스님이 설립한 관음선종은 스님의 강연을 기초로 한 서적 발간과 정기적 용맹수행으로 불교적인 배경이 없이 성장한 서구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사실상 뛰어난 원력과 실력을 가진 해외 포교 출재가 요원과 거점이 될 수 있는 사찰이 운영될 때 해외 포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전문가들 역시 해외 포교를 통한 한국불교 세계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해외 포교 거점 사찰 건립과 뛰어난 실력을 가진 포교 인력, 체계적인 수행 프로그램 운영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로자나국제선원 자우 스님은 "그동안 해외포교는 몇몇 원력 있는 스님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스님들의 일신 상 변화로 포교가 한 순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해외 사찰과 종단 간의 유대 강화, 해외사찰 활성화를 위한 승가인력 양성 및 파견,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 해외전략과 활발한 활동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종단 관할 사찰 · 인력 · 프로그램
'3박자'가 세계화 불사의 초석

불교 세계화를 위한 제언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노력은 1960년대부터 선각자 스님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있어왔고, 세계 각국의 한국 사찰 건립으로 이어져왔다. 많은 노력이 있어왔지만 한국불교 세계화의 현주소는 밝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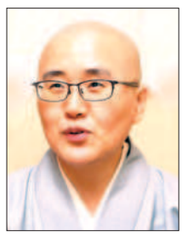
이에 대해 이종권 미주불교신문 편집장(조계종 국제포교사)는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봤을 경우 한국불교가 세계화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노력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됐는지를 성찰해야 한다"면서 "작금의 현실을 비춰볼 때 아직까지는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구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아무리 높다 한들 거기에서 한국불교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관한 이야기에 불과하다"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우리의 불교를 전달함으로써 새로운 불국정토의 건설에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불교가 일본과 티베트 불교보다 인지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학 실력의 부족에 대한 원인이 크다. 어학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가 아닌 당해 국가의 문화를 함께 습득한다는 점에서 한국불교의 영어 교육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비로자나국제선원장 자우 스님은 "달라이라마도 일본불교의 선사들도 영어를 잘하고 당해 국가의 문화를 이해했다. 숭산 스님도 그렇게 하셨다"면서 "실제 티베트가 인도로 망명하면서 많은 림포체들이 미국 대학에 공부하며 포교를 했다. 이것이 기반이 돼 달라이라마가 미국에서 쉽게 지도자들을 만나 법을 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종권 편집장은 어학과 함께 수행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학실력도 중요하지만 수행력도 담보돼야 한다"면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해외 공연을 한 번하지 않고 세계적인 유명세를 탔다. 분명한 것은 서양인들은 스님의 유창한 영어가 아니라 어눌한 영어 속에서도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삐져나오는 수행력을 본다"고 말했다.


자우 스님


이종권

어학 실력 있는 포교 인력 양성
'囊中之錐' 법문의 수행자도 필요

종단이 운영하는 사찰 건립해야
일관성 있는 포교 · 수행 지원 가능
국내 외국인 대상 전법도 시급해

전문가들은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서는 종단이 직접 운영하는 사찰과 해외 포교의 원력과 실력 있는 출?재가 포교 인력, 서구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사업들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도 제안했다.

자우 스님은 "더 이상의 각개전투는 그만둬야 한다"면서 "종단이 직접 나서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 해외 포교 원력과 실력이 검증된 스님과 포교사가 파견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증된 스님과 포교사가 활동할 수 있는 종단 해외포교 거점 사찰도 건립돼야 한다"면서 "원불교는 뉴욕주 클래버랙에 15만평 부지에 '원다르마 센터'를 세웠고, 최고 법계인 종법사 등 우수 해외 포교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불교도 세계화를 원한다면 거점 사찰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종권 편집장은 "해외포교 전략을 종합적으로 집행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과연 실재하는가, 그리고 그런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활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종합적 컨트롤타워를 통해 해외포교 전략이 나오고 수행 프로그램들이 일원화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포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을 통해 본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한국불교를 알게 되고 해외 포교 프로그램을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이다.

자우 스님은 "선원에 오는 외국인들이 아쉬워하는 것이 한국불교를 알 수 있는 통로가 템플스테이정도이고 그것도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며 "외국인들을 위한 수행프로그램과 관련 서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시대에는 국내외가 없다"면서 "한국의 외국인들을 불자로 만드는 것도 세계화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신성민 기자

창간 20주년





날선 비판·신해행증 양단에서 발전 모색

진단 불교언론의 나아갈 길



전법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 '언론'
해방 이후 매체 다변화 흐름
2000년대 인터넷 매체 폭발증가
"불교언론의 몫은 '힐링 매체'"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 등 매스 미디어의 급격한 발전으로 세계는 그야말로 한가족인 시대를 맞았다. 인간은 한시도 이러한 매체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특히 스마트 미디어의 발달로 매순간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불교언론은 오래 전부터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불교 언론의 태동

사실 현대의 포교에 있어 불교의 가르침을 신문과 잡지, 라디오, TV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

부처님께서 1250명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설법한 경전의 표현보다 수백 배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렇다면 한국불교의 대중매체를 통한 포교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 발자취를 더듬으면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0년 12월 원종(圓宗) 종무원이 잡지 〈원종〉을 펴낸 것이 최초의 시도로 보인다(불교기자협회 10년사)

일제시대 출판물에 대한 단속은 엄격했다. 국내에 발행된 잡지는 대부분이 종교잡지였다. 신문으로는 이에 앞서 1902년 일본불교 정토종이 당시 서울에 설치한 동양교보사에서 펴낸 〈동양교보〉가 최초의 종교신문으로 기록돼 있다.

해방 직후 불교계는 친일잔재 청산에 나섰다. 언론 분야도 마찬가지로 1946년 3월 1일 〈신생〉이 새롭게 태어났다. 신생은 같은 해 10월 종간됐지만 당시 몇 안 되는 불교잡지 중 하나였다.

1946년 5월 1일에는 월간 〈불교신보〉가 창간됐다. 〈불교신보〉는 해방공간에서 활약한 혁신운동을 알려주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1950년 4월 〈동대신문〉, 1951년 후반기에는 주간 〈불교신문〉, 1957년 종합잡지 〈녹원〉과 〈불교세계〉 등이 창간됐다.

이후 1960년대는 불교언론사에서 일대 전기가 됐다. 현 불교신문의 전신인 〈대한불교〉가 창간되며 월간 단위였던 불교계 매체가 대거 주간으로 전환한다.

종교매체란 전문성으로 1980년대 중반까지는 잡지가 불교언론의 중심이었다. 1959년 잡지 〈현대불교〉에 이어 1962년 〈불교사상〉 1964년 〈불교생활〉 1966년 〈백련〉 1967년 〈불교계〉 1969년 〈불교문화〉 등이 이어진다.

1982년에는 사보의 큰아버지 격인 〈해인〉이 창간됐으며 1985년 천태종이 〈금강〉 등을 펴냈다.

1986년 5월에는 격주간 신문 〈불교회보〉가 〈주간불교〉로 제호를 바꾸어 발행됐으며, 1988년 〈법보신문〉이 창간된다. 1989년 10월에는 〈제주불교〉 등 지역 불교계 신문도 발행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불교언론계는 많은 잡지와 사보, 신문들이 창간됐지만 재정 영세성이 발목을 잡았다. 이에 불교언론계의 힘이 모여 탄생한 것이 한국불교기자협회다.

1989년 11월 출범한 한국불교기자협회는 기자들의 상호 자질향상과 권익옹호를 통해 언론발전의 초석이 되고자했다.

1990년대 불교계는 방송을 통해 포교를 시작했다. 1990년 5월 라디오방송인 BBS불교방송이 개국했다. 서울경기 일대를 가청권으로 방송을 시작한 이후 1994년 부산과 광주 등으로 가청권을 넓혀갔다.

1994년에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이 출자해 주식회사로 출범한 〈현대불교신문〉이 1994년 10월 15일 창간호를 내고 신행 · 포교 전문지로의 첫발을 디뎠다. 불법의 현대화 · 생활화 · 세계화를 위해 창간된 〈현대불교〉는 1997년 4월 20면, 1997년 10월 24면, 2002년 10월 28면 및 섹션 도입, 2011년 32면 등으로 증면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인터넷 시대는 위기이자 기회

2000년대에는 인터넷이 보급되며 다양화됐다.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등 전문 인터넷 매체를 비롯해 현대불교신문(www.hyunbulnews.com), 불교신문, 법보신문 등 불교계 신문들은 주간신문의 한계를 넘어 일간 또는 실시간 체제로 뉴스를 서비스하고 포털 사이트 검색 서비스를 통해 불교 언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현불뉴스는 불교계 인터넷 언론과 방송들은 기사와 동영상, PDF 서비스, 실시간 방송 등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하며 어느 때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불교TV, BBS불교방송 등의 불교 방송 매체들은 기존의 방송 서비스에서 뉴스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종이신문 방식으로는 한계에 맞닿은 결과이기도 하다. 잡지와 신문은 그동안 텔레비전과 함께 균형적인 언론영역의 발전을 도모해 왔으나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언론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생존방식을 요구받고 있다.

신문은 사양산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력을 유지하며 생존할 수 있을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 따라서 기존 언론의 사명과 기능자체도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김무곤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러한 급격한 매체환경의 변화는 앞으로 더욱 더 가속화하면했지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매체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은 불교언론에도 변신을 요구하여 새로운 정체성 모색에 나설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패 막는 소금, 신심 고취의 중도점 찾아야

그동안 불교계 언론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재 인터넷 매체를 제외하고서도 한국불교기자협회에 가입한 언론매체는 총 16개에 달한다. 단위사찰이 운영하는 회보나 메거진의 형태에서 신문매체와 공중파 라디오방송, 케이블 텔레비전방송까지 다양한 형태의 매체 등이 불교언론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언론은 양적인 발전에 비해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받는다.

하춘생前불교기자협회 회장은 "전문언론매체로서 정확성과 심층성을 띈 기획기사와 해설성의 보도를 지향해야 함에도 예전에 비해 최근에는 이러한 기사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매체의 발달 속에 종이신문의 미래에 대해서는 하 前회장은 "불교계 신문은 아직 그 가치가 유효하다. 장년층 신도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신문이 주는 메시지는 앞으로도 포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문제는 속보성 등에서 인터넷과 경쟁이 되지 않음에도 이에 따라가고 있는 점이다. 보다 유익하고 감동적이며 전문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기능과 전법 포교매체로서의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불교언론이 향후 지향해야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기자정신을 새롭게 함과 동시에 재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불교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고언도 이어졌다.

이학종 미디어붓다 대표는 "작금의 불교매체를 살펴보면 영세함으로 인한 투자결여와 별개로 개별기자들의 전문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불교계 언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자들이 중심에 있는 만큼 불교계 기자 개개인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재 불교언론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예전에 비해 좋은 인재가 부족하며 이러한 인적자원의 부족은 불교언론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자들의 노력과 함께 건전한 불교언론의 발전을 위한 불교계의 아낌없는 관심과 후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판기능과 신심증강의 양단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북 스님은 "불교언론은 불교계 부패를 막는 소금같은 역할을 해야한다, 이러한 날카로운 비판기능이 살아있을 때 발전할 수 있다"며 "불교계의 썩은 곳을 드러냄과 동시에 반대로 신심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감동을 주는 기사가 필요하다. 이 두 방향의 중도점을 찾는 묘미를 각 불교언론사가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 언

사회의 목탁으로 향도적 역할 기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에 월계관을 씌워 미화할 때 흔히 '사회의 목탁' '무관의 제왕' '제4부'라고 한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을 국가 권력의 중추인 입법 · 사법 · 행정부와 대등한 역할을 하는 '제4부'라고 치켜 세운다. 구차한 설명이 없어도 민주사회를 실현하는데서 언론이 담당하는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불교언론도 분명히 언론이다. 비록 세속 사회의 정치 · 경제 · 사회 문제를 다루지 않고 불교문제에 국한하는 전문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기능과 사명은 언론학적인 원론을 벗어나지 않는다. 불교언론은 세속을 정화하고 앞서 이끄는 공령(空靈)한 정신과 도덕적 사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차원 높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맞아 오늘의 한국불교 언론 현실을 자성해 보는 두가지 고언을 하고자 한다.

'사회의 목탁'이라는 언론의 월계관은 목탁이라는 용어부터가 불교에서 유래했다. 오늘의 한국불교 언론은 '목탁'이라는 비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목어(木魚)에서 유래한 불교집안의 목탁은 불가의 법도와 정신을 상징하는 법구다. 불가의 모든 법요식은 목탁소리를 따라 진행된다.

목탁이 본래 물고기 모향을 취했던 것은 물고기가 잠을 잘 때도 항상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성성적적하게 깨어있고 혼침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이는 좁게 보면 선방납자들의 수행을 독려하는 것이지만 불교언론을 비롯한 불가의 모든 작법(作法)에 적용되는 경책이다.

목탁소리는 불가에서 인간 생존의 기본이 되는 공양과 수행의 기본인 예불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고, 대중 운력(運力)을 이끄는 향도의

자성과 참회 수반할 때 진정한 포교
불교의 지혜 보시하고 불국토 불사 이끌어야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백장청규〉에 따르면 아침 · 저녁 공양에는 2번, 대중운력에는 1번을 친다고 했다.

불교언론은 불가의 가장 큰 목탁이다. 가운데의 긴 구멍과 바로 옆의 두 구멍이 각각 물고기의 입과 눈을 상징하고 있는 목탁은 바로 불교언론의 매체들이고 불교언론인의 두 눈이다.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목탁인 불교언론인 등이 과연 불교를 인류 최고의 고등종교로 자리하게 하는 향도적인 비판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불교언론은 대체로 종단 배경의 포교목적을 가진 기관지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포교는 자신의 뼈를 깍고 살을 베는 자성과 참회를 수반할 때 중생구제의 원력에 진정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승려의 품위나 자질을 손상시키고 세속 평균을 훨씬 밑도는 저질스러운 일부 승려의 작법과 세속 상업주의를 무색케 하는 세속화 등에는 가차없는 비판을 가해야 한다. 일반언론에 이같은 비판기능을 떠 넘기는 자세는 옳지 않다. 내부적인 비판과 참회가 훨씬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다.

불교언론은 불교의 예언자적 사명과 향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불교언론은 인류의 보편윤리에 반하는 탐욕을 선지자적 입장에서 경고하고 그 재앙을 알리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 불교언론인의 실력이 미치지 못하면 불교학자, 경제학자들의 식견이나 세계적 석학들의 지혜를 빌릴 수 있다.



가십성 기사와 추잡한 종권다툼을 대서특필하는 것이 불교언론의 비판 기능이 아니다. 영험이나 공덕을 신화화하고, 선전하는 것이 불교언론의 포교역할도 아니다. 시대가 인구하는 불교적 지혜를 보시하고 현세적 불국토를 건설하는 불사를 앞서 이끄는 것이 불교언론의 나갈 길이다. 이은윤 前중앙일보 종교전문대기자

생전예수재 장엄 안내문



귀의삼보하옵시고!

가람수호에 정진하고 계시는 각 사암 대덕큰스님 법체 존안하시옵니까.

소승은 대구시내에서 불교의식 및 범음, 범패교육원을 개설하여 불교의식을 지도하고 있는 원장(동현)스님입니다. 올해 소승이 4년마다 돌아오는 윤달이 들어있는 갑오년을 맞아 예수재 장엄일체를 제작하였습니다.

부족하나마 50년을 불교의식을 해온 것을 토대로 의식에 밝은 스님들의 고견을 얻어 장엄을 준비하였습니다. 처음예수재를 올리시는 각 사암 스님들을 위하여 올바른 재단 설치와 번 설치 순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예수재장엄 구입방법은 전화로 접수하여 주시고 받으실 주소와 사찰명,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물품대금은 선결제입니다.
통장 입금 확인후 3일 이내에 택배로 배송해 드립니다.

- 물품구입처 : 대구불교 의식 범음,범패 교육원
- 계 좌 번 호 : 대구은행 508-11-906861-6 (예금주 : 주동주)
- 예수재 의식을 집전하실 스님도 알선해 드립니다.

대구불교 의식 범음,범패 교육원장 석 동현 합장

동현스님 장엄 (생전예수재)

상표출원번호 제 40-2014-0040849호

1 대번


2 상단,중단,하단 위패


3 시왕단


4 26위판관 / 37위귀왕


5 사자단


6 고사단


7 영단


8 금란방, 정제소


9 예수시왕도량


10 일백사위 사화


• 주 소 : 대구시 수성구 범물2동 871-1번지 • 문의처 : 전화 053)781-4200 / H·P 010-2547-4200

은혜갚은 소금 '보은염' 이야기를 아시나요?



… ¿ » ¿ • · … — ″ ^ • † ¿ , • , • ¿ ¯ 1,500‡ `‡ • ¿ •.″ ¿ ‰ … • — `, … ¿ » ` `„ , ‰ • · •.

선운사의 보은염 3가지
자염, 황토소금, 천일염

선운사 보은염 판매 수익금은 선운사 복지재단이 주체가 되어 복지기금과 교육시설에 재 투자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운사 복지재단 063-561-1422



보은염 제조과정



1. 염전갯벌갈이

바닷물이 빠지면 소를 이용하여 격자형태로 10여 차례 갯벌을 써레로 갈아엎은 후 건조시켜 염기가 높은 갯벌 흙을 얻습니다.



2. 섯 구덩이 파기

함수(바닷물)을 걸러내는 곳이며 보통 '무쟁이' 4명이 작업을 참여하여 지름 1m, 깊이 60Cm로 삽을 이용하여 팝니다.



3. 우물 염정 파기

섯구덩이 옆에 폭 1m, 깊이 70-80Cm의 우물을 파고 판자로 우물벽을 만들고 바닥을 섯 구덩이와 연결합니다.

4. 소나무와 마랑깔기

섯 구덩이 안은 우물을 향해 시선으로 골을 내고 소나무와 이엉 등을 넣고 그 위에는 잡목과 짚으로 엮은 마람을 깔아줍니다.



5. 함토 모으기

섯구덩이에서 파낸 흙은 섯구덩이의 네곳 구석에 모아두고, 소로 간 갯벌 흙을 소와 가래를 이용하여 구덩이에 넣습니다.



6. 함수 모으기

섯구덩이를 통해 걸러진 진한 염도의 함수를 염정에 흐르게 합니다. 함수의 적당한 농도인 17-18도에 맞춥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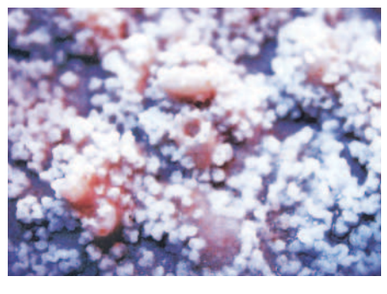
7. 함수 옮기기

송진을 이용하여 염도를 측정한 후 추출된 함수를 물지게를 이용하여 벌막안에 마련된 우물로 옮깁니다.



8. 함수 끓이기

벌막안의 가마에서 함수를 끓여 소금을 얻으며 보통 한가마에 30점의 물(60동이)이 들어가며 24시간동안 끓입니다.



9. 소금 얻기

소금이 모두 내려 앉으면 당그레로 소금을 걷어서 가마구석에 4개의 소쿠리를 얹어 소금을 담고 물이 빠지면 저장고로 운반됩니다.

검단선사가 일러준 소금만드는 방법이 양민 살리는 계기가 되어…

… ¿ » ¿ • · … — ¶ • , • ¿ ¯ 1 5 ‡ `‡ • ¿ • … ¿ » • „ ` • ¿24‡ 57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이 생산하고 고창군이 지원, 사찰은 판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 … » • • • „ · — ¨ … 1 5 ‡ — ¯ ¿ • i , 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5 ‡ — ¯ ¿ • i , i … ¿ » ¿ ` ¿ „ … • » » · … 1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1‡ i ¶ » , ‰ `i· ` ` 2 13‡ ‡ ‰ ˜ ¿ ..i » „ — ″ ` ¿ 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족간 신행공동체… 종교갈등 극복 지름길

가족신행공동체 왜 필요한가?

〈로마제국 쇠망사〉를 쓴 18세기 영국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강성했던 로마의 쇠망 이유 중 첫 번째로 가정 붕괴를 꼽았다.

쾌락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하며 가정 규범을 무시하면서 모든 것이 연속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이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 이혼율 OECD 국가 중 1위,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 아동학대 건수 13000여 건, 끊임없이 늘어나고 기생하는 향락 문화, 쾌락주의, 극도의 개인주의 등의 만연은 우리 사회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나라 가정들은 서구화된 삶의 모습과 외환위기 같은 시대적 변화를 겪으면서 가정의 해체를 겪는 모습이 급증했다. 특히 혼인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면서 독신과 동거 가정이 크게 늘고, 이혼 증가에 따라 재혼 가정도 꾸준히 늘어갔다. 싱글맘, 싱글대디 뿐 아니라 리틀맘 등으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 (편부모 가정)을 비롯해 독거노인 가정, 노인부부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등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렇게 가정의 틀이 바뀌거나 붕괴되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각 구성원들 즉 가족들의 의식과 가치관, 관계까지 변화시킨다. 즉 긍정적인 가정 모델이 없어지는 것이다.



가족 구심점 필요성 높아

이러한 '가정의 해체' 가 불자 가정도 예외가 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불자들이 불교에 기대하는 부분은 크다. 불교사회연구소가 2014년 조사한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여론조사' 에 따르면 종교에 기대하는 역할은 고통과 슬픔, 좌절에 대한 위로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부여가 23.2%로 조사됐다.

특히 '고통과 슬픔, 좌절에 대한 위로' 에 대한 역할응답은 불교신자가 44.1%로 답해(가톨릭 39.6%, 개신교 39.3%) 이 부분에 대한 불자들의 기대치가 높은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사찰에서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였더라도 이혼, 재혼, 또는 사별, 결혼 후 독립한 자녀들이나, 독거 어르신들이 사찰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에게 적극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정 붕괴 상황에서 이웃종교계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 기독교계는 '가정 사목과 복음화' 를 주제로 예전부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세기에 걸쳐 '가정' 이란 기본공동체에 기반한 신행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가톨릭은 사목 헌장에 혼인과 가정의 가치를 밝히는 한편 성직자, 교회단체, 부부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역할들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란시스코 교황이 "신앙은 인간의 도성에 빛을 비추는데 그 첫째 자리는 가정"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가족 단위의 신행공동체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20년째 법안정사 부부법회에 나가고 있는 안선재 부부법회 자문위원은 "부부가 함께 법회를 비롯한 신행활동을 하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자녀들이 법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함께 사찰 봉사활동 등을 하며 신행을 공유하는 것이 결속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조직 구성의 최초 단계는 가족이다. 불교가 이 시대에 자기 역할을 찾고 살아 움직이는 포교를 통해 대중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고려한 신행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연구소장 가섭 스님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의 첫 단추는 불자 개개인 보다 불자들이 가족신행공동체를 이루게 해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족 인식 개선, 소외 가족 보듬기에도 나서야

최근에는 혼인이나 혈연을 중심으로 맺어진 전통적 가족 외에 지속적인 연대의식으로 일상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집단까지 가족 개념에 포함됐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자세는 가족에 대한 전통개념과 차이가 있다고 해서 현대 가족 형태를 '문제 가족' 혹은 '결손 가족' 으로 보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계가 가정 신행공동체 형성에 보다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불자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신행공유 가족간 결속 구심점 역할
마음수행공부 공동체 결성에 효과적
이웃종교 가정사목 성공 모델로 꼽혀

세대의 종교관 차이를 극복하는 해법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불교사회연구소가 2014년 1500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사찰 의식 참석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가족신행공동체 구성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만 16~19세 33%, 20대 35.6%, 30대 41%, 40대 42% 50대 45.2%, 60대 53.5%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사찰의식 참여의사가 극명히 나뉘었다.

김용표 동국대 교수는 "기독교 신자 가정은 대부분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불자 가정은 가정의 구성원 일부가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종교로 인해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자인 부모들이 노년에 자식들의 종교로 개종하기도 한다"며 "자녀세대가 어릴때부터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신행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0여 년 넘게 가족법회를 진행해오고 있는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 스님는 가족관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가족에 대한 신행프로그램도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현 스님은 "한국불교계는 그동안 해체된 가정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다"며 "이혼 · 재혼가정, 미혼모 가정 등 소외된 이들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내외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불교계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경전속 '바람직한 가족관계'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천륜이라고 하여 하늘이 내린 것이라 하였다. 이에 비해 불교에서는 '보은' 의 개념으로 합리적인 관계로 인식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진보나 주옥, 산호를 부모의 몸에 달아드린다 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부처님은 부모가 살생을 좋아하면 자식된 자는 간해서 그치게 하며, 악한 마음이 있으면 간해서 선을 염하게 하며, 어리석고 지력이 둔해 불법을 모르면 진리를 일러주며, 선악을 모르면 차례로 유순히 일러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단순한 봉양뿐만 아니라 진리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 효임을 밝힌 것이다. 이는 자식과 친척에 까지 확장돼 서로 경애할 뿐만 아니라 가르침과 계율을 지키는 것을 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시대가 흐르고 사회가 변하며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관계 등 가정의 구조가 변하고 있다. 불교 경전에서 강조하는 가족의 개념을 다시금 되새겨 볼 시점이다.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 · 형제 · 부부 · 가족, 안팎의 친척 사이에 서로 경애(敬愛)하여 미워하지 않으며, 유무상통(有無相通)하여 아끼는 일이 없으며, 말과 안색이 늘 화평하여 서로 뜻이 어긋나지 말도록 해야 한다.

〈무량수경〉(無量壽經)

▲사람은 마땅히 다섯가지 일을 가지고 친척을 경애(敬愛)해야 한다. 다섯가지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물질을 급여함이요, 둘째는 좋은말이요, 셋째는 이롭게 함이요, 넷째는 협력이요, 다섯째는 속이지 않음이다.

〈장아함경〉(長阿含經)

▲능히 신앙을 지켜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현세에 경사가 있어 복이 절로 좇아오게 마련이다. 복이란 행위에서 오는 과보(果報)일뿐, 결코 신(神)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다.

〈아난문사불길흉경〉(阿難問事佛吉凶經)

▲음식이나 진보(珍寶)만으로는 부모의 은혜를 갚지 못한다. 부모를 인도하여 바른 가르침으로 향하게 해야 부모를 섬기는 것이 된다.

〈불은의광경〉(不恩議光經)

▲부모는 자식을 돌보는데 있어 다섯가지를 행해야 한다. 첫째는 악을 떠나 선에 나아가도록 함이요, 둘째는 글을 가르침이요, 셋째는 가르침과 계율을 받들게 함이요, 넷째는 일찍 아내를 얻게 함이요, 다섯째는 집안에 있는 재물을 급여(給與)함이다.

〈육방예경〉(六方禮經)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회사 BORYEON 보련기획

자동 연등 승강 장치





인 등 시 공





만 월 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받습니다.



공 단 등



황 금 등

연 꽃 등



정품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2015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국6절 13매 (305×308㎜)
29호 12절 13매 (257×263㎜)

보련기획 H·P 010-9446-186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잃어버린 불심’ 되찾는 화목한 불사

가족법회 현황 및 현장

가족 해체라는 말이 만연한 요즘 가족법회는 가족간의 화합을 다지는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족법회를 가족간 의사소통의 매개체로 삼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필수덕목으로 삼아보면 어떨까? 부모 손잡고 자주 절에 오는 아이들은 사찰문화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면서 부처님 법을 접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부부끼리 신행활동을 하면 공통관심사가 생겨 대화 시간이 늘어나 가정의 화목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 가족 법회는 다양한 형식으로 각 사찰에서 진행된다. 부부법회부터 아기엄마법회까지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찰법회의 현장을 소개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①정토회는 최근 아기와 엄마가 함께 참여하는 아기엄마 법회가 신설돼 눈길을 끈다.

②조계종 해인사 포교원 정각사는 13년째 일요일 가족법회와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열고 있다.

③전북완주 안심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11년째 꾸준히 가족법회를 연다.

④매주 일요일 열리는 봉화 청량사 어린이 음악법회 모습.

22년된 법안정사 부부법회

법안정사(주지 효경) 부부법회는 22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재가자들끼리 힘을 모아 결성한 모임으로 현재 부부회원 173쌍이 활동하는 규모로 자리잡았다. 회원들의 회비를 통해 운영되며 법사초청 법회, 봉사모임, 산행법회 등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맹도연 회장은 “남편들이 절에 오기가 쉽지 않은데 부부법회이다 보니 아내의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법회에 참가하게 된다. 가정불교 생활불교를 모토로 법회 진행부터 운영까지 철저히 재가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기법회 외에도 1년에 한번씩 수행사례 발표, 음악회,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도 진행하고 인근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있다. 또한 법안정사의 어린이법회와 청년 법회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30, 40대에 법회를 시작해 꾸준히 신행을 해온 회원들은 이제 50, 60대에 접어들었다. 법안정사 부부법회는 이제 젊은층 흡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정토회, 아기엄마법회 신설

정토회(지도법사 법륜) 어린이 법회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아이들을 따라온 부모들을 위한 일요법회와 어린이 법회 수료생들을 위한 청소년 법회가 신설되는 등 꾸준히 그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아기를 데리고 법회를 참여할 수 있는 아기엄마 법회가 신설되는 등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법회가 눈길을 끈다.

어린이법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윤정 보살은 “1부는 예불을 드리고 2부에서는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놀이체험 위주의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법회는 월1회 아이들이 책을 읽고 주제를 정해 토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대학생이 된 어린이법회 출신들이 여름캠프 교사로 참여하는 등 꾸준히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정토회는 아기엄마법회를 열어 아기와 떨어질 수 없는 엄마들이 법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서초법당에서 시작해 올해는 마포법당에도 아기엄마 법회가 개설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마포법당 김건희 씨는 “정토회 마포법당은 성미산마을 아기엄마들이 힘을 모아 만든 법당이에요. 그런만큼 일요일은 아기를 안고 진행할 수 있는 법회를 마련했어요. 법회를 보다가도 아기가 밥 시간되면 밥 먹이고 잠 오면 재우며 법문을 들어요. 또 육아가 너무 힘들어 눈물을 흘리셨던 분들도 오셔서 마음을 나누고 위로받고 가는 곳이 아기엄마 법회라고 할 수 있죠.” 정토회마포센터는 앞으로 아기엄마 법회의 횟수를 늘여 다양한 시간대에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안심사, 큰 스님 초청 호응 높아

전북완주 안심사(주지 일연)는 11년째 꾸준히 가족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둘째주 일요일 진행되는 가족법회는 큰스님 초청법회, 찬불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진행되고 있다. 지방이지만 서울에서 버스로 내려올 만큼 안심사 가족법회는 인기를 모으고 있다.

주지 일연 스님은 “지난해 10주년 기념법회를 했어요. 초등학생으로 왔던 아이들이 벌써 대학생이 됐으니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은 젊은 스님들이 돌봐주고 부모들은 법회를 보도록 하고 있어요. 편하게 법회에 참여할 수 있으니 신도들이 고향에 오는 마음으로 절에 온다고 해요.”

앞으로 안심사는 다양한 교양강좌를 마련해 일요법회를 찾는 신도들이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각사, 법회 프로그램 다양

조계종 해인사 포교원 정각사(주지 정엄)는 13년째 매주 일요가족법회를 열고 있다. 산본 신도시에 위치한 사찰인 만큼 가족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것은 물론 어린이법회 중고생법회 등 다양한 계층포교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성인들을 위한 불교문화 및 교리 강좌 등으로 구성된 일요법회, 부모를 따라온 어린이들을 위한 연꽃어린이회, 학습능률 향상에서 봉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중고생 법회 등이 열리고 있다. 주지 정엄 스님은 “개원 이래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진행했다. 어린이 법회로 시작했던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가고 군에 갈만큼 성장했으니 뿌듯하다. 우리가 호흡을 하듯 물을 마시듯 가족법회는 당연히 필요하며 사찰의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족법회의 중요성을 이야기 한다.

청량사, 놀이체험서 밴드구성까지

봉화 청량사(주지 지현) 어린이 법회는 청량사의 최고 인기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주지 지현 스님이 관광객들을 위해 마련한 어린이 법회는 안동 영주 등 인근 어린이들이 참여하면서 현재 3년째 진행되고 있다. 합창단 합주부 등 취미활동은 물론 고무줄 · 공기 놀이까지 즐기며 주지스님과 고민상담도 할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을 따라온 부모들은 청량다회를 만들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성인 7인조 밴드 둥근 소리와 어린이 4인조 밴드 꼬마풍경을 창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계종 복지재단, 법문 차별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008년부터 사찰가족법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전국 사찰을 순례하며 생명의 존엄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가족관계향상, 건강한 노년문화만들기, 출산장려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강사를 섭외해 각 사찰에 특별법문을 진행하고 있다.

서찬수 팀장은 “부부와 가족 모두가 함께 일구는 행복은 물론 개인 · 가족 · 사회의 고통을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등 다양한 주제의 법회를 열고 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은 물론 가족 간 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족 간 관계로 재해석한 법문의 경우 모든 참가자에게 쉽게 불법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대관음사, 부부가 마주보며 108배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 바라밀부부회는 2004년 창립해 정기법회를 갖고 있다.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108배를 하며, ‘남편을 위한 발원문’ ‘아내를 위한 발원문’을 독송해 부부애를 돈독히 하는 것은 물론 모범이 되는 부부불자에게는 ‘부부바라밀상’ 등을 수여한다. 연말마다 경로잔치를 열고 홀몸어르신을 위해 ‘자비의 김치 나누기’도 실시하는 등 꾸준한 보시행도 이어오고 있다.

이밖에도 1995년 창립된 부산 혜원정사(회주 고산) 연꽃부부회는 150쌍의 부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넷째주 일요일 법회는 물론 경로잔치, 소외이웃을 위한 봉사활동과 재정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전국 가족법회 사찰

사찰명	내 용	전화번호
정토회서초법당	일요법회 및 어린이 법회 아기엄마 법회	(02)587-8990
법안정사	부부법회	(02)2646-4975
금장사	가족법회 어린이 법회	(02)395-0042
목동 국제선센터	일요 · 어린이 법회	(02)2650-2214
열린선원	가족법회	(02)386-4755
정각사	가족법회 어린이 · 청소년 법회	(031)398-8001
일산 여래사	일요가족법회 어린이청소년 법회	(031)905-7766
남양주 백천사	가족법회	(031)577-6433
전북완주 안심사	일요가족법회	(063)263-7475
부산 혜원정사	부부법회	(051)866-7771
한국불교대관음사	부부법회	(053)474-8228
대구서봉사	가족법회	(053)471-4812
봉화 청량사	어린이 법회 다도 모임	(054)672-1446
전북불교회관	일요가족법회	(063)277-3497

현대불교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직지直指’는 깨달음에 대한 선禪의 교과서
덕산스님의 안목으로 푼 선문답의 세계

돈오의 길 직지심경 (전 3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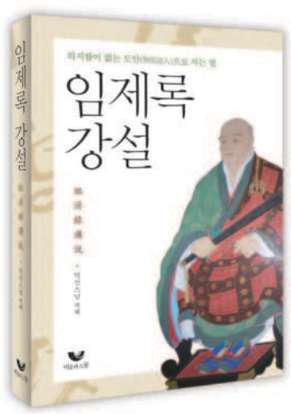
덕산 역해 | 신국판 | 흑백 | 전3권 42,000원
상권(216쪽 | 12,000원) 중권(344쪽 | 14,000원) 하권(540쪽 | 16,000원)

선(禪)수행의 지침서인 《직지심경》은 사람의 본래 심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佛心]’임을 깨달아 완전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실현하며 살라는 가르침이다. 덕산스님이 염불선(念佛禪)의 깨달음 체험을 바탕으로 선문답과 게송 등을 쉽게 설명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우주의 주인공, 걸림없는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라!

의지함이 없는 도인(無依道人)으로 사는 법

임제록 강설 덕산 역해 | 46판 | 흑백 | 432쪽 | 15,000원



‘선어록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임제록은 당나라 때의 고승 임제의현(臨濟義玄)선사의 독특한 가풍(고함지르는 할 · 喝이 대표적)을 보여주는 어록으로서, 실천적인 선(禪)의 진수를 설파한 명저다. 임제스님은 조계종의 선맥(禪脈)이기도 하며 일본 임제종의 연원이기도 하다. 덕산스님은 선(禪)의 세계를 바로 알리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구가할 수 있도록 법어와 선문답 등을 쉽게 풀이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www.hyunbulshop.com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세요!)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 입 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온가족 참여 가능한 '재가 강원' 만들자

가족공동체 사례 및 대안

#사례1 경북 경산의 정동승 씨(47) 가족은 매일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절기도를 한다. 남편 정 씨가 3백 배를 하는 동안 무릎이 안 좋은 아내 김희숙 씨(47)와 어린 세 자녀들은 108배를 한다. 이렇게 절기도가 끝나면 가족들은 능엄주 3독으로 일과 기도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정 씨는 매달 백련암의 아비라 3천배 기도도 빼먹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 정 씨가 절기도를 시작한지 3년째. 그동안 가족 간의 대화가 늘었고 웃을 일이 많아졌다. 절에 가는 일은 즐거운 나들이처럼 자연스럽고 즐거운 일이 되었다.

#사례2 조계사 청년회에서 봉사하면서 만나 결혼한 김대수(44) · 김령아(41) 부부는 세 자녀에게 별다른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대신에 조계사 유아 · 어린이 법회를 보내고 어린이합창단에 가입해 주말을 보내게 한다. 이렇게 아이들이 법회를 보는 동안 부부는 만발식당에서 어린이 법회 아이들을 위한 점심을 준비하며 자녀들을 기다린다. 부부는 아이들에게 별다른 욕심이 없다. 그저 부처님 품 안에서 기도소리 찬불가 소리 들으며 감사한 마음을 내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아이로 자라주었으면 한다.

#사례3 인천에 사는 김영애 보살(63)은 7년째 108산사순례단(회주 혜자)의 법회에 참여하고 있다. 남편 한청택 씨(70)는 매달 새벽 일찍 혼자 집을 나서는 아내의 강행군이 달갑지 않았으나 요즘은 함께 순례를 다니고 있다. 최근에는 백두산 캄보디아 등 해외순례까지 같이 가게 되면서 진정한 도반으로 거듭난 것이다. 한 씨는 아내의 신행활동에 서서히 물들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신행공동체이자 신행활동의 첫출발점이다. 그래서 가족에서부터 신행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동승 씨 가족처럼 수행을 통해 가족이 하나 되고 정대수 씨 부부처럼 신행활동을 중심으로 생활의 중심을 잡아가는 가족들은 종교가 가족의 화합을 도모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불교는 아직까지 가족단위의 신행활동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이 타종교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부모는 절에 가지만 자녀들은 좀더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많은 타종교를 선택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신행이 불자 가정을 만들고 사찰 신도의 연령층을 다양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족프로그램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불자 만들기의 첫걸음이 되는 가족 신행공동체는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가족과 신행하며 행복지수 UP↑
자녀들의 인성교육에도 큰 도움
어린이 법회시 부모 기도공간 필요



가정은 신행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가족공동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진 왼쪽은 조계사 생명살림 기도 행사에 참여한 김대수 · 김령아 씨의 가족. 오른쪽은 매일 가족이 모두 절기도를 하는 경북 경산의 정동승 · 김희숙 씨의 가족 사진

전북완주 안심사는 지방의 사찰이지만 가족 법회가 있는 날이면 서울에서 버스가 한 대가 올만큼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법회에 참여한다. 주지 일연 스님은 신도들이 주말에 절에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것이 안타까워 법회를 만들었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법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6~7명밖에 안됐지만 꾸준히 10년을 진행하니 현재는 평균 70명까지 오는 큰 법회가 됐어요. 가족법회는 노인부터 손자세대까지 다 끌어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해요. 사찰 신도들이 노령화된다고 걱정하지만 가족법회를 하다보면 자녀는 물론 손주 · 며느리까지 절에 오니 젊은 신도들도 절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죠. 포교 측면에서도 가족 법회가 중요하지만 가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구심점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가족 법회는 좋은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법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김령아 보살은 "아이들이 어린이법회에 참여하는 동안 기다리는 부모들을 위해 기도나 명상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처럼 사찰에서 계층별로 신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의 〈가족법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매뉴얼〉을 개발한 이영철 콘텐츠개발연구원장은 종단 차원에서 3년 정도의 장기 계획을 세워 가족법회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거 몇몇 분들이 가족법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정 개인의 역량에 의지하는 운영방식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단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운동차원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족식, 애니어그램 활용, 만다라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찰별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스님이나 전문법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소장은 이에 대해 온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재가강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기적인 워크숍을 개최 법회를 이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법회는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의 눈높이에 맞춘 법회를 가정에서 꾸준히 진행하기 위해 재가강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사실 신행활동을 하는 공간이 사찰이어야 할 이유가 없죠. 전문 인력이 부족한 불교계 현실에서 가족 단위의 법회를 가정에서 열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가족을 위한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자를 양성하는 첫 출발점이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족신행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가정에서 수행하고 보시 봉사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면 자녀들의 인성교육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부부 역시 부처님 법을 가정에서 실천하며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면 가족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삶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가족간 활발한 신행교류, 관계 회복의 해법

한국 이혼율 40% 넘어, 가족 해체현상 심각
가족 종교 활동 가정 화목에 큰 도움
가정서 매일 정진 자신 및 가족 삶 변화시켜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 에코붓다 이사)



법륜스님 즉문즉설의 대부분 주제는 부부간 갈등이 반을 넘게 차지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40%를 넘었다. 결혼한 사람중 절반이 이혼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놀랍고 55세 이상의 황혼이혼뿐아니라 신혼부부 2~4년차의 이혼율도 20-25%를 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심화되는 가족해체 상황에서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 전에 우선 해외의 교민들이 왜 교회에 몰릴까부터 생각해 보자. 다른 종교의 현상부터 살펴봐야 우리 불교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풀 수 있을 것 같다. 대부분 종교는 여성 신도가 많은데 유독 천주교는 남성 신도들이 여느 종교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왜일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가톨릭의 'ME ((Marrige Encounter, 부부일치운동)운동' 이라고 생각한다. 스페인 가브리엘 출신의 칼보 신부와 몇몇 부부에 의해서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 시작된 이 수련프로그램이 한국에도 1976년에 시작됐다. 가톨릭은 대부분 교구별로 부부가 ME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한다. 깊이 대화 하고, 이해하고, 얼싸안고 울고, 미안해하고, 감사해하는 이 과정을 통해 부부가 더욱 친밀해진다. 이 친밀성은 부부를 가톨릭 신행에 함께하게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아버지학교' 도 비슷한 유형이다. 개신교가 중심이 돼 아버지와 자식들 간의 소통과 화해, 사랑과 상호 믿음을 갖게 하는 견인 역할을 해왔다. 종교 때문에 (종교인 임에도) 가족이 갈등하고 분란이 끊이지 않는다면 주변사람 누구도 그 종교를 좋게 생각할리 없다. 사랑과 신뢰가 넘치는 가족관계는 곧 주변인들에게 중요한 삶의 모델이 된다. 다른 이들에게 큰 귀감이 돼 그 자체로도 포교에 큰 역할을 한다. 정안수를 떠놓고 가족을 위해 비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 새벽기도를 매일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극진한 종교적 치성과 정성에 은연중 감동을 받게돼 부모를 태산같이 믿게 되고 존경한다.

자동차회사에 다니던 한 지인 거사가 있었다. 그는 회사서 노조간부로 파업을 주도하고 회사와의 교섭과정에서 엄청난 마음의 상처와 병을 얻었다. 매일 술과 담배에 찌들려 살았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불교를 접하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300배 정진을 1000일간 했다. 신상에 변화가 일어났다. 술담배도 끊고 마음의 분노도 사라졌다. 매일 버럭버럭 식구들에게 화내던 그가 부인과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그러자 부인과 아이들은 저렇게 끈기있게 기도 하는 아버지를 존경하기 시작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했다. 종교적 신행활동은 감화력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다. 불자들은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수행과 기도를 하는 신행생활을 해야한다. 가족이 같이 하면 좋겠지만 강요하면 오히려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 사람은 그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삶과 행동을 믿는다. 개인의 신심있는 신행생활은 주변을 변화시키고 결국 자신의 삶과 세계를 바꿔놓는다.

실제 부인이나 자녀를 다 잘 안다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부모가 자신들을 전혀 모른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소통 결핍을 해소하고 가족공동체를 굳건히 하기 위해 불교는 좋은 매개체다. 이를 잘 활용하면 가족간 깊은 소통의 뿌리를 튼실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끼리 도반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신행이 또 어디 있을까.

창간 20주년 SINCE 1994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명 진 석법운 대종사



종 정
명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 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원로의장 보 운
원로총무 수 덕 원로위원 해 산
원로위원 월 각 원로위원 혜 담
원로위원 홍 원

총무원장(대행)
행정원장 도 경 사정원장 법 륜 문화원장 진 송
교육원장 청 담 포교원장 동 화 비구니원장 법 화

총 무 원
총무부장 (대행) 재무부장 월 산
교무부장 선 각 문화부장 한 담
규정부장 혜 오 법규위원장 설 산
신도회장 조태흠 사업부장 이재철

종 무 원
경북1종무원장 월 정 경북2종무원장 성 덕
경북4종무원장 해 산 대구2종무원장 해 산
대구1종무원장 광 덕 경기종무원장 원 담
충북종무원장 계 현

- 응공조계종 창종 3주년 기념법회 -
● 일시 : 불기 2558년 (2014년)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 입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호 동명사 ☎ 054)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정관장 紅蔘 6년 KOREAN RED GINSENG

www.kgc.or.kr

활력을 채우는 붉은 에너지

홍삼원



홍삼원 파우치와 함께하는 내 몸의 활력 충전!



50ml x 60포

활력 No.1 홍삼원

| 판매대행 | (사)담배인삼공제회
| 입금계좌 | 농 협 412-01-019633 | 예 금 주 | (사)담배인삼공제회
| 상품문의 | 080-936-2304/042-932-7316/010-9560-2304
| 반품관련 | 제품특성상 개봉 후 환불 및 반품은 불가하므로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KGC인삼공사



달라이라마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과 마하트 간디 탄생 145주년을 동반 기념하는 행사가 10월 2일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망명정부 남걀사원에서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달라이라마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 기념식

"우리 스스로의 평화가 완성되기 이전에 외부 세상의 평화는 절대 실현될 수 없습니다."

티베트 망명정부(총리 롭상상게)는 10월 2일 비폭력의 상징 마하트마 간디의 탄생 145주년년과 14대 달라이라마(뗀진갸초,79)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을 동반 기념하는 행사를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서 열었다. 이날 2만여 대중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1997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조디윌리암스(미국, 64)와 2003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이란, 67)가 다람살라를 찾아 눈길을 끌었다. 조디윌리암스는 지뢰 금지 국제 운동에 대한 공로로, 이란 최초의 여성 판사인 시린 에바디는 이란 인권 운동을 오랫동안 펼친 공을 높이 인정받아 각각 노벨상을 받았다.

달라이라마는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 기념 연설에서, "간디가 그의 일생에서 보인 삶의 방식과 구현된 가치를 따라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구할 수 있다"면서 "우리 일상에서의 비폭력에 근거한 간소한 생활은 간디가 남긴 평화의 메시지를 회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기념식 당일인 10월 2일

달라이라마, 중국 오대산 순례 비공식 진행 중

역대 수상자 조디윌리암스 · 시린에바디 다람살라 방문

아침 AFP 외신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중국 순례 희망 발언을 하며 망명정부와 중국 관계에 대한 희망을 비췄다. "현대 중국 방문 일정에 대해 비공식 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힌 달라이라마는, 지난 8월 2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중국인들과 '기점의 발견' 을 주제로 열린 비공식 회담서 이미 중국 순례 방문에 대한 긍정적 의지를 밝혔으며, 그 장소는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이 될 것을 내비쳤다.

반면 티베트 망명정부는 관련 외교 특사 회담과 관련해 어떠한 바도 진행된 것이 없음을 밝혔다. 단지 티베트 자치구 내 중국 공산당원 우잉제 당 부서기의 일방적인 발언으로 "달라이라마가 중국 지도자와의 회담에서 인도 망명을 청산하고 중국으로 귀국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가 나고 있음을 우려했다. 달라이라마의 중국 방문은 1954년 당시 10대 판첸라마(1938~1989)와 함께 티베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모택동 주석과 북경에서 회담한 것이 마지막이다. 이번 중국 순례 관련 비공식 회담이 성사돼 달라이라마가 내년 중국을 방문한다면 티베트 망명정부의 현안은 또 다른 국면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달라이라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 케이프타운서 10월 13~15일로 예정된 제 14차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에 남아공 정부의 비자 불허를 사유로 지난 9월 4일 불참을 결정한 상태다. 이에 9월 15일자로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 14명은 함께 차별 없는 비자 발급을 남아공 제이콥주마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공개 성명서를 낸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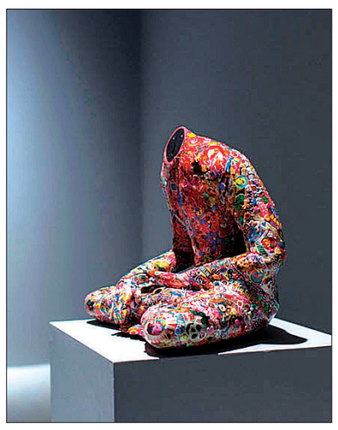
성명서는 '달라이라마는 더 이상 티베트의 정치적 지도자가 아님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순수히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명목으로 회담에 동참해야 한다' 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인도 다람살라=가연숙 객원기자

티베트 佛미술, '팝 아트' 로 재탄생

곤카르 게쉐 작품, 홍콩 · 뉴욕서 전시

뉴욕 타임즈 "제법무상의 현대적 표현…세계 미술계 주목"





작가 곤카르 게쉐(Gonkar Gyatso · 53)는 '미디어로 조합된 조각상(An untitled mixed-media sculpture, 사진 위)', '샹그릴라(Shangri La, 사진 아래)' 등으로 티베트 현대미술의 가능성을 열어보였다.

티베트 불교미술이 팝 아트라는 현대 미술 영역에서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뉴욕 타임즈〉 지는 10월 8일 티베트 현대 미술가 곤카르 게쉐(Gonkar Gyatso · 53) 작가를 조명하고, "홍콩에서 열리고 있는 티베트 팝 아티스트 곤카르 게쉐 작가의 전시회가 세간의 이목을 잡고 있다"며 "그는 불교의 상징을 결합한 도상을 팝 아트로 형상하며 세계 미술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 펄 램(Pearl Lam) 갤러리에서 31일까지 전시되는 곤카르 게쉐 작가의 작품에는 '파란색 셔츠를 입고 검은색 안경을 쓴 채 공부에 열중하는 인물' '만다라를 향해 차가운 팔을 내미는 포크레인' '지구 온난화로 녹고 있는 빙하를 트럭과 굴착기' '서구의 문명기기에 포위된 채 중심부에서부터 허물어지는 만다라' 등 다양한 도상의 팝 아트가 소개되고 있다.

"작가적 시점에서 티베트와 중국의 관계를 조명하고, 관객과의 소통을 해보자는 게 이번 홍콩 전시회의 의도"라고 설명한 곤카르 게쉐 작가는 "나는 티베트인 작가로서 현재 중국이 티베트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이는 티베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지구촌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사실 중국 중앙정부의 검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홍콩에서 곤카르 게쉐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곤카르 게쉐 기획전을 마련한 갤러리 대표 펄 램 씨는 "작가 곤카르 게쉐는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주제를 대중적인 기법으로 표현하는 데 탁월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며 "바로 이런 부분으로 홍콩 지방정부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욕 타임즈〉 지에 따르면, 티베트 미술에 대한 평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탕카(thangka)와 같은 골동품에만 집중되었다. 그런데 곤카르 게쉐 작가의 등장으로, 티베트 미술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고대에서 현대로 옮겨진 것이다. 더욱이 곤카르 게쉐 작가의 팝 아트는 전통의 향기. 즉 불향을 듬뿍 품고 있는 작가라는 점에서 고대 미술과 현대 미술의 가교로서의 몫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티베트 문자와 불교 상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도상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곤카르 게쉐 작가는 "티베트의 '존귀한 문구' 와 '고귀한 형상' 을 가지고 '환경 파괴' '패권 정치' '현대 문명' '첨단 무기' 등과 같은 '이탈' 과 '왜곡' 이라는 주제를 표현하는 과정은 항상 조심스럽다"며 "이를 현대 미술의 한 장르인 '팝아트' 로서 이해하는 티베트 불교계의 호응에서 큰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곤카르 게쉐(Gonkar Gyatso) 작가는 1986년까지 중국의 촉망받는 작가로 살았지만, 인도 다람살라를 방문을 기점으로 티베트의 불교문화를 현대미술로 승화시키는 작업에 매진하며, 티베트를 대표하는 현대 미술가로서 활동했다. 그리고 1992년 중국을 떠나 인도와 유럽을 오가며 '불교 팝 아트' 라는 새로운 작품 세계를 개척했다.

〈뉴욕 타임즈〉 지는 곤카르 게쉐 작품을 한마디로 '제법무상의 현대적 표현' 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잔물결에만 머물렀던 티베트 현대미술이 곤카르 게쉐 작가를 계기로 거대한 파도가 되어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곤카르 게쉐 작가의 작품은 홍콩 펄 램 갤러리 전시회에 이어 오는 11월부터 미국 퀸즈 미술관에서 초대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부탄 왕족, 인도 성지순례 나서 '눈길'

바라니사 사라나트 사원서 보리수 기념식수

부탄의 왕족들이 인도 성지순례에 나섰다. 〈Busines Standard〉지는 "부탄 왕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추크와 왕비 제선 페마(Jetsun pema)를 비롯해 일군의 왕족들이 10월 9일 인도 바라나시를 시작으로 3박 4일간의 인도불교의 성지를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왕추크 왕의 일행은 첫 성지순례지로 바라나시의 사라나트 사원을 방문했다. 사르나트 사원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전법륜지로 알려진 성지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첫 설법 이후 최초 승단이 생겨났다.

〈Busines Standard〉지는 사르나트 사원의 아쇼크 미트라 스님의 말을 인용, "왕추크 왕 내외는 예불을 올린 뒤, 사원 정원에 보리수 묘목을 심었다"며 "인도 불교성지 순례의 첫 방문이었다"고 보도했다.



첫 번째 인도 성지순례지인 바라니시의 사라나트 사원을 방문한 부탄 왕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추크와 왕비 제선 페마.

부탄 왕족 성지순례단을 수행하고 있는 반트 쉬바리 스님은 "왕추크 왕은 평소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문하를 찾았던 다섯 비구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전하고 "부다가야를 비롯해 3박 4일간의 인도불교 성지순례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캄보디아 불교계 '뿔' 났다

10월 4일 '불교연구소' 지키기 위해 프놈펜 거리 행진

캄보디아 불교계가 프놈펜 '불교연구소' 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Cambodia Daily〉 지는 "500여 명의 스님들이 10월 4일 프놈펜 거리 행진을 하며 '불교연구소'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난개발을 규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캄보디아 불교계의 주요 기관인 '불교연구소' 주변은 지난 5월부터 ㈜나가(NagaCorp)을 비롯해 다국적 기업의 난개발로 존폐위기에 놓였다. 특히 캄보디아 정부가 불교연구소 주변 토지를 매각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어, 캄보디아 불교계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거리 행진을 기획한 '사회 정의 실현 승가(Monk Network for Social Justice)' 는 "㈜나가(NagaCorp)는 국제 카지노 기업으로 불교연구소 본연의 교육과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해가 될 뿐"이라며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가 불교연구소 주변의 토지 매매 및 임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프놈펜 거리를 행진하며 다국적 기업 난개발을 반대하는 캄보디아 스님들

오종욱 편집위원

창간 20 SINCE 1994 주년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9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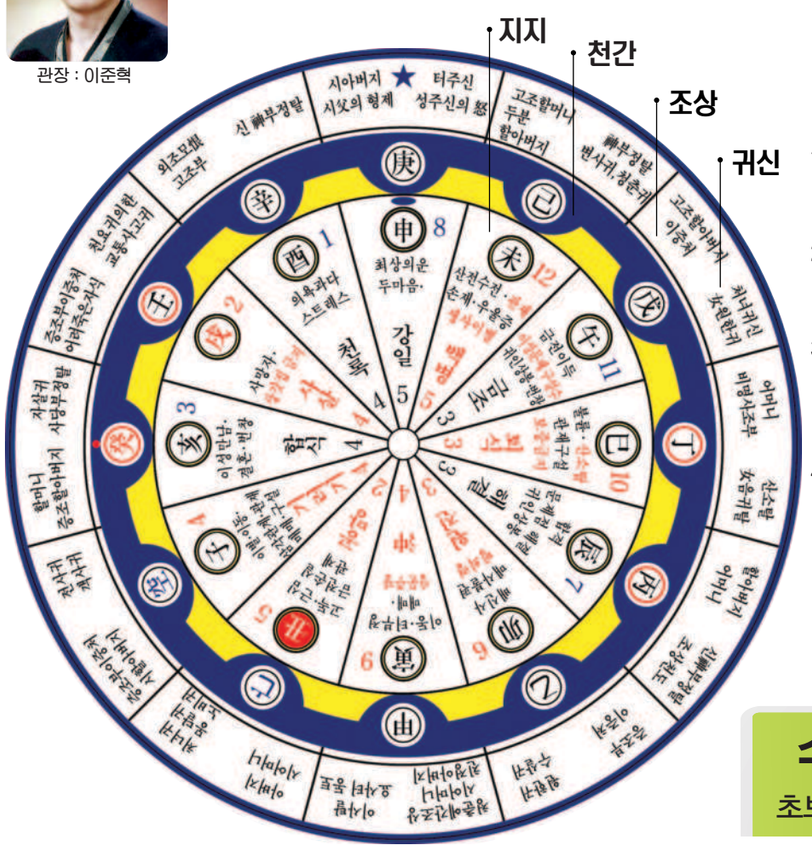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관장 : 이준혁

백발백중귀장술 쉽게 보는 백문백답 회전원판, 내 손 안의 귀장술입니다 (극비 도궁술 추가 강의)



언제까지 손으로 짚어서 상담하시렵니까?

1) 금일 일진만 맞추면 한눈에 상담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庚申日 기준)**
2) 굳이 손으로 짚을 필요가 없이 공망도 표시되므로 육십갑자를 외우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3) 백발백중귀장술 원판은 오랜 기간의 연구 끝에 수작업으로 제작.
· 원판크기 지름 15.5cm
· 재질 : PC
4) · 초기원판 업데이트
· 크기확대 보기 편함
· 귀장 내용 추가

특허출원번호 : 30-0721929

※ 원판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작 배포할 시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수강생 모집
초보자도 교육가능 합니다.

문 의 : 010-8558-2345 / 02)2273-8557
주 소 : 서울 강동구 천호동 406-9 금강빌딩 B-105호
계좌번호 : 신한 110-371-828252 (예금주 : 이민희)
(5호선, 8호선 천호역 3번출구)

‘갓바위’ 조성한 의현대사 혼 재조명

11월 5일~6일 영남대서 공연
음악 · 춤 · 연기 애절한 뮤지컬
최주봉, 전재홍 등 호화 캐스팅

흔히 ‘갓바위’로 불리는 경산팔공산 관봉석조여래좌상에 얽힌 설화가 창작 뮤지컬로 각색돼 무대에 오른다. 제목은 ‘천년혼’이다. 11월 5 · 6일 양일간 오후 3시와 저녁 7시 30분에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서 공연된다.

이번 작품은 J&C 코리아 뮤지컬 컴퍼니 정광진 대표가 대본을 쓰고 예술감독을 맡았다. 정 감독과 갓바위의 인연은 1998년부터 시작됐다. 그해 연극 ‘갓바위’의 대본을 썼고 2007년에는 뮤지컬 ‘갓바위’를 선보인 바 있다.

정 감독은 “천년혼을 쓰면서 어려운 불교적 용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썼다”고 했다. 그는 또한 “경산시서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지역 뮤지컬로 탄생했지만 완성도 만큼은 대한민국 어디서 공연해도 빠지지 않는 뮤지컬을 만들려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강조했다.

정 감독이 ‘천년혼’이란 제목을 정할 때 많은 고민이 있었다. 정 감독은 “1천 400년 전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유래도 모르면서 올라가 마냥 기복적으로 빌기만 하더라구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죠. 역사가 깊은 문화재 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갓바위를 조성한 의현대사의 정신이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며 그 혼을 이어받자는 의미에서 ‘천년혼’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라고 취지를 설명한다.

이 작품은 1천400여 년 전 관봉 아랫 마을에 살던 석수장이 무덕이 우여곡절 끝에 약사여래불(일명 갓바위)을 완성한다. 이후 헤어져야만 했던 사랑했던 여인을 다시 만나 그 여인의 품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줄거리이다. 한마디로 효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극화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찰의 기회를 주기 위해 기획한 창작 뮤지컬이다.

정 감독은 대봉 역을 맡은 최주봉 씨와 다시 만나 의기투합했다. 1990년대 초 인연을 맺었지만 그동안 한 번도 같이 공연한 적이 없었다. 정 감독은 “최주봉 씨가 대본을 보고 대사가 정이 가고 노래 가사도 좋아 좋은 작품이 되겠다며 선뜻 출연을 결정해 줘 고맙다”며 “ 지난 15년 동안 ‘천년혼’을 위해 갓바위에 매달렸던 노력과 열정으로 꼭 이 뮤지컬을 성공리에 공연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작품의 연출에는 송한봉, 작곡에 마창욱, 안무는 서경선씨가 각각 맡는다. 출연진은 의현거사 역에 전재홍, 설이 역에 구민진, 대봉 역에 최주봉, 원광법사 역에 박용, 비조 역에 우상민, 탁노 역에 이정성, 반굴 역에 손성호가 각각 캐스팅 됐다.

특히 출연진들중에는 뮤지컬계의 블루칩으로 불리는 전재홍, 2003년 뮤지컬 명성황후에 출연한 구민진, MBC 드라마 한지붕 세 가족의 만수 아빠로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었던 최주봉 등 우리나라 뮤지컬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대거 선보일 예정이서 공연전부터 열기가 후끈하다.

10월 6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서 제작발표회를 가진 ‘천년혼’은 갓바위에 얽힌 설화를 뮤지컬화한 것으로 음악, 춤, 연기가 애절하면서도 웅장하며 대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된 뛰어난 수작으로 평가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주요출연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번 제작 발표회에서는 제작 스탭과 출연 배우 40여명이 총 출동해 창작 뮤지컬 ‘천년 혼’의 제작에 임하는 각오와 주요 장면들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날 공연을 지켜본 최영조 경산시장도 “감성적이면서도 격정적인 작품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경산을 대표하는 뮤지컬로 성공해 경산지역의 보물인 ‘갓바위와 경산’이 전국공연을 통해 널리 홍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뮤지컬 ‘천년혼’ 주인공인 의현거사(전재홍 分)와 설이(구민진 分)가 손잡고 밀어를 나누고있다.

한 · 중 · 인도 · 티베트 문화재 한자리에

불교천태중앙박물관 개관 1주년 특별전 ‘서쪽에서 온 불향’

천태종 불교천태중앙박물관이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서쪽에서 온 불향’을 연다. 10월 12일~12월 28일 열리는 전시는 티베트, 중국, 한국의 불화 · 경전 · 불상 · 공예품 등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불화는 티베트의 참회35불도, 타라보살의 팔난구제도, 중국의 나한도, 불화첩, 수륙도 및 조선시대 아미타구존도, 충북도유형문화재 제29호 아미타극락회상도 및 근대 문고산 스님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십팔나한화첩 등 28점이 전시된다.

불교조각은 간다라 제석굴 설법 부조상과 청법부조상, 티베트 금동아촉여래좌상과 금동나한상, 중국 청동여래좌상과 금동관세음보살좌상, 통일신라 금동소불과 조선 목조여래좌상 · 석조나한상 등 37점이 선보인다.

불교경전은 티베트의 사자의 서, 몽골사경, 중국 청나라 감지금은니사경, 한국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9(국보 257호)와 권74(국보 제279호), 보물 1714호 백지금니 〈범망보살계경〉 등 10점, 불교공예는 간다라 보살장식과 금화, 티베트 오방여래관과 마니차, 중국 목조사자상과 채색 목탁, 한국 금동 9층소탑(고려)과 목어 등 31점이 전시된다.

이 중에서도 〈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제 29(고려, 1011~1031, 국보 257)은 국내에서 발견된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중 유일본이며 권제 74와 함께 11세기 경에 찍어낸 초조대장경의 원형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문헌자료다.

타라보살 팔난구제도(티베트, 17~9세기)는 중앙에 녹색 타라 보살이 그려져 있고, 주위에는 사자와 코끼리 등에게 습격당하는 신자와 타라보살의 분신이 고통받는 신자를 구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불화 · 경전 · 불상 · 공예품 등
아시아 불교문화재 100점 전시

타라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눈동자에서 태어난 보살로 중생을 구제하는 능력이 있어 테베트 불교의 구제자로 여겨지고 있다.

‘제석굴부조상’(파키스탄, 3~5세기)은 제석천이 부처님의 열반을 앞두고 음악의 신 파차시카로 하여금 부처님을 방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게 하는 에피소드를 부조상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티베트의 참회 35불도

한편, 천태종은 전시회 개막과 더불어 제 12회 천태차문화대회, 특별전 전야음악제-불향, 전통문화체험, 한국전통지화 상설전 개막, 오철만 사진작가 기증전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장인들의 전통공예품, 큐레이터를 만나다

10월 16~29일 경복궁서 ‘제12회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작품전’

전통장인의 예술 작품 전시에 젊은 큐레이터의 현대적 해설이 가미된 전시가 열린다.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이사장 이근복)는 문화재청의 후원으로 10월 16~29일 경복궁에서 ‘혼으로 이어온 장인’이란 주제로 ‘제12회 한국문화재기능인 작품전’을 개최한다.

작품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장인작품 전시회로 장인 100인과 중요무형문화재 장인 20여명이 참여해 120여점의 전통공예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악기장, 두석장, 갓일장 등 중요무형문화재들의 작품이 전시회의 초대전시로 함께 꾸며질 예정이며,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전통의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한 전시의 출품작 중에서 기술성과 작품성을 갖춘 작품을 선정해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상, 문화재청 청장상,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상이 수여한다.

이번 전시회는 전통장인과 젊은 큐레이터의 협업으로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전시회를 담당하는 안유선 · 김춘묘 큐레이터는 “무형으로 전승되온 장인들의 작품세계를 현대적 시선에서 공감할 수 있는 작품해석에 주목”했다며 “작품을 감상하며 일상의 생활속에서 전통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티브를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정용 ‘금강역사상’.


김식경 ‘해치상’.

문화재기능인협회 이근복 이사장은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 융성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는 장인들의 큰 행사로 이 전시를 계기로 전통문화기술의 정신과 가치가 현대인들에게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02)3672-8803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제6회 화불 동연전, 21일까지 갤러리 한옥서

용인대학교 불화대학원은 10월 21일까지 서울 가회동 갤러리 한옥에서 ‘제6회 화불 동연전’을 연다. 화불 동연전은 용인대 예술대학원 불화전공 동문들이 주축이 돼 매년 전통 창작 불화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올해에는 10명의 작가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작품에 담아 선보인다. 참여 작가는 이태승 용인대 회화학과 교수를 비롯해 조이락 용인대 불교회화연구소 연구원, 현승조 간송미술관 연구원, 양승희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강사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불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시는 비단 위에 진채로 채색한 양선희 씨의 ‘법을 전하다’와 현승조씨의 ‘인드라망’을 비롯해 이태승씨의 ‘이열도’ 등은 전통을 바탕으로 재해석한 창작불화로 불자뿐 아니라 대중이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특히 이번 전시는 작가들의 재능기부로 마련돼 작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전통계승 발전기금 및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02)3673-4326

이나은 기자

창간 20주년 SINCE 1994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인등 불사와 법당 장엄을 한 번에...
면 자체 발광 성불원 LED 인등





발명특허
발명특허번호 제10-1350047호

•성불원 인등 확대 모습
•법당 크기에 따라 2가지 크기 선택 가능합니다. 불화 자체가 장엄하게 빛을 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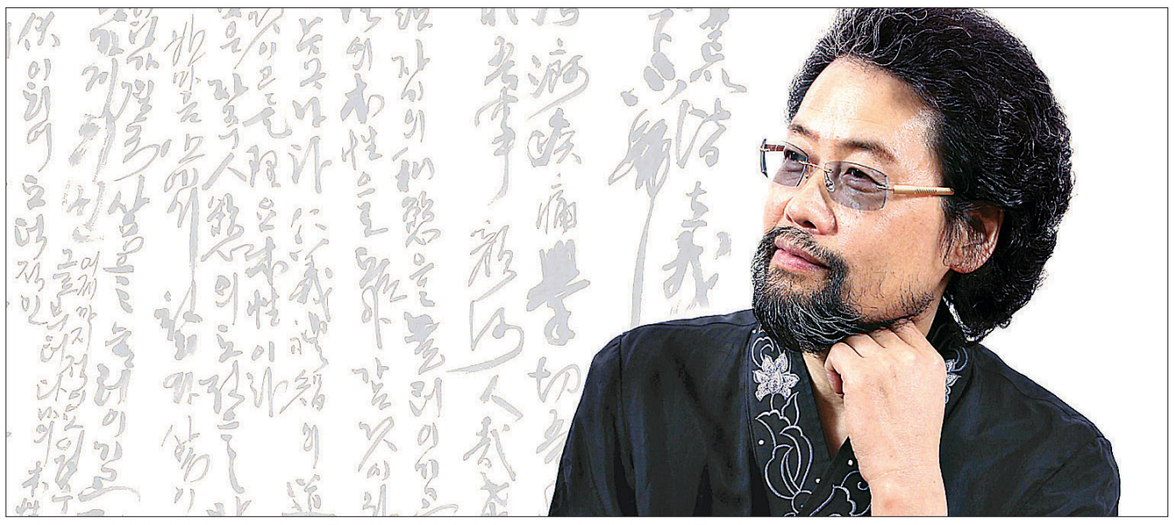
성불원 LED 인등의 특징

1 기존의 인등과 달리 월등한 밝기로 법당 전체가 장엄됩니다.
2 LED만의 저렴한 전기료와 긴 수명으로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원하시는 어떠한 배경 불화로도 제작 가능합니다.

수미단, 닫집, 영단, 법상, 경탁 등 법당장엄 일체 제작
각종 법당불사 컨설팅 해 드립니다.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전화 011-276-5251. 010-6857-0108

無碍 양학모 합장 인사 올립니다



조성주 서예가이자 전각가는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하이퍼 전각기법으로 〈법화경〉 7만자를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서예+회화+디자인… 법화경 하이퍼전각

문화 조성주 전각가

"법화경 전각은 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무용가 전수향 씨의 권유로 법화경을 보게 되었고 이를 작품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2000여 일의 작업 시간 동안 죽을 고비를 두 번이나 넘겼지만 부처님의 가피로 7만여 글자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는 동안 패닉 상태였던 제 마음은 환희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예가 조성주 작가는 지난해 '2000일의 苦行, 국당 조성주 작가의 완각 하이퍼 전각법화경-불광展'을 열어 주목을 받았다. 서예 회화 디자인을 결합시킨 하이퍼 전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그의 작품은 현재 제기동 법화정사에 봉안되어 많은 불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약 5톤의 석인재(石印材)로 작업한 전각을 설치미술로 완성해 전시를 꾸몄습니다. 사방 1센티미터 크기에 글씨를 새기고 이를 여러 개 모아 사방 10센티를 만든 후, 또 다시 조립해 폭 1미터 이상 6미터 크기로 대형 작품을 만들었죠."

전각을 설치미술로 구성한 이 작품은 많은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후 그는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작가가 되었다. 하지만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은 녹록치가 않았다.

"제가 2007년도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좌절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불자이신 전수향 선생님의 권유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불교미술의 흐름을 바꿔보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작업이었는데 작품을 하는 동안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차를 팔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났는데 이상하게도 오른손은 다치지 않아 계속 작업할 수 있었죠. 이후 몸이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는데 또 전시 6개월을 앞두고 큰 돌에 머리를 박는 사고가 났어요. 그때도 오른손은 다치지 않아 계속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죠. 그때서야 제가 모르는 어떤 신비한 힘이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그의 작품은 전시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고 현재는 법화정사 5층에 봉안되어 불자들에게 법화경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 "당시 2주 동안 전시를 했고 전시가 끝나갈 무렵에는 작품을 보관할 창고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시 이틀을 남겨 놓고 법화정사 봉안이 확정이 되었죠. 너무 기적 같았고 많은 불자들에게 법화경의 의미를 전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죠. 이 또한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2000일 고행으로 완성한 전각
법화정사에 상설 전시 '눈길'
법화경 주요 구절로 '보리수' 완성
10월 17일~23일 서천문화원 전시

1997년 금강경 전체를 돌에 새긴 '전각 금강경'으로 한국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던 그는 이후 법화경 작품까지 완성하면서 서서히 불자로 물들어갔다고 한다. "사실 처음부터 불자는 아니었어요. 서예를 하며 다양한 글자를 새기다 보니 불경을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작업을 하다보니 마음의 수양이 됐고 서서히 불교에 물들어 갔어요. 지금은 법화경을 다양한 형태로 대중들에게 알려가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는 10월 17일~23일 열리는 서천문화원 초대전에서도 법화경의 주요 구절을 작품으로 옮겨 완성한 가로 9미터 세로 2.3미터의 대형작품 '보리수' 등 2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대구 팔공산 동화사의 법화경 석각 벽화도 작업중에 있다. 2017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벽화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디자인한 가로 21미터 세로 2.5미터 법화경 7만자와 탱화 20세트로 구성될 예정이다. "법화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불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서천문화원 전시에서는 법화경의 좋은 구절들만 발췌해 보리수 나무로 완성해보았죠. 동화사 작업도 현재 절반 정도는 끝난 상태인데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다큐멘터리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완성되면 다큐를 공개할 수 있는 매체를 찾고자 합니다."

서예와 전각 디자인을 결합한 하이퍼전각으로 새로운 예술을 보여준 조 작가는 앞으로도 꾸준한 시도를 통해 대중들에게 좋은 작품을 선보이고자 한다. "최근 전각 작품을 많이 선보였지만 사실 제 본분은 서예가죠. 그러니 서예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의 작업들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불경이 무궁무진한만큼 대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구성해 새로운 형식의 예술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법화경의 주요 구절들을 전각으로 새겨 보리수 나무로 형상화한 조성주 작가의 작품 '보리수'

인간의 온갖 시비 일시에 부서지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㊵ 영통사 (上)





조선조 이후 퇴락했던 개성 영통사는 2005년 천태종에 의해 복원되었다.

대각국사의 출가 사찰

영통사(靈通寺)는 북한에 있는 절이다. 소재지는 경기도 개풍군 영남면 용흥리 오관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1027(고려 현종 18)년에 창건된 사찰이다. 고려는 1036년(정종2)에 독특한 법을 하나 만들었다. 왕이 왕자가 4명 이상일 경우 한 왕자의 출가를 허락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영통사에 계단을 설치하고 경율(經律)을 익히는 도량으로 삼았다.

1055년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대각국사 의천스님(1055~1125)도 영통사로 출가 했으며 입적 후 영통사에 사리를 봉안했고 비도 세웠다. 대각국사비는 지금도 남아 있는데, 비문은 김부식(金富軾)이 썼다.

영통사는 조선조 이후 퇴락하여 당우는 모두 허물어지고 대각국사비와 탑이 폐허 속에 남아 있었다. 2005년 남한의 대한불교천태종과 북한이 영통사를 복원했으며 매년 대각국사의 열반일(10월 5일)에 맞춰 천태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이 제례를 봉행하고 있다.

필자는 2007년과 2012년 영통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개성 시내에서 버스로 한 시간 남짓 가면 오관산의 아름다운 연봉들이 나타나고 몇 개의 산굽이를 돌아 산으로 들면 영통사가 나타난다. 널찍한 마당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대각국사비인데, 풍상에 마모되어 글자를 판독하기는 어려운 지경이다.

영통사는 옛 자료를 토대로 복원되었는데, 왕과 왕실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던 절답게 회랑을 두른 당우들이 하나같이 격조 있다. 물론 산이 에워싼 경치도 매우 아름답다.

고려시대 왕실의 보호를 받던 영통사는 나라를 대표하는 사찰이었을 것이다.

"이제 능사(能事)를 겨우 끝냄으로써 훌륭한 스님들을 맞이해 열람하니 천 손가락이 책을 펼쳐 넘기고, 육종(六種)의 소리가 놀랍게 진동합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임금님의 덕이 더욱 빛나시어 사방의 노래로 전파되어 찬양하고, 나라의 기강이 다시 굳어져 한 가지 일도 잘못됨이 없으며, 아래로 뭇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편안히 재활(再活)하듯 하여지이다."

이규보(李奎報 1168~1241)가 왕에게 올린 상소문의 일부다.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文集)〉 제41권 석도소(釋道疏) 편에 실린 이 글의 제목은 '영통사를 보수하고 나서 대장경(大藏經)을 피람(披覽)하는 소'이다. 영통사에 보관된 〈구사론〉이 유실된 것이 많아 아를 보완하는 불사를 마치고 쓴 글이다.

시에 담은 깨달음의 풍경

백운거사 이규보가 영통사에서 대장경을 열람하고 불교 공부를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만큼 영통사에서 적지 않은 시를 쓰기도 했을 것이다. 그의 문집 〈동국이상국집〉 제11권에는 고율시 한 수가 전한다. 제목은 '영통사(靈通寺)에 놀면서'다.

선로영우접취미(線路ø环接翠微)
불번문사축승귀(不煩問寺逐僧歸)
도산재청청계향(到山才聽淸溪響)
용파인간백시비(ŒŁ破人間百是非)

실 같은 길 구불구불 산허리에 닿았는데
스님을 따라 가니 번거롭게 절을
물을 것이 없네.
산에 이르자마자 맑은 시내 소리 들려오니
인간의 온갖 시비 일시에 부서지네.

스님과 동행하여 영통사로 가는 동안의 정취를 한 편의 시로 그려 낸 것이다. 지금도 영통사 가는 길은 구불구불 산허리를 돌아간다. 우거진 숲길은 아니지만 다복솔이 듬성듬성 하다. 스님과의 동행은 아니고 버스를 타고 도착하면, 절 옆을 흐르는 계곡에서 들리는 맑은 물소리가 들린다. 이규보의 시대와 다르지 않은 물소리일 것이다. 다만, 시절 인연이 그때와 달라 '온갖 시비를 일시에 부서지게' 하지 않으니 상념이 많을 뿐이다.

지벽진기식(地僻塵機息)
누고서기미(樓高暑氣微)
조수명경하(鳥隨鳴磬下)
승진모종귀(僧ǽ暮鍾歸)
이석운생수(移石雲生袖)
간송로적의(看松露滴衣)
추상산과숙(秋霜山菓熟)
경차구암비(更此 ŁŁ岩扉)

땅이 궁벽하니 티끌 마음 쉬어지고
다락이 높으니 더운 기가 가시네.
새는 밥 때에 울리는 경쇠소리 따라 내리고
스님은 저녁 종에 맞추어 돌아온다.
돌을 옮겨 앉으니 구름은
소매에서 일어나고
솔을 우러러보니 옷자락에 이슬이 드네.
가을서리에 산과일이 익을 무렵
다시 이 바위 문을 두드리리라.

〈동문선(東文選)〉 제10권에 실린 이 오언율시(五言律詩)는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의 작품이다. 제목은 '차영통사벽상운(次靈通寺壁上韻)'.

변계량의 시대만 해도 이미 영통사에는 많은 선비들이 찾아와 시를 남겼을 것이다. 그래서 변계량도 절의 벽에 걸린 시를 보고 그 운을 따라 이렇게 맑고 청아한 시를 남겼다.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인만큼 유학을 익히는 선비들도 불교에 대한 지식은 풍부했다. 그래서 절의 풍경을 단지 풍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묘사하는 조예를 가졌을 것이다. 워낙 시문에 능했던 변계량이라 하지만 영통사의 풍경에서 발견하는 적멸의 즐거움은 대단하다.

고요한 산사에 저녁이 찾아오고 배고픈 새가 절로 날아드는 시간에 스님들이 돌아온다. 오관산은 바위산인데 바위와 구름이 그리고 소나무가 어우러져 사람을 사람이 아닌 듯 느끼게 만든다. 그러한 진경 속에 노닐다 보니 훗날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을 가눌 길이 없는 것이다.

창간 20 SINCE 1994 주년

since1973
2015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인터넷전화.070-7425-051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 : 0515-8888-09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12절 /6절

• 12절(벽걸이형 小)달력
삼천부 이상 @ 800원
이천부 이상 @ 900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 6절(벽걸이형 大)달력
삼천부 이상 @ 1000원
이천부 이상 @ 1100원
• 200부이상 @1,200원
• 규격 : 30.5cm × 3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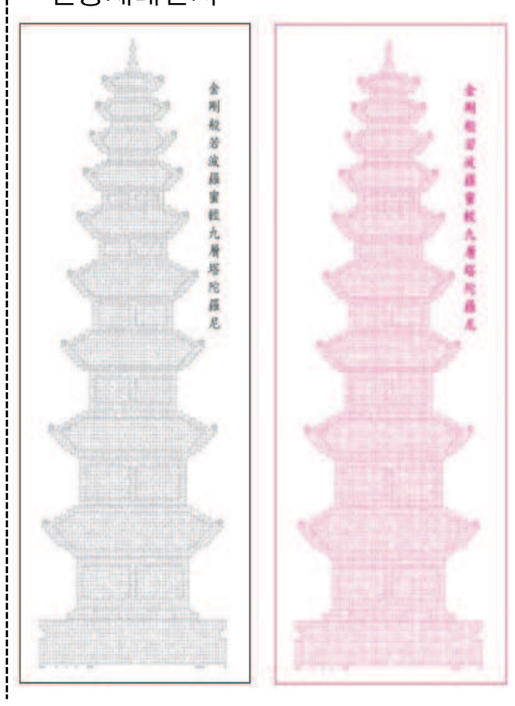
금띠지 등표
• 정 가 1,000원
• 200매 이상 @700원
• 규격 : 3.5cm × 70cm
만사대길 · 소원성취 · 학업성취
사업성취 · 삼재소멸 中 택 1
상단 뒷편에 양면테잎으로 되어 있어 원하는 곳 어디든 쉽게 부착가능하며 하단부분은 생,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100부 @800원 • 매수:18장 @650원
• 규격 : 9.5cm × 13.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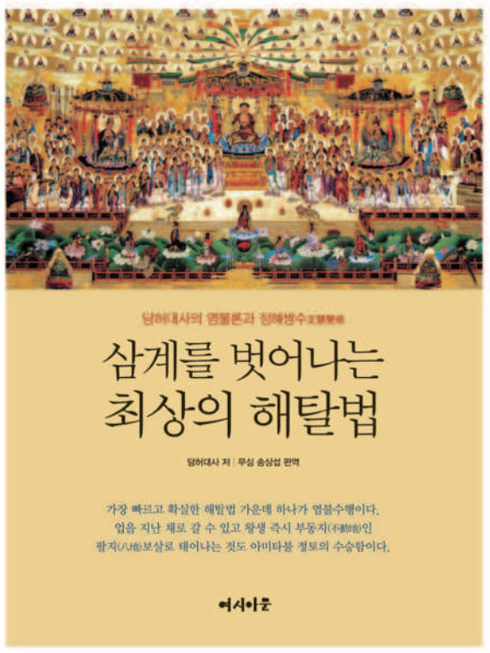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100부 @600원 • 매수:16장 @450원
• 규격 : 8.9cm × 9.5cm

금강경탑다라니 사경지(대형)
할인가 4,000원(50장이상) 정가 5,000원
• 68cm × 195cm (먹색, 적색)
• 전통재래한지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 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 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者)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전념하셨다. 또 남에게도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뿜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융함(隆銜),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괴법사(印魁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敎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심양(瀋陽)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銜)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담산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담산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敎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敎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靑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기신론강의(起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隨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짯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짯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 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러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천진불 원담스님의 사자후



덕숭산 법향
(원담법어)

수덕사 엮음 | 566쪽 | 188*257 | 30,000원 | 여시아문 펴냄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故 원담(1926~2008) 선사의 1980년 하안거 결제부터 20여년 간의 법어를 모아 엮은 선(禪)법문집. 법상에 오른 노 선승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스님의 어투가 최대한 살려진 활구법문(活句法門)을 접할 수 있다.
평생을 참선수행에 매진해온 선사의 활발한 선지(禪旨)와 고준한 법(法)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선어록이다. 원담선사는 한국불교의 선맥을 중흥시킨 경허, 만공 스님의 선풍을 계승, 평생을 참선과 공부에 매진한 선승이다. 특히 12살의 나이부터 만공 스님을 시봉, 스님의 열반(1946)까지 옆에서 지킨 마지막 법손(法孫)으로서 '천진불(天眞佛)'로 일컬어졌으며, 서예에 능해 당대 최고의 선필(禪筆)을 남긴 고승이다.

"무정설법이 별것 아니니 목전에 역력하여 다만 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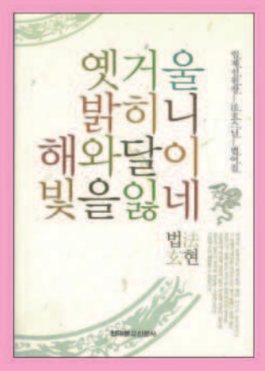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대원스님 지음 | 양장 | A5 | 347쪽 | 13,000원 | 여시아문 펴냄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지극한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밥먹고 똥 싸고 잠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심이 진정으로 성성해져서 매(昧)하지 않으며, 그 의정을 그대로 깊이깊이 끌고 나가면, 내가 의식이 없는 세계에 가서도 그 의심 덩어리 하나가 그대로 성성하게 됩니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나 깨어 있을 때나 관계없이 순수하게 성성한 지경에 가면 비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어떠한 경계든 경계에 부딪혀서 뒤집어 집니다. 번신일전(飜身一轉) 즉 몸을 뒤집어 엎어서 한번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비로소 '아!' 하고 본인이 깨달아서 알 뿐입니다."(본문 중에서)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문과 대담,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방식과 화두 참구법의 핵심을 담은 선(禪)법어집이다.

화두는 분별 없는 마음거울 밝히는 공부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법현 저 | 양장 | 신국판 | 416쪽 | 15,000원 | 여시아문 펴냄

"생사에 대한 분별심은 옛거울(古鏡)의 체와 하나로 같으면서도 그 자체가 허망한 영상으로서 옛거울에는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인 줄 알아버리면 생사를 초월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공포가 없으니 생사의 허망한 그림자로부터 근본적으로 해탈할 수 있다."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의 선(禪) 법어집이다.
생사를 근본적으로 해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말세의 범부라도 허다한 분별심이 본래 없는 옛거울의 지혜로 관조하여 화두를 심두(心頭)에서 끊임없이 일념으로 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생사의 뿌리인 분별심을 근원적으로 끊어버리고 의단을 타파하게 된다고 한다.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중 • 출판 및 구입 문의 (02)2632-8739 • 도서출판 여시아문과 비움과소통은 자매 출판사입니다

1994년 10월 15일 1호를 시작으로 독자분들의 관심과 애정속에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치면 이제 성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현대불교와 인연이 깊은 분들을 오랫만에 만났습니다. 따가운 질책부터 잘한다는 칭찬까지. 부끄럽지만 신문에 대한 주마가편으로 삼고자 그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신행문화에 새바람 일으켜



법산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10년간 논설위원하며 불교계 문제점 꼬집어

창간호부터 약 10년 동안 논설위원이었던 법산 스님. 그동안 참 재미있게 글을 썼다며 지난 시간을 더듬었다.

초대 논설위원에는 고은 시인도 함께였다. 서너명의 논설위원들이 종종 모임을 가지면서 의견도 교류하고 친목도 다졌다.

한달에 한 두 번씩 글을 쓰며 한국 불교의 문제점을 진단하는가 하면 사회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불교계에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난다 싶으면 공정한 시각을 가지길 주문했다.

교계 신문사로서는 처음 실시한 신행수기 공모전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은 경험도 특별했다.

신도들의 신앙심을 북돋아주고 그들이 일상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시한 공모전이었다. 당시 접수된 작품만 수백편. 스님은 심사를 하며 감동도 받았지만 신도들의 절절한 신행활동이 스스로에게 경종이 됐다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이 창간되면서 교계신문에 아주 큰 변혁을 일으켰다 할 수 있죠. 기획력도 남달랐고 교계 언론의 질을 한 층 더 끌어올렸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참 열심히 신문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덕에 독자입장에서 읽는 재미도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도 현대불교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어요.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고 앞으로도 교계신문으로서의 위상을 세워 사회의 등불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초임장교 군장병 포교에 큰 힘



신문 다양한 읽을거리 군법회 법문 자료로 활용

현재 진해기지사령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준용 법사는 군포교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군법당에 찾아오는 장병들에게 '불교 제대로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군법당에는 신문이 비치돼 있지만 사실 군장병들은 불교계 신문에 큰 관심이 없는 편. 하지만 이들 신문은 군법사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전한다. 지난해 부임한 이후 현대불교신문을 읽으며 많은 불교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군부대에 있는 특성상 접하지 못하는 많은 불교계 문화행사를 기사로 보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특히 '학술 문화재'는 불교계 교수들의 논문이 소개돼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 법사는 이제 문화재 지면뿐만 아니라 '길을 묻는 이에게' 등도 세밀하게 읽고 있다. 불자라면 누구나 수행을 해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부분의 칼럼 등도 꼼꼼히 챙겨읽다보니 불자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불서는 없을거란 생각도 들곤 한다.

이처럼 신문 덕에 기반지식을 넓혀 법회를 진행할 때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 신문에 나온 많은 이야기들을 장병들에게 얘기해주면 관심을 갖고 귀를 세우는 모습에 더 열심히 신문을 읽게 된다.

군법당에 비치된 신문들은 군무원들이 갖고 가기도 한다. 이들 또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며 꼼꼼이 읽는다고 하니 이 법사 역시 뿌듯해진다고 이야기했다.

불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같은 기사, 하루의 힘이 되는 밥알 같은 기사를 담은 현대불교신문이 20년을 맞아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이 법사는 전했다.

농산 이준용 법사

교계지 선도 역할 이어갔으면



공채1기, 15년 기자로 근무 질 높은 기획 언론 변화 자부심

현대불교신문 공채 1기로 입사해 15년동안 기자로 근무했다. 당시만해도 조판을 일일이 손으로 그려야 했던 시절이라 마감은 늘 토요일 새벽 5시였다. 갓 꾸려진 신문사라 사진 한장 구하러 산으로 들로 다니는 건 일쑤. 입사 3개월만에 몸무게가 6kg이나 줄었지만 그래도 보람찼다.

불교신행전문지. 신문사가 생긴 이유였다. 이전까지만해도 교계신문은 대부분 불교종단 관련 소식들로 채워졌다.

경영진부터 평기자까지 제대로 된 신행지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밤잠 줄여가며 합심했다. 불교신도들의 수행현장을 쫓아가고 신행 기획기사를 양산해 내는 등 전문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불자들의 신행문화도 적극적으로 바뀌어갔고 가는 곳마다 기사 잘 보고 있다는 인사가 끊이지 않았다.

신문사가 불교계 언론에 앞당긴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인터넷이 도입될 당시 교계지에서는 처음으로 홈페이지를 구축, 실시간으로 뉴스를 전달했다.

"신문사가 점차 성장해가더니 어느 순간 교계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구요. 처음 취재를 갔을 때 데면데면하던 이들도 몇 년 지나니 현대불교신문을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발에 땀나도록 현장을 뛰어다닌 덕에 신문사도 탄탄해져갔고 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커졌다. 올바른 신행지를 만들고자 했던 모두의 노력에 독자들이 응답하기 시작한 것이다.그는 지금 생각해도 현대불교신문에서 보낸 시간을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하고 느낀다.

피땀흘려 일군 신문사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 이게 곧 불법 홍보라며 현대불교신문이 앞으로도 올바른 불법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언론사로서 제 역할을 다해주었으면 한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한명우 청와대 행정관

구법 지혜 얻은지 벌써 20년



이수환 창간 제1호 독자

길을묻는이에게 교리 등 관심기사 스크랩 책 몇권 분량

현대불교신문의 1호 독자다. 신문이 20세 되도록 옆에서 지켜본 이수환씨. 그동안 마음에 드는 기사를 스크랩한 책이 족히 몇 권은 될 정도다.

그야말로 현대불교신문의 산증인인 셈이다. 그는 창간때나 지금이나 현대불교신문을 두고 참 한결같다고 이야기한다. 충실히 신문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돋보인다고도 이야기했다.

아내가 병으로 누워있을 때 현대불교신문을 처음 접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부처님 말씀이 실린 신문에서 지혜를 얻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는 했다. 남들에게는 그저 종이조각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그에게는 깨침이고 힐링이었다.

요즘 즐겨읽는 지면은 '길을 묻는 이에게', '불교로 읽는 고전', 스님들 법문이 주로 실리는 '함께가요 강의실' 이다. 학구적 취향답게 약 40여년을 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그다. 서울 잠신고 교장 선생님으로 2009년 퇴임했다.

그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 참된 교육을 실천하고자 했다.

아이들의 인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람됨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했다.

신문이 도착하는 목요일. 우편함에서 신문을 받아들면 일주일동안 천천히 넘겨가며 읽는다. 기사가 풍부한 것은 좋으나 지면이 많아 독자 입장에서는 소화하기가 조금 벅차다.

팔만대장경의 오자와 탈자를 조사한다고 대학 국문학과 재학시절 해인사에서 3개월 가량 머물렀던 것이 불교와의 첫 인연이었다. 그 후 대행 스님의 법문을 접하고 불자가 됐다.

지금도 한달에 세 번은 경기 남양주에서 안양까지 절에 다니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문서포교로 재소자 삶 변화 '큰 공'



매달 10만원씩 법보시 더많은 이들 읽길 발원

탈 많은 사회지만 그래도 세상을 맑히는 이들이 있다면 김미연씨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성지순례를 간 절에서 현대불교신문을 처음 접하고 구독하기 시작한 지 2년째. 내용도 풍부하고 괜찮은 신문이란 생각에 구독과 동시에 법보시도 신청했다.

살림을 꾸리는 입장에서 1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부처님 말씀을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흔쾌히 마음을 낸 것이다.

"부처님 법문이 재소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 역시 처음 불교를 접했을 때는 말이 쉽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자꾸 읽다보니 마음과 행동이 바뀌더라구요."

불교를 공부하며 화를 덜 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불법의 가치를 새로이 느꼈다는 그다. 그녀가 법보시하는 신문은 전국 약 400여개의 교도소로 전달된다.

낮에는 직장을 다니며 가정을 챙기는 틈틈이 야간 불교대학까지 다녔을 정도로 신심이 깊다. 신문은 회사에 두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짬짬이 읽는다. 부처님 일화나 신행수기를 즐겨 읽는다.

누구보다 알차게 산다 싶은데 이게 다가 아니다. 미혼모 시설과 아동시설에서 주말을 이용해 봉사를 해온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땀을 흘리는 일도, 남에게 군소리 들어가며 번 돈을 쓰는 것도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이들이 잠깐 지속하다 보람찬 기억으로 남기는 것과 달리 그는 꾸준히 자리이타행을 펼치고 있다.

누군가는 무주상 보시의 보살행이 불교의 전부라고 이야기한다. 별 것 아니라고 수줍게 이야기하는 그의 보시바라밀행 덕분에 세상의 누군가는 분명 불법을 접하고 삶이 달라졌을 테다.

김미연 교도소 법보시 독자

창간 20주년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MAI ★ 미얀마 항공 취항 특가 ★

▶ 만달레이 / 바간/헤호 / 양곤 11월18일 / 11월25일 출발 179만원
특급호텔 사용 – 모든경비 포함
▶ 만달레이 / 바간/양곤 5일 99만원
▶ 만달레이 / 양곤 5일 89만원

– 국적기 직항 KOREAN AIR ASIANA AIRLINES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
▶ 인도 & 네팔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 네팔 7대성지 11일 요금문의
뉴델리 – 바라나시 – 사르나트 – 보드가야 – 나란다 – 라즈기르 – 바이샬리 – 쿠쉬나가르 – 룸비니 – 스라바스티 – 럭나우 – 상카시아 – 아그라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 전통불교 완전일주 8일 요금문의
갈레 – 누와라엘리아 – 담블라 – 벤토타 –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 캔디 – 콜롬보 – 뉴델리 – 폴론나루와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수속대행)

중국 4대불산
▶ 구화산&보타산 (지장도량&관음도량) 6일 요금문의
▶ 보현도량(아미산) 5일 요금문의
▶ 문수도량 6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순례 5일 요금문의
태국 방콕 / 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 씨엠립 5일 요금문의
라오스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요금문의
서유럽 4개국 8일 요금문의
미서부 7일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현대불교신문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자성의 불을 밝히는 생활 속의 참선수행도량

나의 참마음이
내 생활의 근본이자
우주의 근본이다

대행선사법어

주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4구 산5-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04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113-3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2-19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449번지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FAX:(1-718)939-3974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FAX:(1-323)766-1316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Tel)031-470-3100 (Fax)031-470-3116